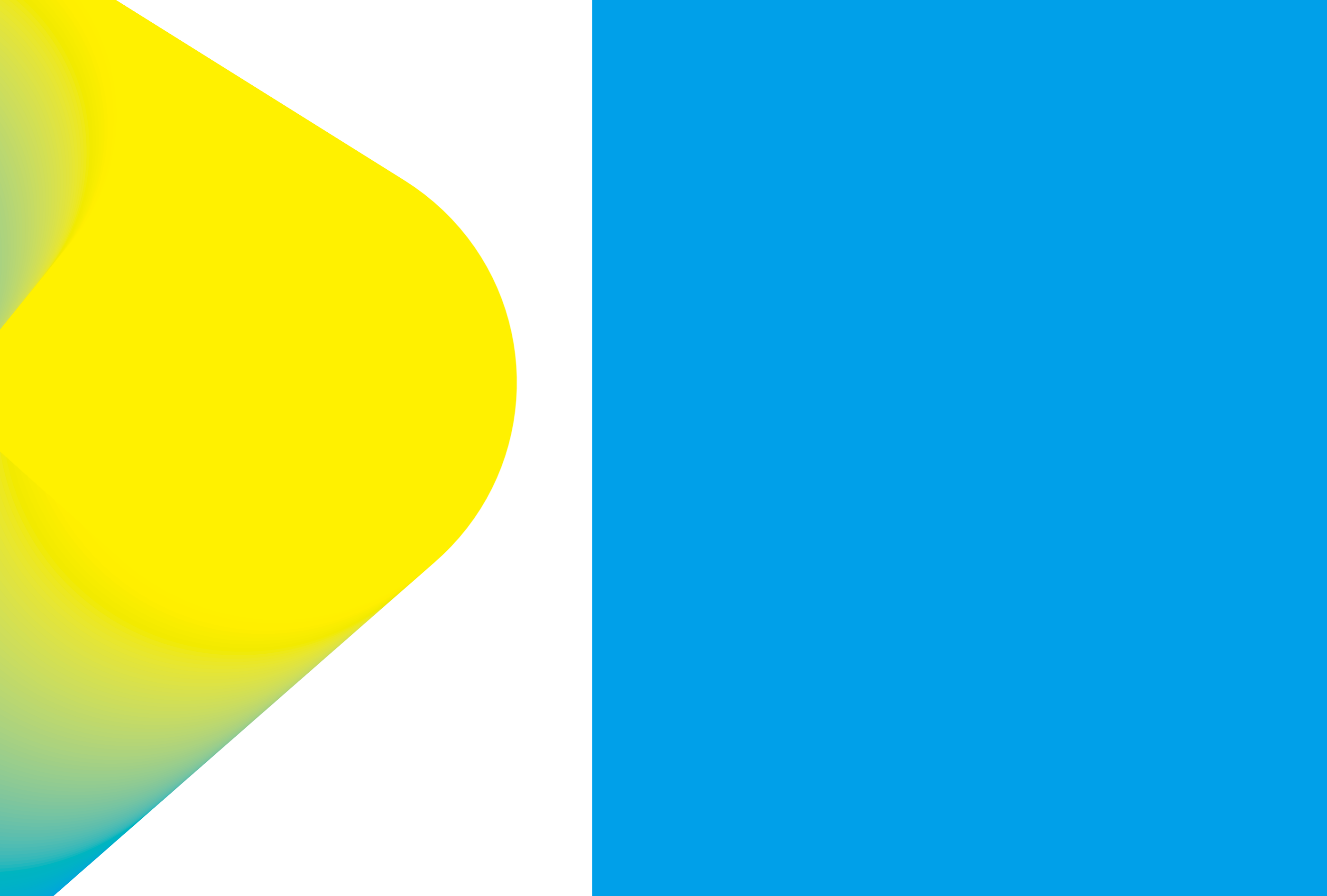




**2018  
창원조각  
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창원조각  
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不刻均衡  
불각의  
균형



**THE  
BALANCE  
OF NON-  
SCULPTING**

6	인사말
<hr/>	
	서문
12	주최의 균형-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총설
<hr/>	
	본전시
28	야외: 유어예 마당
116	실내: 파격
<hr/>	
	특별전시
228	김중영특별전: '불각불각의 미'를 다시 읽다
264	문신특별전: 생명의 형상-Symmetries
276	김포 & 실비아특별전: Solace in Nature
288	영상미디어특별전: 젊음의 심연心淵-순응과 탈주 사이
<hr/>	
318	학술 대회
322	아티스트 워크숍
326	사전행사
329	작가와의 대화
<hr/>	
330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역사
334	창원문화재단 소개
336	작가 리스트
340	크레딧

6	FOREWORD
<hr/>	
	PREFACE
12	DIRECTOR'S ARTICL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The Balance of Non Sculpting(遊於藝)
<hr/>	
	EXHIBITION
28	OUTDOOR: Yueoye Yard(遊於藝)*
116	INDOOR: Destruction
<hr/>	
	SPECIAL EXHIBITION
228	CHONGYUNG KIM: "Beauty of Non-Carving": A Second Reading
264	MOONSHIN: Shapes of life-Symmetries
276	PO KIM & SYLVIA WALD: Solace in Nature
288	VIDEO ART: The Landscape of the Heart of Youth - Between Conformity and Deviation
<hr/>	
318	ACADEMIC CONFERENCE / SEMINAR
322	WORKSHOP WITH ARTIST
326	PRE-PROGRAMS
329	ARTISTS TALK ON SATURDAY
<hr/>	
330	History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334	Changwon Culture Foundation
336	Artist Lists
340	Credit

\*Yueoye(遊於藝): derived from the words of Confucius and reinterpreted as 'playing with artworks.'

# 창원시장 인사말

2010년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을 모태로 시작된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지난 2016년 까지 세 번을 거치면서 국내 유일 조각 비엔날레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조각비엔날레가 창원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은 문신, 김종영,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각계의 거목을 배출한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예술혼을 기리고자 하는 창원시민의 자부심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는 김종영의 문인정신이 함축하고 있는 '불각(不刻)'과 문신의 균제, 조화, '균형'의 정신을 결합한 "불각의 균형 (不刻의 均衡)"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윤범모 총감독의 기획으로 13개국 70개팀의 세계적인 작가들이 펼치는 예술의 향연을 축하합니다.

눈 부시고 가슴 두근거리는 조각공원에 천년을 빛낼 예술문화유산을 차곡차곡 채우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창원의 지역문화 발전 모델이 되고 세계로 도약할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금번,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피어나는 예술의 향기입니다. 청량한 가을 하늘에 피어나는 뭉게구름이 되어 시민들의 가슴을 적시고 참여 작가들에게는 대한민국과 창원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창원시장  
허성무

# Greeting from Mayor of Changwon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which first began as the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in 2010, has become Korea's foremost biennale of a single genre 'sculpture' for the third time including the one in 2016.

The sculpture biennale, which is not easy to find globally, has been able to be held in Changwon due to it being the home of many famous Korean sculptors, including Moonshin, Kim Chong-yung, Park Jong-bae, Park Sung-won, and Kim Young-won and also thanks to the pride of Changwon citizens and their respect for these artists' passion.

Under the theme of "The Balance of Non-Sculpting", which integrates the "literati spirit" of Kim Chong-yung's non-sculpting with the spirit of symmetry, harmony and balance found in Moonshin (civilian officials),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will be held where the audience can enjoy the sculpture art of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with 69 teams from 12 countries participating, including the director Youn Bum-mo.

At the dazzling and heart throbbing sculpture park, the works of art and cultural heritage that will shine for a thousand years will be showcased one by one. I am certain that these efforts will allow Changwon to set an example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while also acting as a driving force towards a global presence.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is the scent of art that blooms in such environment. I sincerely hope that it becomes cumulus clouds on a clear and cool autumn sky to touch the hearts of our citizens, while also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participating artists to gain beautiful memories of Korea and Changwon.

Mayor of Changwon  
Huh Sung-moo

# 시의회 의장 인사말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예향의 도시 창원의 세계적인 조각예술 축제인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창원은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중에 한국 현대 조각 예술의 거장들인 문신선생과 김종영선생의 예술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 곳에서 수준 높은 행사를 기획 해주신 윤범모 총감독님과 훌륭한 작품을 출품하여 감상의 기회를 주신 국내외 작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유일의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창원 조각 역사의 중요한 맥으로서 김종영선생의 문인 정신이 함축하고 있는 '불각(不刻)'과 문신선생의 균제, 조화, '균형'의 정신을 결합한 불가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펼쳐져 창원시민과 창원을 찾은 관광객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축제기간동안 창원전역에서 지역 조각가와 세계적인 조각가들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제공과 대한민국 조형예술의 본향이라는 자부심으로 창원만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 해주신 추진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활성화와 대한민국 조각예술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창원시의회 의장

**이 찬 호**

# Greeting from Chairman of Changwon City Council

I am very pleased that Changwon City, a city of abundant culture and art, will be hosting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a global sculpture festival.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Changwon is a city that is home to many world-famous artists in different cultural and art genres.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Director Youn Bum-mo for having this wonderful event here with the spirit of masters in modern sculpture like Moon Shin and Kim Chong-yung. I would also like to thank all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who submitted their outstanding works for us to enjoy and appreciate.

As an important part of Changwon's sculpture art history, this year marks the fourth year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which is held under the theme of "The Balance of Non-Sculpting" which captures the spirit of Kim Chong-yung in 'non-sculpting' and the spirit of Moon Shin's symmetry, harmony and balance. It will bring new excitement to both the citizens of Changwon and visitors who come to Changwon.

Moreover, the brand value of Changwon City will increase as we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touch the art world of local sculptors and other world-famous sculptors during the festival period, thereby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citizens to enjoy culture and art and be proud as the home of sculpture art in Korea.

Despite of many difficult conditions,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the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everyone who helped to make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a success. I hope that the biennale will promote local artists' creative activities and lead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s sculpture art.

Chairman of Changwon City Council

**Lee Chan-ho**

창원조각비엔날레는 문신, 김종영 등 세계적인 조각가들을 배출한 조각예술도시 창원의 명성을 알리고자, 조각을 특화한 국내 유일의 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조각가들의 예술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비엔날레를 통해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전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엔날레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2018창원조각비엔날레에서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조각 작품 및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즐기고 함께 호흡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연과 도시, 조각이 시민의 삶 속에 함께 어우러지고, 새로운 예술적 경험이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도시와 예술과 사람이 만나는, 창원을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약시키는 비엔날레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장

As the only sculpture biennale in South Korea,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aims to enhance the fame of Changwon, a city that has produced world-famous sculptors, such as Mun Shin and Kim Chong-yung, and to succeed to and develop the art spirit of world-class sculptors.

We are sure that our biennale also possesses the capability to leap into a high-level one showing the trend of contemporary art, through the previous biennales. This year's biennale will enable citizens to enjoy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through the sculptures and programs they can join instead of simply appreciating the works of art.

We promise that the biennale will make Changwon a world-class city of culture and art where nature, city and sculpture are in harmony with each other in daily life and new experience in art collapses boundaries between everyday life and art. We hope that you will give the event much interest and love.

**Chairman Promotion Committee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 불척의 균형: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총설

## 윤범모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 1. 왜 불각의 균형인가

창원은 이름 높은 조각가를 배출한 '조각의 도시'이다. 김종영, 문신,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 등 빛나는 조각가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연은 '창원 조각의 특화'를 강조할 당위성을 갖게 한다. 그래서 창원은 국내 유일의 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로 부상되었다. 창원 작가 가운데 대표작가로 김종영과 문신을 들 수 있다. 김종영은 문인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추상조각의 선구자로 독자적 예술세계를 남겼다. 그의 작품은 '불각(不刻)의 미학'이라는 키워드로 집약할 수 있듯, 비균제의 형태로 자연스런 독자성을 수립했다. 반면 문신은 균제, 대칭, 조화, 균형이라는 키워드로 집약할 수 있는 작업을 남겼다. 같은 추상 계열의 작품 이면서, 이들의 대칭/비대칭, 균형/불균형 등의 조형적 특성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집약시키면서, 조각의 의의를 반추하게 한다. 이에 창원 조각의 정체성(正體性) 특히 김종영과 문신의 예술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두 작가의 예술적 키워드를 이번 비엔날레의 기치로 삼고자 한다. 바로 '불각'과 '균형'이 그것이다.

<불각의 균형(The Balance of Non-Sculpting)>은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불각은 자연스런 상태에의 추구이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추구하게 한다. 무위(無爲)라 하여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깎기는 깎지만 깎지 않은 것 같은 상태, 자연 즉 스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상태, 바로 불각의 의미이다. 불각은 원초성 혹은 자연스러움을 지향하고, 균형은 모순과 질곡의 사회에서 상호 균제를 지향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자연성과 인공성 혹은 정신성과 형식성 등의 개념을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고려하게 한다. 물론 미술에 있어 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요소이다. 경우에 따라 이들 개념의 경중은 있을 수 있으나, 형식과 내용은 새의 두 날개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2018 비엔날레는 자연스러움의 조형성과 복잡한 현실의 사회성을 기본 축으로 하여 입체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담론 중심으로 엮고자 한다. 무엇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작업은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참신성과 중량감이다. 형식의 측면에서 표현 매체와 방법의 확장을 주목할 것이고, 내용의 측면에서 담론 제시 즉 서사성 혹은 문제제기와 같은 작업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두 가지의 특성을 아우른 것이 바로 '파격(破格)'으로 귀결되리라 믿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술의 조형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을 주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각공원은 여타의 경우와 다른 차별상을 보일 것이며, 전시 역시 색다른 발언과 형식을 시도할 것이다.

전시 형식은 실외/실내, 즉 조각공원과 미술관 전시로 양분된다. 실외전시는 용지공원 포정사 앞에 '유어예(遊於藝) 마당'을 조성한다. 유어예는 공자의 말씀에서 빌려 와 나름대로 해석을 달리했다. 바로 '예술작품과 함께 놀기'이다.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은 '접근금지' 즉 '만지지 마시오'라는 주의사항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물론 작품 보존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촉수(觸手) 금지 조치를 취한다. 미술품은 숭배의 대상으로 우러러 받드는 그 무엇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유어예 마당은 이와 같은 관행을 엮고, 대중에게 휴식과 놀이의 기능을 갖도록 안배했다. 한마디로 조각작품 위에서 뛰어놀 수 있고, 미끄럼 탈 수 있고, 앉아 쉴 수 있고, 누워 잠 잘 수도 있다. 한마디로 조각작품과 함께 놀기가 가능한 마당이다.

실내 전시는 성산아트홀,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창원의 집+역사민속관 등에서 펼쳐진다. 성산아트홀은 '파격(破格)' 주제의 다양한 재료와 형식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김종영 특별전도 함께 열린다. 창원의 집 한옥에서는 국내외에서 주목 받고 있는 백남준 이후 대표적 비디오 작가의 작품은 선보인다. 고풍스런 한옥에

서 펼쳐질 미디어 아트 향연은 흥미로울 것이다. 문신미술관은 문신 특별전을 비롯 뉴욕에서 활동한 김포(김보현)+실비아 왈드 부부작가 특별전, 그리고 안종연 팀의 미디어 아트 전시가 소개된다. 이번 비엔날레는 미국, 독일, 벨기에, 루마니아, 중국 등 12개국 60여 작가의 2백여 점으로 펼쳐진다. 이들 작품은 모순적 개념 같으면서도 현대사회의 단면을 집약한 '불각의 균형' 혹은 '파격'에 대하여 발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주류 미술계에서 익숙하지 않은 재료와 표현형식 등을 조명한다. 평면작품의 경우, 머리 카락, 소금, 프레스코, 한지 인화지 등과 같은 재료를 활용한 작업도 주목 한다. 파격은 고정관념을 깨는 행위이고,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는 예술적 행동이다.

### 2. 遊於藝 마당- 예술작품과 함께 놀기

창원 용지공원 포정사 앞의 잔디마당, 이곳에 영구설치의 조각공원을 조성한다. 바로 이번 비엔날레의 중심축을 이루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조각공원의 개념 정리를 달리 시도했다. 즉 단순 조형물로서의 감상 차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이다. 일반적으로 관객은 작품과 거리를 두고 작품을 바라만 보아야 했다. 심한 경우는 작품을 종교적 숭배물처럼 우러러 받들도록 강요당했다. 왜 미술작품은 우러러 받드는 존재여야만 할까. '썩는 미술' 즉 소비품으로서의 미술작품이라면 어떨까. 하여 갖고 놀 수 있는 미술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와 영구 설치하는 조각품이라면, 시민의 사랑을 받는 조형물 즉 예술성과 더불어 기능성을 강조하면 어떨까. 의문은 계속 일어났다. 그래서 공자의 말씀 유어예(遊於藝)를 차용하여, '예술작품과 함께 놀기', 그 이색공간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실 이는 거창한 개념도 아니다. 미술의 사회적 기능 가운데 효용성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작품 위에서 쉬거나 놀기. 유어예 마당은 놀이터 개념을 활용한 조각공원이다. 순수 조형물과 함께 기능성을 강조한 '유어예 마당' 즉 불각균형의 실제적 구현이다.

유어예 마당의 중심은 안종연의 설치작품 <아마란스(Amaranth)>이다. 12m x 12m 규모의 대작으로 형태는 아마란스 꽃이다. 조형적 아름다움과 함께 관객 참여의 기능을 부여한 작품이다. 즉 꽃잎에 해당하는 원형 굴레 안에 역시 원형 평판을 두어 관객으로 하여금 쉬거나 놀 수 있게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벤치 역할. 관객은 꽃 대궐 안에서 즐길 수 있다. <아마란스>의 특징은 이런 기능적 측면 이외 조형 역할을 주목하게 한다. 꽃술 부분의 다채로운 빛깔 즉 LED 장치는 스스로 빛깔을 바꾸면서 꽃의 화려한 이미지를 자아낸다. 수시로 바뀌는 색채의 향연, 그것도 곡면의 색채 변화, 이는 근래 독일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활용이다. 곡면 LED 장치에 의한 화려한 색채 변화,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조형물이다. 특히 야간의 화려한 조명 기능은 가로등 이상의 상징성을 가져 용지공원은 물론 창원시의 상징적 조형물로 주목 받을 것 같다. 이는 유어예 마당의 개념을 제대로 살린 대형 설치작품이라 할 수 있다. 기능성과 조형성 그리고 상징성까지 겸비한 <아마란스>를 통해 이번 비엔날레의 성격을 검토하게 한다.

윤영석의 <심장유희(心臟遊戯)>는 스텐레스 스틸 성형의 심장 모양의 조형물이다. 길이 약 10m 정도의 규모로 잔디마당에 길게 설치된다. 유어예 마당으로 나온 인간의 심장. 심장의 박동은 생명성의 상징이다. 단순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심장 형태의 조형물. 작가는 이와 같은 형태의 설치 작업에 기능을 부여했다. 즉 비스듬히 설치된 경사면을 이용하여 관객은 '뚝자리'처럼 그 위에서 쉴 수 있고, 심지어 미끄럼틀로 활용할 수 있다. 단순 감상용이 아니라 작품 속에서 작품과 일체되어 쉬거나 즐길 수 있게 설계되었다. 심장 위에서 놀기. 또 다른 유어예의 경우이다.

조숙진의 <삶의 색채(Color of Life)>는 드럼통의 집적이다. 같은 형태의 드럼통 35개를 5단 높이로 쌓아 일견 사각형 구조이지만 그 안에서 균형과 조화의 리듬을 느낄 수 있다. 드럼통의 구축은 약간 들쭉날쭉하여 나름대로 변화감과 참여 관객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단순 구조이지만 채움과 비움의 공간 변화를 도모한다. 그러니까 이 단순구조 작품은 영적(靈的) 내면세계를 상징한다. 기성제품의 새롭게 보기. 즉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물을 활용하여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기능성까지 부여했다. 드럼통 구조는 시민의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벌집 같은 각각의 드럼통을 출입하면서 놀 수 있고, 시민은 드럼통 안에서 쉬면서 독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낮잠을 잘 수도 있다. 이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특성을 보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불각의 균형' 프로젝트와 부합되는 작품이다. 조숙진은 뉴욕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작가이다.

구본주의 <비스킷 나눠먹기>는 청동주물 작품이다. 중년 남자 두 명이 서로 마주보고 입을 크게 벌리고 비스킷을 나눠먹는 장면의 조형물이다. 인물 두상의 사실적인 형상력은 돋보이는 부분이지만, 나눠먹기의 스토리텔링을 보이면서 감상의 신선도를 자아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두 인물 사이의 비스킷 즉 기다란 목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공원의 벤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자가 있을까. 유어에 마당을 방문하는 시민은 꼭 이 기다란 의자에 앉고 싶은 욕망을 떨쳐내기 어려울 듯하다. 구본주는 요절했지만 한국 리얼리즘 조각의 대표적 작가였다. 그는 현실 비판과 사회 풍자적 작품을 다수 남겼다. 공원에서 만나는 리얼리즘 미술, 그것도 이색적인 인물 형상, 거기다 기다란 의자 형식의 작품, 주목을 요한다.

임영선의 <불완전한 조각들>은 스테인레스 스틸과 알루미늄 재료의 2m가 넘는 두상이다. 이 두상은 네 군데로 절단되어 관객은 두상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다. 두상 안으로 들어가면 센서에 의해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두상은 현대의 전형적인 중년 남성 모습이다. 하지만 4조각으로 나뉜 얼굴, 각각의 부분은 원색으로 도색되어 있다. 두상의 네 쪽은 인생의 생로병사, 희비애락, 그리고 춘하추동 사계를 의미한다. 이 작품의 주제는 '인생' 즉 사람의 일생을 집약한 것이다. 그래서 두상 내부에 들어가면 갖가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갓난아이의 첫 울음소리부터 병원에 실려 가는 마지막 구급차의 사이렌까지, 그러니까 생사 문제를 포함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의 소리가 담겨 있다. 물론 소리 속에는 불교의 독경이나 찬송가 같은 종교적 소리도 있다.

오채현의 <행복한 호랑이>는 붉은 화강석을 이용한 호랑이 형태의 작품이다. 호랑이는 앉아 있거나 서 있다. 호랑이는 우리네 민담이나 이른바 민화 속에서 즐겨 나오는 소재이다. 벽사초복(邪招福)의 존재이다. 그래서 '까치호랑이' 혹은 신선도에 즐겨 등장했다. 유어에 마당에 우리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식 조형물로 오채현 작가를 선정했다. 한국 상징의 호랑이. 서울올림픽 당시 '호돌이'로 상징했던 우리의 호랑이. 이런 호랑이를 창원으로 모셔왔다. 어린이는 호랑이 조각의 등에 올라 탈 수 있다. 해학적 요소가 강하기도 하다. 이 호랑이 한 쌍은 용지공원의 수호신 역할을 하면서 전통의 현대적 변용의 경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흥미로운 조형물로 이이남의 <피노키오의 거짓말>을 들 수 있다. 거짓말을 많이 하여 코가 길어졌다는 피노키오. 원래 영상작업으로 명성을 떨친 이이남은 미대 재학 당시 조각 전공답게 이번에 조형물을 제작했다. 경쾌한 분위기의 피노키오는 어린이의 관심을 듬뿍 받을 것 같다. 이환권의 <영웅>은 높이 12m의 장대 위에 설치된 인물이다. 원래 이환권은 인체의 왜곡 즉 오목렌즈와 볼록렌즈에 비친 인체 표현으로 유명했다. 흠뻑하거나 뚱뚱한 형태의 인체. 굴절되고 왜곡된 현대인의 상징성을 강렬하게 표현하여 주목 받았다. 이번 <영웅>은 기다란 장대를 이용한 작업으로 공원안의 존재감을 보일 것이다. 재미작가 김청윤의 철제 작품 <무제>는 단순 구조로 고독한 현대인의 초상을 연상시킨다. 인체의 기본은 골격이다. 즉 직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김청윤의 작품은 직선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강한 인상을 자아낸다. 창원 작가의 경우, 공모를 통해 박영선과 백인곤의 화강석 작품이 영구설치 된다.

외국 작가의 경우, Wim Delvoye(뮌헨)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벨지움 대표작가로 참여한 바 있다. 그의 작품은 정교한 디자인과 구조적 특징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철판 재료의 레이저 커팅에 의한 다양한 구조는 주특기이다. 그것도 트럭, 불도저, 시멘트 믹서 같은 바퀴가 있는 차량 형태는 눈길을 끈다. 바퀴는 인류문명 발달사에서 획기적 발명품으로 꼽혀오고 있는 문명의 이기이다. 뮌헨에는 이들 차량 형태에 정교한 문양을 넣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세밀하면서도 좌우 대칭에 의한 레이저 커팅 문양은 감탄사를 연발시킨다. 디자인 가운데 고딕 스타일은 신성과 세속의 상징성을 자아낸다. 그의 작품은 건축과 기계의 형식을 빌려 현대적 감성을 자아내는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번 영구설치 작품 <콘크리트 믹서(Concrete Mixer)>는 뮌헨의 대표적 작품 계열로 현대 입체작품의 또 다른 면모라 할 수 있다.

미르치아 드미트레스쿠(Mircia Dumitrescu)는 루마니아의 대표 조각가이다. 그는 목조작업에 의한 인체 형상을 즐겨 표현했다. 수도 부카레스트의 대표적 조형물이라든가, 특히 문학박물관 진열의 문인 초상작품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루마니아 출신 현대작가 브랑쿠시의 예술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필자가 그의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 작가는 부카레스트 미술학교를 안내하면서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시절의 브랑쿠지 인체작업을 보여주기도 했다. 루마니아는 목조건축 등 목조 문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번 설치작품 브론즈 재료의 <남자>는 두 손을 앞으로 벌리고 서 있는 입상이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면서 단순한 구조여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또 다른 작품 아담과 이브를 표현한 <아담과 이브(Couple)> 역시 흥미로운 작품이다.

울프강 스틸러(Wolfgang Stiller)는 독일작가로 이색적인 작업을 보이고 있다. 설치작품 <성냥개비 세 남자(3 Matchstick men)>는 브론즈 작품이지만, 형태는 성냥개비이다. 그것도 사용한 성냥개비여서 윗부분은 검게 탄 흔적이 있다. 문제는 검은 부분 즉 성냥의 인화물질 부분이 인간의 두상으로 표현되어 있음이다. 결국 성냥개비는 인체이고, 그곳도 발화하여 검게 탄 얼굴이라는 점이다. 이런 성냥개비 인간상이 군집하여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을 이루면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기성제품을 재해석하여 의미를 변화시키는 작업. 성냥개비 작업은 지쳐버린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타버린 모습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상징을 자아내기도 한다. 스틸러의 성냥개비 작업에서 중국 인형극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

폴 샬레프(Paul Chaleff)는 뉴욕거주의 도조작가이다. 그는 흙이라는 물성(物性)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추상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의도(意圖, Intention)>는 어떤 '목적'을 보이고 있는 단순 구조이다. 서 있는 두 구조는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하여 관객은 춤추는 모습, 씨름하고 있는 모습, 밀어를 속삭이는 연인의 모습 등 다양한 연상을 할 수 있다. 형식상 현대 도조(陶彫)의 특성을 충실히 보여주는 작업이다.

### 3. 고정관념에 주석 달기- 본전시<파격>

창작은 고정관념에 도전이라는 속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의 목 말음, 여기서 창작의 길은 열린다. 그래서 도전의식은 돋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도전만이 능사는 아니다. 성경에 태양 아래 새것은 없다고 했다. 인간의 창조행위는 중국식 표현에 의하면, 주석(註釋) 달기 정도이다. 원문 그 자체를 흔들기보다 주석의 형식으로 이견을 짚짚게 하는 정도이다. 그래서 품격을 지키면서 새로운 견해를 추가하기도 한다. 여기서 파격(破格)이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고정관념에의 행동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은 파격의 길 즉 주어진 궤도로부터의 이탈을 꿈꾸면서 새로움을 추구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석 달기 정도가 아니라 본문 자체를 철폐하기도 했다.

일월오봉 병풍은 조선왕조의 왕권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의 권좌 뒤에 일월오봉 병풍을 둘렀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권력. 조선왕조는 어떻게 이미지를 권력의 상징으로 활용했을까. 일월오봉도는 18세기 정조에 의해 파격으로 무너진다. 정조는 책가도를 용상 뒤에 설치했다. 학문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 궁정회화는 형식적으로 채색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은 오방색을 기본으로 한 원색 숭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원색의 궁정회화는 점차 민간으로 퍼져 이른바 민화라는 형식으로 조선시대 말기의 대표적 장르로 발전되었다. 이들 작품의 특징은 형식적으로 채색화이면서 내용적으로는 행복추구의 길상화(吉祥畵)인 우리 민족의 국화(國畵)이다. 현대미술의 파격. 그렇다면 전통적 권력 상징이었던 일월오봉병풍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는 불가능할까. 더군다나 파격을 주제로 내세운 전시에서의 파격은? 고민의 결과, 전통이라는 고정관념에 새로운 '주석'을 달기로 했다. 바로 일월오봉 병풍의 거꾸로 걸기이다. 발상법의 대전환이다. 전시공학의 이의제기와 같다. 일월오봉도는 하늘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고 그 아래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또 그 아래는 일령이는 파도가 있다. 성산아트홀 첫 머리에 거꾸로 선 일월오봉 6국 병풍(오순경 작품)은 '파격' 전시의 상징적 도상이기도 하다.

<파격> 전시의 특성은 표현재료와 기법의 확장과 작품 내용에서의 담론 제시 혹은 이의제기이다. 불각과 균형이라는 상호 모순적 개념을 바탕에 둔 새로운 시도에 방점을 찍고자 한 결과이다. 현대미술의 표현형식은 너무 다양하다. 여기서 재료적 측면에서 다소 이색적인 재료 활용을 주목하고자 한다. 주류 미술계에서 애용하고 있지 않은 표현재료,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황재형은 광부화가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리얼리즘 유희는 광산촌의 인간과 자연을 생생하게 담아 감동의 폭을 넓혀 왔다. 그런 유희가가 '생동맞게' 머리카락으로 그림을 '그렸다'. 태백의 미장원 등에서 수집한 머리카락으로 캔버스에 하나씩 부착시켜 다양한 형상을 표현했다. 하얀 바탕에 검은 머리카락은 일견 수묵화처럼 보인다. 얼마나 정교하게 머리카락을 부착시켰는지 그 기법과 공력에 놀랄 지경이다. 머리카락은 인체의 일부이다. 작가는 머리카락으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했다. 파격이다. <새벽에 홀로 깨어. 세월호 어머니>는 신라 최치원의 시에서 따온 제목 아래 세월호 희생자의 어머니 모습을 담은 것이다. <원이 엄마 편지>는 요절한 남편의 무덤에 넣은 조선시대 여성(원이 엄마)의 심금을 울리는 편지와 더불어 '부장품'으로

넣은 머리카락 신발을 표현한 작품이다. 머리카락이라는 재료로 작업한 배경을 알려주는 작품이다.

안종대의 <실상>은 고무마에 사람 얼굴을 조각하여 말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색적인 작업이다. 안종대는 설치작업으로 말린 식물을 비롯 실, 솜, 쇠, 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그는 금이나 은과 같은 비싼 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변하는 흔한 재료를 선택한다. 변화과정을 주목하면서 작가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화두를 염두에 두게 한다. 임옥상의 <민들레 꽃씨, 당신>은 캔버스 위에 흙이라는 이색재료를 활용하여 그린 작품이다. 임옥상은 이미 땅과 흙이라는 재료를 주목한 바 있고, 특히 논바닥 위에서 작업하고 종이부조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흙이라는 재료. 이번 작품은 배경을 생략하고 서 있는 인물을 담은 작품이다. 김민정의 작품은 한지를 작은 원형으로 오려 그 가장자리를 태워 검은 선을 살린 것을 화면 가득 부착한 작업이다. 한지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활용한 작품이다. 김민정은 단색조 분위기의 평면작업과 함께 유리를 이용한 입체작업을 겸한다. 측면에서 보면 빈 공간이지만 위에서 보면 원형 도상이 보이는 작업이다.

오원배의 <무제>는 판넬 위의 프레스코 작품이다. 유럽 미술의 특징을 보인 프레스코 기법. 작가는 프랑스에서 프레스코 기법을 수학한 후 귀국하여 다수의 프레스코 작품을 선보였다. 심지어 사찰에서 후불벽화를 서구식 프레스코 방법을 응용하기도 했다. 출품작은 작가 특유의 건축적 구조와 부유하는 인체를 한자리에 담은 작품이다. 임채욱의 사진작업 <인수봉>은 사진용 인화지 대신 전통 한지를 사용한 사진작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화지와 달리 한지는 구길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 입체 부조작품처럼 설치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수봉은 서울 시내에서도 보이는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다. 우뚝 솟은 바위산, 수직벽의 인수봉, 그 괴체감을 우둘투둘 입체감의 한지에 담은 독특한 사진작업이다. 이 작품은 작품 뒤에 스마트 조명을 설치하여 관객의 위치에 따라 음악소리와 빛깔이 변한다.

정고암의 <삼죽오>는 벽면용 입체 설치작품이다. 원래 정고암은 석재를 활용한 전각작가였다. 그는 '새김 미술' 운동을 펼치면서 전각 혹은 문자의 현대화 작업에 앞장섰다. 이번 작품은 전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문양과 전각 혹은 부착한 '세 발 까마귀'의 태양을 상징했다. 사각기둥 형식의 부조 설치작품과 영상작품을 함께 출품한다. 송창의 <정원>은 아이론 판 위에 그림을 그리고 오브제를 부착했다. 분단의 상처를 즐겨 표현한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하여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영혼을 위로하면서 화해의 굿마당을 담았다. 이주원의 <길에서 조우하다. 나의 집>은 한지에 아크릴로 도상을 만들고 그 후면에 LED를 장착하여 화면 색상의 변화를 도모했다. 한지와 조명의 조화이다. 작가는 평소 '집'에 관심을 두어, 특히 방랑자의 집을 주목했다. 이번 출품작은 몽골의 천막 집과 같은 형태의 도상에 색깔을 넣어 변화감을 부여했다.

김태은은 미술재료로 익숙하지 않은 소금을 활용한 이색 작업을 보인다. 소금은 '소금에 절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존의 의미, 또 청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태은은 소금만 가지고 안종근 초상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이미지를 만든다. '소금 초상화'는 이색 작품이다. 하태범의 알루미늄 재료의 부조 작업으로 사회성 짙은 주제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다. 백승수는 스티로폼을 활용하여 도상을 만드는 이색재료 활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정광화의 작품은 석고가루의 분진 형태 위에 석고 미니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설치작업이다. 이들 석고가루는 인간의 흐름에 따라 굳어가고, 미니카는 부서진다. 이런 설치 위에 안개는 계속 생기면서 시간성을 환기시킨다. 관객참여의 작품으로 관객은 안개 속을 거닐면서 안개의 형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서용선의 <관계>는 목조 조각 위에 색채를 올린 작품이다. 거칠게 표현한 인물 표현,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의 권력 지향과 소비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군상. 그래서 단순하고 거칠게 인체를 표현했다. 진기종의 <자유의 전사>는 사실적으로 표현한 군인들이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있는 형상이다. 이들 전사는 무기를 들고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가톨릭 신자인 미 해군 특수부대와 이슬람 신자인 알 카에다 부대원. 이들은 마주 보고 앉아 대치 중에 있다. 물론 걸로는 자유를 외치고 있다. 이 작품은 사실적 표현 기량으로 리얼리즘 작품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울가의 입체작품은 개를 소재로 한 작업이다. 원래 그라피티 형식의 작업을 하는 화가의 입체 작업이다. 손정희의 <플레이 보이 맨션>은 도조 작품으로 여성성을 강조한 작업이다. 김창환의 철근과 스테인레스 스틸의 상어 형상을 설치한 작품이다. 배종현의 설치작업은 '낮은 건물 속의 산수'라 할 수 있다. 작가는 도시의 반지하 건물에 살면서, 시멘트 자국 등 건축적 흔적을 주목하게 되었다. 낮은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원가의 흔적은 도시 속의 산수화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하여 작가는 도시 속에서 감상하는 산수화를 미술관 안으로 이동시켰다. 풍자와 해학의 정신, 그러면서도 비판의식이 살아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강애란의 <대한제국의 빛나는 날들>은 고종을 비롯 조선왕조의 자료들을 라이팅 북 형식으로 설치한 작품이다. 작가는 그동안 디지털 북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면서 책이라는 소재를 탈물질화하여 의미변환을 기도했다. 책 형태의 색채와 빛을 활용한 구조의 집적은 신비스러운 정도의 이색 체험을 하게 한다. 한승구의 <피부의 피부>는 동식물의 보호기능인 미미크리(mimicry)를 원용하여 작업한 것이다. 위장과 위협의 기능을 수용한 작품이다. 임흥순의 <북한산>은 탈북여성의 북한산 산행을 담은 비디오 작품이다. 남한에서 가수생활을 하는 젊은 여성을 통하여 남북문제 등 무거운 주제를 다룬 작품이다. 임흥순은 기왕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영상작업으로 일가를 이룬 작가이다. 손봉체의 <금강산도>는 폴리 카보네이트 바탕에 유화로 금강산을 그린 독특한 구성의 대작이다. 작가는 변방 사람을 주목했고, 또 이주민을 형상화했다. <금강산도>는 12폭 대작으로 LED 장치를 두어 매체의 활용을 시도한 작품이다.

쿠이 시우웬(Cui Xiuwen)은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한 여성작가이다. 그의 비디오 작품 <재생>은 무채색 기조로 분절된 영역을 보여 이미지의 최소화를 지향했다. 패턴의 반복작용을 통해 소멸과 재생의 의의를 제기시키고 있다. 작가는 이번 비엔날레 개막 직전 작고하여 창원 비엔날레 출품작이 공식 유작이 되는 불행을 안았다. 미야오 사오천(Miao Xiaochun)은 자이로 댄스(Gyro Dance)의 무용수를 3D 스캔으로 제작하고 디지털 형태로 변화시킨 작품이다. 흥미로운 인체 형상의 율동은 미디어를 활용한 색다른 시각체험을 불러 준다. 이이남의 특별코너. <명칭회화 크로스오버>는 모니터 5대를 사용하여 중국 고전회화를 활용하여 움직이는 변화를 주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높이 5m가 넘는 기다란 설치작업이다. 밤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고전화화. 해피니스>는 전통병풍 형식의 움직이는 도상 작품이다. 이이남의 동영상 작품은 현대기법을 활용한 전통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판화가 홍선웅은 80년대 이후 목판화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실사회를 주제로 한 작업과 별개로 서정성 짙은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작품 <백령도. 종이학>은 2010년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이 침몰되는 등 남북 대치사건을 다룬 것이다. <제주 4.3 진혼가>는 제주의 국가폭력에 해당하는 1948년 제주 4.3사건을 진혼(鎭魂)의 입장에서 만든 목판화이다. <산다화(山茶花)>는 서정성 짙은 작품이다. 소녀는 차를 마시고 있고, 주위에 산수유, 매화, 산다화(동백)가 만발하였다. 화제(畫題)에 '시 한수 지으려고 여기저기 살폈더니 눈 속에 산다화가 붉게 피어 있었네.' 제주 4.3과 천안함을 거쳐 산다화로 이어 온 홍선웅의 목판은 우리 시대의 단면이다. 김준권의 <풍경>은 유성다색 목판화이다. 붉은 보리밭을 소재로 한 정교한 칼질의 이색 작품이다. <산운(山韻)>은 우리 국토의 모태를 표현했다. 첩첩산중의 능선 그리고 양측에서 떠받드는 산자락 형상은 바로 곡신(谷神)의 대지 즉 자궁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48개의 판목을 이어 제작한 대작이다. 특히 사황은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을 장식했던 '역사적 작품'이다. 목판화의 승리. 이번 비엔날레 출품작으로 포토 존을 염두에 두는 작품이다. 폴란드 판화작가 크리스토프 슈마노비츠(Krzysztof Szymanowicz)의 경우도 눈길을 끈다. 윤영희의 <비상>과 <광화문>은 봉황 같은 서조(瑞鳥)를 중심으로 하여 생명성을 표현했다. 새는 모란과 같은 '귀한 꽃'이 아닌 호박꽃을 뿔내며 광화문을 굽어보고, 아니 살펴보고 있다. 윤영희의 작품은 전통 채색화를 바탕으로 하여, 즉 민화의 현대적 접근에 의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전통 채색의 길상화는 우리 민족의 회화로 현대성을 가미할 때 폭발적인 위력을 얻을 것이다.

이정교의 설치작품은 성산아트홀의 로비를 이용한 이색작업이다. 전시실 문과 계단 등 시각적 안정감을 갖아가는 로비를 커튼 형식의 색깔 오브제를 활용하여 공간 성격을 새롭게 구성했다. 그의 공간조각은 오브제의 결합으로 차이와 연속에 의한 장소/비장소, 의식/무의식, 존재/비존재 등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공간 해석을 새롭게 자극한다.

비엔날레 개막행사는 용지공원 포정사 앞의 임시무대에서 펼쳐진다. 특별공연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혹은 불각의 균형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우리 천연염색의 전통이다. 통도사의 성파 방장스님은 일찍이 전통 천연염색을 주목하고, 작품활동과 더불어 염색기법의 교육에도 주력해 왔다. 무엇보다 매년 봄 서운암 산자락에서 펼쳐지는 전통염색 축제는 문화활동의 하나로 주목을 끌었다. 이에 포정사 무대는 천연염색 천들로 지붕을 만들어 출렁거리는 원색의 특별공간을 만들 것이다. 특별 퍼포먼스, 바로 '염색+춤'이다. 춤꾼은 천연염색 웅덩이를 들락날락하면서 춤을 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

안 웃은 원색으로 물들게 된다. 즉흥 염색. 천연염색 퍼포먼스는 시각적 장관을 연출할 것이며 '전통문화 다시 보기' 차원에서 흥미를 이끌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운암 염색반과 음악가 이반 팀의 협업은 '유어에 마당'을 빛나게 할 것이다.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는 '불각의 균형'과 '파격'으로 새로운 미술문화에의 시도이다. 조각공원에 '놀이'의 개념을 넣어 '즐길 수 있는 조각'을 강조했고, 또 고정관념에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파격'을 주목하고자 했다. 일월오봉 병풍 거꾸로 걸기와 같은 이의제기는 논란의 대상일 수 있다. 앞의 파도는 뒤에서 오는 또 다른 파도에 의해 밀려난다. 이 땅에 영원한 존재는 없다. 그래서 변화 과정은 더욱 소중하다. 현장에서 펼쳐지는 염색 퍼포먼스는 상징성을 듬뿍 안길 것이다. 일기일회(一期一會)라 했다. 이 순간은 내 생애 단 한 번뿐이다. 그 한 번의 순간을 위해 예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비엔날레는 이런 문제를 고민한 결과의 소박한 보고라 할 수 있다.

## The Balance of Non-Sculpting: Program Overview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Bummo Youn**

Artistic Director and Chaired Professor of  
Art History at Dongguk University

### 1. Concerning the theme of <The Balance of Non-Sculpting>

Changwon is a 'city of sculptures' that promotes prominent sculptors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rea. This is because it is the hometown of outstanding sculptors such as Kim Chong-Yung, Moon Shin, Park Chong-Bae, Park Suk-Won, and Kim Young-Won. Such a relationship makes it possible to emphasize the specialization of 'Changwon sculpture'. Hence, Changwon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only city in Korea to hold a sculpture biennale. Kim Chong-Yung and Moon Shin are representative sculptors of Changwon. Kim, a pioneer of abstract sculpture, created a unique art world based on the literati spirit. His work can be summarized as the keyword of the 'beauty of non-sculpting'. Likewise, Kim established his own identity in the natural forms of asymmetry. On the contrary, the keywords of Moon Shin's works are uniformity, symmetry, harmony and balance. Their abstract artworks have different formative characteristics such as symmetry and asymmetry, and balance and unbalance and display various aspects of modern art, while making us consider the meaning of sculpture. To this end, the artistic keywords of two sculptors were selected as the banner of Changwon Biennale 2018 in order to inherit and develop their spirit, the identity of 'Changwon sculpture', and they are 'non-sculpting' and 'balance.'

The theme of <The Balance of Non-Sculpting> may seem like a contradictory and paradoxical expression, but "Non-Sculpting" is a non-artificial natural state, a concept that pursues a state of harmony with nature. Being idle is not doing nothing. It refers to a state that is carved but looks uncarved, a state that an object is naturally born with, and that is the meaning on non-sculpting. Non-sculpting pursues the earliness or naturalness, and balance seeks mutual uniformity in a society of contradiction and fetters. In other words, they make the audience consider the contradictory concepts of naturalness and artificialness, spirituality and formality, and others from the complementary perspectives. Of course, forms and substances play significant roles in the arts. One side may be more emphasized than the other, but they are like two wings of a bird.

This year's biennale intends to express the various aspects of three-dimensional work, centering on a public discourse on the formativeness of naturalness and the sociality of complex realities. Also, we want to stress freshness and weightiness in the form and content of artworks. To be specific, we will take note of extensions of methods and expressive media in formality and presentation of discourse such as narratives or raising questions in context, respectively. The combination of such aspects will bring an 'Destruction(破格)'. It means that we will pay attention to both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arts and its social functions. Therefore, the Sculpture Park will show different aspects that are not seen in other places and this year's exhibition will express unusual comments and formations as well.

The exhibition format is divided into indoor and outdoor exhibition spaces, ie, Sculpture Park and art museum. As for the outdoor exhibition space, "Yueoye(遊於藝)" was created in front of Pojeongsa, Yongji Park. The term Yueoye is derived from the words of Confucius and re-interpreted as 'playing with artworks.' Artworks are generally displayed with a sign of 'Do not touch', to prohibit access to them. Of course, the audience is not allowed to touch artwork. Instead, they are considered something to be admired. However, this year's outdoor exhibition space takes a different approach so that it can be served as a place of rest and play for the

public. People can jump on, slide, sit down and take a rest, or lie back and sleep on the sculptures. In other words, the audience can play with the artworks in Yueoye.

Indoor exhibitions are held in Sungsan Art Hall, Moon Shin Museum, the House of Changwon, and History and Folk Museum. In Sungsan Art Hall, artworks in various materials and forms will be displayed under the theme of 'Destruction(破格).' A special exhibition of Kim ChongYung's works will be held as well. At Hanok (traditional Korean house) in the House of Changwon, works of promising video artists at home and abroad, following the trail of Nam Jun Paik, will be exhibited. A pleasing event of media art in a traditional Korean house will capture the eye of the audience. As for Moon Shin Museum, special exhibitions for Moon Shin, artist couples of Po Kim and Sylvia Wald in New York will be held and media arts of Ahn Jong-Yeon will be displayed as well. Changwon Biennales 2018 features sculptures and installation works by some 60 artists from 12 countries including the US, Germany, Belgium, Romania, and China.

They will make a comment on the 'balance of non-sculpting' or 'destruction' that intensely summarizes aspects of modern society. To make it happen, this year's Biennale focuses on unconventional materials and expressive methods that are not rarely used in the mainstream art world in general. Also, flat works made with hair, salt, fresco, traditional Korean photographic paper, and others can be seen. Being destructional is an act that breaks up stereotypical thinking, and is an artistic behavior that unfolds a new attempt.

## 2. Yueoye(遊於藝) - Playing with artworks

The main project of Changwon Biennale 2018 is to create a sculpture park with permanent installations of artwork on the lawn in front of Pojeongsa in Yongji Park, Changwon. We began the project with a different approach to the concept of a sculpture park, which is an attempt to move beyond observing sculptures as objects. In general, audiences should appreciate artworks from distance and are often forced to worship them as religious objects. Why should artworks be considered somethings to be admired? What if we regard them as consumables, namely, "art being consumed." It would be nice to have artworks that can be played with. How about to stress the functions of artworks along with artistic value so that they can be loved by the general public, considering that they will be installed permanently? We kept asking these questions. Those questions were the beginning of our efforts to create a peculiar space of 'playing with artworks' called 'Yueoye', the term was derived from the words of Confucius. It was not a grand concept as we simply stressed the effectiveness among many social functions of art. Taking a rest or playing at the top of artworks. It is a sculpture park that is built based on the concept of a playground. It is a realization of the balance of non-sculpting in substantial form, considering both the artistic features and the functionality of pure sculpture.

At the center of Yueoye is Ahn Jong-Yeon's installation work titled <Amaranth>. This largescale artwork of 12m x 12m in size depicts an amaranth flower. It is assigned with the function of not only formative beauty but also with encouraging the audience to participate in the artwork itself. Circular slabs are placed in petals or halteres of the same shape, creating spaces where audiences can play or take a rest.

Functioning as a bench. People can enjoy the artwork from inside this flower palace. Another noticeable feature of <Amaranth> is lighting. Vividly colored stamens are illuminated with LED devices that change colors by themselves to create the splendid image of flower. A show of frequently changing colors in curved surfaces is possible thanks to new technology that was recently developed in Germany. Fancy changing colors with LED devices installed in curved surfaces will first appear in Korea in the form of sculpture. In particular, colorful lights at night have more meaning than their function as street lamps. Hence, it appears that Amaranth will receive attention as the sculpture representing both Yongji Park and Changwon City. Particularly at night, it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large-scale installation artwork, realizing the concept of Yueoye. <Amaranth> allows audience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is year's Biennale by being equipped with functionality, artistic values, and traits of symbols.

<Simjangyuhui> by Yun Yeong-Seok is a steel molding sculpture in heart shape. It is installed on the lawn and is approximately 10m in length. A human heart appears in Yueoye. The heartbeat is a symbol of life. A simple but meaningful sculpture that resembles a human heart. Likewise, the artist has added functionality. For instance, the audience can take a rest on the plane of obliquely installed sculpture like a 'mat' and they can even use them as a slide. <Simjangyuhui> is not an artwork. It is designed for the audience to create their own harmony so that they can take a rest or enjoy within it or play at the top of heart. It is another example of Yueoye.

<Color of Life> by Jo Sook-Jin is an accumulation of barrels. Jo's artwork has a rectangular structure by laying 35 similarly shaped barrels in 5 rows where audiences can feel the rhythm of balance and harmony. Barrels are unevenly amassed to bring a sense of variation and ensure the safety of participating audience. Although it has a simple structure, Jo's work seeks change in the space of solid and void, representing the spiritual inner world. It provides a new way of looking at existing products. In other words, Jo uses items that are easily found in modern society and provides them with new functionality by changing their nature. Barrels have a structure that can be used as public playgrounds. For example, kids can play by moving in and out of barrels that are structured to have a beehive shape and adults can relax and read a book inside them, or have a nap. Jo's work can be considered to have various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t and complies with the theme of the 'Balance of Non-Sculpting' project. Jo Sook-jin is an up-and-coming artist in New York.

Gu Bon-ju's <Eating a Biscuit Together> is a cast bronze sculpture. This artwork creates a scene of two middle-aged men facing each other with their mouths wide open to eat a biscuit together. The realistic description of their faces is impressive and the storytelling of sharing a biscuit also makes the audience feel the freshness. What is interesting about this sculpture is the fact that it can be used as a bench in the park as the biscuit is replaced with a wooden board. The chair is nowhere to be found. People who visit Yueoye will find it difficult to dispel a desire to sit on this long bench. Even though Gu died young, he was a representative artist of Korean realism sculpture. He created a lot of artwork that criticized reality and satirized society. A realism artwork describing figures in unusual form that can also be used as a bench is definitely noteworthy.

Lim Young-Sun's <Incomplete pieces> depicts the shape of head that is over 2 meters high and is made of stainless steel and aluminum. This head is divided into four parts allowing audiences to enter into the head. When they enter into the head, they can hear various sounds. Lim's sculpture describes a typical modern middle-aged man. However, each piece of the face is painted with primary colors. They represent birth, old age, sickness and death, the four phases of life,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and the four seasons—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The theme of this sculpture is life. It summarizes a man's life. Various sounds are heard inside the head from the first cry of a newborn baby to the ambulance siren that takes the man to the hospital in the final moment of life. The artwork records the sound of birth and death, and joy and sorrow in life. It also contains religious sounds such as Buddhist chants or Christian hymns.

Oh Chae-Hyun's sculpture titled, <Happy Tiger> describes tigers made of white granite. Tigers are sitting or standing. Tigers have often appeared in Korean folk tales or folk painting (Minhwa). It is known as a creature that defeats evil and brings good luck (Byeogsachobog, 邪招福). Tigers are easily found in "Magpie and a Tiger" in Minhwa or Taoist immortal paintings. Oh's <Happy Tiger> was selected to be installed in Yueoye as a contemporary sculpture based on the tradition of Korea. The tiger is a symbol of Korea and "Hodori", a stylized tiger to represent Korean people during Seoul 1988 Summer Olympics, has now been brought to Changwon. Children can ride on the back of the tigers. Oh's work is full of wit. This pair of tigers stands as guardians of Yongji Park, representing a modern modification of tradition.

Lee Lee-Nam's <Pinocchio's Lie> is an interesting sculpture. Pinocchio, a fictional character, is known to have a long nose as his nose grows whenever he tells a lie. Lee made his fame as a media artist. This time, he crated a sculpture, making use of his major in college. It is highly likely that Lee's Pinocchio in a cheerful mood will fully attract the attention of children.

Yi Hwan-Kwon's <Hero> depicts a figure installed in a 12m tall pole. Yi was known for distortion of body or an expression of body that is reflected by convex and concave lenses, for example a skinny or chubby body. Yi received attention from his intense expression of distorted and reflected figures as symbols of contemporary men. <Hero> is created by using a long pole and it will stand as a giant among other sculptures in the park.

The Korean American artist Kim Chung-Yoon's <untitled> has a simple structure and reminds the audience of a lonely portrait of contemporary man. The essence of the human form is in skeletons. It means that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straight lines. Kim's work emphasizes a structure composed of straight lines. As for artists in Changwon, granite sculptures of Park Young-Sun and Baek In-gon, winners of the contest, will be permanently installed.

Wim Delvoye attended the Venice Biennale as a representative artist of Belgium. His work has elaborate designs and a distinctive structure. In particular, various structures that were made possible by using laser-cut corten steels are well-known as his specialty. Truck, bulldozer, cement mixer and other vehicle shapes with wheels are particularly noticeable. Wheels are considered modern conveniences, a groundbreaking invention in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Delvoye carves delicate patterns in the vehicle shaped sculpture. Detailed laser cutting patterns in bilateral symmetry cause the audience to let out exclamations repeatedly. Gothic styles among his designs symbolize the sacred and the secular. His artworks create a unique mood arousing contemporary emotions based on the formation of architecture and machinery. <Concrete Mixer>, a permanent installation in Changwon Biennale 2018, belongs to a representative series of Delvoye and is another aspect of contemporary 3D artwork.

Mircia Dumitrescu is one of the most famous Romanian sculptors. He used to create body shapes in wooden works. A representative sculpture installed in Bucharest and writers' portraits in the National Museum of the Romanian Literature are well known to the public. Dumitrescu deeply understands the artistic value of contemporary Romanian artist Brancusi. When I visited his studio, he guided me into an art school in Bucharest and showed me Brancusi's body work installed in the lobby that the artist created while he was attending school. Romania has the characteristics of wood culture such as wooden architecture. The bronze installation work titled <Man> is a standing statue depicting a man who is spreading his arms wide. Roughly expressed in simple structure, it has a huge symbolism. Another work, <Couple> describing Adam and Eve, is also interesting.

German artist Wolfgang Stiller displays unfamiliar sculptures. His bronze installation work <3 Matchstick men> describes images of used matchsticks that are burnt black. Their heads, where the inflammable substances are present, are expressed as human heads. It means that a matchstick stands for a human body and the head that caught fire and was burnt black represents a human face. An impressive scene of matchstickmen standing tall in groups has significant meaning. A work that changes the meaning of existing goods by reinterpreting their purpose of use. His work represents exhausted contemporary men and the burned-out faces mean that nothing lasts forever. One can easily find that Stiller's <Matchstickmen> is influenced by Chinese puppet show.

Paul Chaleff is a ceramist based in New York. He respects the property of clay and creates abstract sculptures in various forms. For instance, <Intention(意圖)> holds a certain 'purpose' with simple structures. Two standing statues harmonize with each other, while confirming their existence. The two standing statues make the audience recall various images such as dancers, wrestlers, or lovers who are whispering words of love. <Intention(意圖)> sufficiently display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eramic sculpture art in its formality.

### 3. Adding a footnote to stereotypes – Main exhibition, <Destruction(破格)>

A crea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fateful challenge to an existing stereotype; a thirst for something new. That is where the road to creation opens and makes a sense of challenge noteworthy. However, challenge does not directly lead to creation. The bible says, " There is

no new thing under the sun." According to a Chinese expression, an act of creation is to "add a footnote." It is to gently provide a different opinion in a footnote, rather than shaking off the original text. Hence, an artist often adds a new opinion while maintaining the beauty of original work. Here, the concept of Destruction(破格)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is an output of taking action to stereotypes. Contemporary art has always pursued the newness while dreaming of a road to destruction, deviating from the normal track. It does not stop to make footnotes. It sometimes abolished the original text.

Ilwalobong folding screen can be said to be a symbol of the royal authority. There was always a folding screen behind the Taejo Yi Seong-gye's throne of Joseon, who is the founder and the first king of the Joseon Dynasty. It is called Ilwalobongdo, image and power. How did the Joseon Dynasty use image as a symbol of power? The symbolism of Ilwalobongdo collapsed in the 18th century due to the unprecedented decision by Jeongjo of Joseon to install scholar's paraphernalia behind the king's throne as he pursued academic politic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ourt paintings is that they are colored paintings in their form. Korean has a tradition of respecting primary colors based on Obangsaek which represents the five cardinal directions (center being the fifth direction). Court paintings depicted in primary colors spread to the public as 'Minhwa' and established itself as a genre representing art of the end of Joseon Dynasty. They are colored paintings in their form and represent Korean people as Gilsanghwa(吉祥畫), paintings wishing to bring luck in context. The destruction of contemporary art. Then, is it possible to assign a new meaning to Ilwalobong folding screen, a symbol of traditional authority? How would the destruction be interpreted in the exhibition of which theme stands for the destruction by itself? After much thought and consideration, we have decided to make a new 'footnote' to conventional thinking which is to hang the folding screen upside down. It is a paradigm shift and changes our way of thinking. Also, it raises the issues in the engineering of exhibition. Under the sky where both the Sun and Moon rise, there are the five peaks and choppy waves. The six-panel folding screen of Ilwalobong by Oh Soon-Kyung is standing upside down at the entrance of Sungsan Art Hall and it is a symbolic icon of this exhibition titled "Destruction."

The characteristics of <Destruction(破格)> exhibition is to present a discourse or raise questions in expressing materials, extension of methods, and the subjects of artworks. It is to emphasize our new attempt to harmonize the two contradictory concepts—balance and non-sculpting. There are numerous forms of expression in contemporary art. Here, we are focusing on the use of rather unusual materials. What kind of materials can be listed that are rarely used in the mainstream art world?

Hwang Jae-Hyung who is famous as "miner-painter"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impression with his realistic oil paintings by vividly expressing the landscapes of coal-mining towns, including people and nature. The well-known oil painter Hwang 'drew a painting' with hair just 'out of the blue'. One by one, Hwang attached hair collected from beauty parlors in Taebaek and other places to the canvas to express various shapes. Strands of dark hair on canvas make it look like an ink-and-wash painting. Hwang's elaborate skill of attaching strands of hair, his artistry and efforts amaze the audience. Hair is a part of the human body and he uses it to express the various looks of humans. Hence, it is destructional. <Waking alone at dawn - Sewol mother> depicts a mother of Sewol ferry victim under the title derived from the poem of Choe Chiwon, a poet of the late Unified Silla period. <A letter from Mom of Won-i> describes a shoe made of hair or a grave good on the background of a heart touching letter from a woman (mom of Won-i) in the Joseon Dynasty that was placed in her husband's tomb who died young. This artwork lets the audience know the background of creating with hair.

An Zoned's <The Real> is a unique artwork that shows drying sweet potatoes in which human faces are carved. He uses various materials in his installation work such as dried plants, thread, cotton, steel, paper, and others. He does not use expensive materials including gold and silver. Rather, he selects to use changing materials that are easily found near us. By taking note of the changing process, the artist raises a question of the essence of being. <Dandelion Seed, You> by Lim Ok-Sang is created by using soil, an unusual material, on canvas. Lim has already focused on the earth and soil as painting materials and even made a paper relief sculpture by working at rice paddies. Using soil as a painting material, this work depicts two

standing figures without background. Kim Minjung's artwork was created by cutting Hanji (Korean handmade paper) in small circles, burning their edges to highlight black lines, and attaching them to fill the screen. It makes 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Hanji. Kim is dealing with both flat work in monotone and 3D work with glass. It looks empty from the side, but a circular form is found by viewing it from the top.

Oh Won-Bae's <Untitled> is a fresco on acoustic panels. The Fresco method of painting is in the European style of art. He studied the method in France. After returning to Korea, he created a number of Fresco paintings. He even applied the Western Fresco method to draw wall murals in temples. His artwork exhibited in this year's Biennale envisages his unique architectural structure and floating body at the same time. Lim Chae-Wook's <Insoo Peak> is particularly interesting in that this photo artwork was created by using Hanji instead of photographic paper. Unlike photographic paper, Hanji is flexible and can be wrapped so that it can be installed like a solid relief sculpture. Insoo Peak can be seen in downtown Seoul and is considered a symbol of the city. A towering rocky mountain surrounded by vertical walls. This photographic artwork uniquely expressed the stereoscopic and ragged texture in Hanji. Also, smart lamps were installed behind the artwork to change the music and colors along with the movement of the audience.

Jeong Go-Am's <Three Legged Crow> is a 3D installation artwork hanging on the wall. Jeong was originally a stone engraving artist. He practiced the art of "Saeghim" or Korean engraving, a craft traditionally destined to create official stamps and took the lead in the modernization of engraving or letters. This artwork symbolizes the shape of 'three legged crow' that was engraved or installed along with various patterns based on the traditional engraving of Korea. His two artworks—an engraving installation in square column shape and video work—are exhibited this time. Song Chang's <Garden> was created by attaching objects after drawing a painting on iron plate. He used to depict the wounds of a nation divided in the past. This time, Song seeks to console the souls who were sacrificed by state violence and reconcile them. Lee Joo-Won's <Meet unexpectedly on the road-My house> created an iconic figure with acrylic on Hanji and installed LED lamps to change colors on screen. It is a combination of Hanji and lighting. He was interested in 'house', a wanderer's house, in particular. Changing features more vividly appear in this artwork with colors in the icon that is similar to Mongolian Gers.

Kim Tae-Un creates unconventional artworks with salt that is rarely used as fine arts materials. Like the saying 'preserve with salt', salt has a meaning of preservation and purity. He draws a portrait of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An Jung-Geun and creates many other images. This 'portrait out of salt' is an unusual work. Ha Tae-Bum's artworks that are engraved in aluminum panels neatly express the theme with social significance. Artworks of Baek Seung-Su can be considered as the case of using unusual materials such as Styrofoam to create icons. Chung Kwang-Hwa's <La Palette> is an installation artwork in which mini plaster cars are dispersed on dust. The plaster dust hardens and the mini cars are shattered as time goes by. Also, the fog continues to be reformed to remind the audience of temporariness. This artwork encourages the audiences to participate and they can randomly change the shape of fog while are walking through it.

Suh Yong-Sun's <Relationship> is an acrylic painting on wooden sculpture. The rough expression of human figures represents a group of people who pursue power in society and do not get rid of a desire to consume. Hence, their bodies are simply and unevenly described. Zin Ki-Jong's <Freedom Fighter> realistically describes two soldiers who are facing each other. They insist freedom while holding weapons in their arms. A catholic US Navy SEAL and Islamic Al-Qaeda soldier are sitting face to face. They outwardly cry for freedom. This sculpture displays the characteristics of realism art with realistic expressions. Choi Wool-Ga's 3D structure has the theme of a dog. It is a 3D structure of Choi who is well-known for his graffiti style paintings. Sohn Jung-Hee's <Playboy Mansion: Bygone Era> is a ceramic sculpture stressing the femininity. Kim Chang-Hwan's <Swimming> is an installation artwork depicting sharks with iron bars and stainless steel. Bae Jong-Heon's installation can be explained as a 'landscape within an old building'. While living in a semi-basement in city, the artist began to pay attention to ar-

chitectural traces such as cement marks. To him, the cracks in old buildings and other traces of wear began to form landscape paintings. Hence, he relocated the landscape painting from the city into the museum. We can find the spirit of wit and satire as well as critical consciousness in his artworks.

Kang Ai-Ran's <Luminous Days of Korean Empire> is an installation artwork that displays materials and records of Gojong and other kings of the Joseon Dynasty in lighting books. While pursuing digital book projects, the artist sought dematerialization of books by changing their meanings. An accumulation of structure using colors and lights of materials in the shape of books enables the audience to enjoy a unique and mysterious experience. Han Seung-Ku's <Skin of skin> borrows a method of self-defense mimicry of plants and animals to express the function of defense and disguise or camouflage. Im Heung-Soon's <Bukhansan> is a video work depicting a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who is climbing Bukhansan. By showing a young woman who works as singer in South Korea, this work deals with heavy topics such as inter-Korean issues. Im won the Silver Lion Awards at Venice Biennale and had established his fame with his video works. Son Bong-Chae's <Geumgangsando> is a unique largescale artwork painted with oil on polycarbonate. Son paid attention to outsiders and depicted migrants. Geumgangsando is a large painting consisted of 12 screens and seeks to use media by installing LED devices.

Cui Xiuwen was a female artist who engaged in various genres such as painting, photography, video, installation art, etc. Her video art <Play> intended to minimize images with segmented spheres in achromatic colors. With repetitive patterns, she enhances the meaning of extinction and resurrection. Unfortunately, she passed away right before the opening of the Biennale and <Play> became her official posthumous work. Miao Xiaochun's work depicts gyro dancers by transforming their images into digital after 3D scanning. Dancing routines in interesting shapes of human body using the digital media provide audiences with a unique visual experience. A special exhibition of Lee Lee-Nam's work. <Ming & Qing painting crossover> uses ancient Chinese paintings along with 5 monitors to make them move. <On a starry night> is a 5m tall installation depicting an image of shooting stars in the night sky. <Traditional Painting – Happiness> is a moving iconography in the form of traditional folding screen. His video works are noteworthy in that they are a new interpretation of tradition with contemporary methods.

Engraving artist Hong Seon-Wung has received attention since 1980s with his woodcuts. Although his main topics are society and the real world, Hong also creates lyrical artworks. <Baengnyeongdo-Paper Crane> depicted the incident of the South Korean naval vessel ROKS Cheonan sinking near Baengnyeong-do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in 2010. <Requiem for Jeju Uprising> is a woodcut to repose the souls of Jeju Uprising victims of April 3, 1948. <Camellia Flower> is a lyrical artwork. A girl drinks tea surrounded by camellia flower, Maewha (mume), and Japanese cornelian cherry in full bloom. In the artwork, it is written, "I've looked around to make a poem and found red camellia flowers in full bloom under the snow." Hong's woodcuts from the Jeju Uprising to the sinking of the Cheonan, to Camellia Flower are portraits of our generation. Kim Joon-Kwon's <Landscape> is a multicolor woodcut print. Elaborate carvings depicting red barely fields make this artwork interesting. <Rhythm of Mountains-0901> depicts the matrix of our native soil. Ridges in the heart and the foot of the mountain supported from both ends symbolize the void valley of the earth or the womb. It is a masterpiece made by connecting 48 pieces of woodcuts. It was also a 'historic work' that was installed in Panmunjom, a venue where the inter-Korean summit was held. A victory of woodcut. <Rhythm of Mountains-0901> was submitted to this year's Biennale and was considered to be placed in the photo zone. Polish engraving artist Krzysztof Szymanowicz is also noticeable. Yoon YoungHee's <Bisang> and <Gwanghwamun> expressed the liveliness by mainly focusing on phoenix and other auspicious birds. In the picture, birds are looking down or through Gwanghwamun while spitting out pumpkin flowers instead of peony or other precious flowers. Yoon's artwork is appealing as it can be considered as a new and contemporary approach to Minhwa based on traditional colored paintings. Gilsanghwa(吉祥畫) in traditional coloration can emit an explosive power when modernity is added to our ethnic paintings.

Lee Jung-Kyo's installation artwork is a unique sculpture that utilizes the lobby of Sungsan Art Hall.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is newly created by using curtain like colored objects in the

lobby with installations that deprive the place of visual stability including entrance and stairs, and others. In his artwork, spatial pieces combine with objects and encourage the audiences to interpret the place to have new meanings while considering the concepts of place and non-place,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existence and non-existence created by difference and continuity.

The opening ceremony of Changwon Biennale 2018 will be held on the temporary stage in front of Yongji Park. The audience can also enjoy a special performance under the theme of harmony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or balance of non-sculpting. To this end, we focused on the tradition of natural dyeing. Monk Seongpa, the abbot of Tongdosa, paid attention to the traditional natural dyeing and focused on teaching the methods of dyeing along with work activities. Specifically, the traditional dyeing festival which is held every Spring in Seounam at the foot of the mountain drew attention to itself as an important cultural activities. Hence, the Pojeonsa stage will be transformed into a special space of vivid colors with the roof made of natural dyed fabrics. Here, a special performance refers to the combination of dance and dyeing. Dancers will dance by going in and out of natural dyeing pools. Then, their white clothes will begin to take on vivid colors. The improvisation in dyeing, the natural dyeing performance will create a spectacular scene and it will also be interesting from the perspective of taking a new look at traditional culture. Collaboration between Seounam Natural Dyeing Class and the team led by the musician Ivan will brighten up Yueo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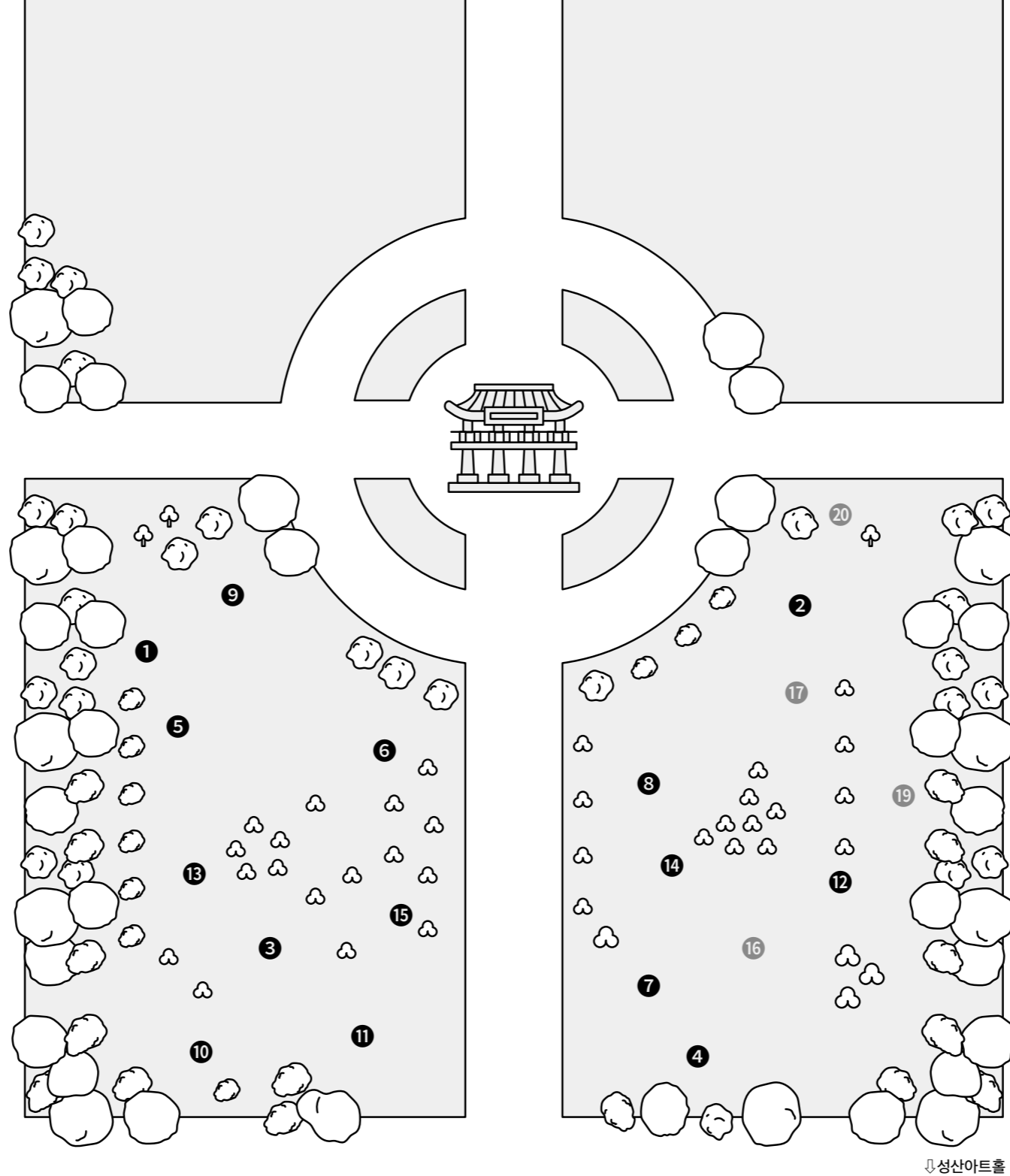
Changwon Biennale 2018 is an attempt to create a new art culture with the 'balance of non-sculpting' and an 'destruction.' We brought the concept of 'play' to Sculpture Park in order to emphasize that 'sculpture can be played with' and also to raise questions to the conventional thinking to take note of 'destruction.' Hanging the Ilwalobong folding screen upside down can be a subject of controversy. However, the wave at the front is scattered by the others. Nothing on this earth lasts forever. Therefore, the process of change is all the more precious. The dyeing performance on the stage will provide ample symbolism. Every moment is a once in a lifetime moment. What would the art do in this once in a lifetime moment? This year's Biennale provides a simple answer to such questions after contemplation.



야외:  
유어예 마당  
遊於藝

OUTDOOR:  
YUEOYE YARD

# 용지공원 Map of Yongji Park



### 참여작가 Artist

- ① 구본주 Bonju Gu
  - ② 김청윤 Chungyoon Kim
  - ③ 안종연 Moha Ahn
  - ④ 오채현 Chaehyun Oh
  - ⑤ 윤영석 Youngseok Yoon
- 
- ⑥ 이이남 Leenam Lee
  - ⑦ 이환권 Hwankwon Yi
  - ⑧ 임영선 Youngsun Lim
  - ⑨ 조숙진 Sook Jin Jo
  - ⑩ 폴 샬레프 Paul Chaleff

### 참여작가 Artist

- ⑪ Wim 델보예 Wim Delvoye
  - ⑫ 울프강 스틸러 Wolfgang Stiller
  - ⑬ 미르치아 드미트레스쿠 Mircia Dumitrescu
  - ⑭ 백인곤 Ingon Back
  - ⑮ 박영선 Youngsun Park
- 
- 임시설치
- ⑯ 이철희 Chulhee Yi
  - ⑰ 김영호 Youngho Kim
  - ⑱ 장두영 Dooyoung Jang
  - ⑲ 이강석 Gangseok Lee
  - ⑳ 이유라 Yura Lee

성산아트홀

가변설치

Bonju Gu

1990년대 한국 구상조각의 전성기에 떠오르는 별로 불리던 구본주 작가에게 '리얼리티(Reality), 즉 현실'은 그의 작업의 유일한 에너지 원천이 되었다. 또한 '조각(彫刻)'은 그에게 있어 부조리한 현실을 사실적이고도 해학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고발하는 그만의 생존방식이었다. 작가는 철저한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그 시대의 애환과 고충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 표현하였다. 창원의 용지문화공원에 설치되는 구본주 작가의 '비스킷 나눠먹기 2' 청동 주물작품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다소 불편한 관계의 두 남자가 서로 마주보고 입을 크게 벌려 비스킷을 나눠먹는 긴장된 장면의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18창원조각비엔날레의 유어예마당에 설치되는 이 작품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주는 스트리트 퍼니처로서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Bonju Gu was regarded as a rising star in 1990s, the heyday of figurative sculpture in Korea. To him, reality was the only source of energy for his work. Also, sculpting was his own method of survival that allowed him to accuse the absurdity of reality in humorous and realistic way. Gu reflected on the difficulties, joys and sorrows of the age through his artworks based on hardheaded realism. 'Eating a Biscuit Together 2', Bonju Gu's cast bronze sculpture which will be installed in Youngji Park, Changwon, depicts a tense scene telling the story of an employee and employer, who are in uncomfortable relationship and facing each other with their mouths wide open to eat a biscuit together. This sculpture that is soon to be placed in Yueoye on the occasion of Changwon Biennale 2018 is expected to be loved by visitors as it has the function of street furniture providing people with a relaxing space.



비스킷 나눠먹기2  
Eating a Biscuit2  
브론즈, 나무  
600 x 110 x 170cm  
2006



Chungyoon Kim

직선의 의미

어느 날 감은 나의 눈 속에 알 수 없는 형상이 만들어진다. 그 형상은 사각의 공간 속에 수직과 수평을 연결하는 여러 개의 사선들이 때로는 덩어리로 때로는 투명한 면이 되어 알 수 없는 형상이 만들어져 움직인다.

그것은 직선이다.

현대 조각은 언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인간형상의 핵심은 뼈대에 있다"라고 말한 두 명의 큰 조각가는 언제나 나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다. 눈으로만 보여지는 형상이 아닌 느낄 수 있는 형상 그것은 언제나 나의 도달점이다. 직선은 강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김청윤

Meaning of straight lines

I close my eyes one day and then unknown shapes are formed. They are composed of a series of diagonal lines connecting a square space vertically and horizontally and they often transform into masses or transparent sides, and continue to shift their forms while moving.

They are straight lines.

When did modern sculptures begin and how did they change? I vividly remember the words of two sculptors who said, "The essence of the human form is in skeletons." I always envision the shapes that are not seen by the eyes, but felt by the heart. Straight lines are strong, powerful, and they are beautiful. - Chungyoon Kim



**Untitled 3**  
Patinated Bronze  
25 x 26 x 145cm  
2018



**Untitled 1**  
Patinated Bronze  
41 x 39 x 300cm  
2018



**Untitled 2**  
Patinated Bronze  
25 x 26 x 155cm  
2018



**Untitled 1,2,3**  
Patinated Bronze  
2018



Moha Ahn

아마란스

아마란스(Amaranth)는 그리스어 ‘amarantos(영원히 시들지 않는)’에서 유래 되었으며 과거 유럽의 수 많은 시와 소설 속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다.

안종연의 ‘아마란스’작품은 관람객이 함께 조각위에서 놀 수 있는 2018창원조각비엔날레 유어예 마당의 대표적인 영구설치작품으로 첨단소재 클라스트 방식의 LED Lighting이 미디어 캔버스가 되어 다채롭고 아름다운 이미지와 영상 등을 연출할 수 있는 융복합형 작품으로 먼 거리에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이다.

아마란스의 아름다운 영상작업 안에는 안종연 작가의 만화경 작업이 포함되어있다. 다양한 문양의 집적, 그 화려하면서도 중첩된 무늬의 세계는 경이로움, 바로 그 자체이다. 만화경은 또 다른 만다라의 세계, 빛으로 만든 색의 퍼레이드이다. 이 같은 빛의 작업을 통해 작가는 존재와 비존재 그러니까 생성과 소멸의 의미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어쩌면 삶과 죽음은 하나(生死一如)라는 담론을 조형적으로 풀어낸 것인지 모른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 시간이 있다. 시간의 축적, 그것이 우리네의 일생이다. 그 시간이 자아내는 소리와 빛, 안종연의 세계이다.

원과 수평선, 수직선이 정수이며 그녀가 회상하는 이미지라면, 물(바다, 강, 또는 폭포)을 모티브로 하는 주기가 있다. 우리는 이미 그녀의 정원 돌조각의 물을 언급했다. 그녀의 많은 작품은 어떤 의식을 제안하고 요구하는 것 같다. 쉬면서 하는 작은 일상의 의식 -물이 담긴 대야를 청소하고, 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아, 멈추고 보고, 비워내는 의식-. 그녀의 예술은 많은 부분이 철학의 일부이다. 아마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과 시간과 함께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새벽이나 황혼의 빛이 알아차릴 수 없게 빛났다가 희미해져 가는 그 느린 변화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모래, 유리, 강철, 빛과 물 예술이다. 그것은 호흡과 빛이 함께 흐르는 곳이다. 물속에 있는 원은 멈추지 않는다.

Amaranth

Amaranth comes from the Greek word ‘amarantos’, which is used to represent eternal beauty in many European poems and novels of the past. Ahn Jong-yeon’s ‘Amaranth’ is a permanently installed artwork at Yueoye Madang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where visitors can play on top of the sculpture. It is a convergence artwork that catches the eyes from a long distance, which uses LED lighting of high-tech clast materials as a media canvas to display diverse and beautiful images and videos.

Inside the beautiful image works of Amaranth, Ahn Jong-yeon’s kaleidoscope work can be found. The world of overlapping patterns with diverse designs integrated beautifully are phenomenal in itself. Kaleidoscope is also another world of mandala, a parade of colors made from light. Through works with light like this, the artist wanted to arouse the meaning of existence and non-existence, or creation and destruction. Maybe the argument of life and death being one is unraveled in a sculpture. There is time between life and death. The accumulation of time is our lifetime. Ahn Jong-yeon’s world is the sound and light made by that time -Yoon Beom-mo, ‘Ahn Jong-yeon’s Art Captured in <Wings of Light>’, Exhibition Foreword

If circles, horizontal lines and vertical lines are the essence and the images that she thinks of, there is a period when water (sea, river or waterfall) was the motif. We already mentioned the water from her garden of stone sculpture.

Many of her artworks seem to suggest and demand certain rituals. Little rituals that we do in our daily lives while resting, such as filling a cleaning basins with water, sitting round a circular table and stopping to see, as well as the rituals of emptying out. Her artworks are in many ways part of philosophy.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flow along together with water and time. We can see the slow changes made when the light of dawn or dusk shines and becomes so faint they cannot be seen. This is the art of sand, glass, steel, light and water. That is the place where breath and light flow together. The circle inside the water will not stop -Tony Godfrey, ‘Circles in water never cease: Moha Ahn’, Exhibition Foreword.



아마란스  
AMARANTH  
Stainless Steel, Glass Casting, Stainless Mesh, X-TEND X-LED Lighting  
1200 x 1200 x 1000cm  
2018







아마란스  
**AMARANTH**  
 Stainless Steel, Glass Casting, Stainless  
 Mesh, X-TEND X-LED Lighting  
 1200 x 1200 x 1000cm  
 2018

**임수미**  
큐레이터

2018창원조각비엔날레는 창원시가 주최하고 창원문화재단이 주관해서 9월 4일(화)부터 10월 14일(일)까지 41일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현대 비엔지스틸 후원으로 창원시 용지문화공원, 성산아트홀,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의 집 등에서 개최된다. 이번 4회 비엔날레의 주제는 김종영의 문인정신이 함축하고 있는 ‘불각(不刻)의 미학’과 문신 작업의 대칭(Symmetry), 조화, 균제 ‘균형’의 세계를 결합한 <불각의 균형(The Balance of Non-Sculpting)>이다.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정체성을 확고히 구축하면서 동시에 비엔날레를 관람하는 대중과의 소통과 다양한 ‘재미’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 용지공원 내 포정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영구설치작품들로 이루어진 ‘유어예(游於藝) 마당’이 있다.

‘유어예(游於藝) 마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의 작품이 관람객과 다양하고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공간이다. 이번 비엔날레의 ‘유어예 마당’은 조각 작품과 함께 놀기 즉 적극적인 대중 참여형의 예술작품 마당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참여한 작가들은 새로운 개념과 형식으로 예술세계를 재구축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작고한 구분주 작가의 <비스킷 나눠먹기>는 현재 우리와 같은 시간에 살고 있지 않지만 스트리트 퍼니처 형태의 작품으로 유어예마당에서 함께하고 있다. 이이남작가의 피노키오의 거짓말이라는 작품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피노키오의 동화와 함께 어릴적 순수했던 감수성을 불러 일으키며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될 것이다. 윤영석 작가의 <심장유희(心臟遊戯, Sliding into the Heart)>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 ‘불각의 균형(不刻의 均衡)’ 그리고 ‘유어예(游於藝) 마당’에 대한 깊은 사유와 통찰이 시각적으로 독특하게 재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임영선 작가의 <불완전한 조각들(Incomplete pieces)>은 작가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단상들, 깨달음과 철학을 ‘생로병사(生老病死), 오욕칠정(五慾七情)의 다양한 소리(Sound)와 인터랙티비티(Interactivity)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연출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담은 많은 유어예 마당의 작품들이 대중에게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재미작가 조숙진의 <삶의 색채>도 있다. 파스텔톤의 화사한 색채의 드럼통 35개가 5단으로 구성되어있다. 관람객들은 드럼통 안에 들어가 쉴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가서 놀 수도 있다.

에드워드 오즈번 윌슨(Edward Osborne Wilson, 1929.6.10 ~ )은 ‘통섭-융합의 지식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에서 예술과 과학 간 상호 교류의 핵심은 혼성화, 즉 ‘과학적 예술’이나 ‘예술적 과학’과 같은 진부한 형태의 혼합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과학 지식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관통하는 통섭의 감각으로 예술에 대한 해석을 되살리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작가의 예술적 영감에 의해 창조된 작품은 관람객의 감수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분석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유일한 창작물이 되는 것이다.

안중연의 ‘아마란스’ 작품은 관람객이 함께 조각위에서 놀 수 있는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유어예 마당의 대표적인 영구설치작품으로 첨단소재 클러스트 방식의 LED Lighting이 미디어 캔버스가 되어 다채롭고 아름다운 이미지와 영상 등을 연출할 수 있는 융복합형 작품이다. 아마란스(Amaranth)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amarantos(영원히 시들지 않는)’에서 유래 되었는데 작가는 창원비엔날레가 해를 거듭할수록 창창히 빛나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영원히 지지 않는 불사의 꽃 ‘아마란스’로 작품명을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란스>는 작품의 길이와 넓이(지름)가 12미터, 높이가 10미터로 끝없는 생성과 소멸의 반복과정을 구현한 입체 동영상 작품인 작가의 만화경 동영상이 아마란스의 꽃봉오리에서 다시 첨단 LED로 구현된다. 24개의 원형(큰 원이 12개, 좀 더 작은원이 12개) 스테인레스는 원 모양의 물 파문을 표현한 것으로 아마란스 꽃봉오리가 물속의 수련처럼 구현되는 LED 연출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영구설치작품이다.

관람객은 멈추지 않는 물 파문과 같은 원모양의 구조물들을 지나가면서 밤에는 밤하늘의 빛나는 별들을 보며 힐링 로드를 걷게된다. 작품의 공간을 체험하면서 관람객들은 우주공항, 우주비행선과 같은 전혀 다른 장소에 와 있는 것 같은 신비한 느낌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바깥 먼 곳에서는 아마란스 꽃봉오리 부분의 만화경 영상 LED 작품을 통해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의 생명의 역동적 아름다움을 빛과 영상으로 체험하게 된다. 끝없는 물속의 파문을 형상화한 12개의 원구조물과 함께 작가의 만화경영상도 끝없이 X-LED와 X-TEND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사용하게 되는 Carls Stars사의 신재료를 통해 화려하게 구현되고 있다. 또한 여기 표현된 꽃잎은 Stainless위에 분체도장으로 마감했다. <아마란스>작품을 설치 시공하는 일에는 독일 ‘CARL STAHL ARCHITEKTUR’의 한국 공식파트너인 제피어스(주)가 협력업체(Co-Worker)로 참여하였다. 독일 ‘CARL STAHL ARCHITEKTUR’의 Colored Stainless Steel ‘X-TEND’ 메쉬와 ‘X-LED’ 케이블 등은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되어 설치되는 기술과 제품이다. 이번 <아마란스>에 사용된 X-LED는 개별적으로 제어 가능한 LED 모듈과 1,650만 색상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이미지를 구현하는 고성능 LED 시스템으로 X-TEND 메쉬 뒷면에 부착 결합하여 3차원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안중연 작가는 사용하는 매체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구현하고자 하는 예술세계를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재료가 첨단 매체가 된 것 뿐이다. 평론가 토니 고드프리 (Tony Godfrey)는 안중연의 작품세계를 한마디로 ‘멈추지 않는 물속의 원(Circles in water never cease)’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안중연의 작품을 보면 오랜 시간 프랑스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한국적 동양성과 철학적인 성격을 갖고 작품 안에 그러한 성격의 독특한 호흡과 흐름을 담아 표현하고 있다.

## An “Amaranth” Blooming in the “Yueoye (游於藝) Yard”

**Lim Soo-mi**  
Curator

Organized by Changwon City and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and under the auspices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Hyundai BNG Steel, 2018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s due to be held in Yongji Cultural Park, Sungsan Art Hall, Changwon City Masan Moon Shin Art Museum, House of Changwon, etc. for 41 days from September 4 (Tu.) to October 14 (Su.). This year's forth biennale covers a subject of “the Balance of Non-Sculpting” that combines “the aesthetics of non-sculpting” implied in Kim Chong-yung's literary spirit with Moon Shin's world of symmetry, harmony and balance. Consisting of domestic and foreign permanent installation works, especially in Pojeongsa, Yongji Park, the “Yueoye (游於藝) Yard” is a representative project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biennale and communicate with and give a variety of fun to the biennale visitors at the same time.

The “Yueoye Yard” is designed in a way that allows domestic and foreign works to communicate with the visitors in various and friendly ways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The Yard enables the public to play with the sculptures and join the event actively. To this end, the participant artists attempt to reconstruct their worlds of art with new concepts and forms. The late Gu Bon-ju currently lives in his works in the shape of street furniture in the Yueoye Yard. Lee Lee-nam's Pinocchio's Lie will be loved by the audience, arousing the pure sensitivity of childhood among them together with Pinocchio fairy tales. Yun Yoeng-seok's Sliding into the Heart visually uniquely represents a deep thinking of and insight into the balance of non-sculpting and the “Yueoye Yard”. With various kinds of sound and interactivity, Im Yeong-seon's Incomplete Pieces three-dimensionally displays the thought fragments, insights and more he experienced. Besides, there are many works of diverse forms and contents to present the public with more active communication and pleasure.

In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Edward Osborne Wilson (1929 -) argues that the key point is not creolization, namely a trite form of mixture like “scientific art” or “artistic science”, but the revitalization of artistic interpretation with scientific knowledge, future vision and consilience in the mutual exchange between art and science. The works created with artistic inspiration do not demand any analytical explanation by stimulating the audience's sensibility directly.

Ahn Jong-yeon's Amaranth is a representative permanent installation work on which the visitors can play together in the Yueoye Yard of 2018 Changwon Sculpture Biennale. This convergent work can create multicolored and beautiful images, videos, etc. using the clustered LED lighting of advanced material as media canvas. The word “Amaranth” stems from a Greek word “amarantos” (amaranthine forever). According to the artist, the title contains his wish that Changwon Biennale will be a more prosperous event over time. 12 m, 12 m and 10 m in width, length and height, the work is a three-dimensional animation of endlessly repeated creation and destruction, which is realized with up-to-date LED in the flower bud. 24 (large: 12; small: 12) circular stainless steel pieces represent the circular waves of water. LED is used to express how amaranth buds are materialized like water lilies.

The public pass by the circular structures such as water waves, and walk on the healing road with shiny stars on the night sky. They mysteriously feel as if they were in completely different places, such as spaceports or spaceships. They also enjoy the dynamic beauty of endless creation and destruction through the LED works of kaleidoscope images in the bud of amaranth in

the distance. Along with twelve circular structures, the kaleidoscope images are realized with X-LED and X-TEND, the new materials of Carls Stars that are us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petal is finished by soft coloring on the stainless steel. The installation of Amaranth was joined by Jepierce, the official Korean partner and co-worker of “CARL STAHL ARCHITEKTUR”. The colored stainless steel mesh, “X-LED” cable, etc. of CARL STAHL ARCHITEKTUR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o complete the work according to the artist's intention. The X-LED used for Amaranth is a high performance LED system materializing moving images using individually controllable LED modules and 16,500,000 colors. This system is optimized to embody three-dimensional images by being attached and combined to the back of the X-TEND. However, An Jong-yeon does not make the used media hold the central place. He simply uses advanced media as the most suitable media for the world of art he wants to materialize. Tony Godfrey refers to his world as “circles in water never cease”. Having studied in France and America for a long time, Ahn gives his own touch to Korean orientality and philosophy in his works.

## Chaehyun Oh

계곡과 산에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뒹굴어 생긴 형태와 피부, 색감과 질감을 존중하면서 그 돌에서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형태를 파내는 것, 물질 속에서 감춰진 생명의 형상을 밖으로 가시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조각이다. 이는 다름 아니라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 놓은 돌에서 어떤 형상을 추출하기 위해 재료를 확대하거나 과도하게 다루지 않고 재료와의 부단한 동화를 꿈꾸는 일이기도 하다. 모든 자연 만물과 자아가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경지를 조각으로 구현해내는 일일 것이다. -박영택 미술평론가, 경기대학교수

조각가 오채현의 호랑이는 우리 조상들의 넉넉한 인정과 지혜, 그리고 그것을 구수한 입담으로 들려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는 작품이다. 이 호랑이에게서 우리나라는 수더분한 인정은 재료인 화강암과 그것을 다룬 손맛 덕에 더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조각가는 그 돌에 순수하면서도 원초적인 형태를 가해 돌이 원래 지니고 있던 특질이 더욱 생생히 부각 되도록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돌호랑이는 우리 할아버지의 너털웃음이 되고 우리 할머니의 함박웃음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푸근한 삶의 온기에 젖게 한다. -이주현 미술평론가

전통 민화의 까치호랑이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 작품은 마주보고 있는 두 마리 호랑이의 형상을 통해서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과, 한국인의 여유롭고 해학적인 감성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가노트

For him, creating a sculpture is to carve stones in the form that they naturally suggest while respecting their shapes, surfaces, colors and textures that are generated from being left in valleys and mountains for a long time, and to visualize the shape of life that is hidden within materials. It is a process of making ceaseless efforts of hoping to assimilate with the materials, instead of mistreating or excessively dealing with them to extract certain shapes from stones that are created by the nature and time.

In other words, it is for all things in nature and the self to unite into one as a sculpture, rather than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Park Young-Taek art critic, Kyonggi University professor

Oh's tigers remind us of the compassion and wisdom of our ancestors and the love of grandparents who used to pleasantly tell the story of our forefathers. The easygoing nature and kindness that are found in them are clearly appeared thanks to the texture of granite and his artistic touch. The sculptor shaped the stone by adding pure and fundamental forms so that its characteristics can be magnified more vividly. Therefore, happy tigers resemble the broad laughter of grandfathers and the grinning smiles of grandmothers and make us fully feel the warmth of life. -Lee Joo-Heon art critic

This sculpture of which motif comes from "A magpie and a Tiger" in Minhwa (Korean folk painting) was intended to depict the love of family and the witty and relaxed characteristics of Koreans humorously with the figures of two tigers facing each other. -Artist's statement



행복한 호랑이  
Happy Tiger  
붉은 화강석  
185 x 80 x 120cm  
2018



Youngseok Yoon

새로운 작업에 대한 하나의 구상을 하고 그 내용과 형상이 현현되는 일은 여전히 긴장되고 가슴 뛰는 일이다.

작품 '심장유회'는 스승 김종영 선생에 대한 기억으로 시작되었다. 생전에 나는 그를 두세 번 정도 가까이 접했던 기억이 있다.

서울 삼선교 언덕 위, 그의 집. 작은 마당이 내다보이는 그 집 마루에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자신의 작품이 놓여있던 마당을 응시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낮은 거실 마루 위로 떨어지던 햇살이 그가 뿜어내던 담배연기와 섞여 웨이드 인 아웃 되던 삼도 흑백 사진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풍경, 열린 검버섯이 돌아난 마른 얼굴에 깊이 있게 자리하여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멀리 응시하던 그 눈길, 시선, 그 속에 자리한 회갈색 빛의 동공을 나는 기억한다. 당시 그의 언어는 거의 예술 일반, 또는 조각가의 삶과 자세에 관한 것이었는데 예술에 관한 내용보다도 이러한 감성적인 분위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아있다.

그 무렵 고답스런 실기수업의 반복과 서투른 아방가르드에의 갈망, 전공에 대한 방황으로 헤매고 다니면서도 학과 사무실 안쪽에 놓여있던 한 점의 조각에 눈길이 가곤 했는데, 이 작은 철 조각은 은밀하지만 강렬하게 나의 시선을 붙잡았고 말을 걸어오곤 했다.

'전설' 이 크지 않은 조각, 녹슨 철판 쪼가리 풀라주는 매우 격정적인 감정의 상태를 마치 기와집 대문이나 홍살문처럼 보이는 추상적 형상으로 응집해 놓은 것이었는데, 별 생각 없이 툭툭 잡히는 대로 거칠게 아크 용접을 한 듯 보였고, 상당히 빠르게, 혹은 순식간에 완성한 듯 한 느낌이지만 누구도 더 이상 가감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상태에 멈추어져 있었다. 확장하고 연결해서 말하자면 로댕의 지옥문을 매우 추상적인 자신의 언어로 번역해 놓은 것 같은 착각도 들게 하는데 지옥문의 인상주의적 사실성보다 매우 간결하고 역동적이면서도 응축된 기운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학창시절 회화, 서양화라는 친숙했던 전공을 뒤로 하고 조각이라는 낯 설은 전공을 선택하게 된 후, 그것과 갈등하고, 방황하고, 휘청거리며 연극, 영화의 세상을 기웃거리던 시간에도 자신의 시선보다 더 먼 곳을 응시하던 선생

의 눈빛과 그 '전설'은 나를 조각의 영역에 남아있게 한 어떤 것이 되었다.

작가의 작품들 중에는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 있기 마련인데 나는 이 '전설'을 김종영 조각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학교 2학년 조국정 선생의 수업에서 루마니아의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지의 작품을 처음 접했다. 흉상 조각과 토르소로 점철되던 시절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하던 내게 브랑쿠지의 조각 '침묵의 탁자'는 너무나 흥미로웠고 새로운 조각에의 기대를 갖게 했다. 브랑쿠지는 조각적 심장을 몇 개 더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나는 '침묵의 탁자'를 브랑쿠지 조각의 심장이라고 생각한다. 피카소의 게르니카처럼, 보이스의 코요테처럼, 백남준의 TV붓다처럼.

출품작 '심장유회'는 스승 김종영 선생에 대한 나의 오마주이다. 창원이 낳은 한국 최고의, 最高 彫刻家에 대한 기억의 오마주이기도 하다. 창원이 우리나라 조각예술의 심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

잔디 위에 낮게 깔린 형상으로 펼쳐진 심장의 형상, 그 속으로 미끄러지고, 함께 놓고, 작품 위를 거닐면서 작금의 조각이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조각이 놀이터가 될 필요는 없지만, 조각 위에서 놀면서 조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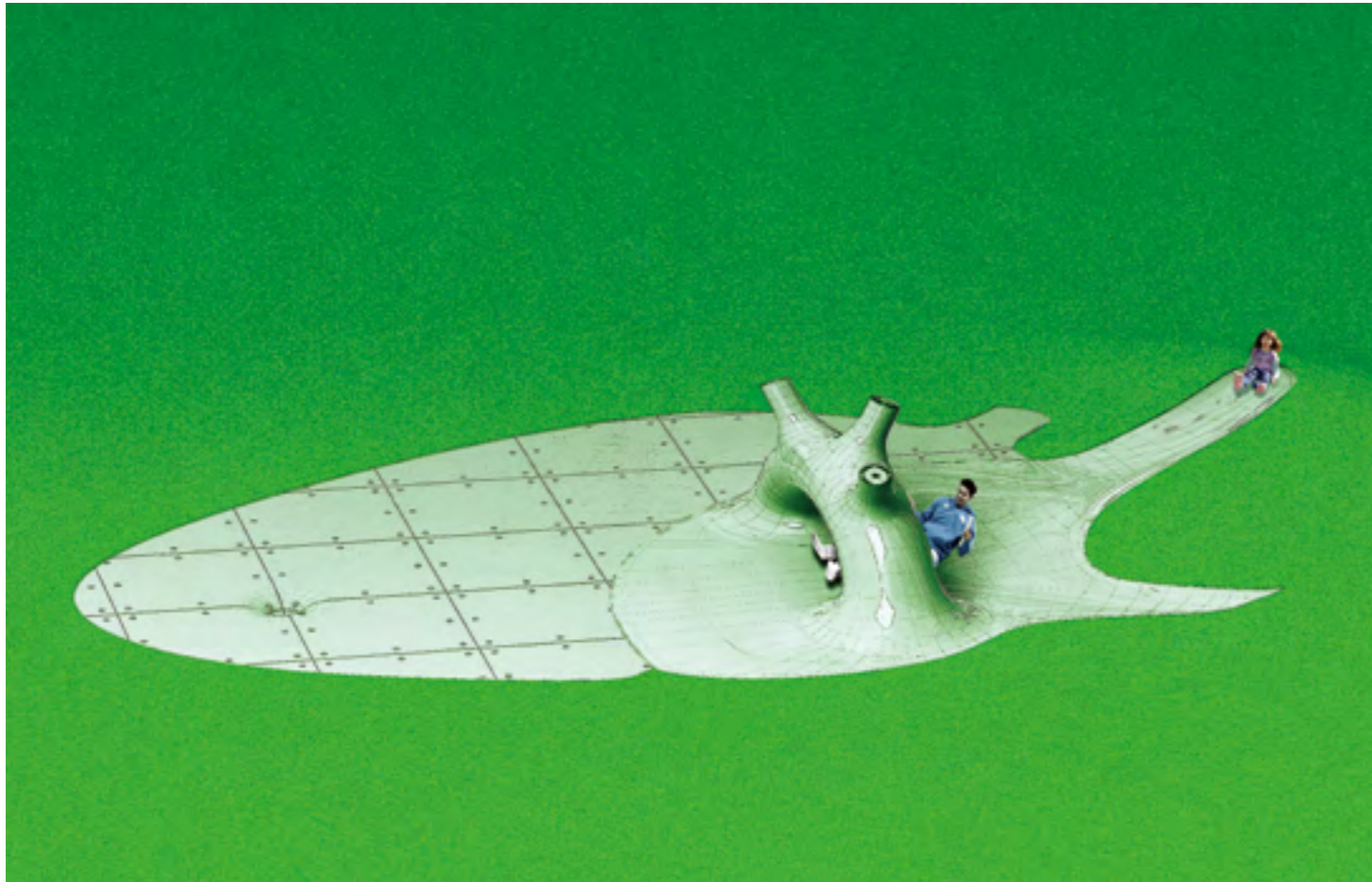
그가살던고향, 나의살던고향, 꽃피는 언덕, 그속에서놀던때.

'전설', 그 심장을 기억하며.

이천십팔 년 칠월 여름에

심장유회  
'심장유회'心臟遊  
Sliding into the Heart  
Mixed Media  
650 x 1000 x 200cm  
2018





심장유희  
 '심장유희' 心臟遊  
**Sliding into the Heart**  
 Mixed Media  
 650 x 1000 x 200cm  
 2018

It is still a heart-throbbing and nervous experience to have an idea for a new work and letting its contents and shape be manifested.

The work 'Heart Game' started from my memory about my teacher Kim Chong-Yung. During his living years, I had a chance to see him up close about two to three times. At his house on top of the hill of Samseongyo Bridge, Seoul. I remember sitting together with his students on the floor of his house looking out at a small yard and looking at his works placed in the yard. I remember the rays of sun that fell on top of the floor area of the worn-out living room and got mixed up with the cigarette smoke he made to look like a black and white photo of fade-in and out, as well as the light age spot on his lean face with his eyes looking farther away than the physical distance and his grayish brown pupils gazing out. At the time, he mostly talked about art, or the life and behavior of a sculpture where the sensuous atmosphere remained in my memory longer than the contents itself.

During this time, even though I was lost because of tiring repetition of practical classes and yearning for the avant-garde and questions about my major, there was a sculpture in the department office that caught my eyes. This small steel sculpture caught my eyes strongly and quietly and talked to me.

'Legend' It was not that big a sculpture, which was a collage of rusty steel pieces that seemed like the most passionate emotional states clumped together into an abstract shape to look like the gate of a tile-roofed house, or a red gate with spiked top. It seemed like arc welding was done roughly as if pieces were picked up randomly without much thought and completed all of a sudden or very quickly, but it has stopped in the state where no one else can add to it. To expand further and add to this, it almost seemed like the Gates of Hell by Rodin was translated into his own abstract language, which was much simpler and vibrant than the impressionistic realism of the Gates of Hell with condensed spirit felt from it.

After choosing an unfamiliar major like sculpture instead of familiar ones like paintings and western paintings, I spent time debating about my decision

and wandering around the theater and movie world.

However, I was still able to remain in the sculpture world because of my teacher's eyes that looked out farther away than his eyes and his work 'Legend'.

Among the artists' works, there are those that contained more pure and fierce passion from the artist than others, and I think 'Legend' is the heart of Kim Chong-Yung's sculptures. I first got acquainted with the Romanian sculptor Constantin Brancusi's works during the classes of professor Cho Guk-Jung in my sophomore year at university. During the times when I yearned for something new when sculptures of bust and torso filled up my days, Brancusi's sculpture 'Table of Silence' was very interesting to me and made me look forward to new sculptures. It seemed like Brancusi had several sculptural hearts, but I think Brancusi's sculptural heart was 'Table of Silence'. Like Picasso's Guernica, Beuys' Coyote and Paik Nam-June's TV Buddha.

My work 'Heart Game' is my homage to my teacher Kim Chong-Yung.

It was a homage to my memories about Korea's best sculptor who was born in Changwon.

It also contained my desire that Changwon became the heart of Korea's sculpture art.

The shape of a heart laid out low on top of grasses.

People can slip inside it, play together and walk on top of it and think about where sculptures are today and where it is headed. Sculptures do not have to be a playground, but I thought that it was needed if it can make people think about sculptures while playing on top of it.

Hometown where he lived, hometown where I lived, blooming hill, the days when I played there.

'Legend', remembering the heart.

Summer of July 2018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목적지 없는 긴 여행을 하고 있다. '피노키오의 거짓말' 작품은 무의식 속 욕망에 사로잡혀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는 지표이며, 하트 모양의 코는 현실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심장과 양심을 의미한다. 다양한 이미지의 허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피노키오의 거짓말'은 현상을 투영하는 매개체로써 역할을 하며 시대상을 풍자, 상징하고 있다.

For many of us living in an era in which boundaries between truth and lies have blurred, life has become a long journey with no clear purpose in mind. In <The Lies of Pinocchio> the artist attempts to navigate the path forward for those blinded by unconscious impulses and desires. With its heart-shaped nose of Pinocchio alluding to human conscience and integrity – traits that guide us to discern truth from illusion, the artwork pokes fun at the plethora of false truths that have pervaded our modern culture.



피노키오의 거짓말  
**The Lies of Pinocchio**  
 Painted Bronze  
 400 x 100 x 180cm  
 2018





1990년부터 26년 동안 한국인 노숙자들에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한끼의 식사를 제공한 이주민.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한 인간의 삶은 물질주의를 초라하게 만든다. 우리는 쉽게 망각한다. 잘 보이지 않아도 영웅은 우리 곁에 우뚝 서있다. -작가노트

실제보다 길게 늘러지거나 납작하게 짓 눌려진 신체. 이환권의 신체 조각은 허리우드키드로 대변되는 영상세대의 추억과 기억 없이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작가의 작업은 와이드스크린 전용으로 제작된 영화필름을 그 비례가 다른 신중 미디어로 재생할 때 생기는 이미지 왜곡현상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렇게 왜곡된 이미지와 함께 이따금씩 비마져 내리는 그 비현실적 비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꿈이 마침내 그의 조각 속에서 실현된다. 그의 왜곡된 신체는 미디어가 재생해낸 이미지를 상기시키며, 일상을 참조한 것이지만 정작 일상보다 더 흥미진진한 시뮬라크라(실제론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받아들여지는 가상 현실)를 암시한다. 그 조각을 지지하는 일상과 이상, 현실과 가상현실의 모호한 경계에 대한 인식은 이처럼 일찍이 작가가 꿈꿔온 영화 속의 세계로부터 건네져 온 것이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작가의 눈에 현실과 일상이 영화 속 세계처럼 비쳐질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상황주의자 기 드보르는 <스펙터클소사이어티>(구경거리의 사회)라는 저서에서 이런 현상을 예감한 바 있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다는 것이다. 인생은 한 편의 영화와 같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제목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인지도 모른다.

마살 맥루한은 미디어가 달라지면 메시지가 달라진다고 했다. 작가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든 신체 조각은 그 공력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미디어적이다. 그러나 첨단을 구가하는 현대판 미디어와는 그 거리가 멀다. 구닥다리 미디어, 따뜻한 미디어, 향수를 자아내는 미디어에 가깝다. 이렇게 작가의 조각 속엔 아날로그 미디어에 대한 추억과 더불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사회학적 인식이 들어있다. 이를테면 하나의 미디어가 폐기되고 신종 미디어로 대체되는 것은(왜곡된 신체에 대한 작가의 경험은 바로 그 과정에서 유래한 것) 경제적인 효용성의 법칙 즉 자본주의 시대의 실질적인 권력구조와 관련이 깊다. 하루가 다르게 폐기 처분 되는 미디어들의 대열 속에서 가장 전통적 미디어인 영화(물론 영화 자체도 진화하지만)에로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려 놓는 작가의 기획은 그래서 더 소중하고 정겹고 공감을 준다. -고충환 미술 평론, '이환권의 조각-왜곡, 현실의 균열과 그 틈새'

A migrant who provided a meal to Korean homeless each day for 26 years since 1990. The life of this great man makes materialism meaningless. We tend to forget things easily. A hero may not be seen well, but he stands tall by us. -The artist's note

Stretched out and flattened bodies, Yi's figural sculpture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without having memories of the media generation. Yi work deals with the distortion created when wide-screen films are played on media with different proportions. At times it seems as though Yi harbors a wish to enter into this distorted vision. His long forgotten dreams have come to life through his sculptures. The distorted forms remind us of images re-created for us by the media, images that reference ordinary and day-to-day situations but are a much more juicy simulacra (something that exists in reality but does not feel like it does) that hint at a virtual reality. The concept of dissolution of the boundary between the ordinary and the extraordinary, reality and virtual reality stems from early in Yi's life, from his dreams and fantasies about the world portrayed in films.

I cannot say for certain, but it seems that to Yi, reality and the ordinary may actually look exactly as they do in films. French Situationist Guy Debord anticipated this phenomenon in his book Spectacle Society. In it he outlines a situation where reality becomes more like a film than any film, and more novel-like than a novel. Their life is a movie, and we are all players in it.

Marshall McLuhan said that if the method of transmission (the media) changes so does the message. Despite the fact that Yi's sculptures are hand-made, they still bear a striking resemblance to the images we see on screen.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a far cry from the flashy, high-tech media that abounds today. In fact, they are more reminiscent of media in the past: rickety, misbehaving, of questionable quality, warm and filled with nostalgia. Yi's sculptures evoke tender memories of this analog technology. After a while, individual media became replaced by mass media and Yi's distorted figures have their roots in the experience of that change. It is a change related to a capitalist eras' practical and materialistic power structure and its rules of economic effectiveness. In the ever-changing media landscape, Yi's work leaves us with a warm feeling and a sense of value for things bygone, by returning us to the most traditional of media - film (although admittedly even film itself has undergone its own type of evolution).-Kho, Chung-Hwan Art Critique, 'The Sculpture of Yi Hwan Kwon - Distortion and Cracks in Reality'



영웅  
Hero  
Aluminum  
23.5 x 32.2 x  
1200cm  
2018



영웅  
**Hero**  
Aluminum  
23.5 x 32.2 x  
1200cm  
2018



영웅  
**Hero**  
Aluminum  
23.5 x 32.2 x  
1200cm  
2018

Youngsun Lim

인류의 문명사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발견중 하나는 뉴턴의 만유인력 이론이고 더 나아가 빛의 굴절의 발견은 미술의 회화사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물리학을 통한 여러 과학적 성과들도 인류의 문명사에 큰 업적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는데 덴마크 출신의 노벨 물리학자인 닐 보어(1885-1962)의 광자이론을 통한 원자모형의 발견은 그중 혁명적 성과이기도 하다. 1927년 벨기에에서 아인슈타인과 그의 논쟁은 유명한데 아인슈타인은 보어의 양자이론을 철저하게 부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둘의 담론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4개로 나누어진 두상은 이런 불안정한 과학적 담론의 과정들과 유사하다. 본인은 불안전, 불안을 주제로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불안의 요소는 현대인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작은 차이로 드러나며 삶의 과정에서 거듭된 실패와 몰락의 담론을 유도해나간다. 마찬가지로 인류역사도 지금도 어쩌면 이런 실패의 과정 내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4개의 조각으로 해체된 두상은 결국 삶의 과정과 유사하다. 이 구조체는 끊임없이 완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완전한 상태인 것이다. 음이 곧 양이고 양이 곧 음인 셈이다. 또한 4개의 조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한다. 첫 번째 두상에서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 시작한다. 이어서 심장박동소리, 웃음소리, 울음소리, 바람소리, 신음 소리, 여러 노래들, 결국은 임종직전의 거친 숨소리를 마지막으로 인생의 희, 노, 애, 락의 삶의 탄생과 죽음의 여러 과정들을 소리로 대신하여 표현된다.

One of the greatest discoveries of human history was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and the refraction of light also brought about a significant change in the history of painting. Scientific achievements based on physics have provided breakthroughs. For instance, the Bohr model of the atom through the light quantum theory by Niels Bohr (1885-1962), a Danish physicist who received the Nobel Prize in Physics, can be said to be a groundbreaking discovery. The Bohr-Einstein debates that were made in Belgium in 1927 were well known and Einstein thoroughly denied Bohr's theory throughout the arguments.

In the end of debates, however, Einstein faced a dilemma.

The shape of a head divided into four parts is similar to the process of incomplete scientific discourse. I had been working based on the two themes—incompleteness and anxiety. Elements of anxiety appear with a small difference during all process of the life of contemporary men and they induce a discourse of repetitive failures and downfalls. Likewise, it might be that the human history continues to be created during the process of failures.

The fragmented head in four pieces is like the process of life. This structure has a complete state already and there is no need to make efforts to be complete. In other words, Yin is Yang and vice versa. Also, the four pieces represent four seasons—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The first and second parts begin with the cry of a child, followed by sounds of the heartbeat, cry, wind, moaning, a series of songs, and heavy breathing before death to the last. The birth and death process and moments of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in life are expressed as various sounds instead.



불완전한 조각들  
Incomplete Pieces  
Aluminum, Sound  
System  
300 x 300 x 220cm  
2018



불완전한 조각들  
**Incomplete Pieces**  
 Aluminum, Sound  
 System  
 300 x 300 x 220cm  
 2018



불완전한 조각들  
**Incomplete Pieces**  
 Aluminum, Sound  
 System  
 300 x 300 x 220cm  
 2018

Sook Jin Jo

“삶의 색채”는 사색과 놀이의 인터랙티브 공간 및 퍼포먼스 공간으로, 삶을 탐색하는 개인과 공동체적 협력을 대비시킨다. 이 작품은 원래 1999년 뉴욕시의 <소크라테스 조각공원>에 세워졌으며 작가가 꿈의 근거로 제작되었다. 자신의 꿈 속에서, 전쟁같은 세기의 종말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작가는 우리가 그런 순간을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은 그들 각자만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죽음의 순간은 모두가 긍정적으로 경험하길 희망하는 우리 삶의 일부이기도 하다.

자신의 꿈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 작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자신을 명상할 수 있는 장소를 창조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만들어졌다. 관객들은 빈 공간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작품의 안과 주변에서의 활동과 움직임을 느끼고 경험한다. 이 작품에는 수많은 “삶의 색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Color of Life” is an interactive and performative space for contemplation and play, contrasting the exploration of the individual with that of communal collaboration.

This installation was originally created at the Socrates Sculpture Park in New York City in 1999 and was based on a dream the artist had. In the dream people were dying in despair, like a war zone or the end of the world. As a result of that dream she began to think about how we each have to face that moment. Everyone has a different moment when facing death. We don't know when it will come. It is a part of all our lives that hopefully everyone can experience positively.

In response to her dream and the thoughtful contemplation it engendered, the artist created a space where people can contemplate their own transformation, and do so at the same time and place where children play. The viewer experiences the emptiness yet also senses and experiences the activity and movement in and around the playful structure. There in lies the irony of the many “colors of life”.



삶의 색채  
Color of Life  
70 used barrels, steel tube, eco-friendly paint, mixed media  
Engineer: Chang Minwoo Structural Consultants  
540 x 325 x 195cm  
2018



Youngsun Park

재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우 자유로우신 것 같습니다. 초기 작품부터 지금까지 재료가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재료를 바꿀 때,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료에 자유로운 편입니다. 제가 용접도 좋아하고, 철, 돌, 화강암으로 작업도 했었고, 최근 작업실 주변 바닷가에서 주운 편마석으로 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맞는 최상의 재료를 선택하니까 재질에 자유롭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재질을 바꾼다기보다는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중에 '이주'와 관련한 시리즈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에게 '이주'란 어떤 의미 이기에 이렇게 지속해서 표현하시는 걸까요? 작품들에서 '외로움', '고독'처럼 어디론가 향해서 손을 흔드는 듯한 그런 감성이 드는 이유도 '이주'와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은 초반에 생성이 있고 나이 들어가면서 삶이 좀 분명해지고 죽음으로 마무리되죠. 인간의 삶은 현재에서 만족을 찾기보다는 무언가를 찾아서 늘 이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공간 안에서도 늘 이주하고 새로운 이주지를 찾으며 방향하죠. '이주'의 역사는 인류의 연대기적 기술입니다. 최초의 인류도 어떻게 떠나고 계속 어딘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꿈과 희망, 자신의 영혼을 찾아 가는 길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늘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제 삶이고요. 아마도 그런 영혼의 찾아가는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예술가에게는 정착하지 않는 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5년간 방황이 있으셨다면 가족들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요. 전업 작가로서 가족들은 어떠세요?

전업 작가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그럴 거예요.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다른 예술가들은 사립학원 일도 하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안 했어요. 대학에서 강의 조금 하고 조각 작업 관련으로 불규칙한 일을 하고. 아내에게 많이 미안하죠. 아이도 이제 대학생인데 멀티미디어 쪽 학과를 갔어요. 예술인들에게 '가족부양'이라는 말은 여전히 힘듭니다. 끝없는 꿈과 희망, 자신의 영혼을 찾아가는 길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늘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제 삶이고요. -삶은 끝없는 이주, 문화누리 2018년 7월호

It seems that you're very flexible about choosing materials, which have changed many times from your early works to the latest ones. Do you have any particular reasons to change materials?

I'm flexible about materials. I like welding, I like steel, stone, granites, and recently I'm assembling gneiss I got from the beach near my workroom. I'm flexible about materials because I choose the materials that best fit my ideas. There are no particular reasons to do so. Maybe just because I'm full of curio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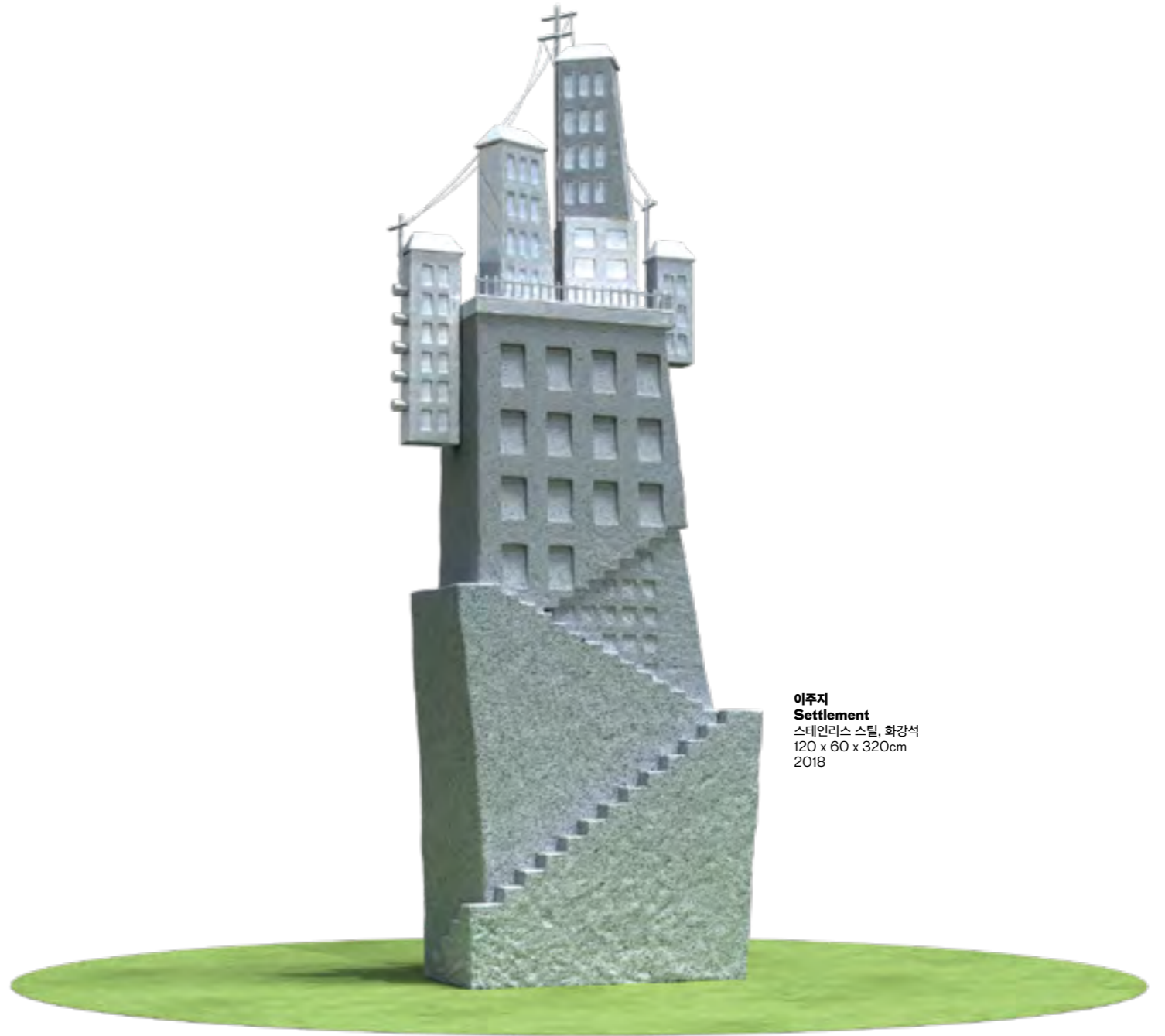
There are a series of works related to migration. What does it mean to you so you're sticking to it? Feelings like loneliness and solitude, waving hands at somewhere, expressed in your works may be associated with 'migration.'

Life begins, and life becomes clear when we age, and life is finished with death. I think the human life is a process of migration in search of something, rather than settling in the status quo. We keep moving and finding new settlements within the time and space we live in. The history of migration is the chronicle of the humankind.

Think about the first men. Their lives were about continually leaving and finding somewhere new. I believe that life is about finding endless dreams, hope, and our soul. I, too, find my life a process to search for those things. Perhaps we feel lonely about the searching process of the soul. I think artists have a mentality not to settle down.

If you've wandered around for 15 years, that must have been a hard time for your family members. How do you feel about them as a full-time artist?

I assume that any full-time artists would feel like me. I feel sorry. Some other artists use to work for private academies, but I've never done that. Just doing some teaching at university and irregular sculpture works. I feel so sorry for my wife. My kid is now a university student, studying multimedia. Providing for a family is a hard thing for artists. I believe that life is about finding endless dreams, hope, and our soul. I, too, find my life a process to search for those things. -Life is an endless migration, Munhwa Nuri, July 2018



**이주지 Settlement**  
스테인리스 스틸, 화강석  
120 x 60 x 320cm  
2018





이주지  
**Settlement**  
스테인리스 스틸, 화강석  
120 x 60 x 320c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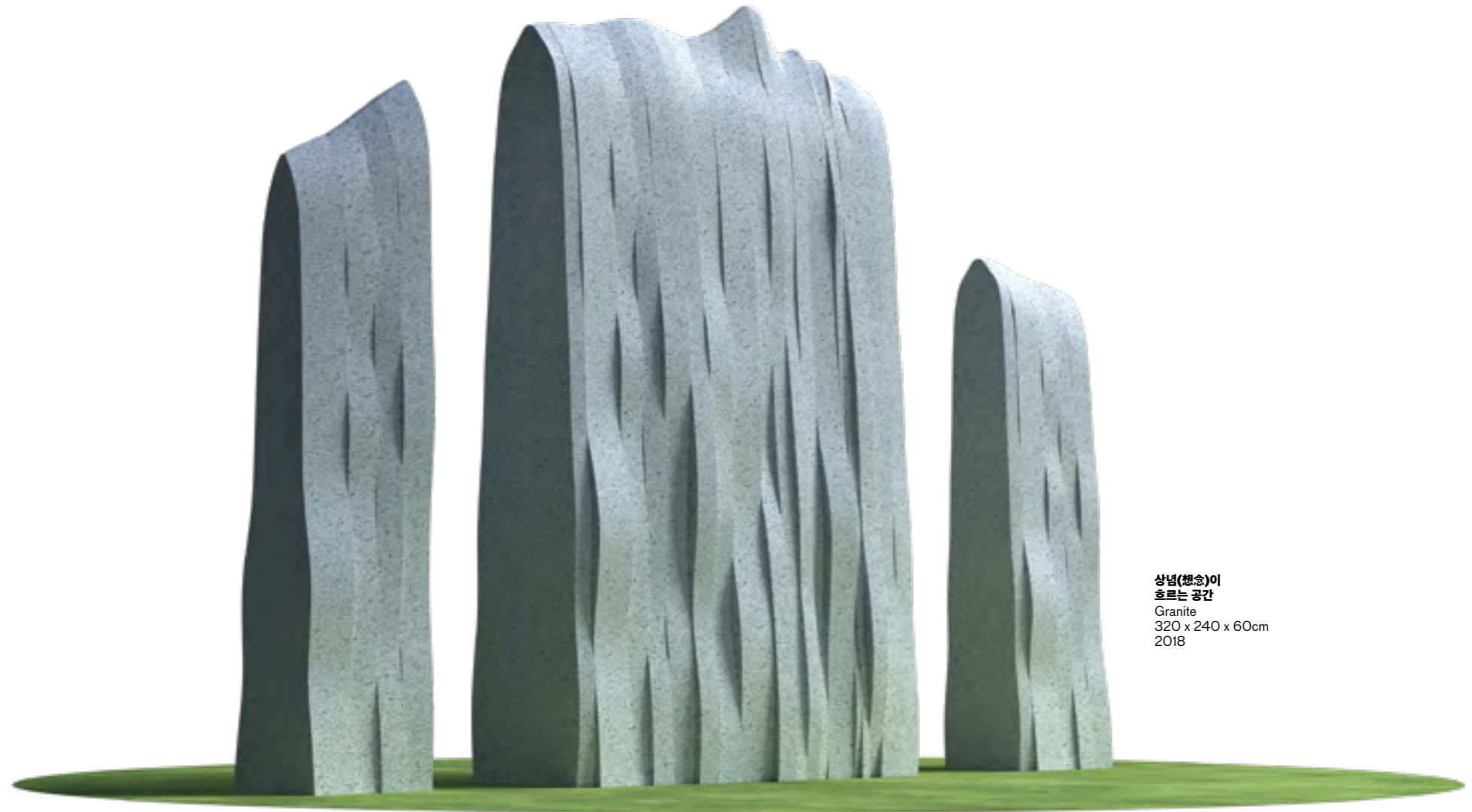
## Ingon Back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생각 즉 상념의 바다 속을 걷고 있다. 과학의 발전으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데서 오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 행복한 삶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작가의 고민 등 여러 가지가 상념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상념을 잊고 하늘을 보며 편안해 하는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념의 흐름을 흐르는 물에 비유하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생각도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여러 갈래의 물줄기는 여인의 머릿결과 오버랩 되어 보여 지며 이물줄기 들은 상념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많은 상념들과 살아가지만 때론 그 상념들을 상념의 바다 속에 던져 넣으며 잠시 상념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잊고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본 작품은 창원비엔날레 '불각의 균형'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작품을 위해 여인의 얼굴은 최대한 단순하게 묘사하고 조각을 최소화 하여 편안함을 표현하였고, 물줄기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 흘러내리는 듯 웨이브만 표현하였다. 또한 작품의 측면은 좌우 대칭되어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We are walking with the many different thoughts we have. In other words, through a sea of meditation. Concerns about uncertainties and rapid changes in the future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the desperate desire for a happy life, artists' agony to make masterpieces, and many more. This piece is a representation of a lady looking up at the sky in comfort without miscellaneous thoughts. The ever-changing flow of thoughts is compared to the flow of water, implying that thoughts flow as we wish like water flows from the top-down. The several streams of water overlap with the lady's hair, representing the diversity of thoughts. Humans live with many thoughts but sometimes pursue comfort without thinking about life, throwing their thoughts into the sea of mediation.

Being true to the main theme of Changwon Biennale, the Balance of Non-sculpting, the lady's face was simplified to the greatest possible extent and sculpting was minimized to express comfort. The water streams just look wavy as a representation of their natural flow. The sides of the piece are symmetrical for a balanced, stable look.



상념(想念)이 흐르는 공간  
Granite  
320 x 240 x 60cm  
2018



Wim  
Delvoye

고딕은 그로테스크의 전형, 숭고함의 정수, 전례(典禮)의 구현, 고전의 폐기, 구조적 문자의 명료화, 12-13세기에 일어난 로마네스크 양식을 잇는 프랑스 양식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다. 2001년부터 고딕을 자신의 것으로 품은 벨기에의 아티스트 윌 델보예는 고딕 양식에 새롭고 현대적인 자극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을 유럽의 봄날의 본보기라고 부르고 있다.

델보예의 고딕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레이저 커팅 철판으로 만든 고딕 장식을 수놓은 실물 크기의 건설기계들이다. 이러한 작품에서 그는 크고 작은 조각을 결합해 트럭, 불도저, 시멘트 믹서 등의 일상적인 사물의 기념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고딕은 이러한 조각이 만들어지는 원재료, 물질로 사용되었다.

윌 델보예가 창원 조각 비엔날레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수학적 대칭과 골격의 트레이서리를 보여주는 콘크리트 믹서(Concrete Mixer)로, 건축과 기계, 신성과 세속, 여성성과 남성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계이다. 고딕 양식의 북유럽 성당에서 조립 부품을 가져온 이 작품은 고딕 건축의 성스러운 조화와 우주의 질서를 연상시키며 가벼움과 밀도를 동시에 보여준다. 콘크리트 믹서는 천상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허용하는 지상의 일시적 구조의 창조에 대한 상징으로 기능한다(이와 관련해서는 델보예의 고딕 타워를 참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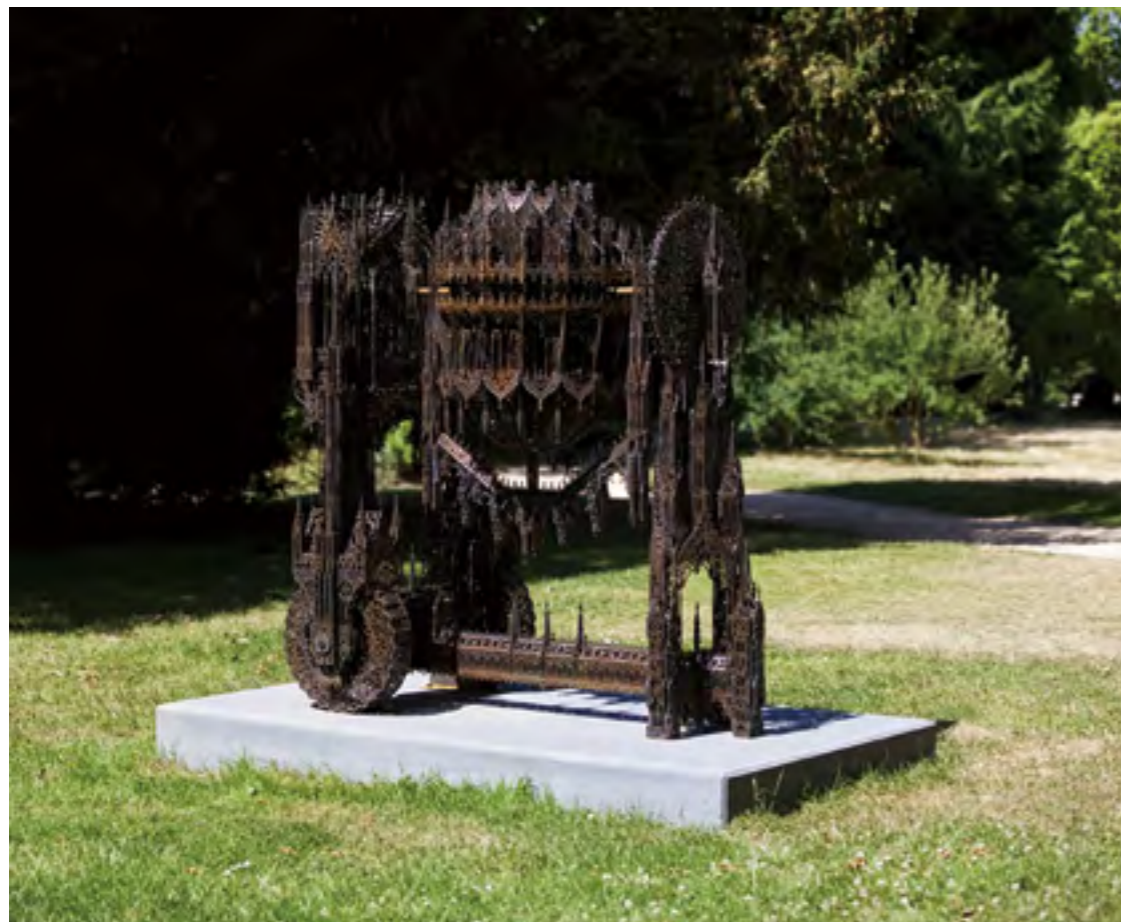


**Concrete Mixer**  
Corten Steel  
86 x 167 x 167cm  
2010

Gothic has been called many things: the epitome of grotesque, the essence of spirituality, the embodiment of liturgy, the abandonment of classical, the clarification of a structural problem, and the French style subsequent to the Romanesque, which rose in the 12th and 13th centuries. Starting in 2001, Belgian artist Wim Delvoye, began to call Gothic his own, giving a new contemporary impulse to this style, describing it as an exemplum of a European springtime.

Prominent within Delvoye's Gothic body of works are his life-size construction machines adorned in Gothic decoration made out of laser-cut steel. In these works, he marries small and large-scale pieces to create monuments of everyday objects like trucks, bulldozers and cement mixers - Gothic is employed as the raw material, the substance from which these sculptures are made.

With its mathematical symmetry and skeletal tracery, the work Wim Delvoye will be presenting at the Changwon Sculpture Biennial, entitled Concrete Mixer is a hybrid machine, combining the architectural and mechanical, the divine and the secular, the feminine and the masculine. Deriving its composite parts from Gothic Northern European cathedrals, the work evokes the representation of divine harmony and cosmological order in Gothic architecture and conveys both lightness and density. The concrete mixer functions as an emblem for the creation of earthly temporal constructs in order to allow for human aspirations that reach towards the heavens (see also Delvoye's Gothic towers to that effect).



**Concrete Mixer**  
Corten Steel  
86 x 167 x 167cm  
2010



**Concrete Mixer**  
Corten Steel  
86 x 167 x 167cm  
2010

Wolfgang Stiller

MC: 볼프강씨, 대화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매치스틱맨(Matchstickmen)”을 정말로 좋아하는데요, 그런 컨셉트를 어떻게 생각해 내셨습니까? 순회 전시인가요?

WS: 저는 보통 새로운 작품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아이디어나 컨셉트가 떠오르고 적절한 소재를 찾아서 아이디어를 “3차원”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제가 찾는 소재에서 옵니다.

MC: 소재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WS: 때로는 스튜디오나 외부에 놓여 있는 물건을 발견하고 새로운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예술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전통적인 조각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한번도 나무나 돌을 가져다가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진 물건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맥락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거나 초기 재료로 사용해서 특성이나 본래의 목적을 변화시킵니다.

MC: “매치스틱맨”에서도 그런 컨셉트를 확실히 사용하셨죠.

WS: “매치스틱맨”은 두 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중국에서 영화를 위한 마케팅 제작에 사용하고 남은 머리 모양의 틀이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베이징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또 다른 설치작품 주변에 굴러다니는 두꺼운 대나무 조각들도 있었죠.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놀다가 어느새 대나무 막대 위에 머리를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첫 번째 “매치스틱맨”은 둥글었고 덜 성냥개비처럼 보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대나무의 품질이 좋지 못해서 잠시 후에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각목으로 교체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이죠.

MC: 정말 멋지네요. 전시된 것에서 상당한 통일성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전부 타서 잔혹해 보입니다. 거의 군인처럼 보이죠.

WS: 저는 설치작품, 특히 특정 장소에 대한 설치작품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설치물을 하나의 “매치스틱맨”으로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냥갑을 만들고 서로 다른 크기의 “매치스틱맨”을 만들었죠. 물리적인 작업을 해 나가는 동안 작품의 의미와 내용이 성장하고 작품의 모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성냥개비 머리”를 독

일어로 부르는 방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슈트라이히홀츠코프 (Streichholzkopf)”라고 하죠. 실제 머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성냥개비 머리보다 독일어에서 더 센 용어라는 것이죠.

MC: 그 숨은 의미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WS: 이 설치작품의 보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측면입니다. 누군가는 타버린 성냥을 소모되거나 지쳐버린 인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작품은 전장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단순히 누군가 성냥으로 장난을 치고는 버리고 간 놀이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머리들은 중국 사람들로부터 구한 것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는 짐작으로 이어지죠. 누군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비유가 서양의 체계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냥갑은 단순히 설치작품 내의 형태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고, 관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성냥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게는 주로 인간 존재의 비영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열어놓는 것을 좋아하는데, 누군가의 상상력을 위한 공간을 남겨 놓지 않는 예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순회 전시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많은 전시를 하고 있고 “매치스틱맨” 안에서 서로 다른 설치작품을 만드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모든 새로운 공간마다 자신만의 특징이 있고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저는 항상 “매치스틱맨”과 함께 새로운 작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 내는 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3 Matchstick men**  
Bronze  
20 x 20 x 240cm (2 Pieces)  
20 x 20 x 225cm (1 Piece)  
2018



MC: Hey Wolfgang. Thanks for chatting with me. I really love your "Matchstickmen." How did you come up with that concept? Is that a travelling exhibition?

WS: In general, I have two different ways to approach a new series of works: One is that an idea or a concept, comes to my mind and I'm looking for the right material to transform the idea into a "three-dimensional" work. The other approach comes through materials I find.

MC: Where do you find your materials?

WS: Sometimes I discover random things sitting in my studio or somewhere outside and I get an idea for a new work. Maybe I need to say that I'm an artist who doesn't start from scratch. I don't consider myself a classical sculptor since I've never been tempted to take wood or stone and try to do anything with it. I like to work with prefabricated things I run into ... changing the character or original purpose by using them in a different context or simply using them as an initial element.

MC: You definitely used that concept to great effect with "Matchstickmen."

WS: The "Matchstickmen" belong to the second category. I had some head molds sitting in my studio which were a kind of leftover from a mannequin production I did for a movie in China. Back then, I was living in Beijing. I also had some pieces of thick bamboo wood lying around from another installation that I had done. I was playing around with those two elements and after a while the heads ended up on the bamboo sticks. The first "Matchstickmen" I did were round and less readable as Matchsticks. Luckily the bamboo was bad quality and started cracking after a while so I exchanged it with square lumber, which is the final result you can see now.

MC: They're so cool to me. When seen on display, there's such a great uniformity to them. The heads are all burned and brutal-looking. They look almost military.

WS: Since I am mainly interested in installation and especially in site-specific ones, I started to develop an entire installation out of the single "Matchstickmen". I built matchboxes and created different sizes of "Matchstick-

men". The meaning and content of a work grows while I'm in the process of doing the physical work and it leads to more concrete directions about what the work is going to look like. I really like the literal aspect of "Matchstick head" that in German is called, "Streichholzkopf." It refers to an actual head: in other words it is a stronger term than in the German language for matchstick head.

MC: So what would you say is the meaning behind them?

WS: This is the more playful and fun aspect of this installation. One could read those burned matches as worn-out or burned-out human beings. The installation can appear like a battlefield or just like some playground where someone played around with matches and dropped them. All the heads I've used so far are from Chinese people. This sometimes leads to the assumption that this is a criticism of the Chinese government. One can read it that way, but I think this metaphor could be used for any Western system as well. The matchboxes could be simply seen as formal elements within the installation, as coffins or simply as matchboxes. To me they mainly represent the impermanence of our human existence. I actually like to keep it open since I don't like art that leaves no space for one's own imagination. This is not a travelling exhibition. Right now, I am having lots of exhibitions and it's exciting to create different installations with the "Matchstickmen". Every new space has its own character and asks for a different approach. I always get new ideas for new works with the "Matchstickmen" and I'll continue as long as I come up with something fresh.

### 3 Matchstick men

Bronze  
20 x 20 x 240cm (2 Pieces)  
20 x 20 x 225cm (1 Piece)  
2018

# 미르치아 드미트레스쿠

**Mircia  
Dumitrescu**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예술은 살아있다. 누군가 시험관에서 만들어내려 하지 않는 한.

개체의 발생에는 반드시 계통이 있어야 한다. 태아기에서 온전히 발달하는 대신 우리가 양수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원치 않게 반복했던 물고기, 파충류, 오래된 포유류의 얼굴을 하고 나온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는가? 태아 발달 중에 개의 단계에서 머무른 인간은 괴물이다. 예술 작품 아니겠는가?

우리가 “우월한 포유류”의 단계를 택한다면, 전부 아메바로 돌아가는 건 어떠한가? 아니면 종벌레는 어떤가?

전통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측면에서 대중과 창작자를 교육하는 일은 지대하게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정확한 철학적 의미, 집합적인 문화적 주체로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 전달되는 영적 “종(種)”의 시작부터 어떠한 이유로든 중히 여길 이유가 없는 창조의 우연을 통한 것이 아닌 문화의 구성요소로서 우리 자신을 창조하기 위한 모든 변증법적 필수 단계를 통해 이어지는 오늘날에 이르는 유기적 진화의 과정으로서 전통을 이해해야 한다. 양식적 관점에서 볼 때 전통의 중시는 현재에 대하여 특징적이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기리는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해준다. 과거는 여럿인 동시에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아는 정도, 다른 이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는 방법에 달려있다. 루마니아 조각에서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도 번성하고 있는 발부데아 - 파치우레아 - 메드레아 - 포포비치 트렌드, 또는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조르제스쿠, 잘레아, 앙헬 등의 트렌드 외에도 오늘날 미르치아 두미트레스쿠, 니콜라에 파두라우와 연결되고 있는 가네스쿠와 그의 표현주의적 그로테스크 양식이 있고,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브랑쿠시가 있다. 우리가 오로지 이러한 계통 중 하나에 따라 만들어진 예술만을 사실주의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사실주의와 혁신 사이의 관계 또한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묵상을 낳는다. -사실주의와 전통, 이온 프룬제티, 1977년 10월 “Contemporanul” 매거진에서 발췌

**Man**  
Bronze  
120 x 20 x 176cm  
2013



**Couple  
(Adam&Eve)**  
Bronze  
48 x 30 x 174cm  
2016

Art is alive, just like any being, unless one tries to manufacture it in a test tube.

Its ontogeny must have a phylogeny. But, can we consider as being biologically commendable a man who, instead of fully evolving during his intrauterine stage, comes out with the face of a fish, a reptile or an ancestral mammal, whose aspects we have all unwillingly repeated, when we were still bathing in amniotic waters? A man who has remained in the foetus evolution at the dog stage, would be a monster. A work of art, wouldn't he?

And if we chose the “superior mammal” stage, why wouldn't we go all the way back to amoeba? Or to vorticella?

Educating the public and the creators in terms of admiration and respect towards tradition is profoundly necessary and useful, but in order to do that, we need to understand tradition in its exact philosophical meaning: as an organic evolutionary process, from the beginning of the spiritual “species” which we convey through our existence as a collective cultural agent, and up to the present day, passing through all the dialectically necessary steps in order to create ourselves as constituents of culture, and not through creation accidents, which have no reason to be cherished. Valuing tradition is, from a stylistic point of view, characteristic for the present: what we cherish from the past depicts who we are today. The past is at the same time, multiple and unitary.

It depends on what we know, how much we know and how we make others know about it. Let us not forget that, in Romanian sculpting, apart from the Valbudea - Paciurea - Medrea - Popovici trend which existed and is still thriving, or the other trend, Georgescu, Jalea, Anghel, which is also productive, there is also Gănescu and his expressive grotesque, who is nowadays linked to Mircia Dumitrescu and to Nicolae Păduraru, and, above all, there is Brâncuși, from whom many would like to claim themselves. Can we state that only the art produced according to one of these filiations is realist? That is hard to believe.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sm and innovation bears, too, a much more profound meditation. - Realism and tradition by Ion Frunzetti, extract from “Contemporanul” magazine, October 1977







Paul  
Chaleff

인텐션(INTENTION)은 모든 기본적인 관계에 내재된 섬세한 균형에 대해 고찰한다. 인텐션은 두 형태가 서로 다른 필요의 균형을 맞추고 각자, 또한 양자 모두에 대하여 효과가 있는 균형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춤 또는 씨름을 상징한다.

INTENTION is an exploration of the delicate balance implied in every basic relationship. INTENTION represents either dancing or wrestling as two forms try to balance their different needs and come to a stasis that works for each and for both.



**Intention**  
Clay, Galze, Epoxy  
188 x 240 x 220cm  
2018



**Intention**  
Clay, Galze, Epoxy  
188 x 240 x 220cm  
2018



**Intention**  
Clay, Galze, Epoxy  
188 x 240 x 220cm  
2018

Youngho Kim

2018 사유조형-불각의 균형을 되새기며

현대의 작가들은 점차 개성적이고 차별화된 작품세계를 나타내고자 다양한 재료들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더 많은 재료를 사용하여 상상을 초월한 작품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각 예술 분야에서 혼합매체의 나갈 방향을 모색하고 불각의 미를 근원적 의식을 되새긴 작가 내면의 세계를 조형적 언어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모든 작업에서 다양한 장르와 인접분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실제적인 시간과 감각적 공간을 작품의 조형요소로 삼음으로써 예술을 삶과 만나게 하고, 또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구조화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인 세계의 종합적인 감각체험으로 정립되어 공간의 예술적 감성이 체험적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작가 본인은 미술에서 매체로 표현 되는 공간 표현의 경향과 그 공간에서 나타나는 체험적 공간 연출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 현대 미술에서 나타나는 체험적 공간화 표현 특성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여러 작품속의 공간을 경험하고 다양한 오브제와 혼합 매체를 요소로 공간으로 확장하여 사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과 인간의 참여로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감각적 공간을 창조하고 예술자재를 일상적 환경의 공간속으로 접근시켜 그 본질과 영역을 확장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다채로운 체험 공간으로 연출되면서 사유적인 공간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작가 노트

2018 Private Sculptures-Reviewing the Balance of Non-Sculpting

Modern artists use a combination of diverse materials in order to make their art world unique and different. Instead of being satisfied with this, they are attempting to create artwork that go beyond your imagination by using more materials. According to the situations of the times, we strive to set the direction for mixed media in visual art and express the inside world of artists who reviewed the fundamental sense of art for non-sculpting in sculpture language. By using the actual time and sensual space that freely transcend different genres and the boundaries of adjacent fields as sculpture factors for artworks, art can meet with life and it goes through the process of structuralizing a completely new space. While experiencing these processes, the comprehensive sensual experience of the physical world and the psychological world are established to spread an artistic sense of space through experiential spaces.

The artist suggested the tendency of space expression as expressed as media in art and the direction in which experiential space direction is shown in that space, while also conducting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that spatialize the experience shown in modern art.

By experiencing spaces in various artworks and expanding diverse objets and mixed media as factors for space, allow us to realize that the situations that occur and human participation are composed within them. This created a new sensual space and access to the art itself in the spaces of our daily life, which expanded its essence and field and create a diverse experience space that attracts lots of interest. It can be thought of as a reinterpretation of a private space. -Artist's statement



사유조형[思惟造形]-사각(四覺)의 시작  
Iron, F.R.P.  
150 x 45 x 80 cm  
2018



우리나라 민주화를 앞당긴 마산 3.15의거와 마산항쟁 등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던 그 시민정신을 '창원의 힘'이란 주제로 설정하고 시민들이 죽창을 쳐든 형상으로 상징화하였다.

Under the theme of the "power of Changwon," the spirit of the citizens who took to the streets to stand against injustice during the March 15 Masan Uprising and the Bu-Ma Democratic Protests that demanded Korea's democratization is embodied in the form of citizens raising bamboo spears.

죽창 앞에선 평등하다  
 빛나무, 대나무,  
 스테인리스 스틸  
 350 x 200 x 70cm  
 2018



## Yura Lee

나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이미지와 페트병의 지저분한 이미지의 변형을 통한 공간은 한국화의 입체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뜻하면서도 차갑고, 아름다우면서도 지저분하며, 포근하면서도 날카로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미지들의 변형을 통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과 모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산업화 이후 심각할 만큼 무분별한 쓰레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편리함과 환경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된다. 점점 나빠지는 환경에 대해 인식은 하지만 모른 척 살아가고 있다. 지금 현재의 안락함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나무와 페트병의 변형을 통해 만들어낸 휴식의 공간은 따뜻한 이미지의 나무를 차갑게 표현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페트병을 따뜻한 꽃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The space made by transforming the warm image of wood and the messy image of PET bottles represents a three-dimensional version of Korean paintings. I wanted to speak of the two-sidedness and irony of people by transforming common images that are warm yet cold, beautiful yet messy, and soft yet sharp.

Serious waste problems accompanied industrialization. People feel lost between convenience and environment. They notice the environment becoming increasingly worse but live with their eyes turned away from it. They value the comfort of the present more.

The resting area made by deforming wood and PET bottles expresses warm-looking wood with cold imagery and cold PET bottles in the form of warm-looking flowers, posing a message to people.



아낌없이 주는 나무  
The Giving Tree  
Variable installation  
Plastic and wood  
2018





## Chulhee Yi

일상적인 관점의 전통적 조형 영역을 넘어서 보다 진보되고 과학적이며 새로운 조형적 시도를 하는 것이 주 방향입니다.

대중들에게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동시대를 반영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작품에 담아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주고자 합니다.

형상은 최소한에 핵심만을 보여주는 미니멀 한 접근입니다. 앞뒤가 열린 파이프를 수평적으로 정면에서 보면 건너편 물체가 투영되어 보입니다.

파이프 작품은 보는 각도에 따라 그 느낌이 천차만별입니다. 수평에서 보았을 때 투명함이 더욱 극대화되는 작품, 파이프를 수직적으로 상승감을 주어 작품을 공중에 띄우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작품 주제는 다양합니다. 웃는 얼굴, 신체의 일부, 동물, 캐릭터 등의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창조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벽에 설치되는 평면작품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배열과 색상의 나열입니다. 회화의 영역을 파이프작업으로 표현해보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과 영역의 확장을 생각하며 그것을 파이프로 표현해 냅니다. 파이프작품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형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찾는 파이프작품은 계속 될 것입니다.

I focus on applying advanced, scientific, and new approaches to formative arts, moving traditional areas of sculptures with ordinary point of views.

Also, I want to deliver a positive and hopeful message to people with scientific and future-oriented methods while reflecting the spirit of the times.

I take a minimal approach to create my work which shapes the essence of a subject.

The open edges of pipes show objects on the opposite side when audiences view them from the front. Pipe work provides various feelings according to the viewing angles. I am working on a series of new attempts to create pipe sculptures such as one with the maximum transparency from the horizontal view and another one suspended by using pipes for vertical esca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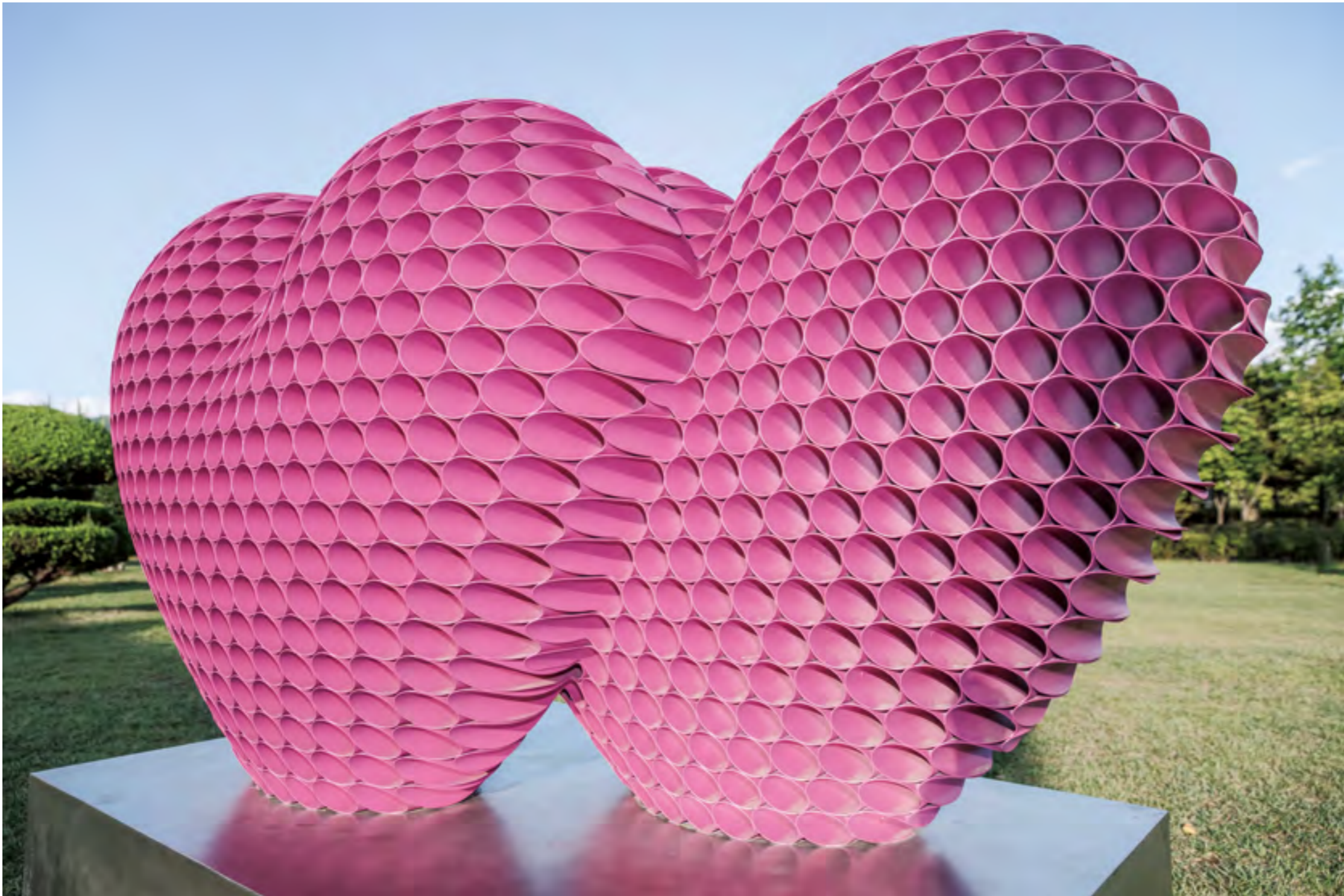
Each work has a different theme. The themes of my previous work included smiling faces, body parts, animals, characters among others and the doors of creativity are always open.

Plane works installed on the wall were created by aligning the pattern and repetitive arrangement of colors to express the area of painting with pipe arts experimentally.

I try to expand different points of view and genres and display them with pipe art. It is a new type of sculpture that did not exist before. Pipe art that explores new possibilities of formative art will continue to be created.

**Hope**  
Aluminum  
200 x 160 x 120cm  
2016





**Heart to Heart**  
Aluminum  
236.8 x 120 x 162.7cm  
2018

Dooyoung Jang

'라라랜드 프로젝트'는 현실공간과 '상상' 혹은 '기억' 속의 이미지를 병치시키는 작업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이 현대사회 속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했거나, 상상 할수 있는 사건 혹은 풍경들을 작가의 시선으로 집어내어, '현재' 라는 시공간에 관객과 조우 할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젝트성 설치물이다.

'라라랜드 프로젝트'가 비단 다른 예술작품들의 방향과 크게 차이는 없어보일수 있겠으나, 작품의 주제나 소재를 작가가 재해석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통해 작품의 형식이 드러나는 기존의 예술작품과는 다르게, 작가의 기억 속 어딘가에 자리잡은 과거의 풍경을 그저 '현재' 라는 시공간 안에 옮겨놓았을 뿐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작품과 마주한 관객은 즉각적으로 작품에 개입되며, 보다 쉽게 작품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과거 기억 속의 이미지와 현실공간의 연결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부딪히면서,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인지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불어 그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와 현재 속의 '나(개인으로써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써의)'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작가의 개인적 바램이자 작품의 목적인 셈이다.

결국 모든 예술은 삶과 연결되어 있고, 삶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대지와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진다. 만약 그것이 불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면, 우리는 가끔 예술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계와 세계 속의 '나'에 대해서 생각해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자신의 삶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한다.

The La La Land Project is about placing spaces in reality in juxtaposition with images in our 'imagination' or 'memories.'

This project takes the artist's view of events and scenes contemporary individuals would have commonly experienced or imagined in this modern society and allows the audience to encounter them in the space and time of 'now.'

The La La Land Project may not look different from other works of art, but it differentiates itself by relocating the scenes of the past found from the memories of the artist to the time and space of 'now,' unlike other work that reveals the artists' reinterpretation or editing of the topics and subjects. This allows the audience to be instantly involved and connect themselves to the installation.

Connecting the images of our past memories to spaces in reality helps us realize tha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re not clearly divided but continually interacting and colliding with each other. And doing so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us to look back on the 'present' at which we exist and 'ourselves' in the present (as an individual or a member of society). That is the artist's intention and the piece's obj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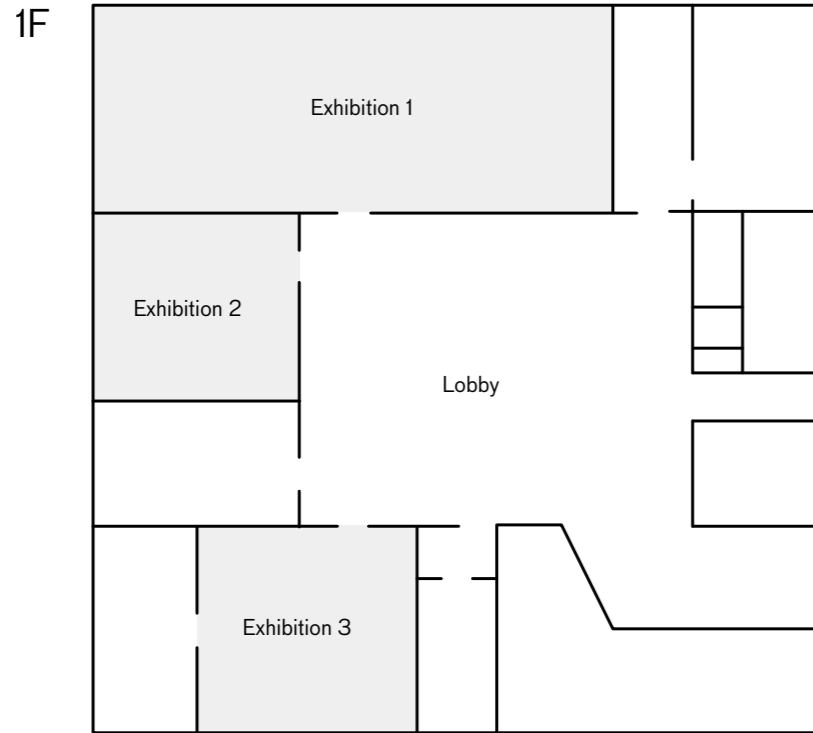
After all, art is connected to life, and life is completed on the land we are standing on and in the time we are living. If that is an unchanging truth, it may be desirable to have the chance to re-think the world we are living in and who we are in this world from the view of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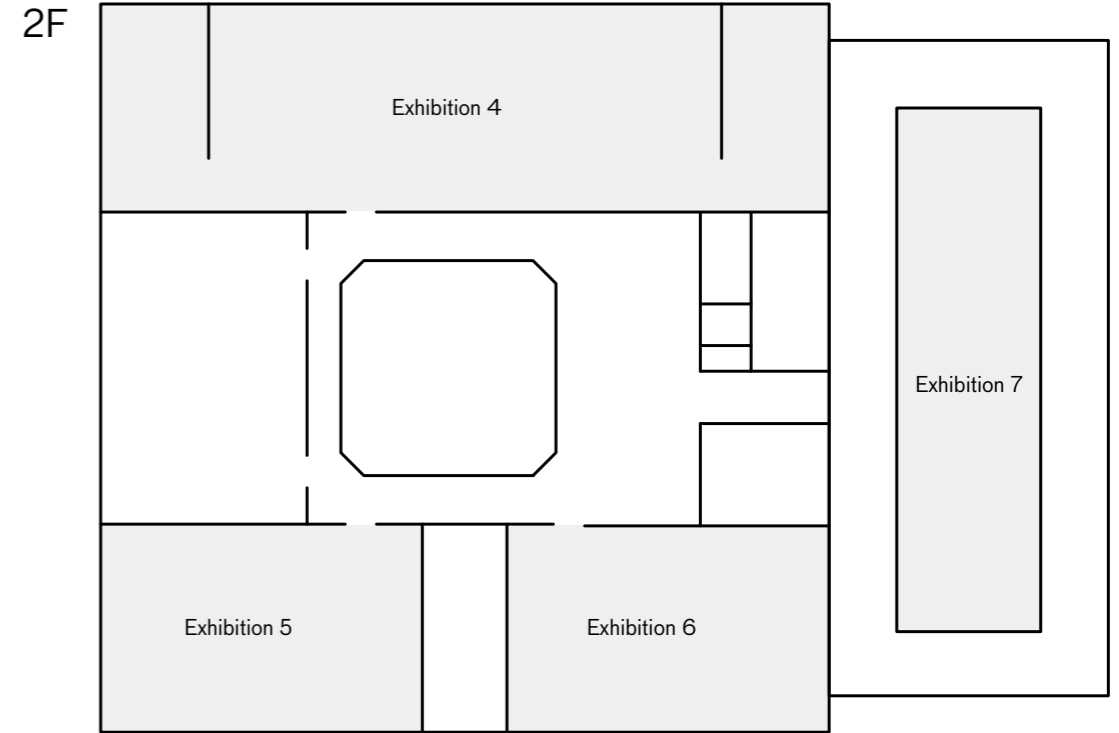
La La Land Project  
Pvc 비닐  
가변설치  
2018

실내:  
성산 아트홀  
파격 破格

INDOOR:  
SUNGSAN ART HALL  
DESTRUCTION



성산아트홀 1층 Exhibition Hall 1F



성산아트홀 2층 Exhibition Hall 2F

\*작품 배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1 전시실** Exhibition 1

김준권 Joonkwon Kim  
배중헌 Jongheon Bae  
오순경 Soonkyung Oh  
오원배 Wonbae Oh  
윤영희 Younghee Yoon  
임옥상 Oksang Lim  
임채욱 Chaewook Lim  
전경선 Kyoungsun Jun  
정고암 Goam Jung

**2 전시실** Exhibition 2

송 창 Chang Song  
진기중 Kijong Zin  
홍선웅 Seonwung Hong  
쿠이 시우웬 Cui Xiuwen

**로비** Lobby

손봉채 Bongchae Son  
이이남 Leenam Lee  
이정교 Junggyo Lee

**3 전시실** Exhibition 3

크리스토프 Krzysztof  
슈마노비츠 Szymanowicz  
하태범 Taebum Ha

**4 전시실** Exhibition 4

김민정 Minjung Kim  
미야오 샤오첸 Miao Xiaochun  
백승수 Seungsoo Baek  
안종대 Zongde An  
임흥순 Heungsoon Lim  
최율가 Woolga Choi  
한승구 Seungku Han  
황재형 Jaihyoung Hwang

**5 전시실** Exhibition 5

김종영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f  
Chongyung Kim

**6 전시실** Exhibition 6

이주원 Joowon Lee  
손정희 Junghee Sohn  
정광화 Kwanghwa Chung

**7 전시실** Exhibition 7

김창환 Changhwan Kim  
배중헌 Jongheon Bae  
서용선 Yongsun Suh  
이이남 Leenam Lee

## Joonkwon Kim

원숙미의 사의(寫意) 풍경 시기의 작품은 대나무 숲, 중첩된 산의 능선들, 소나무 숲, 광활한 들판 등의 소재로 집약되고 있다. 이들 작품은 특정 지역이어도 좋고, 또 아니어도 좋다. 한반도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풍경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여기서 내면세계에 천착하여 차경(借景)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다. 저 멀리에 있는 풍경을 나의 울안으로 이끌고 와 나의 자연으로 만드는 것, 바로 차경의 장점이다. 표현기법은 물론 소재 선택이나 의미 부여 등 작가의 원숙미를 읽게 하는 작품이 아닌가 한다. 정말 작가는 수도승처럼 자연을 해석하고, 아니 무애(無碍)의 경지에서 이제 거리낌 없는 작의(作意)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그 속에는 운문정신과 울동이 깃들어 있고, 무엇보다 자연친화주의가 돋보이고 있다. 김준권식의 자연이고 예술이리라. -윤범모 미술평론가

Period of Landscapes with Mature and Impressive Expression: Subjects often used by Kim include bamboo forest, overlapping mountain ridges, pine forest, and vast fields. Works portray ordinary landscapes found throughout Korea. Scrutinizing his inner world, Kim provides a new meaning to borrowed images. He draws scenery from a distance into his domain and makes it a part of his nature. His expression technique as well as the selection of subjects and provision of meaning enable us to identify that Kim has reached a mature state in his career. The artist interprets nature like a pious monk and shows his creative intention without reservation, free from all obstacles. In doing so, his work embodies the spirit of poetry, rhythmical movements, and, most importantly, environmental friendliness. This is Kim's brand of nature and art. -Youn, Bummo Art-Critic



풍경-Red Ed.7  
유성다색목판  
95 x 100cm  
2017



山韻-0901(Rhythm of Mountains-0901)  
Ed.6  
수묵목판화  
400 x 160cm  
2009



Changhwan Kim

권력의 상징인 상어는 바다 속의 포식자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출몰하는 강자이거나 거대한 조직일 수도 있다. 어딘가를 향해 무리 지어가는 상어는 파국적 대단원을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권력의 허망함에 대한 은유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눈이나 코와 같은 감각기관이 제거된 상어는 권력의 무상함, 즉 정처 없이 부유하다 침몰하는 권력의 속성에 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발생과 소멸의 과정을 밟는 자연의 순리처럼 기세 등등한 권력도 언젠가는 부침한다는 작가의 믿음이 공격적이면서 동시에 멍청해 보이는 상어의 형태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어는 불특정한 권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신분상승을 통해 권력의 쟁취를 꿈꾸고 있는 작가 자신의 욕망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사회적 입신이나 경제적 성공을 통한 부의 축적, 정치적 영향력의 쟁취 등은 대부분의 인간이 지닌 욕망이기 때문에 넓게 보아 상어는 인간이 가진 욕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부피는 크지만 무게는 한없이 가벼운 상어는 그러므로 인간이 지닌 욕망의 가벼움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허공 중에 빛나는 모세 혈관과도 같은 선들로 이루어진 이 물체는 그러한 참을 수 없는 욕망의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 인간의 또 다른 욕망에 대해서도 상상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김창환이 만들어놓은 상어는 바다 속을 유영하는 포식자이자 거대한 권력을 쥔 난폭한 지배자이기도 하지만 탐욕으로부터 해방돼 창공을 날고자 하는 자유에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작가노트

The shark is a symbol of power, which is not only the predator of the sea, but also a strong and huge organization that can appear anywhere. Sharks swimming together in a school can be seen as a metaphor of futile power heading recklessly towards a catastrophic end. Furthermore, the shark without sensory organs like eyes or nose can be seen as the meaningless side of power similar to how the attributes of power floats but sinks again. Like following the laws of nature that goes through the process of arising and going extinct, it shows the artists' belief that a triumphant power will also rise and fall one day, while also expressing how stupid sharks are. However, sharks are not only symbols of unspecific power, but also can be a reflection of the artist's own ambition who dreams of power through a rise in status. Since most people have the desire to succeed socially or economically through accumulating wealth and gaining political influence, sharks can be seen as symbolizing the desire of humans. Sharks are massive but light in weight. Therefore, it can be seen as a comparison with the lightness of desire shown by humans. However, this object that consists of lines like capillary vessels that shine in a void make you think of humans' desire to be free from the heaviness of desire. From such a perspective, the shark made by Kim Chang-Hwan is a violent ruler with massive power that swims under the sea, but also shows the will to be free from greed and to fly in the sky. -Artist's stat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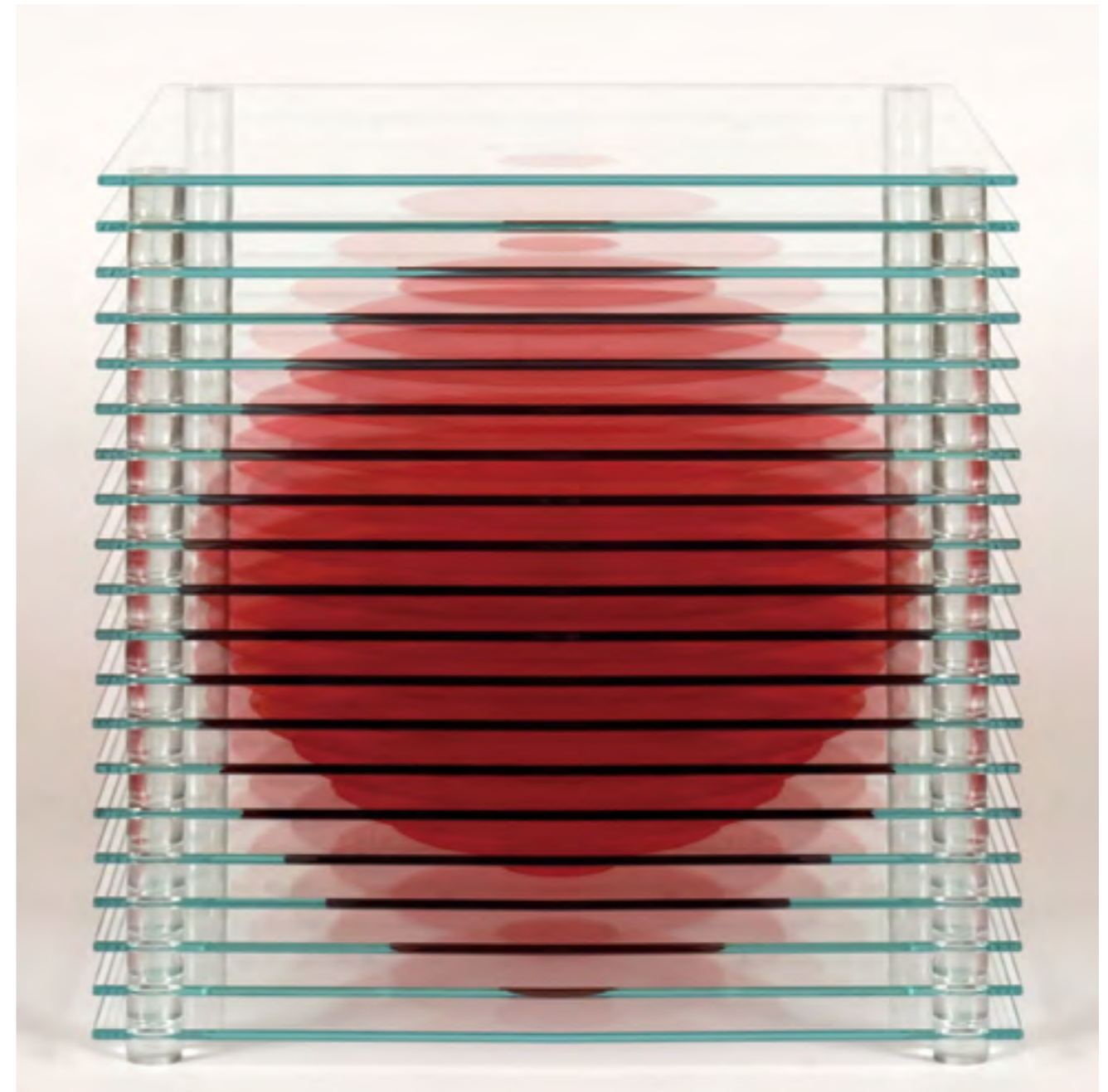


**Swimming**  
철근, 스테인리스 스틸  
Dimension variable  
2013

Minjung Kim

Without Gravity (무중력)와 Insight (통찰)은 삶의 존재/사라짐, 비움/채움, 유한함/무한함의 상대성과 공존의 아이러니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반대적 의미를 지닌 욕망들은 역시 태워 없애버림/겹침, 색과 공간의 비움/채움 등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결국 이 양 끝에 놓인 정 반대적 의미도 결국은 다르지 않은, 어쩌면 똑같은 개념일 수 있다. 겹겹이 쌓인 유리를 통해 마치 무중력의 상태로 보이는 원형의 조각은 중력에서 벗어남을 표현하지만 중력에 의해 실현되는 사각 유리틀 속의 이미지이며,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서부터 밀집된 종이의 겹침으로 시작되어 점차 퍼져나가 확장하는 두 점의 Insight 회화 작품은 자신이 처한 공간의 안락과 안전을 위한 유한함을 꿈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편으로 무한한 공간의 자유를 꿈꾸는 우리의 양가적 욕망을 담는다.

Without Gravity and Insight are stories on the irony of relativity and co-existence in the existence/disappearance, emptying/filling, finitude/infinity of life. The human conflicting desires the author constantly explores may be concepts that are equalized in the end by the repeated acts of burning/overlapping, emptying/filling of colors and spaces, etc. Yes, it may be that they are identical concepts. Looking gravity-free through glasses stacked together, a circular piece expresses a state of weightlessness, but an image in a square glass frame that is realized by gravity. Beginning with the overlapping of pieces of paper concentrated from left and right and expanding more and more, two pieces of Insight painting contain the ambivalent desires of us who dream of the finitude for comfort and safety in our space, while, ironically, dreaming of the freedom of infinite space.



WITHOUT GRAVITY  
glass and enamel  
60 x 60 x 60cm  
2018



**Insight 16-084**  
Mixed media on  
mulberry Hanji Paper  
192 x 142cm  
2016



**Insight 16-085**  
Mixed media on  
mulberry Hanji Paper  
192 x 142cm  
2016

어느 날 빈 벽면을 멀뭇히 바라보다가 금이 가고 패인 생채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미장쟁이가 남긴 시멘트 얼룩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겸재의 인왕제색도가 연상되었으니까요. 어쩌면 미장이의 흠손질이 그 어떤 뛰어난 화가보다도 더 훌륭한 생활의 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내 발밑에 눈앞에 무수히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벽면의 여행자, '면벽유객(面壁留客)'이 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아니하고서 매일 세상의 절경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제 작업은 상처입니다. 단단한 콘크리트도 어딘가에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놀라곤 합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제가 찾아낸 벽면의 절경을 그리고자 합니다. 이 수행은 어쩌면 상처내기입니다. 화면에 뾰족한 니들로 이리저리 균열을 내고 손톱으로 긁어 생채기를 냅니다. 급기야 할퀴어 벗겨진 물감 찌꺼들이 눈물처럼 흐릅니다. 세상의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남모를 아픔이 아닌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작업은 상처이며 눈물입니다.

제 작업은 꿈이고 희망입니다. 바쁜 우리네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보며 저마다의 상처도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대만의 비밀스런 벽면 속 절경을 보며 달빛에 젖고 숲 내음과 협곡의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루기 어려운 꿈이 아니라 쉬운 꿈을 꾀합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할 두 개의 기둥은 저의 일상적 프로젝트의 하나인 '면벽유객(面壁留客)'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콘크리트 원형기둥의 미세한 균열과 얼룩 등에서 제가 발견한 절경을 담고자 했습니다. -작가노트

One day, I gazed at the vacant wall and noticed the scars of crack and dent. However, looking closely, it became such beautiful scenery. Even the stain of cement left by a plasterer did not look mundane, as it reminded me of Inwangjesaekdo, a landscape painting by Gyeongjae. I thought maybe, plastering work by the plasterer was work of arts in life, better than any other works of great painters. Looking again, I realized so many magnificent sceneries were there just in front of me. I decided to draw the landscapes. Rather, I decided to become a wanderer on the wall. I spent time, enjoying exquisite landscapes every day, without going travel far and wide.

My works are about scars. Even the hardest concrete has scars somewhere. It may be ironic but I am surprised how amazingly beautiful the scar is. It is not easily noticeable but I draw paintings of the landscape I discovered on the wall. It may be the work of making scars. I make cracks with sharp needles on the screen and create scars, scratching with nails. Eventually, the residues of paints, scratched and peeled off are running like tear. I hope revealing scars in the world can be a process of healing, not leaving it as hidden sorrow. That is why I call my works scar and tear.

My work is dream and hope. I hope people can find their own happiness, while looking at the beauty existing in mundane things in daily life. It would be great if they can cure themselves while looking at scars of others. It may not be a famous tourist attraction but looking at the magnificent landscape on the secretive wall of yours, I wish you can feel the dreamy moon light, enjoy the scent of forest and listen to the sound of wind from valleys. I dream a dream that can be easily accomplished, rather than a dream that is hard to become true.

The two pillar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are the part of my everyday project 'Wanderers on the Wall' and it is to capture the magnificent landscape of the fine crack and stain I discovered one day on a circular concrete pillar. -Artist's statement



천공폭포 天空瀑布-  
콘크리트 기둥의 균열과 얼룩  
oil on PVC  
100 x 40 x 40cm  
2018

## Seungsoo Baek

Démarche Artistique Expression de l'égo par la figuration du corp dans l'art moderne 나의 M2 논문 제목이다.

조각을 시작한 이후 나의 관심은 인간이었다. 지금 또한 변함이 없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의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작품들은 형태를 잃어가고, 인간의 자아, 내면세계로 나의 주의를 끌리고 있다.

사람은 사회와 인간의 관계 연속성 속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거대한 물질문명과 결합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신만의 색을 잃어버리고 획일화 된 기계 부품의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듯 하다. 개개인의 자아는 소멸되어 가고 사회라는 하나의 단위 속 구성물질로 단정지어진 개인이 존재하는 형상을 보이는 듯 하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속에서 인간은 자아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 자아상실의 경험은 인간의 존재가치 증명 욕구를 더욱 증폭시킨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타인과 다른 자신의 특별함을 끊임 없이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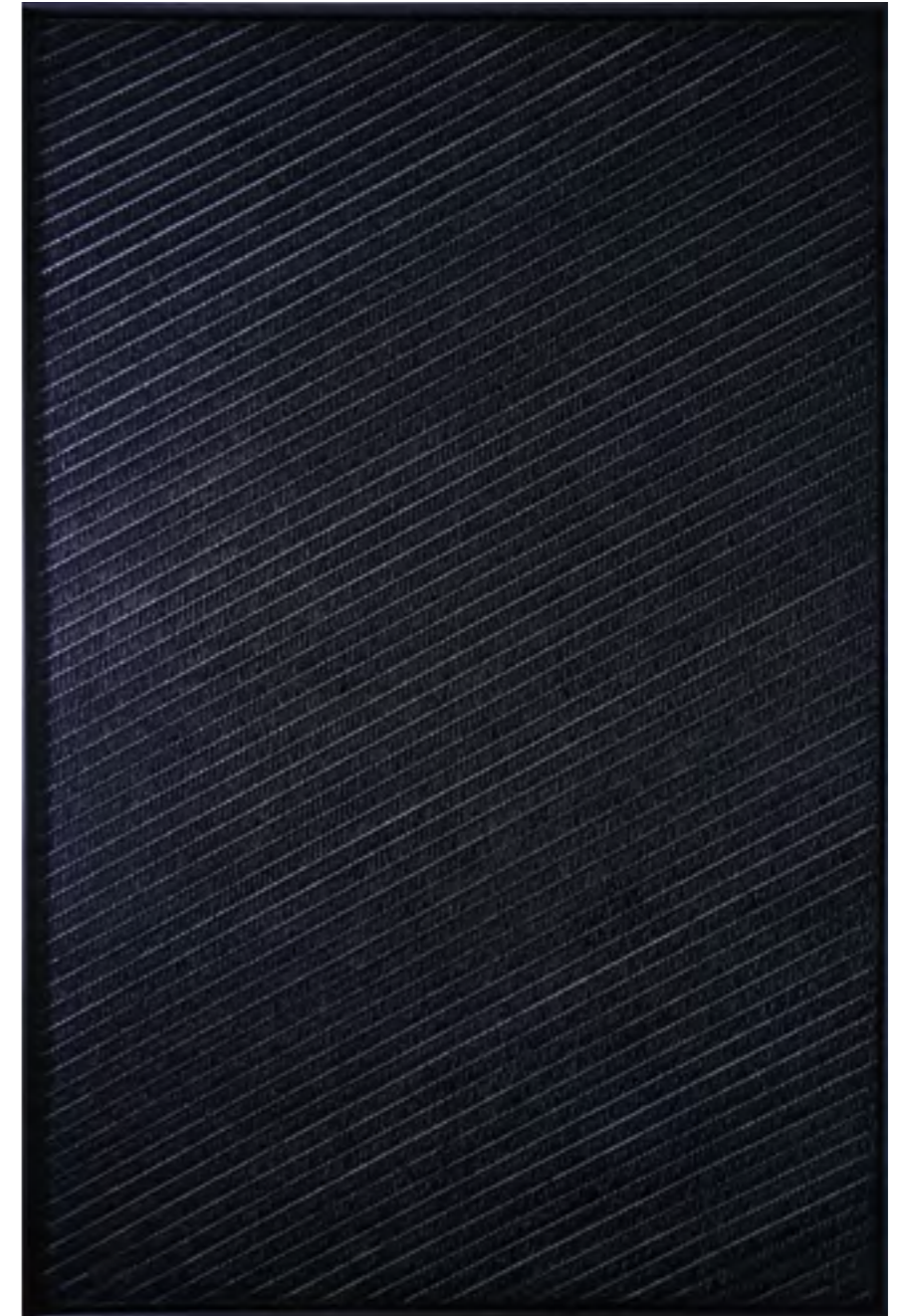
더불어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인간 내면의 활동을 외부로 끌어내어 내면의 혼란을 극복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Démarche Artistique My M2 thesis was entitled "Expression de l'égo par la figuration du corp dans l'art moderne."

Ever since I started sculpture,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umans. One thing that has changed is that my views are moving from the outside to the inside. Over time, my works are losing forms, and my attention is attracted by the human ego and inner world.

Humans grow in the society-human relationship and continuity therein. In a society combined with massive material civilization, however, humans seem to have lost their colors, living one of uniform parts of machines. Individuality is disappearing, and individuals exist in a society being defined as a component therein. In that course, humans lose their ego, and the experience of losing their ego amplifies their desire to prove their raison d'être, through which we ceaselessly inquire into and express our uniqueness that differentiates ourselves from others.

By doing so, I would like to bring out humans' inner activities and show how humans overcome turmoils within.



Untitled  
Polystyrene  
200 x 130 x 2.5cm  
2018



**Untitled**  
 스티로폼, 한지, 먹  
 100 x 100 x 2.5cm  
 2017



**Untitled**  
 스티로폼, 한지, 먹  
 200 x 130 x 2.5cm  
 2018

인간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간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며, 시대의 이념에 따라 그 관계도 달라진다. 현대는 도시화가 집중되는 시대이다. 산업혁명 이후 과학의 발달에 따라 더욱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었다. 다양한 물질에 대한 소비의욕 또한 확장되었다. 사람들의 경쟁은 필수적이며 권력과 소비의 욕망 또한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작품은 목판대로 통목조각을 통하여 입체적 인간사회의 한 단면을 가변설치 형태를 통해 압축된 모습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오래된 도시 주제의 회화작업과 입체작품을 통하여 다듬어진 공간과 입체조각의 관계로 발전시킨 것이다. 군상의 형태를 통하여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화 시켰다. 목판재 위의 색채는 원목의 나무 색채와 대비시킴으로써 마주 선 인간관계의 서로 다른 입장과 전시공간에서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또한 가변설치를 통하여 공간의 배치 속에서 다시 조절되며 다양한 변화의 관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Humans shape and live in a society. Within society,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form and such social relations takes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the ideology of the times. The present age is an era of urbanization. Urbanization has intensifi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desire to consume various materials has expanded as well. The competition between people is inevitable and desire for power and to consume arises endlessly. This wooden panel carved work compactly embodies a stereoscopic side of human society in the form of a dimension variable installation. His long-term theme of city has developed into a relationship between fine-tuned space and three-dimensional sculpture through painting and solid sculpture. A large group of people in the work is simplified to depict people living in the society. Colors in the wooden panel contrast with the natural color of hardwood reflecting different positions in confronting human rel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 display in the exhibition space. Also, a dimension variable installation rearranges spaces again to present changing and variable points of view.



관계 C  
목판재위아크릴릭  
286 x 68 x 82cm  
2018

Junghee Sohn

1970-80년대 세계 최고 강국 이었던 미국에서 크게 유행한 Playboy 잡지의 마스코트였던 Playboy Girl을 주제로 사라져간 시대를 묘사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성에서 얻거나 잃는 사회적 위치를 다양한 감성으로 표현함으로 서로의 아픔을 다독여 주는 작업이다.

손정희는 도조(陶彫) 작업을 통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꿈을 현실화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손정희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정조(情調)는 연민과 해학, 기다림(願望), 비상등이다.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윤진섭 미술 평론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Sohn's work depicted a lost age under the theme of Playboy Girl, a mascot of Playboy magazine that was hugely popular in the US,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in the 1970s and 1980s. From a woman's standpoint, her work can be explained as a process of healing the wounds of women with each other by expressing social positions that are often gained or lost due to femininity.

Ceramic sculptor Junghee Sohn makes fantasy into a reality, giving shape to the unreal, dreamlike and hypnotic through the use of clay.

Sohn's works have various underlying sentiments, including sympathy, humor, longing, and flight, among others. The works convey her deep love and affection for humans. - Yoon, Jin-Sup art critic, 'Human, All Too Human'

**Playboy Mansion: Bygone Era**  
ceramic, old tree, rubber band, dimension variable 2018





Bongchae Son

이주민

산업화와 개발에 밀려 제 땅에 살지 못하고 뿌리 채 뽑혀 도시 조경수로, 도회지 사람들의 정원수로 팔려나가는 나무들. 이들은 산업화에 밀려 대도시로 선진국으로 살길 찾아 떠도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저 조경수의 아름다움은 낯선 땅에 살아남으려는 그들의 뜨거운 눈물이 빚어낸 결정체다. 사실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새로운 땅에 안착하지 못하고 죽어갔을까를 생각해볼 때 과연 우리는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말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도회 변방을 헤매며 뿌리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까. 내 작품은 변방의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오늘을 잘 견뎌내고 있는 이들을 향한 찬사이다.

Migrants

Trees are uprooted and sold as landscaping trees to decorate street corners and the gardens of people living in cities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They are nothing more than self-portraits of contemporary men who left their hometown and moved to cities and advanced countries to seek a way to make a living among the backlash of industrialization.

The beauty of landscaping trees is the pure tears of sorrow of migrants who desperately wish to survive in a strange land. If we consider that how many trees failed to take root in the new world and died, we could not say that they were 'beautiful.'

I wonder how many people would wander around backstreets and struggle to take their roots in cities. My work is dedication and praise to all the wanderers and survivors of today.

금강산도  
oil on  
polycarbonate, LED  
1200 x 180cm  
2012





Chang Song

근대화 이후 우리시대에 당연한 가장 큰 문제는 분단이다. 분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때론 비 도덕적 공권력의 폭력 하에 수많은 민중의 죽음과 뼈아픈 상처 속에서 서로를 꺼안고 어둡고 그늘진 삶을 살아왔다. 국가의 공권력이 바로 서지 못하고 왜곡되거나 오해되고 이용되거나 배제되었던 비인간적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두 작품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부패한 공권력의 폭력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영혼을 불러내어 용서를 비는 대화의 장이자 화해의 일치를 이루는 한 판의 굿마당이다. -작가노트

최근 송창은 사각형과 평면에서 이탈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철판을 휘거나 구겨서 비정형의 바탕을 만들고, 거기에 입체인 꽃이나 해골 오브제를 붙이면서 페인팅을 하는 실험이다. 소재의 '표현'에서 진일보해서, 분단정서 자체를 입체로 사물화하려는 것으로 느껴진다. 물론 미니멀 아트처럼 중성적인 물질로 환원시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접혀지고 구겨진 얇은 철판의 형태와 물질감에 덧붙여진 오브제 부착과 그리기의 표현성은 여전히 그의 평면회화처럼 보는 이의 감정을 자극한다.

여기서 우리는 송창이 자신의 회화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각형 프레임, 캔버스 틀, 캔버스 천, 그리고 평면성의 조건과 재현성을 거부한 추상적 환기력으로 '표현된 사물'의 제시가 그것이다. 평면이자 입체, 사물이자 이미지인 그것은 작가가 자기 스스로에게 썼다가 구겨서 던져버린 편지이자, 익명의 술한 죽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몸 같다. 또한 그것은 이유 없이 희생된 물 생명들에 대한 위무의 모뉴먼트이자, 핵으로 인해 긴장된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에 보내는 경고문으로도 읽힌다. 얇은 철판에 얹은 이 실험과 시도는 그 결과가 어떻든지간에 작가 송창에게는 풍요로운 영양제라 하겠다. 작업의 끈을 항상 놓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니까. ... -66년의 분단서사-그 촉각적 정서, 김진하 미술평론, 나무아트 디렉터

Since modernization, the biggest problem that we face today is the division of the country. The division seriously affected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During the process, millions of people were killed under the immoral violence exerted by government power and embraced each other as they lived through dark and shady aspects of life. The nation's public authority failed to stand upright and had been distorted, misunderstood, exploited or ruled out, showing a section of our times where we lived under an inhumanely treated social structure.

The two artworks were like showcasing a gut (ritual) that ask for forgiveness through dialogue and reconciliation by raising the spirits of the many people who died under false accusations due to problems in the social structure and violence from corrupted public authority. -Artist's statement

Recently, Song Chang has attempted work seceding from rectangular frames and flat planes. It is an experiment involving, in addition to painting, the creation of atypical shapes of bent or crumpled sheet metal, onto which objects such as flowers or skulls are fixed. It appears Song seeks to represent the sentiments of Korea's division through this. Of course, he is not neutralizing his art by focusing on matter as in minimal art. The theme the expressiveness of found objects and painting, on the forms and material sensibilities of thin sheets of folded and crumpled metal, still inspires emotional responses.

We can confirm here that Song Chang has been introspecting about his paintings. By using a ventilation force abstractly that refuses quadrangle frame, canvas frame, canvas, and the conditions and reproduction of flatness, the artwork showed the presentation of expressed object.

They were flat or dimensional and an object or an image, which represented the letter that the artist wrote to himself and crumpled and threw away, as well as trying to identify with many unknown deaths and himself. It was also a consoling monument for people's lives that have been sacrificed for no reasons, while also can be seen as a warning sign to the political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with high tensions caused by nuclear threats.

Whatever the outcome of this experiment and attempt might be, it will be an abundant nutritional supplement for Song Chang because it shows he has not loosened his grips on his works. -Division narration: Its Tactile Sentiment, Kim Jin-Ha Art critic, Director of Namu Art



정원1  
Garden1  
Iron plate, 3D print,  
oil, acrylic paint  
174 x 122cm  
2018

정원2  
Garden2  
Iron plate, 3D print,  
oil, acrylic paint  
174 x 122cm  
2018

실상

선택된 모든 오브제는 오랜 방치의 시간을 지나면서 바래고 녹슬고 건조된다. 시간 위에 놓여진 것들의 이중성 양가적 속성을 주목하고 응시하노라면 지각할 수 없는 시간은 오브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내면으로 들어서는 길을 제시한다. -실상, 작가노트

햇빛에 노출되어 서서히 탈색되는 색지는 때로 비를 맞기도 하면서 그 색이 빠지기도 한다. 안종대는 차분하게 그리고 꾸준히 세월의 흐름 안에 내포된 시간성과 자연의 변화를 예술을 통해서 보여준다. 작가의 손길은 단지 우연적인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안종대는 현란하게 빛나는 금이나 은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지 그는 일상의 곁에서 은근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변화해가고 있는 재료들(고구마, 말린 식물, 음식물, 색지(한지), 철, 돌 등)을 사용한다. 우연한 듯 변모된 현재상태의 모습에서 경건함이 나타나는데, 그 변화는 어쩌면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모르나, 작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안종대의 작업세계를 이루는 테크닉은 인위적이고 꾸며주는 것이 아니다. 그의 색지는 빛 자욱을 담아내며 그의 정성을 담아낸다. 오브제가 놓였던 자리는 그 오브제의 숨결을 담아 색을 보유한다. 말린 마티에르는 그 오브제가 있는 환경의 공기를 마시면서 늙어간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과 삶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본질에 대해 탐구한다. 작품은 작가가 탐구하고 묵상하는 삶과 진리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절대 진리에 대한 암시를 나타낸다. -강선학 평론가

Le Temps

All of the selected objects have become rusty and dry because of being neglected for so long. It shows the duality of things on top of time. If you pay attention to ambivalent attributes and stare at them, the time that we are not aware of are shown through the object and show the way to go within. -Le Temps, Artist's statement

The colored paper has slowly faded from the sun, and also the color comes out when getting rained on. An Zong-de showed the time that flows smoothly and continuously over the years and changes in nature through his artworks. The artist does not give random visual effects. He does not use materials like shining gold or silver. He only used materials (sweet potato, dried plants, food, colored paper ('Hanji'), steel and stone) that reveal themselves quietly in our everyday life as they changed. The current status that seemed to change by chance shows reverence.

The change might have been made intuitively, but the artist accepted it. The techniques that make up An Zong-de's art world are not artificial and decorative. His colored paper contains light shades and the devotion he made. The area where an object was placed on top of it kept the soul of the objet. The dried matter has gotten old while breathing in the air of the environment where the object was. The artist quietly and privately explores the essence in his own profession and life. The work delves into topics of life and the truth that the artist studies and mediates and intuitively gives hints about absolute truth. - Kang Sun-Hak Revie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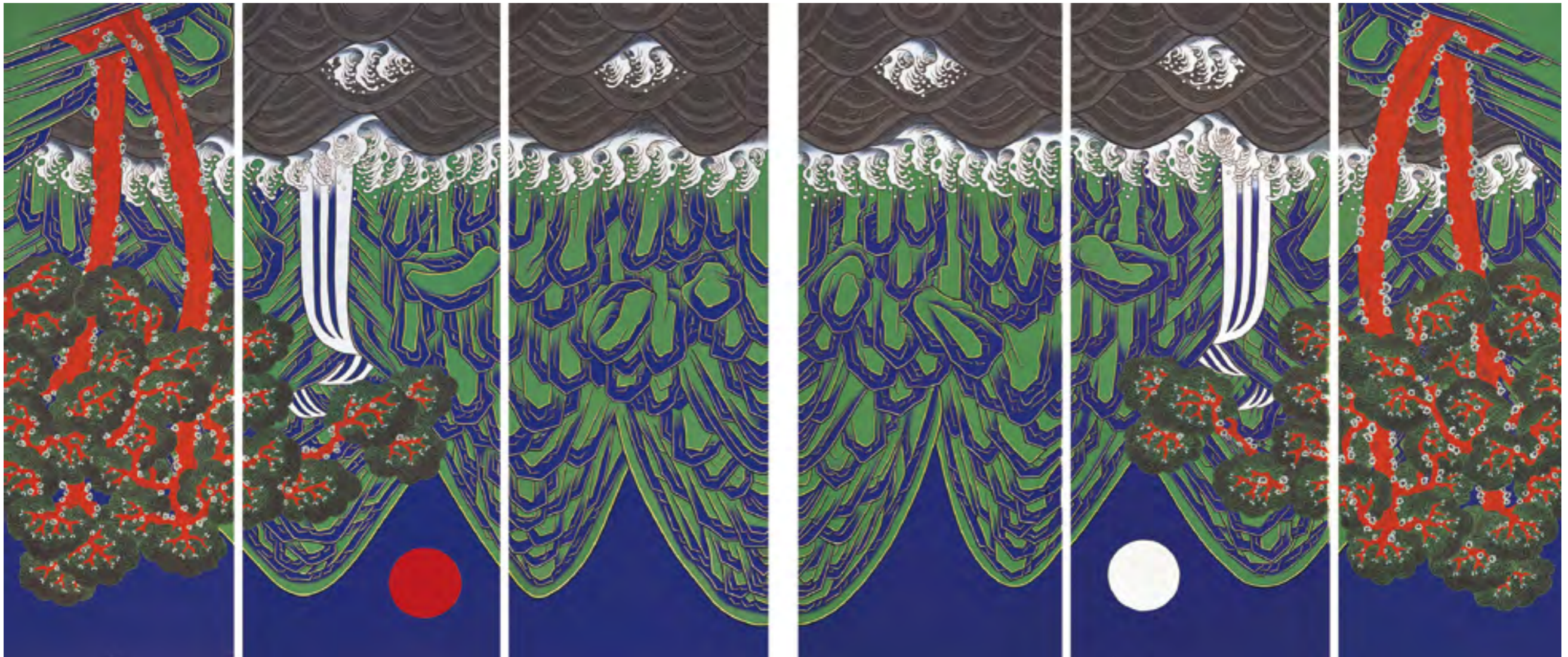
실상 Le temps(시간)  
말린식물, 실, 송, 백회, 기타  
200 x 300 x 350cm  
1990-

우리나라에서 매우 독특한 형태로 발달한 국왕의 존재를 상징하는 궁중회화를 대표하는 그림, 조선시대 궁궐 정전(正殿)의 어좌(御座) 뒤, 또는 야외 행사 때에는 천막 안의 옥좌 뒤에, 사후에는 빈전(殯殿)에, 진전(眞殿)에는 국왕의

It is a representative court painting that had uniquely developed in Korea and it symbolizes the existence of the king. In the Joseon Dynasty, this folding screen would be placed on the back of the royal seat in the main hall of the palace or the throne in

초상화 뒤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병풍으로 왕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동시에 왕조가 영구히 지속되리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왕권의 상징인 일월오봉병풍을 실내전시 <파격>이라는 주제에 따라 거꾸로 메달아 전시한다.

the tent during outdoor events, in Binjeon after the death of the king or on the back of the king's portrait in Jinjeon. It stands for the authority and dignity of the king and also means that the Joseon Dynasty will last forever.



## Wonbae Oh

오원배의 화두는 늘 인간이었다. 때로는 가면 같고, 어떤 때는 투명 인간처럼 윤곽선(outline)으로, 그러나 왠지 토종의 다듬지 않은 순수함의 모습으로 몸부림친다. 한편, 이 몸부림은 어둠과 허무의 단순한 발광이 아닌 듯. 오히려 어둠과 허무를 넘어, 투쟁과 고뇌를 감내한 이 시대, 우리의 토종적 “짜라투스트라” 같은 강인한 생명력의 발현이다. 마치, 어둠과 허무 너머의 원천적인 “생의 환희”를 마음으로 읽어내기를 바라는 듯, 화가가 그린 인간은 자신의 “몸”을 뒤틀어 “몸의 언어”로 말하려 한다. -정영목 교수, 서울대, ‘회화적 몸의 언어’

Oh, Won Bae's subject matter has always been a human, especially the dark and dull, twisted and distorted form of a human. Sometimes like a mask or in other times like an outline of an invisible man, it struggles in a form of somewhat native and unpolished pureness. On the other hand, the struggle is not just a simple madness of darkness and emptiness. Beyond that darkness and emptiness, it is rather a revelation of a strong life force such as our own native “Zarathustra” in the age of tolerating fights and sufferings. As if it hopes to read out with a heart the origin of “joy of life” beyond the darkness and emptiness, the artist's painted human tries to speak the “language of body” by writhing its “body”. -Chung, Young Mo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Body in Painting'

오원배는 오랫동안 현대인의 삶의 근저에 자리한 실존적 무게를 회화적으로 재현하려 하였고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제 오원배는 그의 주제의식만큼 무거운 재료와 기법을 선택했다. 프레스코라는 근대 초기 회화의 물질적 기초 위에 그의 작품 세계를 새롭게 구축하려 한 것이다.

‘왜 고풍스런 프레스코에 매료되었나?’는 질문에 작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원래 미술은 노동에 기반한 것이었다. 생각과 몸이 하나 되어 나오는 옛 그림들이 주는 깊은 매력은 철두철미한 장인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화가로서 나는 프레스코가 주는 그런 깊은 맛을 피할 수가 없다.” -양정무 미술이론,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라기의 위대한 노력 -오원배의 프레스코’ (부분 발췌)

Oh strived to reenact the existential weight of contemporary men through his paintings for a long time and that touched our minds. Now, he selects the materials and methods that are grave as much as the theme of his works.

He decided to create the world of his artwork on fresco, a material basis of early modern paintings.

On the question of what fascinates him about old-fashioned fresco, he answered as follows.

“Basically, the art is created through hard work. Old paintings were made after exhaustive efforts to the extent that coincides one's thought with his body and creating such an appealing painting is possible only with a thorough artisan spirit. As a painter, it was inevitable to draw a fresco painting to experience such fulfilled feelings.” -Yang Jeong-moo Theory of Ar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Great labor of painting -Oh Won-Bae's Fresco' (partial excerpt)

## Untitled

Fresco on acoustics panels  
panels  
60 x 360cm  
2018



## Younghee Yoon

## 광화문 II

광화문을 중심으로 일련의 촛불과 태극기 시위의 물결을 보며 한편은 감격이고, 한편은 착잡해지는 마음 가눌 길 없다. 국가 공동의 행복과 평안 그리고 번영이라는 단어 앞에 정치 이념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대결의 변(辯)은 무너져야 한다. 그 시간에 상처하나 더 찾고, 치유하고 나아갈 방도 하나를 더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상처받은 국민의 아픔을 달래고, 국가적 허기짐을 채워보려는 마음을 담았다.

풍성한 이미지로 서민적 풍요의 대명사인 호박과 호박꽃이 신비의 새, 서조(瑞鳥)의 온몸에서 내뿜듯 생겨나고 있다. 간절한 순간에 귀인(貴人)과 의인(義人)이 나타나기를 바라듯, 광화문을 에워싼 서울의 밤하늘에 온 도시를 감싸도록 넓은 날개 짓을 하며 서조가 출현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어느 한 곳 빠짐없이 어루만져주기를 기대하며..

호박은 과육뿐만 아니라 잎사귀, 꽃, 씨앗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식품으로, 그야말로 선조대로 민초들의 생명을 살려온, 풍요 속에 있지만, 갈수록 마음이 허해지는 오늘의 많은 이들에게, 모란꽃보다 친근하고 실속 깊은 호박꽃으로 그 허기진 마음을 달래주고 싶다. 바로 우리에게 서조는 그 역할의 화신(化身)으로 출현한 모습이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탈피(脫皮)를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비상(飛上)하기를 응원한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내 가정과 주변에 저런 서조의 모습이 되어주고 싶고, 또한 내게도, 국가에도 저 서조와 같은 존재(存在)를 앙망(仰望)해본다.

## Gwanghwamun II

Looking at the candlelight and Taegukgi protests in Gwanghwamun, it was very touching, as well as bringing up a lot of mixed emotions. The confrontations caused by political beliefs, generational gap and region need to stop in front of words like common happiness,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country. It is more urgent to find one wounded person and seek ways to cure that person's soul, showing the desire to comfort people's pain and stop the nation's starvation caused by various reasons.

The epitome of folksy abundance with abundant images, pumpkin and pumpkin flower, came out from the whole body of a mystical bird 'Seojo'. Like wanting for a nobleman or a righteous person to appear during desperate times, I imagined the mystical bird appearing with wide wings fluttering around the night sky of Seoul over Gwanghwamun. Hoping that not a single place is left out and comforted...

Pumpkin is a food that is used up without a single part thrown away, from its flesh to leaf, flower and seed. It has saved the lives of people at the grass-roots level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hich filled up the hungry feelings with this pumpkin flower that is more friendly and sold than peony blossom as we feel more and more hungry despite all the abundance in life. The mystical bird appearing is like an incarnation to us.

By escaping from our own bridles, we can make flight with new appearance. I will do so myself and I wish for my family and people around me to follow the mystical bird.

Also, I hope for the existence of a mystical bird like that for me and the country.



광화문 II  
사포지, 크레파스,  
아크릴, 기타,  
270 x 275cm  
2018



비상  
판넬, 사포지, 오일,  
크레파스, 기타,  
290 x 165cm  
2018

### 비상

신비의 새, 서조(瑞鳥)의 입에서 창조적 기운을 내뿜으며 생명을 번창시켜 나가는 모습의 작품이다.

탈피(脫皮)를 하면서 화생(化生)한 서조의 입에서 꽃으로 형상화된 새로운 기운들이 뿜어 나와, 자유롭게 날고 있는 새로 표현하여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고자 했다.

이는 작가가 오랫동안 느껴왔던 삶의 굴레에 대한 개인적인 것과, 사회 구성원의 큰 부분이 겪고 있는, 많은 테두리와 억압 및 부조리 속의 신음에서 탈피하여, 극복을 넘어 자유로운 자기상(自己想)을 찾고 완성해 나가기에 기원한 작품이다. 나 개인은 물론이고 한 국민들과 국가 전체의 비상을 응원한다.

작가는 서조를 용과 마찬가지로 관념 속의 이미지이 나, 용과 함께 우주를 가득 채우는 생명(生命)의 근원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

### Flight

A work that shows the desire to make life flourishing by having creative energy come out from the mystical bird.

The flowers are drawn on the mouth of the mystical bird that has been incarnated after escaping showed new energies, which sang a song about the joy of life by expressing a bird that flies freely.

This work shows the artist escaping from the chains of life over a long time as an individual and as a member of a society that seeks to find a complete and free self-identity, by overcoming and escaping from many suppressions and irrationalities. I cheer for myself and the people and the nation as a wh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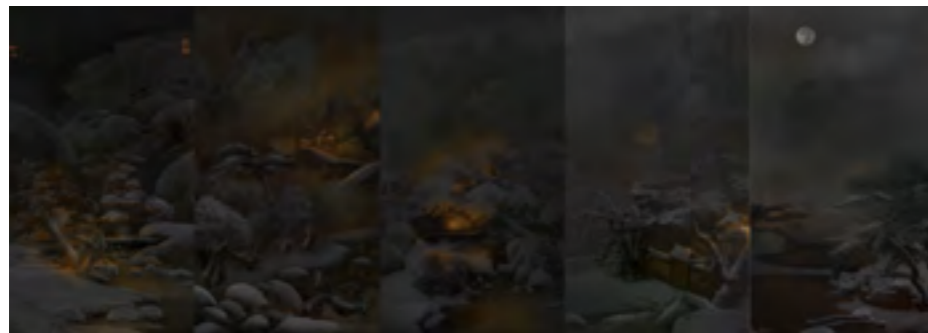
The artist recognizes the mystical bird as a fundamental existence of life that fills up the universe like a dragon, or an image inside a concept.



## Leenam Lee

명청시대 작품 5점을 디지털 병풍으로 구성하여, 정지된 과거작품에 계절이라는 시간개념을 적용하였다. 사계가 변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회화를 보여주려 하였으며 인물과 당시의 소소한 풍경을 담고자 하였다. 계절이 크로스오버 되는 모습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는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점을 찾고자 하였다.

I put the seasons change of time to my work, still scenery original classic painting from the Myung-Cheong era with 5 digital folding screen. I want to show the new concept of digital painting from four seasons changing and expression of a person's usual life in that era. I want to find the point where the past and present are met through four seasons changing.



명청회화-크로스오버  
MING&QING  
PAINTING-crossover  
LED TV  
7min 40sec  
2013



깊은 밤에 하늘을 향해 쏟아올리는 빛은 하늘의 별이 되어 어둠을 비춘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빛을 잃고 제도와 시스템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작품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부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빛은 어둠에서 해방하며 진리를 비추는 등불이 된다.

Streaks of light across the night sky become shooting stars to lighten dark. 'On a starry night' has a meaning of lightening up the artwork, of which light is lost and is hidden in darkness of system and institution, and bestowing life. The light releases one from darkness and acts as a lamp that lets the truth shine.

별이 빛나는 밤에  
On a starry night  
4 x LEDTV  
5min 40sec  
2014



고전회화-해피니스는 동양의 고전회화를 소재로 하여, 병풍의 형식을 빌어 디지털로 재해석 한 작품이다. 과거의 시간에 갇혀 있던 작품은 디지털의 빛을 통해 되살아나 우리 앞에 새로운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작품은 디지털의 힘을 빌어 과거의 시간을 소생시키며 현재와 시공을 초월한 만남을 만들어내며, 디지털 가

상의 산수화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창이 된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문명을 상징하는 디지털의 빛은 작품을 통해 동양적 사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Traditional Painting – Happiness* is a digital reinterpretation of classical paintings of the Far East rendered into an eight-fold screen. Through the magic of digital imagery, paintings that have stood frozen in time are reborn and presented to the audience in a new and imaginative way. Artist Lee Lee Nam uses digital technology to converge time and space, weaving the past into the present. Here, in Lee's virtual canvas, old landscape paintings sift through

past and present to provide a window to the future.

The full moon, which rose in the night sky, moves with the earth, restoring the history of the divis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moving toward harmony. In the dark history of night, we hope to move on to the path of peace and harmony through light.

Junggyo Lee

**CMY+K에서 RGB 그리고 무한성**

색으로 채워진 도시 속에, 도심공간에서 빛으로 말하는 조각

시각의 개념을 '지식을 인지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 영역에까지 적용한다.' (Aquinas)라고 하듯이 시각은 특권을 가진 사고적 감각이라는 명제 하에 나의 조형세계는 시각에 의한 직관적 이해를 중심으로 공감각까지 확장성 있는 표면으로 연장되는 공간조각이다.

나의 공간조각에서, 시각을 통해 대부분의 object들은 그 자체가 기능적이다. 그러나 아무런 기능적 요구도 심지어 의미도 없을 수 있다. 그것은 관람자에 의해 수많은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적 의미론을 부여하며, 해체주의적 개념을 내재한다.

LOBBY에서 K(Black)는 비 장소(non place)의 중심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상징적이며 무한성을 암시하는 Object이다. 그리고 주변요소인 CMY칼라색 실과 바닥 면의 거울은 서로 면대 면으로 병치되어 시각적 중첩효과를 만들어 각각의 의미로 서로 상호관계성을 갖는다. 이것은 무한의 확장성을 갖는 공간을 의미하며 몰입의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확장성은 관람자로 하여금 점·선·면에서부터 다양한 관점을 오버랩시키는 참여의 시각적 장면(sequence)을 만들어 스스로 '드라마틱한 광경의 산책로'로 안내되는 도시 속의 유목민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공간에서 K 큐브는 Black이라는 상징성과 빛으로의 조각(디지털정보0.1과 1,492,992개의 led소자)으로 파격적인 새로운 상황을 만들며 관람자가 인식하는 미디어아트는 지구촌의 아이콘을 재해석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무한대로 유도한다. 특히 2007년부터 작업해온 약 300여 편의 미디어아트는 작가가 10여년 이상 독해해온 글로벌 문화를 배경으로 관람자와 동시대적 교감을 중재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시각적 도해의상(sequence)은 3색 면과 차원의 공간을 연속시키며 보행에서 서사적인 시

간 여행공간으로 안내한다. 또한 관람자는 강력한 3개의 선과 면으로 만들어지는 연장공간과 극도로 긴장된 선과 면들의 중첩으로 그 공간의 스케일에 압도된다. 어느 시점에서는 정적 스케일인 완전한 동양적 감성공간으로 몰입된다.

특히 2층 회랑에서의 보행과 시점으로 내려다보는 K(Black)큐브는 CMY 3면의 혼합을 Black으로 귀결시키는 색채학(색의 삼원색으로 감산혼합)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 큐브에서 연출되는 시각적 도해들로부터 또 다른 독특한 시네마적 상상력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관람자 각각의 시각에 따라 다른 반응을 가져오는 공감각적 체험을 경험한다. 궁극적으로 나의 작업은 전통적 사고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테크놀러지와 작가의 사고체계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관람자가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것은 관람객의 의식을 공감된 문화적 이미지로 전환시켜 글로벌 문화와 한국적 문화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시각적 애무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공간조각은 각각 오브제가 결합(convergence)되어 다양한 차이(divergence)로 확장된 연속성의 장면(sequence)을 만든다. 특히 관람자는 시간과 물리적 이동을 통해서 장소성과 비장소성에서 대비되는 상황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즐기며, 오브제들과 그 자신의 존재성이 어떠한 상응관계를 갖는지를 서로에게 질문하면서 노마드적 경험을 즐기는 공간이며 공기까지 디자인된 조각이다.



**CMY+K에서 RGB 그리고 무한성**  
**CMY+K to RGB, and infinity**  
 Mixed Media  
 1320 x 1000cm  
 2018



**CMY+K에서 RGB  
그리고 무한성  
CMY+K to RGB,  
and infinity**  
Mixed Media  
1320 x 1000cm  
2018

### CMY+K to RGB, and infinity

Sculpture speaks in light in the urban spaces of a city filled with colors

The concept of vision is 'not only a process of recognizing knowledge, but also applied to other sensory areas (Aquinas).' My world of formative arts can be interpreted as pieces of spaces that are extended to feel synesthesia centering on intuitive understanding with vision under the notion that it is a sense of thinking.

In my work, most objects have functions by themselves through the vision. However, they may not have any functional requirements or meanings as well. Objects provide spatial semantics that allow audiences to come up with numerous meanings and involve the concept of deconstructivism.

K(Black) in the LOBBY is a conscious or unconscious symbol at the center of nonplace and an object implies the infinity. The thread in CMY colors and a mirror on the floor, surrounding elements, are juxtaposed with each other surface to surface to create an overlapping visual effect and they have interrelations with separate meanings. This means a space with infinite expandability, providing a clue to be immersed in the work. Such expandability creates visual sequences that makes the audience participate in overlapping points of view from dots, lines, and sides so that they can experience a life of nomads in the city to guide them to 'walk by dramatic scenes.'

In the space, the K-Cube creates dramatic new situations with the symbolization of black color and pieces (digital data of 0.1 and 1,492,992 LED-elements) and the media art that the audiences recognize reinterpret icons of the global village to provide them with infinite pleasure of the view. In particular, about 300 media arts that I have created since 2007 act as media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in a contemporary senses on the background of global cultures that I have amassed for over 10 years.

Based on this, visual sequences continuously place spaces made of three colors and dimensions, leading them to descriptive space of time

travel while they pass by the sequences. Also, they would be overwhelmed by the scale with extended spaces made of powerful three lines and surfaces that are extremely tensed and overlapped. Sooner or later, audiences are attracted by the spaces with completely oriental senses in a static scale.

To be specific, the K (Black) Cube that is looked down upon while walking in the corridor on the second floor allows audiences to recognize the chromatology (subtractive mixture of the three primary colors) that the mixed color of three sides of CMY turned out to be Black and the visual sequences occurring in the cube provide them with another cinematic imaginations. The audience can enjoy multi-sensory experiences bringing different reactions according to their points of view. Ultimately, my work begins with traditional thinking and attracts viewers to share and be immersed in algorithms consisting of new technologies and my way of thinking. That transforms their consciousness into shared cultural images to experience a visual caress with chemical bonding between global and Korean cultures.

Hence, my spatial pieces create consecutive sequences that are expanded to various divergences by converging each object. Specifically, audiences can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enjoy contrasting situations between place and non-place through time and physical movement.

My work is a space where the audience can ask questions to themselves on the interactions between objects and their existence while enjoying a nomadic experience and it is a sculpture of which breathing air inside is designed as well.

본 작업은 현대사회 속 방랑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길에서 조우하다' 연작 중 하나로, '집(house)'을 소재로 작업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물음과 함께 다변성의 공간을 의미하는 천막의 형상으로 제작한 작업이다.

<참여관찰 4: 나의 집>

"현존재의 본질구조로서의 세계내-존재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현존재의 실존론적 공간성에 대한 통찰을 가능케 한다."(하이데거)

길에서 나의 집을 조우했습니다. 방랑자가 남겨 놓은 집이었습니다. 방랑자는 그 곳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방랑자에게 정착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랑자의 집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집이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들어왔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세상으로 개방된 집입니다. 안과 밖이 구분된 정착민의 집과는 달리 방랑자의 집은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안팎을 경계하

는, 단속하는 문과 창이 없으니 경계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것인지 집밖에 있는지 모른 채 바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좀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은 기관 없는 방랑자를 닮았습니다. 기관 없는 집이었습니다. 신체를 삶의 중력으로부터 탈주시킨 방랑자처럼 기관 없는 집은 언제든지 하늘을 향해 비상(飛上)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랑자가 선물한 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기관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투명한 내 몸에 예고 없이 그리움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홀연히 던져진 채 바로 이 집, 이 공간에 실존(existence)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적막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나의 집, 나의 실존 공간은 절대자유로 춤추고 있었습니다. -성시정 평론, 방랑족(放浪族)에 대한 어느 인류학자의 참여관찰기

This work is included in his series titled 'Meet unexpectedly on the road' that reveals the existence of wanderers in the modern society and its subject is the 'house.' A space is created in the form of a tent to represent its variability while questioning the meaning of 'house' in the capitalist society. -Artist's statement

<Participant observation 4: My house>

"Understanding the being-in-the-world as the essential structure of dasein enables to discern the spatiality on the factuality of dasein."(Heidegger)

I met my house on the road unexpectedly. The house was left by a wanderer. The wanderer cannot stay there as settling in means death to him. To him, a house should be the place to be passed by. It is open to the world so that he can enter and leave at any time. Unlike settlers' homes of which the inside and outside are separated, boundaries dividing the wanderer's house from the outside

have disappeared. His house has no doors or windows guarding the inside and outside, making the boundaries meaningless.

Hence, the wind just passes through the house without knowing whether or not it blows inside or outside. I looked into the house and it resembled the wanderer without an organ. It had no organ. Like the wanderer who deviated the body from the gravity of life, the house was ready to fly to the sky.

I came to my house that the wanderer had left me as a gift. The organ had disappeared. I unexpectedly felt a sense of longing in my transparent body. Then I realized that I was left alone and existed in this house and this space. An air of silence filled the house. My house, the space of my existence was dancing in absolute freedom. -Seong Si-Jeong Art Critic, An anthropologist's participant observation of wanderer



Oksang Lim

흙

흙은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은 흙으로 부터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  
 내가 흙으로 작업하는 이유다.  
 흙은 그 자체가 이숙異熟이다,  
 이숙을 가르친다.  
 우리는 흙을 통해 이숙을 배우고 깨친다.  
 흙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흙은 다르게 되는 법을 보여준다.  
 흙은 자신을 버린다.  
 제 몸에 품었으되 자신을 관찰시키지 않는다.  
 공은 공으로 팔은 팔으로  
 소나무는 소나무로 참나무는 참나무로  
 굽벱이는 굽벱이로 지렁이는 지렁이로.  
 그러나 그 모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다시 흙이 된다.  
 내안의 나를 배우고 내 밖의 남를 찾는다.  
 흙은 흙으로 말이없다.  
 흙의 침묵.  
 흙은 나의 스승이다.  
 내 작품의 목적이다.

Soil

Soil is a source of all things.  
 All things are born from soil and return to soil.  
 This is why I produce works with soil.  
 Soil itself ripens differently.  
 Soil teaches how to ripen differently.  
 We learn and recognize how to ripen differently through soil.  
 Soil does not reveal itself.  
 Soil shows how to become different.  
 Soil discards itself.  
 Soil embraces all things, but does not achieve itself.  
 Soybeans remain soybeans,  
 Red beans remain red beans,  
 Korean red pines remain Korean red pines,  
 White grubs remain white grubs,  
 Earthworms remain earthworms.  
 However, all the things return to soil again.  
 They turn into soil again.  
 I learn myself in myself and seek others outside myself.  
 Soil is silent as it is.  
 Silence of soil.  
 Soil is my teacher.  
 Soil is my purpose.



만들레 꽃씨, 당신 I  
 캔버스위에 혼합재료  
 112 x 84cm  
 2018



민들레 꽃씨, 당신 II  
캔버스위에 혼합재료  
112 x 84cm  
2018

### 민들레 꽃씨, 당신

옛 서당 마당에는 민들레를 심었다고 합니다. 본래 공부라는 것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박고 꽃을 피워 그 뜻을 흰꽃씨가 되어 멀리 날아 펼쳐는 민들레와 같다고, 민들레에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민들레 꽃씨가 눈부신 봄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은 손에 손을 잡고 분단을 뛰어 넘었습니다. 70여년의 반목과 분단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민들레 꽃씨, 당신

눈부시게 훑날리는 민들레 꽃씨 처럼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멀리멀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 You, Dandelion Seeds

In former days, dandelions are said to be planted in the ground of a seodang. This means that children should learn from dandelions that take roots in barren soil, produce flowers and spread their white seeds to a distance.

In a spring day  
when dandelion seeds sparked brightly,  
the "Panmunjeom Declaration" was proclaimed  
on the 27th of April, 2018.

The both summits, Moon Jae-in and Kim Jeong-eun leaped over separation hand in hand. At last, an end was put to the period of the antagonism and division of more than 70 years. At last, a historic moment was opened that promises a new age of peace and prospe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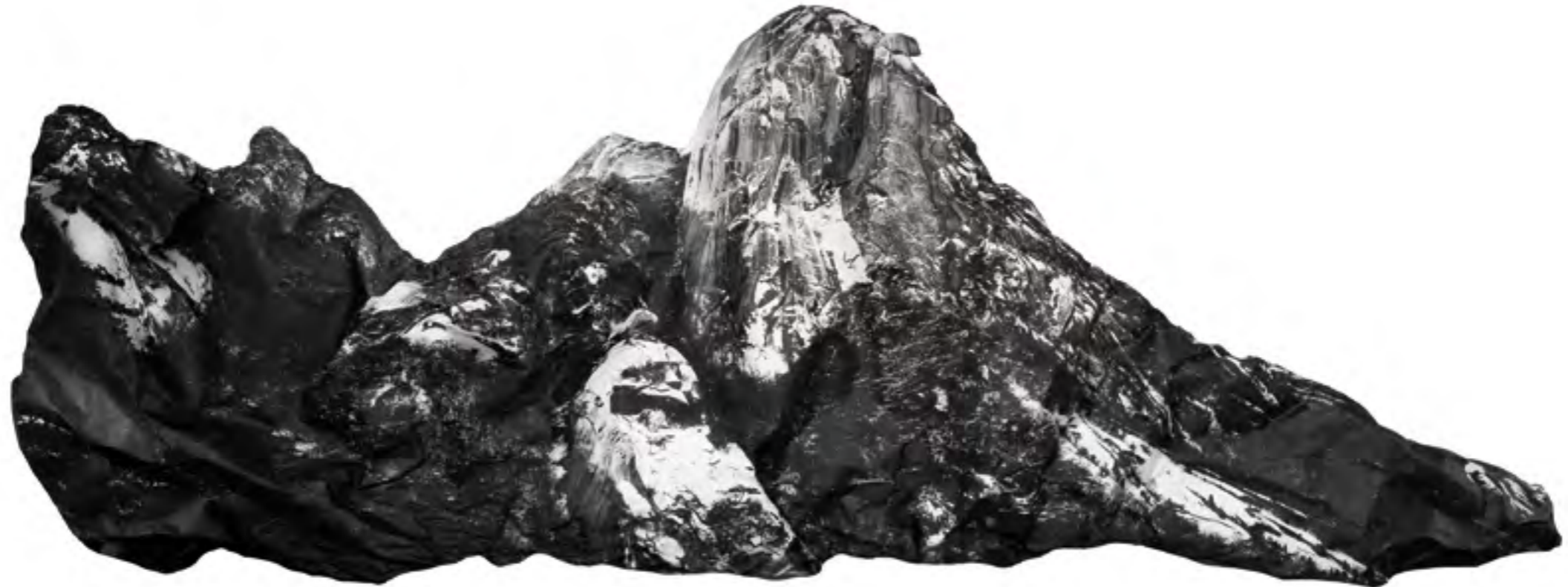
You, dandelion seeds

I pray that the atmosphere of peace will spread far and wide over the Korean Peninsula like dandelion seeds.

Chaewook Lim

북한산 인수봉은 서울의 큰바위 얼굴이자 한국 등산역사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로 이루어진 인수봉의 장엄한 모습과 기운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먼저 인수봉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후 한지에 흑백으로 인화하여 깊고 강한 수묵화의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한지에 인화된 사진을 다시 손으로 즉흥적으로 구겨서 입체적인 효과를 주었다. 일반적으로 사진을 구긴다는 것은 사진을 버리는 행위지만 사진을 한지에 인화한 후 구겨서 작업하는 나만의 독특한 기법은 역설적이게도 인수봉을 입체적으로 살려내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작품 뒷면에 스마트 조명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소리 및 음악에 따라 인수봉의 바위색깔이 다양하게 변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수봉이 딱딱하고 위압감이 느껴지는 존재가 아니라 관객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친근한 큰 바위 얼굴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사진과 수묵화 그리고 조각 등 서로 다른 매체적 특성들을 융합하여 인수봉이란 존재를 새롭게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Bukhansan Mountain's Insubong is the great stone face of Seoul and exists as a symbol for the mountain climbing history of Korea. Lots of thoughts went into visualizing the grandiose appearance and energy of Insubong consisting of massive granite. First of all, after capturing the most distinguishing look of Insubong in photos, it was printed in black and white on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handmade from mulberry trees) to express a deep and strong ink-and-wash printing. The printed photo on hanji was given a dimensional effect by spontaneously crumpling it once again by hand. Generally, crumpling up a photo means that you are throwing it away, but the work of crumpling the photo after printing it on hanji was my own unique technique, which paradoxically allowed me to make Insubong into a three-dimensional form. Lastly, I installed a smart lighting at the back of the artwork so that people can react to the different changes made to Insubong's stone colors according to their voices and music. Insubong no longer felt stubborn and overwhelming, and I wanted to share a friendly great stone face that communicates with the audience. By converg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hoto, ink-and-wash painting and sculpture together, I wanted to give a new impression of Insubong.



인수봉  
Insubong 3DS1802  
한지에 아카이브 피그먼트  
프린트, LED 조명  
500 x 200 x 40cm  
2018



Heungsoon Lim

한 여성이 어슴푸레한 새벽녘을 가르며 북한산 산행을 시작한다. 그녀는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이주해 온 여성이다. 그녀는 남한에서 가수로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늦깎이 대학생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풍경과 친구들에 대한 추억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곧이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치하면서도 아름다웠던 일상, 아버지가 들려준 황당무개하지만 신기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독백하듯, 기억하듯, 연기하듯 이야기 한다. 험준한 산길이 계속되고 숨이 차오를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굳건해 진다. 자신이 보고 겪은 남한 생활과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그리고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어간다. 그녀에겐 북한과 남한 사이의 어디쯤 일지도 모를 한 봉우리, 봉우리 위에서 그녀가 노래를 부른다. 노래는 이별과 만남, 기대와 절망, 존재와 상실 사이에 놓인 그녀의 불안과 간절하고 애타는 바람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바람은 그동안 잃어버렸는지조차 몰랐던 어떤 감정을 우리들에게 전해준다.

At the break of dawn, a woman climbs Bukhansan? "North Korean Mountain". Born in North Korea, she escaped to South Korea through China. She is working as a singer and actress in South Korea while attending college. She begins her story with the memories of her hometown and friends. The stories of cheesy yet beautiful everyday life with her parents and the fairytales her father had told her follow. She tells her stories like monologues, as if she is trying to remember or as if she is simply acting. Even though the rugged mountain path continues to leave her out of breath, her voice resounds only stronger. She keeps telling her thoughts on her life in South Korea, her family back in North and the unification of Korea. Upon arriving at a mountaintop that could be somewhere between North and South, she begins to sing. Her song feels as though it is a desperate wish from someone anxiously swaying between parting and reunion, expectation and despair, or existence and loss. And her wish awakens certain sentiment we did not realize we have forgotten.



북한산  
26min,  
HD video, color  
2015

### 투명한 인체

나의 작업은 현대인들과의 관계 속에 감춰진 이중성에서 비롯되는 소외감을 모티브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진행해 왔다. 인간적 윤리보다 물질이 우선시 되고, 이해타산이 중요한 사회 속에 사는 우리들은 '인간의 이중성'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오는 내면의 혼란이 타인과의 진실 된 소통을 방해하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고립시켜 심리적 거리감을 가지게 한다. 스스로의 고립은 이런 이중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규칙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도 스스로를 고립시켜 진실한 나의 내면을 만나고 싶어 한다.

나의 작업에서 투명한 이야기는 바로 나의 진실된 내면의 독백의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 속 투명한 인체는 고립된 공간이지만 가장 진실 된 공간이기도 하다.

살도 없고, 피부도 없고, 뼈도 없이 낙엽으로 표현된 인체 안에 덩그러니 매달려 있는 심장이 바로 그 공간이다. 내면에 숨 쉬는 투명한 진실 된 본성과 본능이 심장 안에서 표현된다. 그 세계 안에 표현된 새들과 인물은 투명한 나,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존재론적 물음 던지고 시선은 슬픈 듯 친근하며 때론 차가운 눈동자로 현대인들의 이중성에 눈물을 비추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관객들과 함께 진실한 우리의 내면의 진실을 찾고자 함인 것이다.

### The Transparent Body

I have continued to create works by questioning on a sense of alienation caused by the hidden duplicity in interpersonal relations of contemporary man. We live in the society where materials outweigh human ethics and self-interest is regarded as important. We are adapting to the 'duplicity of humans' to make a living. The anxiety and inner confusion and conflict between truth and lie hinder honest conversations with others and thoroughly isolate ourselves to create psychological distance. Shutting oneself away is to be free from social norms that require us to maintain such duplicity. I isolate myself from society, hoping to find my inner self.

In my work, a transparent story is a monologue of true inner self. Although the transparent body in the story is an isolated space, it is the most genuine place to me.

A heart that is hanging in the body expressed as a fallen leaf without skin, flesh, or bones represents the space. The true and transparent human nature and instinct residing in the inner self are depicted in the heart. Birds and a person in the world represent a transparent self. They ask us ontological questions.

Their eyes look sad but familiar, or often too cold to shed tears for the duplicity of contemporary man. Such expression is to find our true inner selves along with the audience.



투명한 기억  
transparent memory  
Wood  
280 x 150 x 130cm  
2014

Goam Jung

2018 삼족오(三足鳥)

내 작업은 시종일관 새기는 일이다. 작업 이전에 사는 일 자체가 새기는 일에 다름 아니다. 듣는 것,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감촉하는 것, 맛보는 것, 오감의 모든 작용이 세계와의 소통이며 뒤섞임일진대, 이를 조금 더 깊이 새겨보면 내가 세계이고 세계가 나이니 우주만상 그 어느 것도 나 아닌 것이 없다.

이번 삼족오 작업은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는 작업이었다. 내 누옥이 있는 삼청동은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소격전(昭格殿)이 있었다고 한다. 삼청은 도교의 최고 이상향으로 태청(太淸), 상청(上淸), 옥청(玉淸)을 일컫는다. 비록 가옥은 누추하지만 신령스런 땅이어서 그런가, 서울 한복판임에도 이곳에선 하늘이 푸르고 밤엔 별이 총총하다. 이곳으로 이사한 지 7년째, 잃어버렸던 별들의 귀환은 내 자신의 귀향과도 같다. 우주 가득 흩어진 내 분신들을 올려다보며, 그 별들 사이를 자주 유영한다. 멀리 오를수록 푸르고 작은 별 지구의 생명불이들의 생애가 애뜻하면서도 거룩하다. 무한창공이 심해의 심연 속으로 내려갔고 높이 떠오른 태양이 그대로 바다의 중심에 가라앉는다. 결국 생명의 중심은 무한허공과 망망대해의 깊은 심연에 달아 있음이다. 그 언저리를 고량과 이랑으로 파동치면서, 시간의 결 위에서 모든 존재가 자기의 신화를 완성 지어가고 있다. -작가노트

2018 Three Legged Crow(三足鳥)

My work is related to carving from beginning to end. Living life can also be said to be carving something. All interactions of the five senses—taste, sight, hearing, touch, and smell—are to communicate and mix with the world. By engraving such interactions in one's mind more deeply, one soon can find out that he is the world and vice versa. In other words, all things in the universe represent him. This project made me look back on myself. I live in Samcheong-dong and it is said that it is where Sogyekjeon(昭格殿) a place to offer sacrifices to heaven was located until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Samcheong is utopia in Taoism and refers to Taecheong(太淸), Sangcheong(上淸), and Okcheong(玉淸). My house is humble, but it might be because of the mystical power of this place. The sky is blue and I can enjoy a bright starry night in Samcheong-dong, even though it is located in the heart of Seoul. I moved to this place seven years ago. The return of lost stars is like my return home. By looking up at the stars scattered in the universe, I often fly among them. When I fly higher, I feel pity on and am marveled by the life of creatures living on earth. The infinite sky falls into an abyss and the risen sun sinks in the heart of the sea. In the end, the center of life is connected to the infinite sky and the abyss of the open sea. All living creatures end their myths in the waves of time by moving the boundaries in furrows and ridges. -Artist's statement



2018삼족오(三足鳥)  
Three Legged Crow  
stone, Hanji, mixed material  
dimension variable  
2018

**2017 니체**

니체의 철학을 작가의 한글작품으로 창작하여 '보이는 세계와 가려진 세계가 어울려져 현상 세계를 이룬다는 의미' 표현.

**2017 Nietzsche**

<Nietzsche> submitted to Changwon Biennale 2018 to depict the philosophy of Nietzsche with Korean artwork to express that the seen and unseen world harmonize together to create a phenomenal world.



니체  
Nietzsche  
Stone  
12 x 12 x 55cm  
2017

**전각 애니메이션 시리즈 / 2006-2018**

정고암 작가의 '새김아트'는 전통전각, 전각화, 설치미술, 퍼포먼스, 애니메이션, 타이포그래피 등에 적용되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소통하게 하였다. 이것을 작가는 아날로지탈이라 부른다. 정고암의 전각 애니메이션은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CICI) 및 방송을 통해 세계 각국에 한국의 이미지를 전하고 있다.

**Engraving animation series / 2006-2018**

Saeghim Art of Jeong Go-Am enables communication between analogue and digital by applying it to traditional Korean engraving, engraving painting, installation art, performance, animation, typography, etc. Jeong calls it as 'Analogital.' His engraving animation series have spread to the world through Core Image Communication Institute (CICI) and via the air, delivering images of Korea. Three legged crow, stone, Hanji, mixed material, dimension variable, 2018



전각 애니메이션 시리즈  
Engraving animation series  
5 video files, 3'30" per file  
2006-2018

## Kwanghwa Chung

## 기억체계의 물질화

La Palette 시리즈는 최근 설치를 시작으로 사진과 영상, 조각도 함께 발표하고 있는데 이 작업의 시작은 '기억체계를 물질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만들어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매 순간 기억하거나 기억을 꺼내며 그것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가고 각자가 취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음악을 하기 위해 악보를 외우는 연주자, 그림을 그리다 보니 글보다 그림의 배치를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시각 예술가 그 외에도 직업은 기억하는 방식을 다르게 만들지만 그러한 방식이 달라지게끔 하는 데는 결국 언어에서 어순의 차이나 문화의 특이성, 자연환경까지도 깊은 영향을 준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10여 년간 같은 주제로 다양한 설치, 조각의 형식을 통해 실험해 오다가 La Palette 시리즈에 와서 기억에서의 시간성, 관객참여의 형식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석고가루로 만들어진 분진 형태 위에 석고로 떠낸 미니카가 부서지거나 석고가루에 묻혀 불규칙하게 놓여있고, 끊임 없이 안개가 솟아나와 이 풍경을 가리고 있다. 안개는 공기의 흐름이나 관객의 호흡에 의해 움직여 내부의 풍경이 드러났다 다시 사라진다. 안개에 의해 석고가루는 점차 굳어져 덩어리가 되고, 미니카는 서서히 부서져간다. 연약한 석고의 물성, 시간성, 물체의 반복과 그것들의 차이, 관객과의 interaction 등의 요소들은 물질로 표현된 기억의 모습을 구성하는데, 이는 결국 세상의 종말과 닮아있는 아이러니를 낳는다.

## 1. 반복의 형식

한가지의 같은 사물이나 사건이더라도 기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과 동시에 그것을 이후 기억해 내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억해 내는 것은 극히 일부이거나 매 순간 다를 수 있다. 이는 앙리 베르그송이 언급한 '습관적 기억' 즉,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기억은 현재의 행동에서 가역적으로 생산되며 반복을 요구하는 시간 안에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은 작업

안에서 같은 모델의 미니카가 반복 되지만 결코 완벽하게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 2. 시간성

기억과 관련해서 시간성은 다양한 면으로 관찰하게 된다. 물론 현재에서 회상하는 과거에 이미 시간의 개념은 있지만 시간과 함께 잊혀짐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기억의 모습이다. 하지만 거기엔 왜곡이나 뒤섞임 등의 모습도 있다. 이런 특징은 석고 가루와 석고로 떠낸 물체에 물을 주어 가루였던 것은 점차 굳어져 덩어리가 되어가고 물체로 존재했던 것은 물로 인해 부서져가는 현상을 눈 앞에 펼쳐 보이는 형식 안에 표현된다.

## 3. 기억의 연약함

다소 시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기억은 상당히 의식 혹은 무의식에 따라 굳건히 남아있거나 사라진다. La palette 에서 석고는 그런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석고가 조각이나 건축의 주요한 재료이면서 동시에 쉽게 깨질 수 있는 성격 때문이다.

## 4. 관객 참여

이 주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개개인의 방식과 눈앞에 펼쳐진 작품을 비교해보며 소통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참여의 방식을 설명하진 않지만 관람객들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개 속에 가려졌다 드러나는 모습을 바람을 불어 직접 개입해보며 체험할 수 있다. 두터운 안개를 걷어내기 위한 깊고 긴 호흡은 주제로의 질문 생각하게끔 하는 중요한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La palette i  
석고, 물, 가습기, LED  
450 x 230 x 70cm  
2018





### Materialization of the memory system

Starting with the recent installations followed by images, videos and sculptures being released, La Paletteseries was initiated with the question "what if the memory system is materialized?". I believe that everyone gains experience by memorizing and recalling their memories and they have their own way to do so.

A performer memorizes the score sheet to play music, and a visual artist memorizes the placement of elements in a painting. How they memorize depends on their occupation, but such variations are ultimately influenced by sequences in languages, the peculiarity of culture, and even natural environments.

I kept experimenting with the same topic with various installations and sculptures over the past ten years, and La Palette series highlights the temporality of memory and audience involvement.

On the shape of dust made of plaster, plaster-cast mini cars are placed broken or raggedly and covered with plaster powder, and mist endlessly drapes the scene. The mist moves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air or the audience's breathing, veiling and unveiling the inside. It also gradually solidifies the plaster powder, and the mini cars break down slowly. The softness of plaster, temporality, the redundancy and difference of objects, and interactions with the audience form the appearance of memory expressed in materials, which after all ironically resembles of the end of the world.

#### 1. Reiteration

People have different limitations in remembering the same object or event, and they may only recall part of it, or their memory may vary moment by moment depending on what motivates them to revisit their memory. This represents Henri Bergson's habitual recitation, i.e., memories closely associated with daily lives that are revocably produced in present actions and exist in time that re-

quires repetition. In this work, such a feature can be seen from the repetition of the mini cars that never appear to be identical.

#### 2. Temporality

Concerning memories, temporality is observed in various perspectives. The notion of time already exists in the past recalled in the present, but being forgotten in time is the mode of memory we all share. But there are distortions and mix-ups, too, which are expressed with the phenomena where plaster powder and plaster-cast objects are hydrated to become gradually solidified and things that used to exist as objects are gradually dissolved by water.

#### 3. Softness of memory

It may sound poetic, but whether memory sustains or vanishes is significantly dependant on our consciousness or unconsciousness. In La Palette, plaster shows such a nature, as it is an important material in sculpture and architecture and is at the same time fragile.

#### 4. Audience involvement

The significance lies in communicating with the audience by allowing them to compare how each one of them lives with what they see. It does not specify how they should be involved, but the audience does not stop at merely watching it but plays a role by breathing on it to reveal images covered by mist. A deep, sustained breath to remove the thick mist may lead to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m to think of questions related to this topic.

## Kijong Zin

카톨릭 및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 같은 하나님을 칭하는 용어이다. 유일신인 하나님은 결국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와 무함마드를 신격화하고, 다른 교리를 주장하며, 끊임없이 않는 여러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현재 지구 상에서 들끓는 내전과 전쟁을 거듭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 간의 다툼도, 결국은 종교 마찰을 발화점으로 폭발에 이르렀다.

카톨릭 신자이자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미 해군 네이비실팀(NAVY SEAL TEAM) 6 대원은 전투에 나가기 전 한 손에 묵주를 다른 손엔 살인 병기를 들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 독실한 이슬람 신자이자 알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지하드(jihad) 전사인 알 카에다(AI-Queda) 부대원은 냉전시대의 마스크트인 AK 47소총과 알라의 요술봉이라는 RPG-7을, 다른 손엔 이슬람 염주를 들고 기도하며 코란을 읊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2011년 5월 2일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은신해있던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서 성공을 거둔 실팀 6과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의 안가에서 경호 임무를 맡았던 알 카에다 조직원의 죽음으로 인해 중동과 서방국 간의 전쟁은 끝나는 듯했지만, 극진 이슬람들은 더욱 잔인하고 대담해졌고, 결국 종전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21세기 백년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눈을 감고 서로 마주한 두 병사는 유일신인 하나님에게 다른 종교의 신념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전쟁터에서 과연 신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인가. 결국 종교전쟁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인 것인가.

The God in Catholicism and Christianity and Allah in Islam indicate the same god. The singular god is ultimately the one. However, humans apotheosize Jesus and Mohammad, assert different religious creeds under different names of Protestantism and Islam and ceaselessly produce conflicts. The ongoing antagonism between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the Western countries, repeating civil and international wars, is ultimately a result of religious conflicts.

In this work, a soldier who is both a member of the Navy Seal Team 6 – the most advanced special operations unit of the U.S. Army with high-tech gear – and a Catholic believer – is praying in a sacred manner before entering battle. He is praying with piety while holding a rosary and a tool for killing in either one of his two hands. A member of Al-Qaeda jihadi fighter, who is a devoted Muslim and regards the sacrifice of life for Allah as an honor, holds an AK 47 rifle and RPG-7 in one hand and a rosary in the other hand. As the jihad fighter seems to recite the Quran, the guns he is holding are respectively known as a mascot of the Cold War and a magic wand of Allah.

On May 2, 2011, a special ops operation to kill the leader of Al Qaeda, Osama bin Laden, was successful in Abbottabad, Pakistan. The Seal Team 6 led the operation, and Al Qaeda members were killed in bin Laden's safe house. The success of the operation seemed to put an end to the conflict between the Middle East and the West, but the radical Muslim militants became more brutal and audacious.

The whole situation seems to become an endless war in the 21st century. In this work, the two soldiers are facing each other while they close their eyes and pray to a single god through different religions. To whom will the god respond in a war zone where one of them has to die? In the end, is a religious war a task that humanity cannot resolve?



자유의 전사  
Mixed Media  
150 x 90 x 150cm (x2)  
2015



자유의 전사  
Mixed Media  
150 x 90 x 150cm (x2)  
2015



Woolga Choi

나는 어린시절 첫 그림부터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만들어진 설정에서 비껴간 본능에서의 표출되는 감각에 의존해야만 했던 그림.

Primitif!

단한번도 흐트르짐도 없는 이즘의 틀안에서 지금까지 무수한 변화속에 감추어진 본능의 속살을 수없이 도려내고 베껴 내기를 반복했다.

원초적 자유스러움을 찾았지만 그 속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이글거리는 감춰진 탐욕은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들여다 보지 못했다. 정글의 숲속같은 수많은 수수께끼같은 사물들의 오묘함은 차라리 인간들의 눈에는 어쩌면 유희 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탐욕과 비릿한 모순들 인간들의 삶에 대한 비판은 차라리 나의 그림 속에 영원히 알지 못하게 숨겨 놓았는지 모른다. 그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인간의 모순된 허물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기에 끊임없이 정신적 방황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진정 프리미티브의 시작부터 완결편을 만들고 싶었다. 어린 풋내기시절 이글 그리는 자화상부터 인간 본연의 모습, 나이가 언어가 없었을 때의 원시시대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싶었다.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 느낌마저도 언어로도 문자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그때를 말하고 싶었다. 그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모른다. 끝이 없을 수도 있다. 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연구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끝없이 변화되면서 수많은 얘기를 담을 수 있는 장르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한다. 결국 인간 본연의 DNA가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표현되는 상황들 중에 내가 택한 원초적 본능을 나타내는 몸짓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그림에 고스란히 내려 앉기를 바랐다. 자본주의 시대의 예술가들의 삶이란 끝없이 자기상황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웠고 빛나고 황홀한 생각들을 접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차라리 앞이 보

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속을 걸어가는 자신을 깨달을때 얼마나 좌절했을까?

나도 예외에서 벗어날수 없었던 그상황— 프리미티브의 기초를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뉴욕의 거리를 헤메일수 밖에 없었던 그때 그시절—포기하고 싶었던 그때도 왜 프리미티브인가의 의문을 던지면서도 끝내는 다른길로 비켜가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있었기에 아직도 낡은 물감재료를 뒤척이며 본능의 자유스러움과 무언의 느낌을 흰 캔버스에 때론 오브제에 투영하며 좀더 그것에 가까이 가려고 분투하고 있다. 어쩌면 나의 삶속에서 프리미티브의 표현이 어린 시절 삶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불운한 환경속에서 만들어졌을지 모른다. 인간은 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가? 그리고 왜 아파하면서 살아가야하는가가 그어린 아이의 화두였다. 어린시절 집집 옆에서 살았던 나는세벽 4시간되면 목탁소리와 함께 잠을 깬다.

새벽 4시반에는 성당의 종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하루 삶은 피폐해져서 고달프게 살았던 그때 어린나의 눈에 비친 세상의 풍경은 차라리 슬픔으로 다가왔다. 결론은 인간의 고통은 언어속에서 나온다는걸 깨닫고 훗날 그림속에다 만들어 낼려고 하던것이 나의 프리미티브의 시초인것이다. 암튼 지금까지의 홀로 걸은 프리미티브의 터널을 걸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것처럼 나의 산길에 펼쳐져있는 프리미티브의 오솔길을 걸어갈것이다 설사 완결의 미학에 도달하지 못한다해도 결코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작가노트



**Red fox series**  
mixed a painting  
on FRP  
165 x 110 x 48cm  
2010



**White Wolf series**  
mixed a painting on FRP  
65 x 110 x 48cm  
2010

There was a name that I had to rely on ever since I drew my first painting in my early days with emotions bursting out of my instinct deviated from standardized, stereotyped settings.

Primitif!

I have repeated countless times scooping out and copying the inside of the instinct covered by numberless changes within the framework of "ism" that never became disarrayed.

I found basic freedom, but no one else but me looked into the fear within and the burning greed hidden therein. The profundity of countless mysterious objects as if being in the jungle may well look like a game to humans' eyes. I might have hidden the greed and contradictions contained therein and criticism against human life in my paintings so that they can never be known. I needed the ability to unravel, one by one, the contradictory missteps of humankind at a distance from the painting, so I experienced ceaseless wandering of my soul.

Indeed, I wanted to make the last of Primitif from its very beginning. I wanted to express the self-portrait of me in my premature days, the true self of the humankind, and ultimately thoughts in the primitive ages when they had no languages. I wanted to speak of the times when there were no ethics and morals and there was no language or letters to express feelings. It is unknown where it begins and ends. There may be no end. And the conclusion is unreachable. But I see my research constantly changing over time and becoming a genre to contain countless stories. I wished that I could approach the motion expressing the basic instinct that I had chosen among many different situations where humans' innate DNA was expressed through many different ages, and that those things would sit on my paintings intact. In the world

of capitalism, artists often have to give up on their beautiful, brilliant, fascinating ideas due to the gap between the situations they face and the reality. How frustrating it is for them to find themselves walking in a dark tunnel with no end in sight! My situation was no exception, either. I was wandering around the streets of New York City, fluttering my feet not to lose the direction of primitive.

I was tempted to give up on it but in the end ended up being foolish not to take a detour from keeping asking about 'why primitive?' So I am still struggling, turning over old colors, projecting the freedom of instinct and the feeling of muteness sometimes onto white canvases, other times into objects, trying to come closer thereto. Perhaps in my life the expression of primitive was created from my unfortunes in my early days. Why do humans feel agony? Why do they hurt? And why do they have to live in pain? The young self of me thought of these questions. Back then I lived by a Buddhist temple, and the sound of the wood block woke me up at 4 am every morning.

And it was followed by the church bell ringing at 4:30, ruining people's day. In those tiring lives, the image of the world in my eyes was sad. After all, I realized that the pain of humans comes out of languages. And my primitive started with my attempt to get them on my paintings. So far I have walked in the tunnel of primitive alone, and there still remain mountains to climb. But I will keep walking along the trail of primitive unfolding in the mountains as I have always done. Even if I won't be able to reach the aesthetics of completion, I will never turn back. -Artist's statement

Taebum Ha

사선

지금 이 순간에 지구 어디에선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같은 역사를 갖고 있었으나 경제발전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자 기부문화와 구호단체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방송에서 이러한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음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거기엔 굶주리고 핍박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유명한 배우나 저명인사가 나와 우리에게 그들을 도와달라 호소한다. -뻘만 앙상하게 남은 어느 흑인 아이는 굶주림의 상징이고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각인된다. 하지만 그 아이가 누구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은 없고 우리의 슬픔과 연민을 자극하는 매개체로서의 상징물로만 남아있다. 마치 과거 역사적 사건을 기리는 기념비처럼 말이다.-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은 사진가와 기자들의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파리가 눈가에 붙어 있는 얼굴이, 반쯤 벗겨진 옷 사이로 비치는 가슴 그리고 슬프고 괴로워 일그러진 표정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이런 그들의 모습을 기념비로서의 인물상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누군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후세 사람들이 세우는 조형물이다. 그러나 정작 기념비의 주인공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며 그들에게 어떤 의미도 되지 않는다. 단지 남은 사람들의 이념이나 목적, 연대감 등등을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면에서 굶주린 아이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구호단체의 광고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Siseon

Starving and ragged people are desperately looking for help somewhere on earth at this moment. Korea was one of the countries that needed help only a few decades ago. We have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and begun to lead a life of plenty to some extent. Now, much attention is being put on the culture of donation and volunteer activities of relief groups. We can often see the ads of aid groups through broadcasting media. In the ads, people are starved, persecuted, and suffering, and famous actors and actress, and celebrities urge us to help the needy. A scrawny black child is a symbol for starvation and the child is stamped in our mind as a representative of Africa. However, no one cares about who the kid is and what happened to him later. The boy remained only as a symbolic icon stimulating feelings of compassion and sympathy. It is like a monument commemorating a historic event. And their figures are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through the camera lens of reporters and photographers.

How do they know that their faces with flies are around their eyes, uncovered breasts through half-naked clothes, and gloomy looks with sorrow and pain are shown to the world? Such symbolic images are displayed as characteristic figures and they are like monuments that are built by future generations to admire someone's work. However, he or she does not know the fact that such monuments are made and it does not really mean anything to them. Considering that such monuments do exist for the purposes of ideology, aim, solidarity, and others for the people who remained, TV commercials of relief organizations depicting images of starving children can be understood to have the same meaning.



Line of Sight3  
Aluminum panel Fiberglass  
120 x 180cm  
2015



**Boy**  
Mixedmedia  
70 x 70 x  
215c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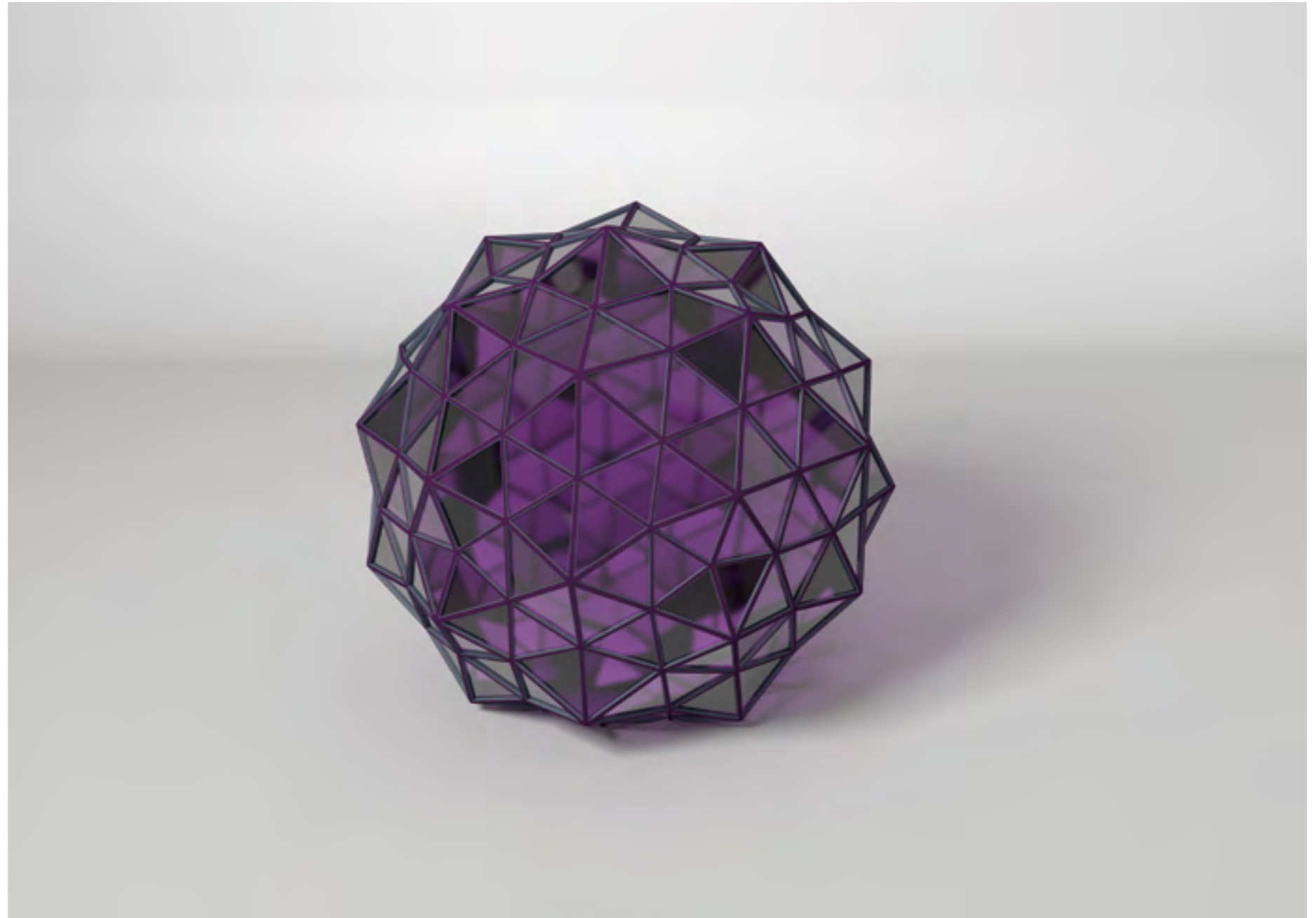
**Girl**  
Mixedmedia  
75 x 75 x  
190cm  
2014

Seungku Han

skin of skin-diaBlack3는 동식물의 자기 보호 기능인 미미크리 (mimicry)에서 차용한 작품이다. 미미크리는 자기 보호 기능인 위장, 변장으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이면에는 위협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작품은 사회 속에서 자아를 위장하는 기능과 외부의 존재에 대해 위협함으로써 자아를 노출시키는 동시에 자아의 존재성을 확인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이는 피부를 통해 위협하고 위장하는 동식물과 유사하여 피부와 피부 사이 혹은 피부의 피부(skin of skin)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skin of skin-diaBlack3 borrows a method of self-defense mimicry of plants and animals. Mimicry is mainly known as a defensive or protective disguise and camouflage. It can be used to threaten their enemies as well. Hence, this work intends to expose the self and confirm its existence at the same time by camouflaging oneself in society while threatening external beings. It is similar to plants and animals that threaten and camouflage with their skin and it means the gaps between skins or skin of skin.

**Skin of skin-dia black3**  
Mixed Media  
120 x 120 x 120cm  
2018



Seonwung Hong

<백령도-종이학>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해군의 어뢰공격으로 백령도 근해에서 한국군의 천안함이 침몰된 사건을 다룬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한국해군 40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되었다.

이 작품은 남북분단으로 야기된 오늘의 현실을 천안함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환기해 보고자 제작되었다. 남북한의 남녀 여러 명이 폭탄과 총을 들고 대치하면서 서로 고뇌하는 모습에서 분단이 주는 삶의 절망과 공포가 느껴진다.

종이학은 백령도 두무진을 배경으로 46명의 순국 영령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시한 것이다. 이미 저 세상으로 간 고인들을 상징한 종이학을 통해 우리 모두는 분단이 없는 조국의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은 충동을 가질 것이다.

<산다화, Camellia Flower>는 차(茶)를 주제로 한 목판화이다. 한 소녀가 산다화(동백)와 매화 그리고 산수유가 활짝 핀 계절에 다관에 숯불을 지퍼놓고 차 탁에는 차 주전자와 찻잔들을 올려놓은 채, 차 사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좀 더 정리해서 말하면 산다화를 배경으로 일상의 차살림을 그린 판화라고 할 수 있다.

<산다화>에 그려진 차를 마시는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면 물처럼 다투지 않는 자유로움과 평화로움 그리고 행복감을 느낀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차를 좋아하는 이유이고 <산다화>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Baengnyeongdo-Paper Crane> depicts the incident of the sinking of South Korean naval vessel ROKS Cheonan near Baengnyeong-do after a the strike from a North Korean torpedo on March 26, 2010. Forty South Korean sailors were killed and six were missing due to the incident.

This work was created in an attempt to remind the audience of the reality of Korea caused by the division of the nation with the ROKS Cheonan sinking. In his work, several men and women of the North and South are carrying bombs and guns and confronting each other. They look tormented with agony and make the audience feel fear and despair to live in a divided nation.

Paper Crane expresses condolences to the 46 people who died for their country on the background of DooMooJin in Baengnyeongdo. Paper cranes represent people who passed away and the audience would feel the urge to freely fly the sky of undivided homeland.

<Camellia Flower> is a woodcut under the theme of tea. In a season when camellia flower, Maewha (mume), and Japanese cornelian cherry are full in bloom, a girl made a fire with charcoal to boil a tea, and is holding a tea bowl while a tea pot and teacups are on the table. In other words, this work depicts the daily routine of making and serving tea on a background of camellia flowers.

While looking at the girl on <Camellia Flower>, the audience may feel freedom, peace, and happiness like the water that does not compete. That might be the reason why I like tea and his work <Camellia Flower>



산다화(山茶花)  
colored woodcut on hanji  
(Korean handmade paper)  
142 x 121cm  
2011



울산역사고(歷史考)  
Woodcut  
90 x 200cm  
2016

Jaihyoung Hwang

새벽에 홀로 깨어 II

고은 최치원님의 시에서 따온 제목 '새벽에 홀로 깨어'. 신라에서부터 지금껏 종교적 이상과 정치이념은 무엇이길래 아직도 새벽에 홀로 깨어 우는 가슴이 있을까? -작가노트

<새벽에 홀로 깨어>는 세월호 어머니를 그린 작품이다. 처절한 모습을 머리카락으로 대신하고자 했다. -윤범모 미술평론가

Awake Alone at Dawn II

The title 'Awake Alone at Dawn' comes from Goeun Choi Ji-Won's poem. From the Silla days until now, what are religious ideals and political beliefs that make us stay awake alone at dawn and cry our heart out? -Artist's statement

<Awake Alone at Dawn> is a work of a Sewolho victim's mother. The wretched appearance was expressed by using hair. -Youn Bum-Mo art critic



새벽에 홀로 깨어 II (세월호 어머니)  
캔버스에 머리카락  
162.2 x 130.3cm  
2017

원이 엄마 편지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조선 여인의 사랑 편지는 시대를 넘어 변치 않는 미학적 성취이다. -작가노트

황재형의 <원이 엄마 편지>는 애절한 사랑 편지와 더불어 머리카락이라는 재료를 주목하게 한다. 30살에 요절한 남편을 위해 편지와 더불어 무덤에 넣어준 머리카락 신발. 미망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신발을 만들었고, 이를 사랑의 징표로 무덤에 넣어준 것이다. 황재형의 작품은 편지 배경에 머리카락 뭉텅이로 집약 상징화했다. 머리카락의 의미를 새롭게 재인식하게 한다. -윤범모 미술평론가

Letter from Won's Mother

The love letter of a lady from the Joseon Dynasty discovered during the process of moving the grave is an aesthetic achievement that transcends time. -Artist's statement

Hwang's Letter from Won's Mother brings our attention to the hair material, along with the sad love letter. The wife put a shoe made of hair along with the letter in the tomb of her husband, who had died at the young age of 30. The widow wove a sandal with her own hair, and placed it in the grave as a token of her love. In his work, Hwang condensed and symbolized this with clumps of hair against the background with the contents of the letter. It provides a new perception of the significance of hair. -Youn Bum-Mo art critic



원이 엄마 편지  
캔버스에 머리카락, 짚신,  
162.2 x 97cm  
2016



# 쿠이 시우위엔

## Cui Xiuwen



우리의 과잉의 시대는 기술부터 지식, 지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생기게 한다. 쿠이 시우웬(Cui Xiuwen)에게는 적을수록 많은 것이며, 더 나은 문구를 찾는 이들에게는 짝을 수록 좋은 것이며, 숨막히게 쏟아 붓는 합성물을 통해 그녀가 전달하는 호기심, 욕망, 지성, 창의성의 다학제적 접근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

동북보통대학을 졸업하고 중앙예술학원에서 유화 석사 과정을 마친 이래로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프로젝트마다 섬세하고 주제와 관련 있는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후속 전시에서는 마치 연작 같은 요소들이 종종 재등장하고 새롭게 반복된다. 매체의 특징이라는 제약에 커리어가 매어 있는 그녀 세대의 예술가들과 달리 쿠이 시우웬은 포스트미디어 컨디션을 출발점으로 삼아 미적 경험이 더 이상 자족적 표현 또는 소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나아간다. 그녀가 “회화”, “사진”, “영상”, “설치” 사이를 대단히 유연하게 오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완전히 체결된 이러한 지주 각각과 그녀의 관계는 식별 가능한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들일 의향이 있는 관객에게 자신을 활짝 열어 보이는 그녀의 작품이 제시하는 파라미터 속에서 일어난다.

다학제적인 예술가로서, 디지털 기술의 영역에서의 예술에 대한 경험은 그녀의 전반적인 활동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질적인 현실과 맥락 속에서 그녀의 작품을 내보이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서로 다른 신호의 체계가 끊임없이 연결되고, 교차하고, 재생산되는 시각적 공간이 창출된다.

그녀의 최근 개인전 “재생(REINCARNATION)”은 전체적인 디스플레이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보여지는, 분절된 회화적 ‘영역들’의 오픈 매핑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녀는 회화의 형태로 조각 설치물과 3개의 화면이 있는 비디오의 배열을 제시한다. 대부분은 흑과 백, 은색과 회색의 제한적인 색채를 통해 비슷한 시각적 구조를 보여주는 가운데 빨간 색만이 이러한 법칙에서 예외적으로 도드라진다.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기하학적 형태들이 구성을 주도하며 형태적, 시각적, 주제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관객으로 하여금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한다.

쿠이 시우웬은 일견 미니멀리즘과 개념론의 개념들을 재맥락화하기 위하여 추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터 그녀는 선과 줄의 분획을 바탕으로 그녀의 예술을 창조, 결합해왔다. 선과 줄은 그녀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번 시리즈에서 작가는 선을 자유롭게 하여 반복되고 서로 얽힌 형태로 구성된 층의 팔레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무미건조한, 적층된 선의 배경에 과감한 매트릭스를 도입함으로써 그녀는 작품이 주변의 공간과 관객을 감싸고, 나누고, 반영하는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

2013년 수저우 미술관에서 개최된 지난 전시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전시를 읽는 것과 보는 것 사이의 관련성을 – 그녀의 새로운 작품의 맥락 속에서 – 보여주기 위해 공간성을 취했다. 마치 연속적인 실체의 고리인 것처럼 설계된 전시 공간에서 회화가 시각적 착각으로 우리를 매료하며 미니멀리즘 형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가볍게 흔들어 놓는다. 구성 전략이 거의 유사한 요소들은 서로의 부분이며 서로 대화한다. 시각적 형식주의와 종류의 측면 모두에서 이러한 추상은 꿈결 같은 형상으로 매력적인 평형의 상태에 더해진다. 동일한 붓놀림을 사용한 흑백의 선과 직사각의 블록들이 우아하고 늘씬한 모습부터 넓고 도드라진 모습까지 다채롭게 등장과 재등장을 반복한다. 이로써 캔버스를 종횡무진하며 활기차게 가로지르는 일련의 형태적 특성이 만들어진다. 그녀는 균형과 조화에 몰두한다. 작품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멀리 나가지 않고 있지만, 반복과 변이가 이끄는 세심한 시적 도식을 보여준다. 수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가는 제한된 언어로 다양한 치환을 강조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쿠이 시우웬이 선호하는 조각 설치작품의 재료인 너도밤나무와 물감은 건축적인 암시를 만들어내는 데에 기여한다. 긴 직선형의 블록이 천장에 매달려 있고, 서로 중첩되며 전체를 구성한다. 서로 다른 길이의 블록은 사선으로 정교하게 절단하고 색칠해 균일한 표면을 만들어내었다.

재생 아크릴 설치작품이라 불리는 이 작품은 장소의 건축을 연기한다. 공간에 놓인 사물이라기보다는 주변의 공간에 대한 왜곡처럼 보인다. 인식을 농락하는 이러한 횡단적 디스플레이의 몽타주는 관객이 작품 주변을 움직이는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한다. 경계가 있는 구역 안에서 관객이 길쭉한 형태 사이를 비집고 다닐 수 있는 공간만을 허용하며 그녀의 시각적 전략에 본능적 요소의 약속을 더한다.

### SCREEN

#### 屏

Josef Ng

吴承祖

Our age of excess begets everything, from technology to knowledge to wisdom. For Cui Xiuwen, less is more, or for want of a better phrase, minimal is more, and there is glory to be gleaned from her multi-disciplinary approach – of curiosity, of desire, of intellect, of creativity – which she delivers in breathless, synthesis outpourings.

Ever since she graduated from Northeast Normal University and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for her MFA in oil painting, the Beijing-based artist makes art project by project, developing discrete, thematically related bodies of work whose serial-like components often reappear, newly iterated, in subsequent exhibitions. Unlike artists of her generation, whose career as to bound by artistic practice from the constraints of medium specificity, Cui takes as her point of departure the post-medium condition, proceeds from the assumption that aesthetic experience is no longer localized in any self-sufficient surface or material. And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artist shifts so fluidly between “painting”, “photography”, “video” and “installation”. Her relationship to each of these supports, while completely engaged, occurs within the parameters imposed by her works opening itself most fully to viewers willing to take the time to unravel its discernable clues.

As a multi-disciplinary artist, the experience of art in the digital technological realm has informed her practice overall and affects the way she displays her artworks in a heterogeneous reality and context. And that generates visual spaces in which a different regime of signs ceaselessly connects, intersects, and reproduces. Her latest solo exhibition, REINCARNATION, is forged conceptually around an open mapping of fragmented and painterly ‘territories’, disclosed through an active engagement with the display as a whole. Here, she presents an array of painterly compositions, in the form of paintings, a sculptural installation and a 3-screen video piece. Most present a similar visual structure - a restricted palette of mostly black and white, silver and grey with one spectacular exception to this rule, the colour of red. Geometrical shapes dominate the compositions and produced especially for this exhibition, they are formally, visually and thematically interconnected in speculative ways; it is left to the viewers to draw the connections between them.

On first glance, Cui seems to use the language of abstraction to re-contextualize strategies dear to both minimalism and conceptualism. The artist has created, since 2012, and incorporated into her art based on divisions of lines and threads. They have become her muse. In this series, the artist has liberated the line, sending it into a

palette of layering consisting of repeated, interlocking forms. By bringing the bold matrix against backgrounds of layered lines - simple and direct, even rather cold – she attempts in creating a new dimension in which her works frame, fragment, and reflect the space, and the viewers, around them.

Similar to her previous solo in Suzhou Museum in 2013, Cui has taken up, once more, the spatiality in hand – to demonstrate – within the context of her new work – the conjunctions between the acts of reading an exhibition and of seeing it. With the exhibiting space being designed as if a loop of continuous entity, the paintings fascinates with optical illusions while playing gently with our understanding of minimalist forms. By making them almost similar in compositional strategies, they are a part of each other, and have to be in conversation with one another. These abstractions, in the sense of both visual formalism and distillation, seductive in their dreamlike terrain, add up to a fascinating exercise in equilibrium; the monochrome lines and rectangular blocks, using the same brushstrokes, appear and reappear in multiple guises, from elegantly skinny to broad and proud. Thus, sending them into a series of formative characterizations that zigzag and overlap energetically across her canvases. Balance and harmony preoccupied Cui. While these works don’t go too far in saying anything new, they provide a thoughtful poetic schema fueled by repetition and variations. At once one thing and then another, the artist seeks to underscore the many permutations even of a restricted vocabulary.

Cui’s preferred materials for her sculptural installation – beech wood and paint – make for ready architectural allusions. Long rectilinear column blocks hang from the ceiling, as they overlay into each other, forming a whole. Of different length, they are precisely manufactured and painted in diagonal cuts, to create a uniform surface.

Entitled Reincarnation Acrylic Installation, the installation plays off the architecture of its site - seemed less like objects placed in space than distortions of the space around them. This montage of cross-sectioned display remains in flux, perhaps, playing tricks with perception, as viewers moved around the piece. Within a bordered area, they would allow just enough space for the viewers to squeeze between their tall forms, adding the promise of a visceral component to Cui’s visual strategies.

Patterns, zones, dynamics, inquiry, perception and play. These words are ideas, spaces and movements in them-

패턴과 구역, 역학, 탐구, 인식, 놓이는 스스로 아이디어이자 공간, 움직임의 단어이며, 본질을 현실과 연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끊임없는 연결성을 추구하는 웹의 다채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이다. 일종의 건축적 인격의 복합체인 스크린은 그것이 놓인 장소에 적응한다. 은연중에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적응을 암시하고 있다.

압도적인 비디오 설치미술인 이 작품은 회화의 미학적 특징을 움직임으로 불러오으로써 이러한 모든 요소들에 대응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화적 뒷받침을 활용하는 것은 회화의 단일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탐구 또는 자율적 개체로서의 회화의 지위에 대한 기저의 신념과 배타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비디오 스크린은 스스로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 매핑(mind mapping)을 상징한다. 이로써 작가는 마음과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결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매개하는 회화와 설치미술의 멜랑주이다. 그녀의 작품은 상징의 기법들을 특징적으로 탐구하여 때로는 모순적인 매체 간의 관계에 대해 숙고하게 만든다.

전체적인 효과는 일종의 현실적인 데자뷰이다. 결과로서 생기는 이미지가 가상의 세계를 연상시키며 추상과 현실의 혼합과 같은 쿠이 시우웬의 예술적 명제의 심리적, 서술적 내용의 내적 작용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작품은 정지, 수축, 추상화된 시간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지향'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동시에 이 전시는 아름답게 자족적이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상호 공명하고 촘촘히 들어차 자신만의 '패턴 인지'를 불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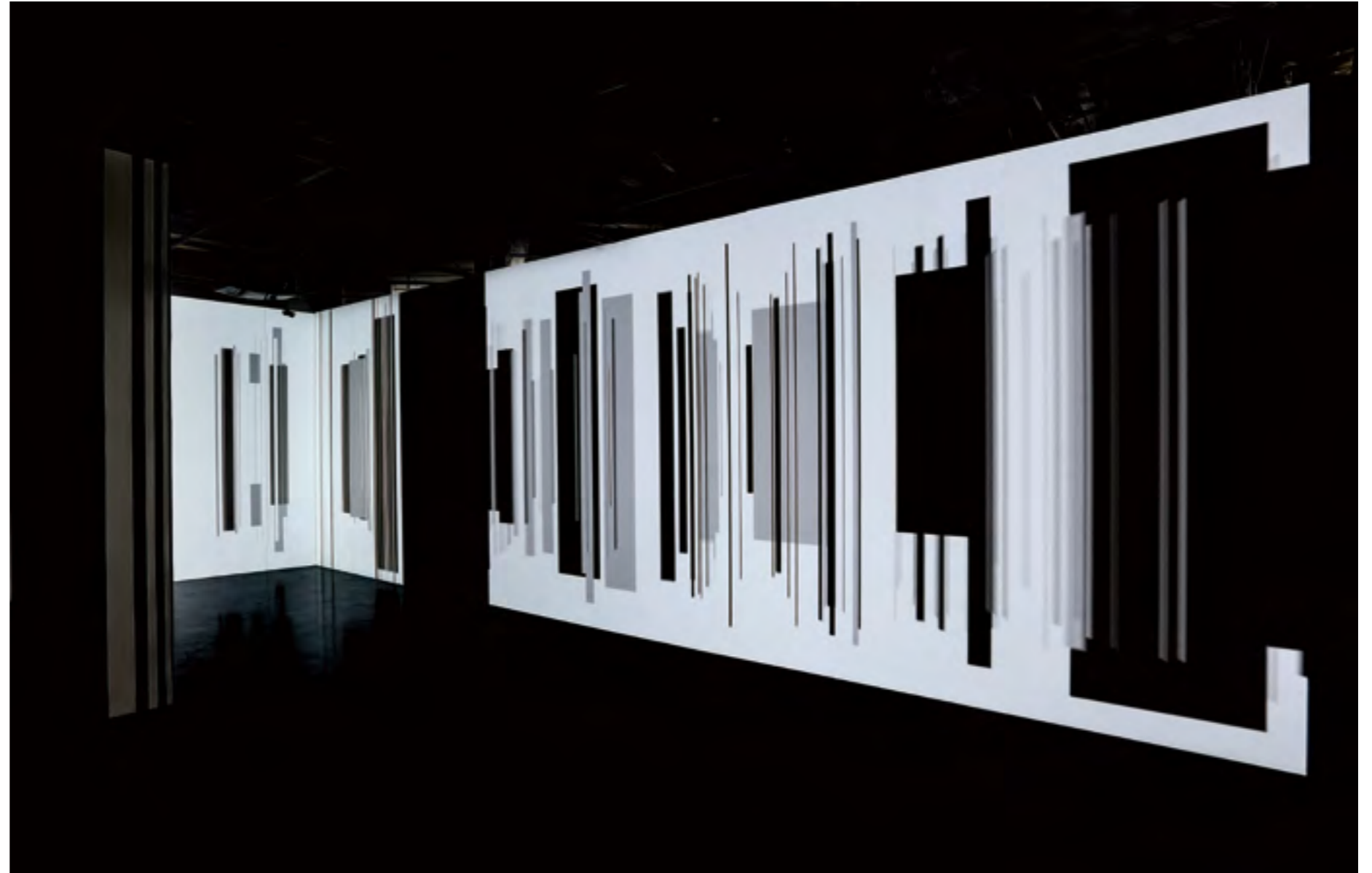
selves, generators of multiple experiences and key elements of a web that strive towards constant connectivity, trying to find a way to connect essential to reality. Screen – a sort of architecture personality complex – adapts to the space in which it is placed. Implicitly, it imposes an adaptation on you.

The overwhelming video installation, Reincarnation Video Installation, responds to all these elements by bringing into motion the aesthetic features of the paintings. In this light, her use of a painterly support is no longer exclusively connected to an essentialist investigation of painting's singularity or to an underlying beliefs in painting's status as an autonomous entity. Hence, the video screen is a representative of the mind mapping itself upon its environment. Subsequently, the artist is the one who shows the fruit of this interaction of mind and matter.

What it is a mélange of paintings and installation mediated via new technologies. Her works are so specifically explore methods of representation and force one to consider the sometimes contradictory relationships between mediums.

The overall effect is of a kind of real déjà vu. The resultant images evoke virtual realms, suggesting the inner workings of the psychological and narrative content of Cui's artistic proposition, for example, melding abstraction and realism. These works could also function as 'landscape' that attempts to describe time itself – suspended, contracted and abstracted.

At the same time, the exhibition feels beautifully, self-contained. Its different elements resonate above all with each other and all tightly fit together, calling for its own 'pattern recogn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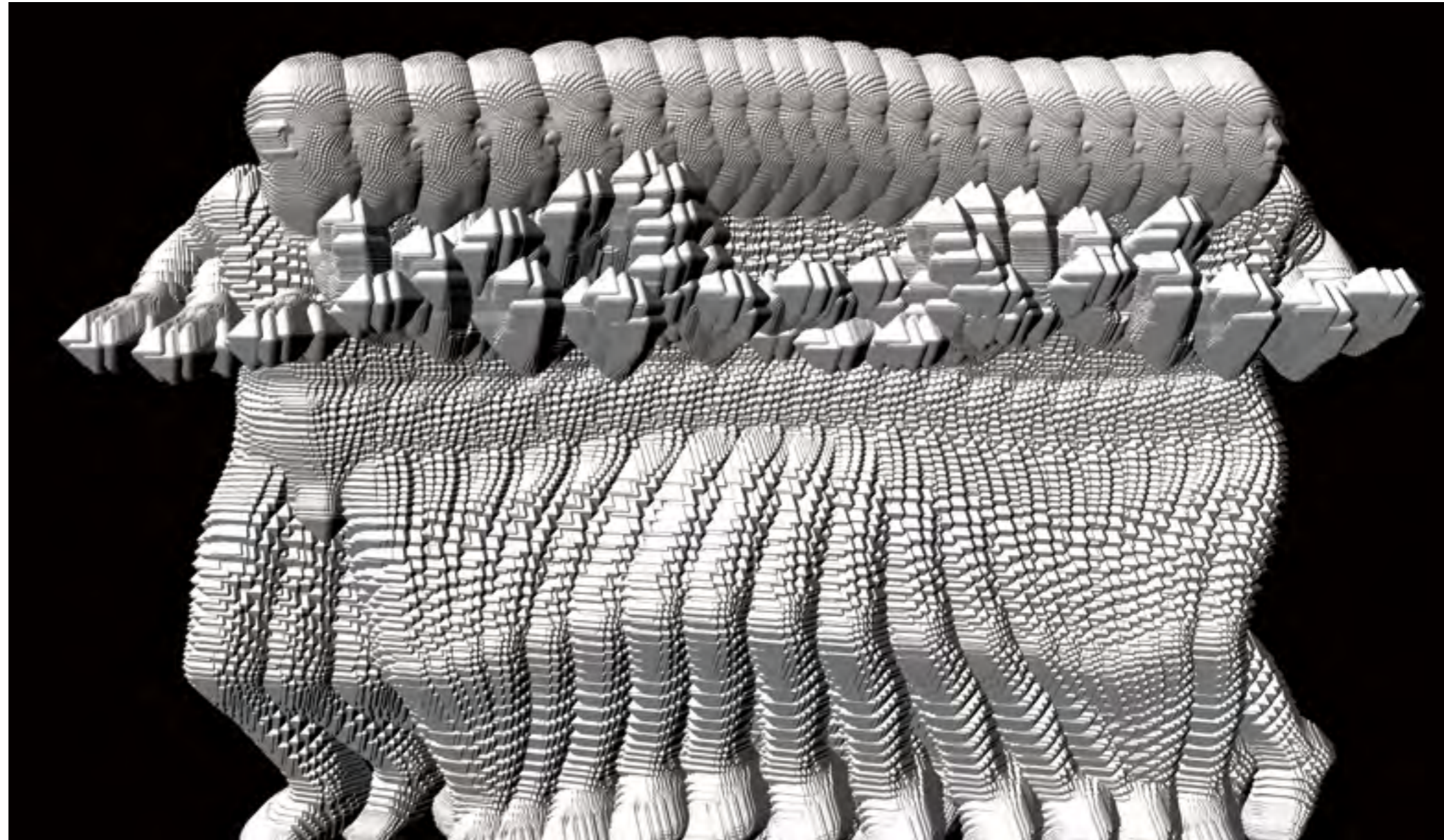


**Reincarnation**  
Color, Silent  
3-channels video projection  
MOV, 3552 x 1776, PAL  
06'00"  
2014

Miao  
Xiaochun

3D 애니메이션 작품인 자이로 댄스(Gyro Dance)의 댄서들은 3D 스캔으로 만들고 소프트웨어의 변형 기능을 통해 인식 가능한 동시에 약간은 돌연하고 도드라진 디지털 형태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들에게는 인터넷의 공개 자료(모션캡처)에 따라 일련의 움직임을 완료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상에서 흔한 것이지만 소프트웨어의 중첩 기능을 이용한 연속적 처리를 거쳐 외계 생물체처럼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 마치 다른 종의 눈으로 인간의 가치와 행동 규칙을 바라보는 것 같다. 구석기시대부터 인공지능까지,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놀라움과 불합리함을 지켜왔고,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이다.

The dancers in the 3D animation work Gyro Dance are made by a three-dimensional scan and are turned into recognizable while slightly sudden and salient digital figures through the function of deformation of software. They are instructed to complete a series of movements according to the open material on the Internet (motion capture). These movements are common in everyday life, but after successive processing using the function of superposition of software, look weird and unbelievable like alien creatures. It is like looking at human values and rules of conduct with the eyes of another species. From Paleolithic to artificial intelligence, we have kept, are keeping and will continue to keep this kind of incredibility and absurdity.



자이로 댄스  
Gyro Dance  
Projection with HD  
player, 16:0 ratio  
10'30"  
2017

Krzysztof  
Szymanowicz

기억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다루는 기사를 읽다가, 특히 리처드 시몬이 20세기 초에 소개한 엔그램(기억 심상)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기억의 흔적과 같이 외부와 내부 환경으로부터 받은 어떤 감정과 경험에 의해 신경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도 특정 물건과 이벤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처리정보인 이중 부호화의 과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오버 라이팅"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리즈인 "엔그램"에 사용된 프린트를 현상하면서 이러한 개념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하거나 새롭지 않는 한 판화작업의 고전적 기술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탈"을 루블린의 미술전시국(Office of Art Exhibitions)에서 개최한 "linia przerywana"("파선")을 작업할 때 이루어 졌는데, 갤러리의 벽에 프린트를 만들기 위해서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 이 작업이 "엔그램" 시리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Krzysztof Szymanowicz의 예술적 결과를 요약하자면, 분명한 것은 그는 항상 기존의 통념을 파괴하고, 상투적인 것과 과정을 깨고 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려고 했고, 그는 항상 지적인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는 소위 말하는 그래픽 지능에서 나오는 건데 Dorota Folga-Januszewska가 "Grafomani"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래픽 지능은 천부적인 재능으로 정신 상태의 일부를 수행하는 능력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는 단계적인 사고로 효과를 예측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만드는 것과 같이 획득된 기술로 보완됩니다. 또한, 그래픽 지능은 창의적인 태도로 체스를 할 때와 같이 본질적으로 여러 가능성 있는 변형들에 대해 지능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의 작품은 질감, 세련된 물질, 실험적인 성향과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폴란드의 현대 그래픽 아트계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s I read articles discussing new theories of memory, I becam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concept of Engram, which was introduced in the early 20th Century by Richard Semon. It can be defined as a permanent change in the nervous system caused by certain sensations and experiences coming from the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 i.e. memory traces. I was also interested in the process of dual coding, where the processed information which relates to specific objects and events is visual, and also in "overwriting", which involves storing new information on information that already exists. I discovered these concepts while developing the prints I used in the new "Engrams" series.

I am not interested in departing from classical techniques of printmaking unless this is really needed and authentic. I made such a "departure" in the work made for the "linia przerywana" ("Dashed Line") exhibition in the Office of Art Exhibitions in Lublin, where I used templates to create a print on the wall of the gallery. This work inaugurated the "Engrams"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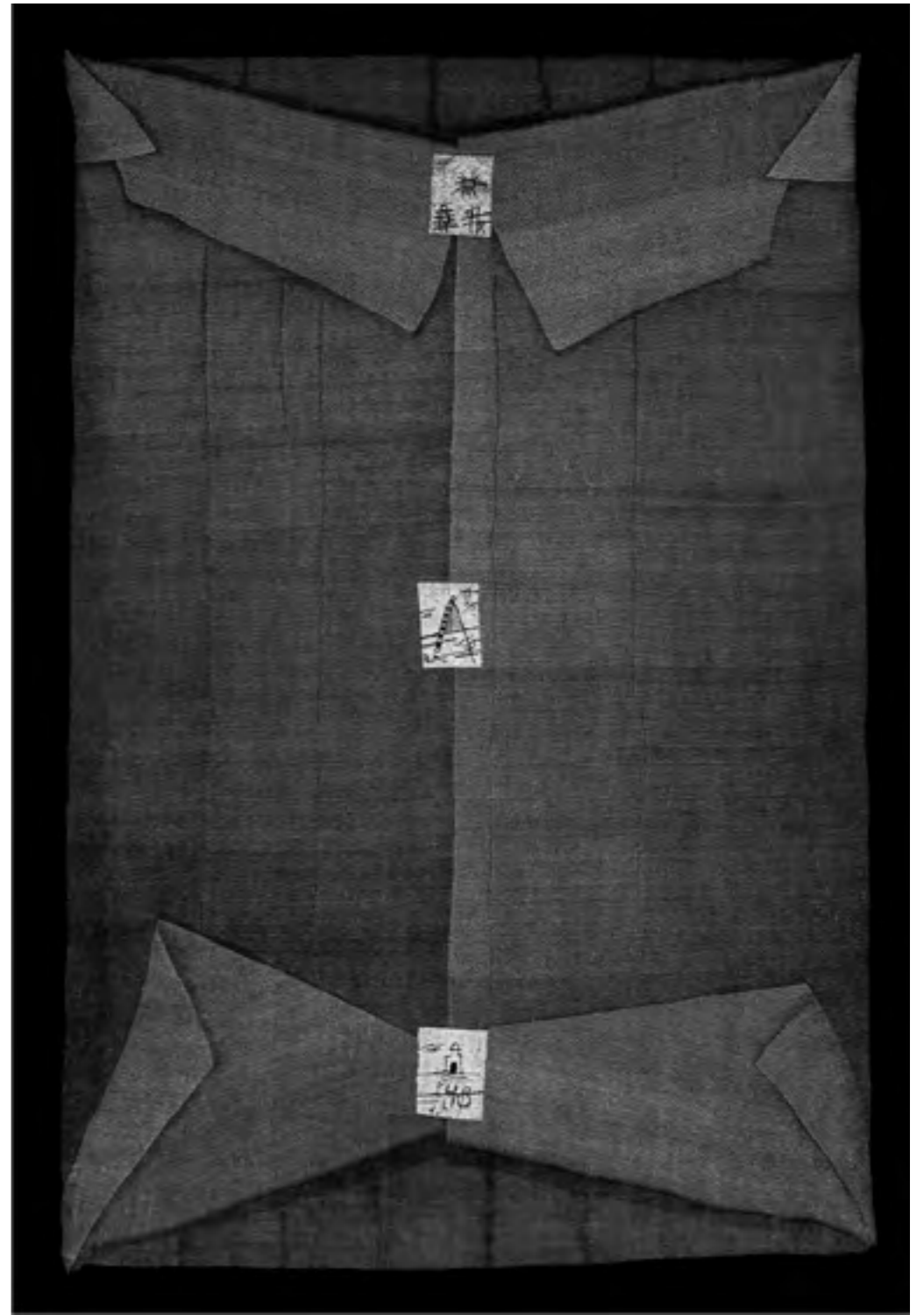
When we sum up the above divagations about the artistic output of Mr. Krzysztof Szymanowicz, it can be seen clearly that he is constantly meeting newer and newer challenges, trespasses all the norms, breaks clichés and processes matter, so that it is constantly an intellectual travel for him. That results from the so-called graphic intelligence, which Dorota Folga-Januszewska explains in "Grafomania": "We call graphic intelligence a certain feature of mind connected with the abilities to perform, an innate gift, supplemented with an acquired skill –that of multi-stage thinking, foreseeing the effect, creating in process. Graphic intelligence is also a creative attitude, whose essence is – just like in playing chess – intellectual response to many possible variants of events. Texture, sophisticated matter, experiment, crossing the technological borders, make his works outstanding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Polish graphic art.



SOUVENIRS X III  
Linocut  
100 x 70cm  
2005



**SOUVENIRS V**  
Linocut  
100 x 70cm  
2005



**SOUVENIRS XVI**  
Linocut  
100 x 70cm  
2009

김태은 작가는 과거 작게만 느껴졌던 스스로에 대한 좌절과 공허함의 시간 속에서 소금이라는 작은 알갱이 하나로 그 공허함을 채우게 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였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금 알갱이 하나가 혀끝을 타고 그의 온몸에 자신만의 고유한 짠맛으로 전율케 하고는 이내 사라져버렸던 찰나의 순간을 통해 소금에 매료되었고, 이후 그의 심상을 담은 예술적 매개가 되어 작품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보존하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Preserve'의 또 다른 사전적 의미는 '소금에 절이다'이다. 오래 전 인류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생존과의 싸움에서 식량을 보존하기 위해 소금을 택했던 행위가 시간이 흘러 단어로 남겨진 것이다. 김태은 작가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보존의 의미가 물질적 대상을 초월하여 빛의 보존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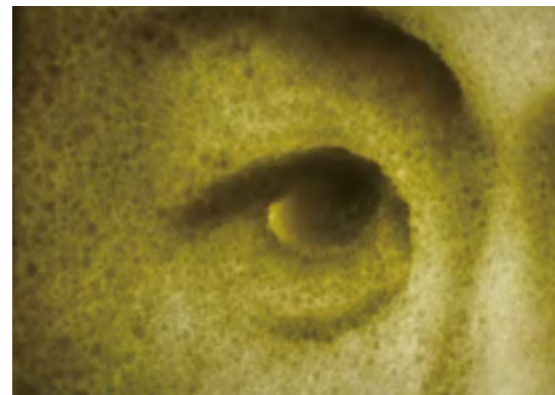
빛의 보존 연작 중 하나인 <안중근>(2015)은 과거 절망과 혼돈의 시기를 딛고 일어나 자신을 희생하여 역사에 길이 남은 안중근의 기백과 정신을 동경하며, 이를 보존하고 싶은 작가의 의지를 소금에 담아 안중근의 초상을 만들어낸 작품이다. 투명 아크릴 패널 위에 소금알갱이 하나하나를 반복적으로 쌓아 올리고, 이를 특수 용액으로 경화 및 코팅 마감한 뒤, LED조명장치를 통해 빛을 투과시켜 소금의 높낮이로 형상화시킨 소금초상화이다. 외부로부터 조명을 받았을 때 보이는 양각의 소금조각은 내부로부터 조명을 받았을 때 음각의 소금초상화로 변한다. 즉 내부와 외부의 조명을 함께 받았을 때 생성되는 안중근의 소금초상화를 통하여 음과 양의 조화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그의 정신을 표현하려 하고 있다.

Amid times of frustration and voidness, Kim experienced a special moment: to fill the emptiness with small grains of salt. Seemingly insignificant, one single grain of salt made him shudder all over his body with its native saltiness and then the feeling soon vanished. He was fascinated by that passing moment, and ever since then salt has served as an artistic medium for him to convey the images in his mind into his works.

Meaning "to keep safe," the word "preserve" also means "to salt." Long ago, humans chose salt to keep their food safe in the preparation for their fight for survival in the cold winter season. Kim thought that the preserving nature of salt could transcend the boundaries of physical objects and be expanded to the preservation of light.

One of his light preservation series, An Jung-geun(2015) is a tribute to General An's soul and spirit, who made himself immortal in history by bouncing back from the times of despair and confusion and sacrificing himself.

It is the general's portrait made of salt that carries the artist's willingness to preserve his spirit. Salt grains were repeatedly piled over a transparent acrylic panel, which were later hardened and coated with a special solution, and the ruggedness of the salt grains were revealed by light coming from an LED lamp. The relief of salt is seen when the light is shed from the outside, and it turns to an intaglio portrait of salt when the light is shed from the inside. The artist expresses the great patriot's spirit that lightens darkness in the harmony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with the salt portrait that becomes visible when lighted simultaneously from the outside and inside.



안중근  
Ahn Jung Geun  
Salt on transparent acrylic panel, resin, LED lighting, wooden frame box  
97 x 70 x 24cm  
2015

## Kura Yang

2016년 대한민국 서해상 무인도인 사승봉도에서 수집한 중국해상부표를 경기도 안산 시민들과 학생들이 바다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드로잉 한 것들을 조각하여 조형화시킨 작품으로, 인적이 드문 밤바다의 야경인 플랑크톤의 희미한 빛은 고요한 바다 속 어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이야기들을 속삭이는 듯하다.

양쿠라 작가는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끌지 않는 버려진 물건이나 이미지를 재해석함으로써 현시대를 반영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예술방식을 통해 작가는 생태계와 환경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예술이라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환경 단체, 과학 기술 및 예술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독일, 캄보디아,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The artwork is a sculpture that modeled the drawings of citizens and students from Ansan, Gyeonggi-do on their thoughts of the sea by using Chinese maritime buoyage collected from Saseungbongdo, an uninhabited island in the western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eeble light of plankton through a desolate night sea seems to whisper unknown stories that we are not aware of.

By reinterpreted objects or images that do not attract attention in our daily life and thrown out, the artist Yang Ku-ra reflected the present age in his works. Through this art method, the artist naturally took interest in the ecosystem and the environment. He suggested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art and explored ways to resolve them. He thinks it is important for cooperation among environmental groups, scientists, technicians and artists, and showcased his works through various mean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Germany, Cambodia and Japan.

바다의 빛  
해상부표, LED  
가변설치  
2016



한승준 작가가 초기 작업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공간(空間)'의 개념은 사전에서 첫 번째로 정의되는 '아무 것도 없는 빈 곳'일지 모른다. 그는 늘, '있음'과 '없음'에 대한 개념을 작업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몇 해 전부터는 'Empty'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형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입체성을 지닌 형상(그것들은 색색의 상자나 통로, 크기가 큰 봉투, 여러 면이 잘린 육면체 등의 모습이다.)을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오히려 평면에 가까운 부피감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객은 실제로는 비어 있는 형상을 꼭 채워진 상태로 인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착시임을 깨닫는다.

“공간은 숙명적으로 삶과 함께합니다. 사람은 늘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며 사용하고 그것을 채우고 비워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공간 속에는 또 다른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의 그러한 속성을 관찰해 가며 작업합니다.”

공간에 대한 탐구로부터 'Empty' 시리즈가 나왔지만, 그는 작업을 구상하기까지 과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단지, 자신이 만든 형상 앞에 관객이 잠깐 머물며 무언가를 느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성수진, 'Empty into' 부분 발췌

The concept of space (空間) that Han has depicted starting from his initial work can be explained as an 'empty area that has nothing in it' as defined in dictionary. Han always tried to express the concepts of both 'exists' and 'does not exist' in his works. He has been creating distorted formative works under the title of 'Empty.'

His works have stereoscopic forms (such as vividly colored boxes, passages, large envelopes, and hexagons of which the sides are cut) when viewed from the front. When you look at them from the side, however, you will realize that they are more like flat surfaces. The audience will recognize that such shapes are fully filled but are actually empty and finally realize, as time goes by, that it is an optical illu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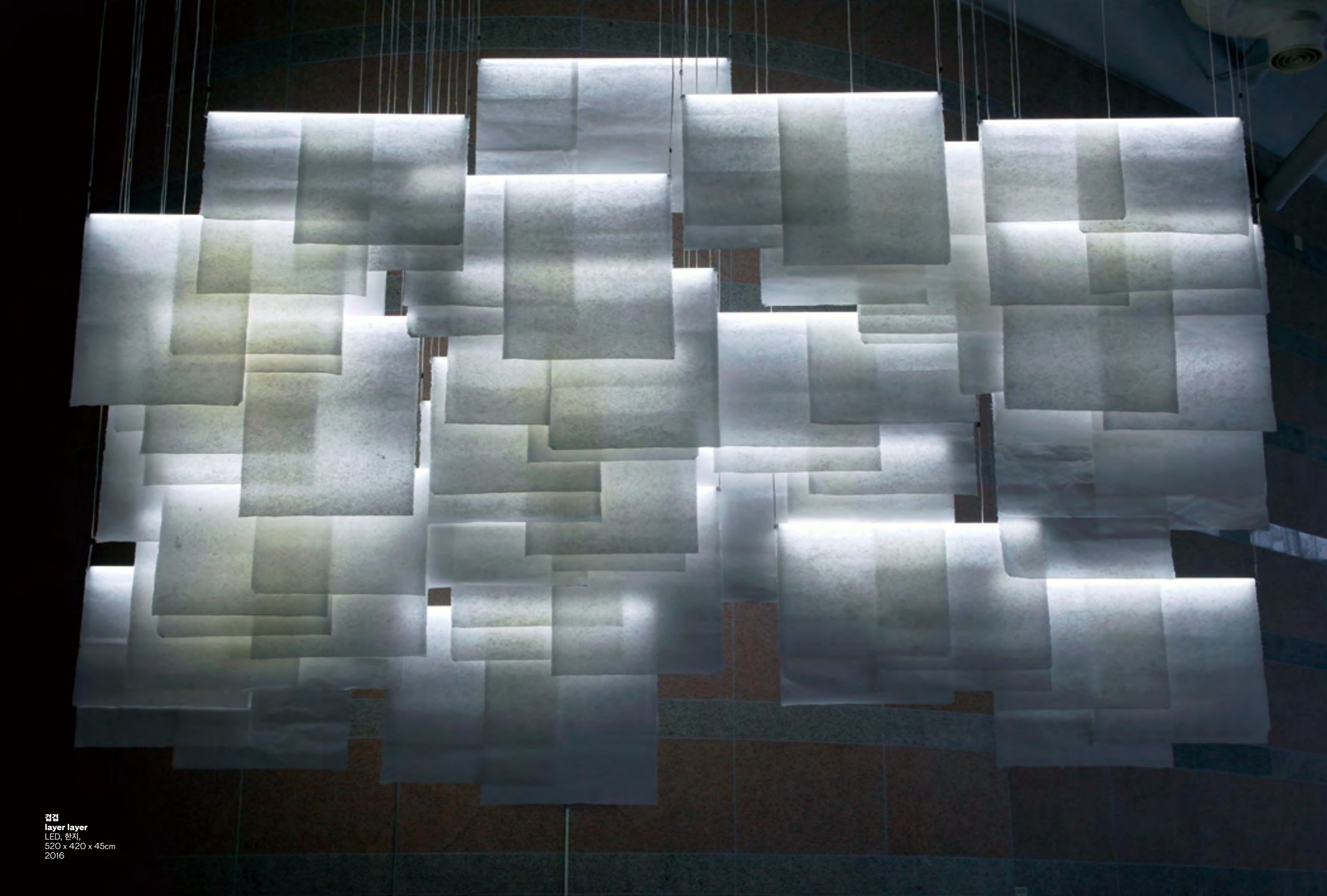
“People are destined to live with spaces. People always move between spaces, fill and empty them. There are a lot of other spaces in spaces to the extent even that we are not aware of. I observe such peculiar characteristics of spaces to continue my work.”

It is true that his 'Empty' series are created by explorations on spaces. But, he is cautious to expla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his work in words. Rather, Han says his only hope is to make audiences stay awhile in front of his work and feel something. -Seong Su-Jin, partial excerpt from 'Empty into'



**Empty**  
Steel, 우레탄 도장  
65 x 45 x 79cm  
2015





겹겹  
layer layer  
LED, 한지,  
520 x 420 x 45cm  
2016

Airan Kang

강애란 작가의 ‘대한제국의 빛나는 날들 Luminous Days of Korean Empire’은 조선 왕조의 태조부터 고종에 이르기까지 왕들에 대한 사료집과 조선 왕조 실록, 고종이 즐겨 읽던 서적 및 외교문서와 대한제국 시대의 황실 문화, 예술, 건축, 음악 등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빛을 발산해내는 라이팅 북과 영상 책으로 재현하였으며, 1904년 고종황제가 외국 사신을 접견할 목적으로 세운 덕흥전 내 서재를 미디어 설치 작업으로 재탄생시켜 역사의 시간 속에 영원히 빛날 서고를 구현하였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고종이 당시 사용했던 가구 및 집기 등을 재배치하고 바닥의 카펫 위에 영상 작품을 쏘아 고위 관료와 사신들이 고종을 알현하던 시절의 기억을 환기시키고자 하며, 이것은 덕흥전에 설치된 빛나는 책들과 함께 어우러져 동서양의 문물이 공존했던 대한 제국의 빛나는 마지막 순간을 구현하고 시간과 공간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느끼게 한다.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당시 조선과 대한 제국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을 재해석하여 덕흥전의 역사적, 문화적 산물을 현대적 발상으로 구현함으로써, 그 장소와 시대를 다시 되짚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그 이해를 예술을 통해 돕고자 함이다.

Composed of digital books that emit light and video, Ai-Ran Kang’s ‘Luminous Days of Korean Empire’ is a reenactment of the emperor’s library arranged according to The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which preserved records of every king from Taejo to Gojon such as literature and diplomatic documents enjoyed by Emperor Gojong, and the imperial culture, arts, architecture, music and etc. of the Korean Empire era. Kang recreates Emperor Gojong’s library in Deokhongjeon that he made for the purpose of meeting foreign envoys in 1904 as a media installation art that would shine forever in time and history. Kang also rearranged furniture and appliances that were then used by the emperor and stored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nd displayed a video on the carpet on the floor to recall the memory of the emperor meeting officials and envoys, depicting the bright last moments of the place where both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coexist along with light-emitting books to make the audience think over various meanings with changes of time and space.

Kang retraces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Korean Empire, further portraying the utopia of their dreams and takes Deokhongjeon as its spatial medium to actualize Korea’s historical, cultural product in contemporary thinking and to add new meanings by reiterating the place and time of the past with the aim of setting the history of Korea right with the help of art.



대한제국의 빛나는 날들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2017

대한제국의 빛나는 날들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2017



특별전시:  
김종영 특별전 / 문신 특별전  
김포 & 실비아 특별전 /  
영상미디어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CHONGYUNG KIM / MOONSHIN  
PO KIM&SYLVIA WALD / MEDIA

## 김종영 특별전:

### 「불각不刻의 미」를 다시 읽다

박춘호

김종영미술관 학예실장

#### 불각의 미

“고대 중국 사람들은 일찍이 불각의 미를 숭상하였다. 괴석怪石 같은데 약간의 가공을 했을 때는 손댄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물속에 몇 해를 넣어두었다가 감상을 하였다. 이것은 자연석의 경우에 인공이 가해진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지만 옛날 사람들이 불각의 미를 최고로 삼은 것은 형체보다도 뜻을 중히 여겼던 탓이다.

현대 조형이념이 형체의 모델링보다도 작가의 정신적 태도를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은 동양사상의 불각의 미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콘스탄틴 브랑쿠시나 헨리 무어의 작품이 조각으로 보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연스럽게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은 조형에 대한 순수한 의미를 구하는 태도고 보니 이것은 역시 불각의 미다. 즉 자연에서의 조화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려니와 그러면서도 작품은 확실하게 외연巍然히 존재하면서 항상 자연의 대 질서와 상통하는 격조를 지니게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조각은 대자연의 질서를 집약과 확산의 동시작용이 있다. 우리가 항상 회구하면서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정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무한한 것, 영원한 것, 행복한 것 등인데 인간은 여기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란 것을 따지고 보면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인간의 고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문득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이것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극히 사소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쨌든 한 포기의 화초나 나뭇가지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을 발견하지 않는가. 그리고 인간의 절실한 요구인 행복이란 것도 백역의 재산이나 절대한 재력에 있다기보다 극히 사소한 일시의 기쁨이나 생리적인 어떤 조화에서 실제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sup>1)</sup>

#### 1. 「불각의 미 - 선비 조각가의 글

김종영(1915-1982) 선생은 집안 내력으로 인해 ‘선비 조각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선생은 다섯 살 때부터 부친에게 가학家學으로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을 익혔다. 이는 선생의 글과 유족의 증언, 그리고 신문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생이 남긴 서예작품 중에 한문으로 쓴 자작自作이 여러 점 있는 것으로 봐서 선생이 한학漢學에 조예가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이다. 창원 생가 길 건너에 ‘사미루四美樓’가 있다. 사실 생가와 사미루는 한 울타리에 있던 집이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집 한가운데 도로가 생기며 나뉘는 것이다. 사미루는 별채의 대문채를 일컬으며, 별채는 ‘구문정求文亭’이라 하였다. 선생의 증조부인 모연慕淵 김영규가 1926년 구문정을 지은 이유는 ‘구문’이 뜻하는 바와 같이 조선 선비들의 학문과 풍류가 어우러진 시회詩會를 개최하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이다. 사미루 편액은 석촌石村 윤용구와 의친왕 이강의 글 중 석촌 것을 판각하였다. 구문정에서 첫 번째 시회는 1928년에 개최되었으니, 선생 나이 열셋일 때이다. 선생의 증조부는 구문정의 주인으로 시를 지어 원운原韻으로 하여 각지의 문사들에게 차운次韻한 시를 받아 판각하여 구문정에 걸어놓았다. 구문정 기문記文은 규장각 부제학을 지낸 정만조가 지었다.<sup>2)</sup> 또한 정대유가 선생 조부에게 선사한 열 두 폭 서예작품을 선생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을 통해 구문정을 출입하던 문사들의 수준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선생은 열다섯에 서울 휘문고보로 유학가기 전까지 조선 사대부문화의 정수를 체화하였다. 이는 선생이 훗날 동시대 서양미술을 수용함에 있어 서화書에 대해 자기비하自己卑下 함을 일절 찾아볼 수 없는 이유이다.

1) 김종영, 「불각의 미」,  
『초월과 창조를 향하여』,  
열화당, 2005,  
144-147쪽

2) 『김종영 창원생가전』,  
새터마을 소담꽃집,  
김종영미술관, 2011년  
도록을 참조할 것



선생은 '선비조각가'로 알려진 것과 같이 조선의 선비가 그랬듯이 수양의 방편으로 일생을 서예에 정진하였고, 문집을 간행하여야 하는 책무에 충실하고자 동년배 작가 중 가장 많은 글을 남겼다. 선생의 글쓰기는 서예와 문집 두 가지를 아우른다.

먼저 선생의 서예작품은 대부분이 한문이며 한글작품은 소수에 불과하다. 서예작품의 출전을 살펴보면 대부분 유가(儒家)와 노장(老莊)이다. 서예작품을 출전과 비교했을 때 몇몇 작품에서 오탈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선생은 원문을 보고 쓰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생의 동양 고전 독서 수준을 짐작케 하는 실례이다.

유족에 의하면 생전에 선생은 머리말에 도통한 노트를 놔두고 수시로 글을 썼다고 한다. 지금 미술관은 선생 유품으로 여덟 권의 노트를 소장하고 있다. 그 중 일부가 유고집 『초월과 창조를 향하여』에 수록되었다. 더불어 선생이 삼십 이년 간 봉직한 서울대학교의 학보 『대학신문』에도 여러 편의 글을 게재하였다. 『대학신문』에 게재한 글과 인터뷰 기사를 살펴보면, 유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육자로서 선생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선생이 생전에 탐독했던 장서들을 살펴보면, 선생이 생전에 동서고금을 총횡무진하며 지적인 탐구를 폭넓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생은 한문세대이다. 유고를 읽다 보면 요즘 흔히 쓰지 않는 한문 단어가 여럿 눈에 띈다. 그런 연유로 선생의 유고는 한글세대가 읽기에는 어렵다. 선생의 글은 화려한 수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뜻글자인 한문의 특성과 같이 함축적이면서 간결하다. “표현은 단순하게 내용은 풍부하게”,<sup>3)</sup> 선생이 작품 제작 시 지향했던 바이지만, 글쓰기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분량으로 봐서는 단상(斷想)이라 할 수 있으나 행간을 살펴 읽어보면 그 내용이 참으로 풍부하다.

‘불각은 선생의 예술정신을 대변한다. 2009년 선생의 서예작품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을 때 선생 서예 작품 중에 ‘不刻道人不刻道인’이라 낙관한 사실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또한 선생은 만년에 작업실을 갖게 되면, 작업실 당호(堂號)를 ‘不刻齋불각재’로 정해 놓았기에 편액을 판각하기 위해 예서체로 여러 편을 썼던 사실도 그때 처음 알려졌다. 흔히들 조각가가 불각, 즉 ‘깎지 않는다.’고 하니 ‘불각의 미’를 어떤 불가해한 역설의 미학으로 간과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1982년 선생이 타계한 이듬해 유고 선집 『초월과 창조를 향하여』가 간행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네 차례의 회고전이 열렸다. 1989년 호암갤러리에서 『한국조각계의 영원한 빛, 김종영』전, 탄생 구십 주년을 맞아 2005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한국 현대 조각의 선구자 : 김종영』전, 2015년 선생 탄생 백주년을 기념하여 김종영미술관, 서울대미술관, 그리고 경남도립미술관 공동으로 『불각의 아름다움, 조각가 김종영과 그 시대』전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7년 김종영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공동 기획으로 이십세기 서화미술거장전』 첫 번째 전시로 『김종영, 붓으로 조각하다』를 개최하였다. 1989년 호암갤러리 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차례 전시는 학술대회도 열렸으며, 학술대회를 통해 총 열 세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선생의 미학을 대변하는 ‘불각’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논의 되었을까 자못 궁금하다.

## 2. 「불각의 미」- 어디까지 논의 되었나

김종영 선생은 「한국추상조각의 선구자」, 「선비조각가」, 「각백(刻伯)」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선생이 동경미술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하였고, 1948년부터 1980년까지 삼십이 년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 봉직하며, 조각의 불모지에서 조각예술교육에 일생을 헌신한 것을 상기한다면, 조각가로서 위와 같은 선생의 별칭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 선생이 남긴 작품들을 일괄해보면 선생을 조각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 된다.<sup>4)</sup>

현재 유실된 작품을 포함하여 확인 가능한 조각 작품이 228점이다. 미술관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선생의 유화, 수묵화, 담채화를 포함한 드로잉 작품은 약 3,000점이다. 유족의 기억에 의하면 선생이 생전에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폐기처분한 드로잉작품이 이에 버금간다고 한다. 또한 약 2,000점의 서예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을 조각가로 규정하는 것은 현재 미술대학의 학과중심 교육제도에 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선생은 첫 개인전을 환갑에 후학들이 회갑기념으로 개최해드렸던 것을 상기하면, 생전에 작가로서 선생의 전모를 살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도록 서문을 쓴 고故 이경성 전국립현대미술관장은 선생을 “과작(寡作)의 작가”라 했음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하다.<sup>5)</sup>

3) 김종영, 「아름다운 것」, 위의 책, 89쪽

4) 현재 유실된 작품을 포함하여 확인 가능한 조각 작품이 228점이다. 미술관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선생의 유화, 수묵화, 담채화를 포함한 드로잉 작품은 약 3,000점이다. 유족의 기억에 의하면 선생이 생전에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폐기처분한 드로잉작품이 이에 버금간다고 한다. 또한 약 2,000점의 서예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부인 이효영 여사의 구술이다. “전시회도 요새 사람처럼 그래 안하시고 늦게야 했습니다. 회갑전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이인전을 하시고, 월전 선생님하고, 그래 도 잊아 불고 있다가 정년퇴임 때 하셨죠. 요새는 자꾸 해가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 그런 것 필요 없다 카고 내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누구한테 발표하고 뭐 이게 없는 것 같애요. 교수님들이, 그러니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평생토록 못 잊을 일-내 남편이었던 사람이지만 조금 다른 분이라고, 김종영 씨가」, 『생이 깊은 물』, 1992년 12월호, 169쪽

대규모 회고전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정년퇴임하던 1980년 5월, 당시 덕수궁국립현대미술관에서 초대전으로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이래 최초로 개최한 조각가 초대전이였다. 「불각의 미는 선생 사후 일 주기를 맞은 1983년에 간행된 유고집 『초월과 창조를 향하여』에 게재되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불각의 미」는 2015년 선생 탄생 백주년 전시 제목으로 선정될 만큼 선생의 예술관을 대표하는 글이 되었다.

글 모두에 인용한 ‘불각의 미’는 오백 자 원고지 네 매 조금 넘는 짧은 글이다. ‘불각의 미’는 필연적으로 깎아야 하는 조각가가 깎지 않는 아름다움을 논하는 역설이기에 마치 선승(禪僧)의 화두 같이 들린다. 선생 사후 연구자들은 ‘불각의 미’를 어떻게 읽고 있을까?

1989년 7월 당시 호암갤러리에서 서예작품을 제외하고 사후 첫 번째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다. 당시 정병관 교수는 「불각의 미를 추구한 추상조각의 선구자」라는 제하로 도록에 게재한 서문에서 ‘불각의 미’를 서구 다다(dada)의 ‘레디 메이드 ready-made 미학’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레디 메이드 미학을 김종영은 ‘불각의 미’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되도록 조각가의 작업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일, 즉 작업의 경제성이라는 견지에서 자연물이 가지는 형태를 최대한 이용한다는 원리는 현대 조각의 레디 메이드 미학서 또는 미니멀 예술에서 그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었다. 법이나 문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 시작하여 작품으로 결과하는 비이론적(非理論的) 경향이 동양의 전통이라고 본다면, 김종영의 조각은 시대사조를 나름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동양적인 작가다운 변안을 작성한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다.”<sup>6)</sup>

이 글에 따르면 ‘불각의 미’는 서구 레디 메이드 혹은 미니멀 미학의 ‘한국적 변안’인 것이다. 그 이유는 ‘불각이 깎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깎지 않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은 아마도 선생이 자서(自書)에 “나는 복잡하고 정교한 기법을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숙달된 특유의 기법이 나의 예술 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표현과 기법은 단순하기를 바란다.”<sup>7)</sup> 대목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변안’이라는 표현이다. 한때 변안 가요가 유행했던 것을 기억한다. 변안가요가 유행했던 이유는 당시 외국곡의 멜로디가 한국 가요에 비해 세련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변안 가요의 특징은 멜로디는 원곡 그대로이나 가사는 원곡과 무관하게 우리말로 개사한 노래다. ‘변안’은 원작의 의미와는 무관하기에 원작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야 하는 ‘번역’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문맥상으로 봐서 ‘변안’이라는 단어보다는 ‘자기화(自己化)’하였다는 것이 더 적확하지 않을까 싶다.

2002년 이십 주기를 맞아 김종영미술관이 개관하였다. 2005년 탄생 구십 주년을 맞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한국현대조각의 선구자, 김종영』전이 열렸고, 부대행사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학술대회에서 김현숙이 발표한 논문 「김종영 예술의 법고창신(法古創新)적 경계-추사 김정희의 영향을 중심으로」는 처음으로 김종영 조각을 추사 선생의 서예작품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선생의 글 「완당과 세잔」에서 비롯되었다. 더불어 마순자가 「김종영의 미술개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선생의 드로잉을 연구 분석하였다. 김정희는 「김종영의 서구조각 수용-분석과 직관의 결합」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선생의 추상조각 작업을 분석하였다. 글의 마무리를 다음과 같이 했다.

“... 김종영이 브랑쿠지와 무어를 동일시한 것은 자연 원리를 분석적으로 접근한 조형방식과 그것에 직관적으로 접근한 방식을 작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였다. 이러한 미술사의 ‘오해’를 통해서 그에게서는 위의 양대 흐름이 결합되기도 하였다. 즉 그는 분석과 직관이라는 대립적인 세계 인식 방식을 결합하는 결과를 낳았다. ... 이러한 직관과 분석이 결합되어 나온 그의 조각은 브랑쿠지 작품보다는 서정적이고, 아르프의 그것보다는 금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그의 조각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선생이 “브랑쿠지와 헨리 무어를 동일시한 것”이라 함은 김정희가 「불각의 미」를 염두에 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에 따르면 선생은 두 작가의 지향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발생한 오해로 분석과 직관을 결합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선생 작품의 특징은 서정적이며 금욕적이라는 것이다.

‘관점이 대상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관찰자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의적 선택이다. 「불각의 미」의 행간을 살피면 선생은 직관과 분석이라는 두 작가의 방법론을 논하고자 하지 않았다. 선생입장에서 ‘불각의 미’와 상통하는 서양미술의 예를 살펴본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사에 오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6) 정병관, 「불각의 미를 추구한 추상조각의 선구자」, 「한국 조각계의 영원한 빛 김종영전」, 호암갤러리, 1989

7) 김종영, 「自書」, 「김종영 작품집」, 도서출판 문예원, 1980

8) 김정희, 「김종영의 서구조각 수용-분석과 직관의 결합」, 「근대미술연구 2006」, 73-74쪽, 국립현대미술관, 2006

이상에서와 같이 선생의 유고 『불각의 미』가 1983년 세상에 알려진 이래, 미술사학자들은 『불각의 미』 글 내용에 대한 성찰보다는 동시대 서구미술흐름에 맞춰 단어 ‘불각’을 설명하고자 했거나, 아예 그 뜻을 살피기를 마다했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낯설지 않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선생의 작품론을 쓴 연구자들은 모두 서양미술사를 전공하였다. 서화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지난 세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체화된 “새것 콤플렉스”<sup>9)</sup>가 지금도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 미술계를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1950년대 말 대두된 ‘앵포르멜’작가들의 ‘내적 필연성’의 논쟁을 시작으로 외국작가 작품의 ‘표절시비’이다.

1983년 『불각의 미』와 함께 선생의 서예에 대한 식견을 집작할 수 있는 유고 『유회삼매』와 『완당과 세잔느』가 『초월과 창조를 향하여』에 게재되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선생이 타계 한 후에도 선생의 예술세계의 한 축을 이루는 서예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다.

선생의 서예작품은 2009년 『김종영 서법묵예書法墨藝』<sup>10)</sup> (이하 서법묵예)발간을 기념하여 김종영미술관에서 개최한 『刻道人書-조각가 김종영의 서화』전<sup>11)</sup>을 통해 서예작품 오십 점과 먹그림 열여덟 점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사실 선생이 일생을 서예에 정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서예작품을 전시한 적이 없어서 가족과 주위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 연유로 이 전시는 ‘한국추상조각의 선구자인 선생을 이십세기 한국미술사에서 새롭게 조망해 자리매김 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시를 통해 선생의 진면모를 일찌감치 인지한 분이 최중태 김종영미술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다. 1999년 최중태 명예관장은 스승에 대한 추억을 엮어 『회상-나의 스승 김종영』을 출간하였다. 책 중에 ‘우성과 완당’이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십년 후 『서법묵예』를 발간을 기념하여 『한 예술가의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하며, 그 내용을 보완하여 같은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글에 소개된 추사선생 작품 감정과 연관된 일화와 선생이 추사고택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를 통해 선생의 서예수준과 시공을 초월하여 선생이 추사선생을 사숙私塾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그와 같은 스승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최중태 명예관장은 『서법묵예』 서문에 다음과 같이 선생의 서예에 대해 기술하였다.

“우성 선생의 붓글씨는 본령인 조각보다도 더 김종영 다운 일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가 뜻하고 있었던 바 자유를 만끽하고 참으로 즐겁게 일한 흔적으로 보였다. 어린 시절부터 워낙 몸에 익어서 그런지 매임이 없고 막힘이 없는, 그야말로 유희삼매遊藝三昧란 뜻에 어울릴 만치 아귀들이 노는 풍경에 닮아 있었다. 선생이 후년에 이르러 형태가 무르익을 때, 붓의 운용運用이 조각에 녹아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시서화일체詩書畫一體란 말이 요새는 옛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선생께서 그런 고전적인 예술론을 실천한 것은 희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림은 그림만으로, 글씨는 글씨만으로, 조각은 조각만으로, 학문은 학문대로 서로의 연결이 끊긴 현대적 상황에서, 선생은 예술에 인문학적 바탕을 도입하여 현대예술의 격을 높였다. …

… 그는 세상에서 한참 저만큼 떠나 있었다. 글씨 내용으로 본다면 무궁세월에서 놀던 큰 도인道人 같다. 각인刻人, 각도인刻道人 하다가 나중에 불각도인不刻道人이라 하고 ‘불각불각의 미美’라는 글을 적어 놓기도 하였다. 만드는 시대를 습작의 시기로 본다면 불각의 시대는 예술의 시대이다.”<sup>12)</sup>

최중태 명예관장의 스승의 서예에 대한 견해는 그동안 미술사학자들이 선생을 연구하며 간과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더 이상 조각가 김종영이 아니라 미술인 김종영으로, 선생의 연구를 위해서는 조각, 드로잉, 서예, 유고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에 선생 탄생 백주년을 맞아 김종영미술관, 서울대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공동으로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하였다. 백주년 기념전 전시 제목은 『불각의 아름다움-조각가 김종영과 그의 시대』이었다. ‘불각의 미’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봐서 ‘불각의 미’는 이제 선생의 고유한 미학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전시 도록을 살펴보면 조각 작품 여든일곱 점, 드로잉 스물세 점, 그리고 서예 여덟 점이였다. 백주년 기념 전시는 ‘조각가 김종영과 그의 시대’라는 부제와 더불어 조각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을 통해 백주년 기념전 『불각의 아름다움』은 ‘조각가 김종영’에 집중된 전시였다. 당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세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중 김진아의 『“초월”을 향하여: 김종영의 초기 추상 작품과 서구 미술 (1952-1960)』

9) “새것 콤플렉스”는 문학평론가 허 김현의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韓國開化期文學人-육당과 춘원의 경우』 『아세아』1,2(‘69.3), pp.258-265, 아세아사, 1969

10) 열화당에서 각도인 김종영선장으로 송하경 교수의 자문을 받아 엄선한 예술품 점의 서화작품이 수록되었다.

11) 2009년 8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화작품 서른다섯 점을 전시하였다.

12) 최중태, 『서문-미완의 미: 우성선생묵은 又誠先生墨韻』, 『서법묵예』, 열화당, 2009

과 최태만의 『김종영과 한국 현대조각-해방 후로부터 1967년까지 국전을 중심으로』 두 편이 선생의 조각 작품 연구 논문이었다.

김진아는 1952년부터 1960까지 선생의 초기 추상 조각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그녀는 선생의 1950년대 작품이 특정한 양식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녀는 당시 선생 작품의 그와 같은 특징이 양식의 부재 혹은 무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양식의 틀을 깨는 ‘무위無爲의 양식’이라 간주하였다. 무위는 노장老莊에서 말하는 무위가 아니라 장 퉁 Nancy Jean-Luc의 ‘무위의 공동체 The Inoperative Community’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이어 무위의 양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는 (무위의 양식은) 하나의 양식을 규정짓는 동질적 정체성을 갖지 않고 다른 양식들이나 ‘차이’에 열려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새롭게 나아가는 ‘양식 아닌 양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위의 양식은 비대칭적이고 이질적인 관계나 형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서구의 다양한 양식과 조우하며 만나되 양식 또는 사조 특징적인 동질성을 강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작업관이나 미감과 어우러지는 열려있는 양식을 의미할 것이다.”<sup>13)</sup>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글을 맺었다.

“김종영의 작업은 그 핵심적인 형과 구조, 리듬, 생명감을 물질을 이용해 구체화하는 여정이었으며, 그렇게 탄생된 작품은 자연적 형태의 모방이나 반영 또는 일부가 아니라 자연과 대등한 전체로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예술의 본질은 유희이자 진리를 찾아나가는 구도의 길』이었으며, 그 과정은 자신의 주변에 굳건히 발을 디디고 묵묵히 성실하게 작업에 매진하면서도 양식, 지역, 시대 모두를 뛰어넘는 초월에 이르는 길이었다.”<sup>14)</sup>

그녀의 결론은 선생이 1957년 11월에 쓴 당신의 바람을 연상시킨다.

“굳이 나라는 것을 고집하고 싶지는 않다. 또한 시대에 한계를 두고 싶지도 않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 고통할 수 있는 보편성과 어느 시대이고 생명을 잃지 않는 영원성을 가진 작품을 만들고 싶다.”<sup>15)</sup>

이 글은 정황상 선생이 한창 서구추상미술을 연구할 때 쓴 단상이다. 선생은 1953년 5월 3일자 『대학신문』에 게재된 런던에서 개최된 『무명정치수를 위한 기념비』 입상기념 인터뷰에서 자신의 포부<sup>16)</sup>를 밝힌 이래 서구추상미술을 이해하기 위해 따라 그리고, 제작해보았다. 동시에 서구추상미술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전개되었는지 공책에 정리하며 다양한 작가들을 연구했다. 한마디로 ‘실험기’였다. 실험기가 십년을 지속했다. 실험 방법은 어려서부터 체화 된 서예 학습법, 즉 임시臨書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자들은 이 점을 간과하였다. 이유는 글 모두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연구자들이 서예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1일 서울 예술의 전당 내 서예박물관이 이 년 여에 걸친 리모델링 후 재개관하며 기획한 『20세기 서화미술 거장전』 첫 번째 전시로 2017년 12월 『김종영, 붓으로 조각하다』를 김종영미술관과 공동기획으로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제목이 풍기는 인상과 같이 선생의 조각예술이 서예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첫 번째 대규모 전시였다. 지난 이십세기 한국미술이 ‘서화에서 미술로의 전환기’임을 감안할 때 선생이 작가로서, 교육자로서 서화와 미술의 가교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였음을 실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전시였다. 전시에는 선생이 익힌 가학家學 수준을 짐작케 하는 추사선생의 서첩을 비롯해서 선대부터 소장했던 서예와 시문詩文 작품들과 선생의 휘문고보 시절부터 타계할 때까지 일생동안의 서예, 회화, 조각 그리고 유고를 총 망라해 편년으로 선보였다.

이동국 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는 전시기획취지에서 선생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여기서 왜 지금 다시 김종영에게 있어 역사와 전통에 방점을 두고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해서 되새김질 할까. 결론을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대로 우리는 물론 서구 입장에서든 김종영은 세계 조각의 역사 한 페이지를 새로 쓴 사람이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앞서 본 대로 대자유大自由로 직통하는 유희와 적멸寂滅 무설無說의 ‘불각의 미’와 같은 사의寫意라는 동아시아의 필묵언어로 추상이라는 서구조각언어

에 신神기氣와 피를 돌려내면서 조각의 지평을 우주 자연만큼이나 무한대로 넓혀낸 사람이다. 사물의 본질을 원통이나 원추, 점·선·면으로 분해하고 환원시켜 낸 사람이 세잔이나 칸딘스키와 같은 작가다. 100여 년 전 서구에서 추상미술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지만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태초로부터 점·선·면까지 갈 필요도 없고 '획畵' 하나로 내 뜻을 무한대로 추상해 왔다. 그것이 바로 서흠다. 획의 곡직曲直, 즉 리듬의 아름다움과 구축미를 일기—氣로 관찰해내는 사의寫意의 덩어리내지는 결정체, 원형질原形質이 바로 서흠다. 요컨대 서흠의 삼차원적 구현이 김종영의 불각의 각척이다.<sup>17)</sup>

이동국에 의하면 선생은 「불각의 미」를 통해 '사의'라는 필묵언어로 서구추상조각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조각의 지평을 우주 자연으로 넓혀나갔다. 바꿔 말하면, 선생은 서구조각언어와 동아시아 필묵언어를 혼용하여 세계조각사에 한 획을 그은 작가이다. 주목할 점은 그가 처음으로 '불각을 사의라 해석한 것'이다.

이 전시와 함께 선생의 예술세계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전 학술대회와의 차이점이라 하면 논문발표자의 전공이 서양미술사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학자 김동일 교수, 문학평론가인 김우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서예가 김종원, 철학자 정세근 교수, 미술사학자 홍선표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동국 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와 같이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선생의 예술세계를 살펴보았다.

모든 연구자들이 유의미한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특히 김우창 교수의 「공간, 서사, 조각-김종영 조각의 한국적 공간」에서 선생의 1953년 작 『새』의 형태를 선생 서예작품 중 선생이 즐겨 쓴 장자莊子 외편外篇 천도天道的 내용<sup>18)</sup>과 연계하여 설명한 것이 주목을 받았다. 김우창 교수에 따르면, 브랑쿠지의 비상하는 듯한 새와 달리 선생의 새는 '중력을 따라 땅위에 안정한 모습'이다. 이와 같은 설명이 가능한 것은 선생의 작품의 끝, 즉 새의 머리 부분을 '원형의 마개 형태'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이 선생이 즐겨 쓴 장자 외편 천도에서 인용한 "覆載天地복재천지"에 내포된 우주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였다.<sup>19)</sup> 기존 연구가 선생의 『새』와 브랑쿠시의 『새』의 형태가 유사함에 천착하며, 형태상의 영향관계를 살핀 비교연구였다면, 김우창 교수의 글을 통해 브랑쿠지의 새를 선생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여 무엇을 실험하고자 한 작품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졌다.

지난 세기 한국미술계의 세태를 감안할 때, 김동일 교수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불각의 의미를 살펴본 논문, 「김종영의 '불각'에 대한 상징투쟁론적 해석」도 불각의 의미를 새롭게 성찰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논문 제목에 '상징투쟁론'이 언급된 것과 같이 불각에 대한 분석들을 '장場이론'으로 예술사회학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피에르 부르디외 Pierre Bourdieu의 '상징투쟁'개념을 원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해방 후 이념과 정치적 흐름을 성찰하며 선생은 자신의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조각가로서 '불각'이라는 매우 역설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해방 후 선생이 타계할 때까지 예술, 특히 조각은 권력에 예속되어 예술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선생에게 불각이란 '예술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저항, 그리고 자연과 유희정신에 기반 한 조각의 재규정'이라는 이중의 실천'이라고 설명하였다.<sup>20)</sup>

학술대회는 위에 살펴 본 연구논문과 더불어 의외의 소득도 있었다. 학술대회를 참관했던 조각가 김용수가 종합토의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불각의 개념과 선생의 서예와 조각 작품의 상관성에 대해 「김종영 예술의 성격과 재평가-학술대회 참관 소고小考」<sup>19)</sup>라는 제하의 글로 정리하여 미술관으로 보내왔다. 필자는 이를 계기로 『김종영미술관 소식지』 제17호에 특집 「불각의 미, 어떻게 볼 것인가?」를 기획하여 김용수의 글과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서예가 김종원의 글을 게재하였다. 간략하게 김용수 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양과 서양은 언어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확연하였다. 동양은 언어로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실례로 『도덕경』 첫 장에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즉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반면 서양의 언어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과 같이 언어를 중시한다. 이러한 서구 언어 전통의 극단이 비트겐슈타인이다. 동서의 상충되는 언어관을 전제하지 않고 선생의 불각을 살펴보면 본래 선생이 사용한 의미에서 점점 멀어지지만 한다. 서양식 학문 방법에 익숙한 이 시대 연구자들은 이점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불각'의 기원은 『장자莊子』 외편外篇 「각의刻意」장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서 불각의 의미는 '당시에 필

17) 이동국, 「기획취지」, 『20세기 서화미술거장 1, 김종영-붓으로 조각하다』,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2017, 18쪽

18) 「覆載天地 刻彫衆形而不爲巧 此之爲天樂 하늘을 덮고 땅을 싣고 만물을 만들어내지만 재주가 있다 여기지 않으니, 이를 일러 하늘의 즐거움天樂이라 한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선생은 장자 외편 천도를 출전으로 최소 여덟 편을 썼다.

19) 김우창, 「공간, 서사, 조각-김종영 조각의 한국적 공간」, 위의 책, 371-372쪽

20) 김동일, 「김종영의 '불각'에 대한 상징투쟁론적 해석」, 위의 책, 336쪽

21) 김용수, 「김종영 예술의 성격과 재평가-학술대회 참관 소고小考」, 『김종영미술관』 제17호, 2018, 5-10쪽

박한 민생을 내팽긴 채 고담준론만 일삼는 지식인들에게 가한 일침이었다. 원전에 불각은 "...若夫 不刻意而高 ..."이라 하여 풀어쓰면 "만약 대저 (억지로)뜻을 버리거나 곧추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경지"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각척은 유형의 형태를 깎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의식세계를 조련한다는 뜻이다. 선생은 이 의미를 통찰하였기에 「불각의 미」의 초점은 '뜻을 중히 여김'에 맞춰있다. '뜻'은 한자문화권의 '사의寫意'를 지칭하며, '정신적 태도'는 서양의 '추상정신'을 대변한다. 서양에서 최초의 추상화를 그린 칸딘스키가 추상 동인動因이라 한 "내적 필연성 inner necessity"은 '의意'와 커다란 차이가 없다. 결국 동서미술은 '사의'와 '추상'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선생이 '사의' 대신에 '불각'을 선택한 이유는 당신이 조각가임을 늘 의식하였기에 그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생이 찾은 불각은 무엇인가? 선생의 서예작품 중 「自然中 有成法」이 있다. '자연 가운데 이루는 법이 있다'는 의미이다. 선생이 조각가로서 자연을 관찰한 남다른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인위적인 행위이기에, 자연 그 자체는 될 수 없다. 그런 연유로 초월의식이 필요하다. 작가 의도는 최소화하고 사물의 본성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각은 깎지 않는 '행위'가 아닌 예술하는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서예가 김종원은 「우성 김종영의 刻과 不刻의 세계」<sup>22)</sup>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선생이 서예작품에 낙관한 아호를 살피면 난해한 불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선생이 초기에 낙관한 아호는 刻人, 刻道人에서 刻老道人으로 그리고 환갑 즈음에 不刻道人으로 바뀌었다. '각'에서 '불각'으로, 상반된 개념의 아호로 바뀐 것이다. 한편 人에서 道人이라 변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 人에서 수행자 道人으로 입장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선생의 예서隸書 작품 『根道核藝』가 이를 방증한다. 선생에게 학문과 예술은 등가관계이다.

주지하다시피 선생의 서예작품을 통해 선생의 독서가 유가儒家와 도가道家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각'과 '불각'은 '유위有爲'와 '무위無爲'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자 외편 「刻意」장의 '각'과 '불각'도 '유위'와 '무위', 즉 전통적인 유가와 도가의 차이로 살필 수 있다. 선생이 '불각도인'이라 낙관한 것은 환갑 즈음이다. 그때 선생은 비로소 자신의 아호에 불각을 전면으로 내세운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선생은 수행자道人로서 본격적으로 자연스러움과 뜻을 중시하는 불각의 미를 지향한 것이다. 불각이 행위가 아니라 태도이고, 학문과 예술은 등가이므로 불각을 지향함은 정도에서 벗어난 당시 미술계 혹은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상이 선생의 유교 「불각의 미가 세상에 공개된 이래 불각을 토대로 선생의 예술세계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다.

요약해보면 초기에는 선생이 각백刻伯, 즉 '조각가 중에 만'이라 불린 것과 같이 조각가에 초점을 맞춰 '불각을 깎지 않는다'는 의미로 행위에 방점을 두고 살폈다. 불각을 행위의 최소화로 이해하고, 행위의 최소화는 서구의 레디메이드와 미니멀리즘과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이후 불각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선생의 추상조각과 서구추상조각과의 형태적 유사성을 살피는데 집중하였다. 그 원인은 이십세기 한국미술사에서 몇몇 평론가들이 1958년 즈음 선보이기 시작한 일군의 앵포르멜 작업을 한국현대미술의 기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적지 않은 미술사학자들은 당시 청년 작가들이 앵포르멜 작업에 다다른 내적 필연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앵포르멜은 당시 청년작가들에게서 발현된 '새것 콤플렉스'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술사학계의 분위기가 선생 작품 연구에도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사실 지난 세기 한국 사회 전체가 서구화에 매진하였기에 그들을 모본으로 삼아 그들을 뒤따라가는 형국이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편 2009년 서예작품 공개는 선생의 예술세계를 새롭게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추상조각의 선구자인 선생이 일생을 서예에 정진하였음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동서고금을 총횡무진한 선생의 예술세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학제간연구가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다. 2017년 서예박물관 전시 「20세기 서화미술거장전 1-김종영 붓으로 조각하다」가 좋은 예이다. 이 전시를 통해 비로소 이십세기 한국미술사에서 선생의 자리매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첫 발을 내딛었다. 이십세기 한국미술사에서 선생의 위상을 '한국 추상조각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족하다.

김용수가 제기한 것과 같이 '불각'을 서양 학문의 관점에서만 살펴서는 불각의 진가 혹은 진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조언은 앞으로 선생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선생은 전통서

22) 김종원, 「김종영 예술의 성격과 재평가-학술대회 참관 소고小考」, 『김종영미술관』 제17호, 2018, 11-13쪽



화의 진수를 꿰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각의 미를 다시 한 번 읽어보기로 하겠다.

### 3. 「불각의 미」 다시 읽기

김중영 선생이 「불각의 미」를 쓸 때가 하늘의 뜻을 안다는 신이거나 신 초반이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불각의 미」를 쓴 노트 표지에 「장미일기 1964」<sup>23)</sup>라고 인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기장 맨 앞에 선생이 우리 나이로 신이 되던 정월 초하루에 의미 있는 일기를 썼다.

“지금까지의 제작생활을 실험과정이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종합을 해야 할 것이다.”

지천명知天命이 되는 첫날의 다짐이다. 선생의 당면과제는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다. 정월초하루 일기 뒤에 선생은 「濫故知新」을 시작으로 그동안 당신이 살핀 주요 화두를 조목조목 정리하였다. 모두 옥고玉稿이지만 특히 이 일기장에서 주목할 글은 「순수와 종합」, 「생활과 예술」, 「예술의 질을 높이는 사람」, 「제작과 반성」, 「예술과 과학」, 「불각의 미」, 「예술, 인생, 사랑」, 그리고 「유희삼매」이다.

「순수와 종합」을 통해 선생이 육이오동란 후 십년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험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어떻게 ‘추상의 가능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생활과 예술」 그리고 「예술의 질을 높이는 사람」은 작가로서의 삶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다. 「제작과 반성」은 당시 미술계의 세태에 대한 유감 표명이다. 이 글을 통해 어떤 연유에서 생전에 선생이 「과작畵作의 작가」<sup>24)</sup>, 즉 ‘작품이 적은 작가’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까지 전시를 극도로 자제하였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예술과 과학」에서 선생은 한국미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미술계가 과학으로 대변되는 서구인들의 논리적 사고를 보완해야 함을 촉구했다. 「불각의 미」, 「예술, 인생, 사랑 십장十障」, 그리고 「유희삼매」는 선생의 예술관을 정리한 글이다. 선생은 「유희삼매」를 통해 작가는 헛된 노력에 일생을 바치는 사람으로, 공리를 염두에 두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예술, 인생, 사랑 십장」은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선생이 1980년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을 기념하여 심혈을 기울여 간행한 조각 작품집에 게재한 「자서自書」에 「인생, 예술, 사랑」으로 순서를 바꿔 여섯 장으로 요약정리 하였다.<sup>25)</sup> 결론은 「예술의 목표는 통찰」이다. 이를 통해 선생이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십년이상 오랜 시간을 심사숙고하였다는 점에 절로 감탄할 따름이다.

이상과 같이 「예술, 인생, 사랑」과 「유희삼매」는 광의의 예술론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불각의 미」는 글 제목으로만 봐서는 조각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예술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꼭지 글은 씨줄과 날줄과 같이 서로 엮여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 정리한 글이 바로 1980년 덕수궁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을 기념하여 간행한 조각 작품집 말미에 게재한 「자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선생은 「불각의 미」를 통해 짧지만 매우 함축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화두를 논하고 있다. 첫째, ‘뜻’을 중시한 동양의 미학과 서양의 ‘추상정신’은 같은 격으로 볼 수 있다. 뜻을 중시한 동양미학의 특수성과 이십세기 서양에서 등장한 추상정신의 특수성을 비교 성찰하면 미래에 인류보편적인 예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은 선생이 1958년 6월 9일자 『대학신문』에 게재한 「이념상으로 본 동양미술과 서양미술」에서 “보편성에 기반을 둔 특수성만이 후일 세계문화사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동서양미술이 이러한 세계적 자각에서 명일明日을 지향한다면, 인류는 한층 높은 단계에서 하나의 세계미술을 가지게 될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그림은 영원함을 지향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한 존재의 잊힘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잊히지 않기 위해 그림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동양과 서양이 공히 사용하고 있는 영정이다. 한편 오랜 시간 다양한 비평을 견딘 작품은 시공을 초월해 고전이 된다. 고전이 되는 순간 그 작품은 영원성을 획득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1955년 11월에 선생은 “지구상의 어느 곳에 고 통할 수 있는 보편성과 어느 시대이고 생명을 잃지 않는 영원성을 가진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본인의 소망을 밝혔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인생, 예술, 사랑」에서도 선생은 무한성과 영원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작업의 단초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작

23) 이 일기장 대부분의 글은 선생의 유고집 『초월과 창조를 향하여』에 게재되었다. 한편 1964년 선생은 처음으로 「자각상自刻像」을 제작하였다. 정월 초하루 일기와 「자각상」을 통해 당시 선생이 작가로서, 교육자로서, 가장으로서 얼마나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였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24) 선생이 회갑을 맞아 생애 첫 개인전을 개최하며 간행한 도록 서문을故 이경성 전국립현대미술관장이 썼다. 이경성은 서문에 본인이 동화출판사에서 발행된 「한국미술전집 15권 (근대미술편)」에 선생의 1965년 작 「가족」을 기술한 것을 다시 게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작畵作인 이 조각가는 석고를 비롯하여 돌나무, 철로 그의 미적 이미지를 전개시키고 있다. 이 작품은 드물게 보는 대리석 작품으로 간결한 표현에다 회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를 한 개의 돌에다 모두 집약시킨 수법은 신선한 양과감과 더불어 격조 높은 돌의 미학을 실현하고 있다.」 과작의 작가는 이 글에서 비롯되었다.

25) 「인생, 예술, 사랑」의 관계를 요점 말로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인생은 유한하니, 무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떻게 무한한 가치를 유한한 인간이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술밖에 없다.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 - 예술이라고 해서 모두 무한한 것인가? 아닐 것이다. 시대에 한정되고, 종교에 편향된 예술은 부분의 예술에 불과하다. - 인생은 사랑의 결과다. 남녀의 애정, 친구의 우정, 부모자식간의 정분, 남남끼리의 의리도 모두 사랑이다. - 따라서 인생의 무한한 가치는 사랑이고, 예술은 그 사랑을 자기의 방식대로

가공하는 데 있다. 나는 조각과 서예로 그 사랑을 가공할 것이다. - 그럼에도 예술의 궁극이 작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삶과 사랑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루어진 작품을 보고 자기와 세계를 또다시 통찰한다.” 정세근, 「조각의 길, 서예의 길」, 『20세기 서화미술가장 1』, 김중영, 붓으로 조각하다,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2017, 478쪽

26) 선생의 증조부가 분재에 일가견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영향으로 분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후손이 몇몇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선생은 어려서 증조부가 분재를 돌보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분재와 수석은 실과 바늘 같이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27) 「예술가와 꿈」에서 꿈은 잠자며 꾸는 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은 “어떤 환상이라던가, 사랑이며, 미감이며, 생명감이며, 또는 순간적으로 발전되는 직관의 세계, 어떤 잠재의식이며, 인상이며 추억이며 - 이러한 극히 애매하고 막연한 마음의 작용” 전체를 편이상 꿈이라고 하였다.

28) 「초월과 창조를 향하여」에 게재된 「예술가의 꿈」 자필 원고를 보면 선생이 제목을 「예술가와 꿈」이라 썼다 지웠다. 이 글은 이백 자 원고지 열 세장 분량의 글로 이 부분은 아홉 째 장 우측에 글 내용과는 별도로 기입해 놓았다. 「초월과 창조를 향하여」에는 누락되었다. 늦어도 1950년대 중반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이다. 근거는 원고지 좌측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라고 인쇄되어있기 때문이다.

가는 항상 주위의 모든 것을 낯설게 바라보고 새롭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남다르게 주위를 살펴야 한다. 더불어 예술은 어떤 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로 예술에 임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유희삼매’의 경지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참 자유를 맞출 수 있다.

「불각의 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수석의 미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sup>26)</sup> 수석은 계곡의 돌이 오랜 시간 자연에 의해 형태가 만들어진 돌이다. 보통사람이 보기에는 일개 돌이지만 수집가의 심미안에 따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리저리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 좌대에 어떻게 놓을지 결정하는 정도로 인위적인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일개 돌이 자신만의 자연을 품고 있는 독립된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결국 수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이며, 그것을 감식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집가의 안목이다.

「순수와 종합」에서 선생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선생은 지난 십년동안 형체와 사물의 순수성을 탐구하기 위해 자연 관찰에 매진하였다. 선생의 여러 작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58년 1월 8일에 그린 드로잉작품을 살펴보자. 선생은 한겨울에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를 그리고 여백에 다음과 같이 단상을 적었다.

“수목은 인체혈관의 분포 상태를 연상시킨다. 인체의 입체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공간에서 자유롭게 뻗은 수목을 세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결국 생명체로서 형태와 구성에서 많은 공통성을 갖는다.”

한편 선생은 「예술가와 꿈」이란 제하의 글에서 “예술의 진실을 자연의 법칙에서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을 사색(꿈)<sup>27)</sup>에서 얻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예술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나타나는 개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sup>28)</sup>

선생의 이런 태도를 서예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67년 유하權夏(음력 5월)에 「장자莊子」 「천하天下」편의 글을 인용한 「判天地之美판천지미 析萬物之理석만물지리」이다. 풀어쓰면 “천지의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만물의 이치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 선생은 「刻道人각도인」, 즉 ‘조각을 통해 삶의 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낙관하였다. 또 다른 작품으로는 『自然中자연중 有成法유성법』, ‘자연 가운데 이루는 법이 있다’는 말이다. 선생은 자연을 본보기 삼아 조형원리를 모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술을 통해 삶의 도리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불각의 미」에는 두 개의 주요 핵심어가 있다. ‘자연自然’과 ‘뜻’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의 개념은 영어 ‘nature’의 번역어 ‘자연’이다. 한자 ‘자연’의 원래 의미는 ‘인위人爲’의 반대어 ‘무위無爲’와 함께하여 인위적인 것이 없이 스스로 그러하게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스스로 그러하게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여 그 이치를 깨달으면, 더불어 삶의 도리 또한 깨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중국 문예론에는 ‘관물취상觀物取象’-사물을 관찰하여 상을 취함-과 ‘이물비덕以物比德’-사물로서 덕을 비유함-이라는 독특한 미학이 발전하였다. 무엇보다도 사물을 면밀히 관찰한 후 그 대상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덕목의 상징물로 적합한지 따져, 적합하다고 판단이 서면 특정 덕목의 상징물로서 조형예술의 소재로 통용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군자四君子’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나무를 그릴 때 중요시 했던 것은 ‘홍중성죽胸中成竹’, 붓을 들기 전에 마음속에 먼저 대나무가 그려져 있어야 한다고 했듯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사가 아닌 ‘사의寫意’, 즉 ‘뜻을 그리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예술에 임하는 서양과 동양의 태도의 차이가 드러난다. 선생은 그런 동서의 미술이 이십세기 들어 뜻과 추상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시공을 초월하여 소통할 수 있음을 통찰하였다. 선생은 ‘뜻’을 ‘추상’의 번역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같은 ‘격格’으로 풀어 설명하였다. 선생의 견해를 따른다면 ‘추상’은 ‘사의寫意’, 즉 뜻을 그리기에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 각자의 뜻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광범위하다.

일생을 처사로 산 부친으로부터 선비로서 갖춰야할 소양교육을 익힌 선생에게 자연은 조형원리의 본보기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며, 그와 같은 본보기를 세심히 관찰하여 그 원리에 따라 제작한 작품은 스스로 그러하게 존재한다. 그렇게 존재하는 작품은 고유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솔직히 말해서 내 작품은 어떠한 무엇으로나 기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기를 바라고 싶다. 실제로 작품 처리에 있어 터치를 깨끗이 지워 버리기도 하고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도 많은 신경을 쓴다. 이렇게 해서 「깎아 만든 조각」으로서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나의 객관체로서 자연스럽게

또는 필연적으로 작품이 있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서 자연의 묘사가 아닌 작품으로서의 생명감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sup>29)</sup>

선생의 조각 작품에 표제가 없는 이유와 함께, ‘불각의 의미’를 부언설명하고 있다. 선생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브랑쿠시와 헨리 무어의 작품을 보고 ‘하나의 객관체로서 자연스럽게 또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작품’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의 출발점은 동경미술학교 학풍에서 비롯되었다. 선생은 동경유학시절 동경미술학교의 학풍이 사실적인 재현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수업 과제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선생은 일본화 된 서양조각을 배우면서 이점이 불만이었다. 선생이 생각한 예술이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감동을 자유롭게 표현<sup>30)</sup>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선생은 당시 서양 조각가들의 화집을 보며 예술로서의 조각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다.<sup>31)</sup> 선생은 그 후로 오랜 세월의 모색과 방황 끝에 추상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숙제가 다소 풀리는 듯하였다. 실제로 선생은 1953년 제2회 국전에 『새』를 발표한 이래 사십대를 온전히 서구추상미술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였다. 지금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선생이 손수 『Abstract Art』라고 제목을 적은 한 권의 대학노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생은 1958년 해방 후 최초로 개최된 국제교류전인 미네소타대학교의 교류전을 보고 이십세기 한국미술이 나아갈 바가 “보편성에 기반한 특수성”을 모색하는 것이라 갈파했다.<sup>32)</sup> 수업시간에 선생은 학생들에게 “자기를 개척하고 표현하려면 우선 남의 일을 이해해야 한다. 자기를 비옥하게, 사고를 풍부하게 하고, ‘대등한 처지에서’ 이해해야 한다.”<sup>33)</sup> 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여정을 거쳐 선생이 오십 즈음에 『불각의 미』를 쓴 것이다.

‘장미노트’에 『불각의 미』를 쓸 당시 선생의 시대인식은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글이 앞서 거론한 『제작과 반성』이다. 생전의 선생을 기억하는 분들은 선생이 다른 작가들과 각별한 교류가 없었다고 회고한다. 학교와 집을 왕복하는 일상이었다고 한다. 물론 선생의 성격 탓도 있었으나, 아래 글을 읽어보면 또 다른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무지와 교활이 범람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진리를 논하고 엄한 원칙을 따지는 것은 피하고 있다. 주위에 이러한 말을 주고받을 교우도 거의 없어졌거니와 때와 곳을 얻지 못한 고담준론高談峻論이 일에 방해가 되고 신변을 고독하게만 만드는 것 같다. 차라리 자성과 명상을 벗 삼아 일에 몰두하는 편이 나으리라. 대체로 예술가를 훈련시키는 것은 제작과 반성으로 족하다. 겸양과 용기와 사랑의 미덕을 길러 주는 것은 오직 제작의 길 뿐이다.”<sup>34)</sup>

선생은 이 글을 『불각의 미』 바로 앞에 썼다. 글 내용으로 봐서 선생 주위에 격의 없이 인생과 예술을 논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음을 짐작케 된다. 또한 육이오 동란 이후 총흔탑과 더불어 1960년대는 동상 건립 붐이 일어, 소수의 조각가들은 이를 통해 치부하였다. 예술의 본말이 전도된 시대였다. 선생은 예술이 권력의 간섭으로 인해 타락할 수 있기에, 작품은 철두철미하게 작가로부터의 순수한 소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35)</sup> 선생이 1967년부터 순차적으로 건립될 애국선열조상제작을 의뢰받았으나 거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청년작가들은 당시 최신 화풍이라 할 수 있는 앵포르멜 화풍의 그림에 매진하였다. 한마디로 선생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절대고독감을 느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며 『불각의 미』의 마지막을 “인간의 절실한 요구인 행복이란 것도 백억의 재산이나 절대한 재력에 있다기보다 극히 사소한 일시의 기쁨이나 생리적인 어떤 조화에서 실제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자문자답으로 끝맺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내용이 『생활과 예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 말미에 선생은 채근담 후집의 글, “得趣不在多 盆池券石間 煙霞具足 會景不在遠 蓬窓竹屋下 風月自賒<sup>36)</sup>”을 적었다. 1966년에는 이 글을 서예작품으로 쓰고 ‘刻道人’이라고 낙관하였다. 그 시대를 건디는 선생의 다짐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여하튼 선생이 자신의 서예작품에 ‘불각도인’이라 낙관을 한 것은 1974년 환갑 즈음이다. 훗날 본인의 작업실 당호로 마음에 둔 『불각재』를 예서로 쓴 것도 이즈음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선생이 『불각의 미』를 쓰고 ‘불각도인’이라 낙관하기까지는 약 십년이라는 시차가 있다.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지천명에 선생은 『불각의 미』를 통하여 동양의 사의寫意와 서양의 추상이 이십세기 동서미술의 교집합임을 자각하고, 본인이 자각한 불각의 도리를 추구하는 작가, 불각도인이라고 선언하기까지 또다시 십년이 걸렸다. 즉 환갑 즈음이다. 불각도인이라 낙관한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필 수 있다. 하나는 한 예술가로서 자신의 예술이 경지에 이르렀다는 확신이 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추측은 불각도인이라 낙관한 조

29) 김종영, 『작품과 사진』, 위의 책, 103-107쪽. 이 글은 『불각의 미』보다 몇 년 후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30) 김종영, 『자서』, 『김종영 작품집』, 문예원, 1980, 184쪽

31) 김종영, 『전통이라는 것 II』, 위의 책, 121-123쪽

32) 김종영, 『이념상으로 본 동양미술과 서양미술』, 『대학신문』, 1958년 6월 9일

33) 1966년 선생의 미술해부학 강의를 수강한 원로조각가 윤석원이 강의 내용을 위와 같이 메모하였다.

34) 김종영, 『제작과 반성』, 위의 책, 52쪽

35) 김종영, 『원당과 세잔느』, 위의 책, 134쪽

36) “근데 김종영 선생한테 내가 이걸 프로포즈를 했지, 서울시대! 그랬더니 김종영 선생이 자기는 그런 사실적인 것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때 아 이 양반이 그 쪽으로 일본 교육 받은 분인데, 그 선생님, 이런 기회 없는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나는 안해, 그래. 그 때 내가 이제 확인한 것이 사실적인 작품도 그렇지만은, 그런 식의 정부의 박정희대통령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관아에서 말하는 작품이면은 자기는 안한다 하는 것이 나한테 딱 오히려고, 그걸 풍기더라고.” 임영방, 2011, 인터뷰

37) 김종영, 『작가와 대중』, 위의 책, 46-49쪽

38) “정취를 얻음이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반만한 연못과 주먹만 한 돌맹이에도 연기와 안개가 모두 깃들어 있다. 좋은 경치는 먼 곳에 있지 않으니 꼭대 창 대나무 기둥 오막살이에도 맑은 바람과 맑은 달빛이 절로 넘쳐나다.” 『초월과 창조를 향하여』에는 이 글이 누락되었다.

37) “편평하더라도 전후관계가 유기적으로 되어 있으면 훌륭한 입체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평면은 한 면만을 말하는 아차원이다.” 선생이 1958년 11월 1일에 메모한 내용이다. 콜라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8년 김종영미술관 전관 특별전 ‘각백이 그리다.’에 게재한 줄고 ‘각백이 그리다’ 김종영의 드로잉전을 개최하며, 32-3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38)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 리를 가고서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

39) 미술관 분류번호 E-058 『ABSTRACT ART』 13-14쪽, 이 노트는 여러 정황과 제자들의 회고로 종합해보면 1950년대 말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40) 김종영, 『창작에 대하여』, 위의 책, 137쪽

41) 김종영, 『원당과 세잔느』, 위의 책, 134쪽

42) “근데 김종영 선생한테 내가 이걸 프로포즈를 했지, 서울시대! 그랬더니 김종영 선생이 자기는 그런 사실적인 것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때 아 이 양반이 그 쪽으로 일본 교육 받은 분인데, 그 선생님, 이런 기회 없는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나는 안해, 그래. 그 때 내가 이제 확인한 것이 사실적인 작품도 그렇지만은, 그런 식의 정부의 박정희대통령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관아에서 말하는 작품이면은 자기는 안한다 하는 것이 나한테 딱 오히려고, 그걸 풍기더라고.” 임영방, 2011, 인터뷰

43) 최종태, 『많은수록 좋다』, 『한 예술가의 회상』, 열화당, 2009, 16쪽

음부터 선생의 조각 작품과 드로잉 작품들은 선생이 그동안 관찰하며 실험한 여러 모티브-인체, 산, 나무를 포함한 식물, 삼선교 풍경-가 혼용되어 선생만의 독특한 작품들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조각 작품은 더욱 더 간결해졌다. 한편 1958년 이래 ‘편평한 것과 평면적인 것의 차이’에 대해 오랜 시간 성찰한 결과물로서 1979년 이후 선생은 콜라주 작업에 전념하였다.<sup>37)</sup> 선생의 작품세계를 살피며 있어 가정이란 별의미가 없었으나, 선생이 1982년 지병으로 타계하지 않았다면, 콜라주 작업을 토대로 ‘불각의 미’가 좀 더 심화된 조각 작업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라 추측해본다.

다른 하나는 앞서 살펴본 김동일 교수와 서예가 김종원의 견해와 같이 선생이 불각도인이라 낙관한 것은 당시 세대에 대한 선생의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은 앞서 살펴본 ‘제작과 반성’에 밝힌 선생의 시대인식과 더불어, 1973년 늦가을에 선생이 당대唐代 명필인 안진경顔眞卿의 『쟁좌위고爭座位稿』를 임시臨書하였기 때문이다. 휘문고보 이 학년 때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제3회 전조선남녀학생작품전람회』에서 안진경체로 쓴 ‘원정비’로 전국 장원을 차지한 선생이 환갑을 바라보며 다시 그의 글을 임서를 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선생은 『쟁좌위고』에서 안진경이 인용한 『전국책戰國策』 『제책齊策』 제5에 나오는 일시逸詩 “行百里者反九十<sup>38)</sup>”을 여러 차례 썼다. 이때만 해도 선생은 ‘각도인’이라 낙관하였다. 行百里者反九十가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진쑤 무왕武王의 교만함을 걱정한 신하가 시경詩經을 인용하여 충고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상기하면, 이 글을 반복해서 쓴 이유가 학장임기를 마친 선생의 다짐일 수도 있지만, 당시 세대에 대한 성찰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969년에 삼선개헌이 있었고, 1972년 시월유신이 단행된 이후 일련의 사태를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다.

선생은 동경유학시절부터 예술이 권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진선미를 논하는 것은 철저히 현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생은 추상작업을 하는 예술가는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우스운 편견인데, 그 이유는 추상작가 또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또한 진정한 미술가의 사회적 사명은 시대의 미의식에 관한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미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하여, 시대의 생활형식의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미를 갖게 하는 근저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하였다.<sup>39)</sup> 선생은 추상미술에 전념하였음에도 서양의 예술지상주의자들이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창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예술의 목표는 통찰’이라는 결론과 같이 선생은 사태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한 마디로 선생은 1953년 불혹을 바라볼 즈음부터 십년간 동시대 서구미술을 철저히 분석하며 체험해보기 위해 따라 그려보고, 다양한 실험작을 제작하여 자기화하고자 하였다. 최종태 명예관장의 표현과 같이 습작기였다. 선생은 지천명에 ‘불각의 미’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실험한 것을 종합해 나갔으며, 환갑 즈음부터 선생은 본격적으로 ‘불각의 미’를 작품으로 실현해 나갔다. 서두름이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글쓰기와 독서, 서예, 그리고 사색과 함께하였다. 이런 태도는 선생이 일생을 정진한 서예 공부법에서 비롯되었다. 한 가지 첨언한다면 이 모든 것의 사표師表는 추사秋史 선생이었다.

#### 4. 지금 『불각의 미』를 다시 읽어봐야 하는 이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선생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지난 세기 한국미술계에서 선생의 위상을 재고하는 데에 있어서 『불각의 미』는 매우 중요한 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선생이 이 글을 쓴 것은 반세기 전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압축 성장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쳐 급기야 2017년 한국의 세계수출 순위는 육위에 올라섰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桑田碧海하였다. 미술생태계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국제 교류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지금은 필자가 아는 것만 해도 다섯 개의 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다. 1980년대 해외유학을 자유화 한 이래 수많은 청년작가 지망생들이 구미 미술계를 견문하고 귀국하였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해외 미술계의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한국미술계는 더 이상 구미 미술계와 시차 없이 약동하고 있다.

한국미술계의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미술계가 그만큼의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스스로 되묻게 된다. 수많은 전시회와 대규모 국제비엔날레를 다섯 개씩이나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담론소비국에 머무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특수성을 철저히 연구하여 인류보편적인 이론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미비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타의 상호비교분석을 통해 부족함을 채워 나아감을 통해 자아 발전을 도모해야 함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이를 토대로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 CHONGYUNG KIM “Beauty of Non-Carving”: A Second Reading

Choon Ho Park

The Chief Curator,  
Kim Chong Yung Museum

“Ancient Chinese people adored the beauty of non-carving. Having processed oddly shaped stones a little, they soaked them for a few years to remove the touch tracks and then enjoyed them. This was because they valued meaning more than form.

It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beauty of non-carving in oriental thought that the contemporary idea of molding lays more stress on the mental attitude of an artist than on the modeling of a shape.

It is an attitude to seek the pure meaning of molding that the works of Constantin Brancusi or Henry Moore want to exist as they do without being viewed as sculptures. This is also a beauty of non-carving. Not only do they seek harmony in nature, but they also exist as works of art and always communicate with the great order of nature.

Therefore, the sculptures integrate and expand the order of nature at the same time. We always hope for the infinite, the eternal, the happy, etc., but they are difficult to obtain and understand. Humans make every possible effort to satisfy their wishes. It could be said that human history is an expression of human agony to fill them.

As for the three concepts, they are not far at all, but near around us. How often we find infinity or eternity in a trivial flower or branch in our daily life! Are we not enjoying real happiness in trivial temporary feeling or physiological harmony rather than in large wealth or absolute power?”<sup>1)</sup>

### 1. “Beauty of Non-Carving”: A Writing of a Scholar-Sculptor

Kim Chong-yung (1915–1982) is widely known to be a “scholar-sculptor”. He began to receive private teaching on Confucian classics from his father at the age of five. This is seen in his writings, his family’s testimony, and newspaper interviews. In particular, his own Chinese poems are included in his calligraphic works, which shows how well-versed he was in Chinese classics.

Let’s take a concrete example. There is a pavillon called “四美樓 (Samiru)” across the road in front of his birthplace. In fact, the two houses were originally located in a fence. They were separated from each other, as a road was constructed through his birthplace with a district readjustment project. Strictly speaking, Samiru refers to a part with the gate of a separate house called “求文亭 (Gumunjeong)”. Kim Yeong-gyu (pen name: 慕淵 (Moyeon), his great-grandfather had Gumunjeong built in 1926 to hold poetry parties and entertain guests. The framed picture at Samiru is a woodcut from the writings of Yun Yong-gu (pen name: 石村 (Seokchon). When Kim Chong-yung was 13 years old, the first poetry party was held at Gumunjeong in 1928. His great-grandfather received poems from scholars, had them woodcut and hung at Gumunjeong. A document at Gumunjeong was written by Jeong Man-jo who served as an official of 奎章閣 (Gyujanggak).<sup>2)</sup> In addition, Kim Chong-yung had a twelve-fold calligraphic work that Jeong Dae-yu presented to Kim’s great-grandfather, which indicates how high the scholars frequenting Gumunjeong were in level. He mastered the essence of the nobility culture from Joseon Dynasty until he went on to Hwimun High school at the age of 15. This is why he did not disparage traditional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in the least, when he received contemporary Western art afterwards.

As might be expected of a so-called “scholar-sculptor”, he devoted himself to calligraphy as a means for spiritual culture during his lifetime, and left the most amount of writings of his con-

특수성을 살리는 것이 세계 속의 한국미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궁극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지금도 외치는 구호이다. 맞는 듯하면서도 틀린 구호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국적인 특수성을 표현한 작품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한국적인 특수성이 가장 세계적인 보편성을 만든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 결국 끊임없이 치열하게 자타의 비교 성찰을 통해 보편성을 추출해 낼 때 그때 비로소 담론생산국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

반세기전 선생이 「불각의 미」를 쓸 당시는 한국미술계는 청년작가들을 중심으로 서구의 동시대미술에 경도되어 온통 앵포르멜이라 불리는 추상표현주의식 그림에 편승하던 때였다. 전통 서화는 고루한 것으로 치부하던 시절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서예에 정진하며 필묵에서 비롯된 사의와 서구 동시대 미술의 추상 정신을 상호 비교하여 ‘뫓’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아낸 선생의 혜안은 담론생산국의 반열에 오르기를 갈망하는 지금의 한국미술계에 좋은 본보기이다. 즉, 선생의 말과 같이 ‘비판과 반성이라는 예술가의 정신적 생리가 결여되면 모방에만 급급하게 되는 것이다.’<sup>40)</sup>

한편 평범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과 같이 선생은 작품의 소재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작가는 일상을 시청聽覺하듯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꼼꼼하게 견문해야 한다. 한마디로 작가는 남다르게 보는 눈을 갖춰야 한다. 선생은 이와 같이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진실한 노력과 순수한 정신에서 이루어진 예술은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sup>41)</sup> 라고 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전지구화 된 자본주의 시대이다. 모든 가치의 척도는 돈이다. 작품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선생이 「불각의 미」를 쓰던 즈음에도 조각가들은 애국선열조상제작에 참여하면 치부를 할 수 있었다. 당시 선생도 동상제작 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하였다. 당신은 ‘사실적인 것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sup>42)</sup> 예술가가 공리를 위해 작품을 제작하면 창작의 진정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없다. 선생은 이 지점을 경계하였다. 선생은 「불각의 미」를 “행복이란 것도 백억의 재산이나 절대한 권력에 있다기보다 극히 사소한 일시의 기분이나 생리적인 어떤 조화에서 실제 누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당신의 소회로 마무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후학들에게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각자 이상과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처지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였다.<sup>43)</sup>

선생이 예술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강조한 것은 ‘비판과 반성’이다. 전지구화 된 자본주의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에게 제도와 구조에 대한 비판의식은 점차 희박해지는 듯하다. 선생이 정년퇴임을 하며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학들에게 진선미와 더불어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이 새삼스럽다.’<sup>44)</sup> 실제로 선생은 1953년 제2회 국전에 『새』를 출품하였을 때 선생은 혹평<sup>45)</sup> 을 들었음에도, 선생은 묵묵히 십년을 실험과 연구에 몰두하였다. 후학들은 이런 선생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다.<sup>46)</sup> 이런 인고의 과정을 거친 선생의 결과물이 「불각의 미」이다. 그리고 다시 십년 후에 ‘불각도인’이라 낙관하였다.

이 모든 과정을 염두에 두고 선생을 살펴보면, 이십세기 한국미술사에서 선생만큼 시대와 미술을 통찰하며 세계 속의 한국미술을 위해 일로매진—路邁進한 작가가 없다. 선생은 자신의 아호 又誠과 같이 성실하고 또 성실하였다. 그 결과 추사 선생이 추사체로 동아시아 서예사에 한 페이지를 쓴 것과 같이, 선생은 조각 전통이 일천한 이 땅에서 조각의 지평을 자연으로 확장시켜, 세계 조각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선생이 유명을 달리한지 삼십육 년이 지났지만 작가로서 선생의 성찰은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44) 「초대전 여는 김종영교수」, 『대학신문』, 1980년 4월 14일

45) “김종영씨의 목각은 이 작품만을 통하여서는 그 작가의 실력도 모르겠고, 좋게 평하여서 관중을 무시한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김청풍, 「국전작품을 보고」, 『조선일보』, 1953년 12월 3일

46) “... 그분은 그때 화실이 따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실, 큰 창고 같은 교실 한쪽 귀퉁이에서 작품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늘 보면 책을 옆에 놓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 실험적 작업을 하시고, 그러면 옆에 가서 보면서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선생님이 추구하는 게, 뭐 그때 뭐 아르프 (Jean Arp, 1887-1966) 책도 꺼내놓으시고, 마리 로랑상 (Marie Laurencin, 1883-1956) 것도 이렇게 퍼놓으시고, 아주 정직하게 공부를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 최만린, 『한국미술기록보존소 자료집5. 해방이후 조각계의 동향 II, 조각가 5인의 다섯 가지 이야기-구술녹취문』, 리움 삼성미술관, 2006, 69쪽

1) Kim Chong-yung, “Beauty of Non-Carving”, *Towards Transcendence and Creation*, Seoul: Yeolhwadang, 2005, 144–147.

2) Cf. Art Catalogue of Exhibition at Kim Chong-yung’s Birthplace in Changwon, Kim Chong Yung Museum, 2011.

temporary sculptors in order to fulfill a scholar's duty to publish a collection of writings. His writings encompass both calligraphic and literary works.

First, most of his calligraphic works ar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nd their source texts mostly belong to Confucianism and Taoism. Consulting the source texts shows that there are a few false or missing characters in the works. This indicates that he was so well-versed in Chinese classics as to write the works without referring to the sources.

According to the bereaved family, he frequently wrote, with a thick notebook at his bedside. Kim Chong Yung Museum has eight notebooks as his keepsakes, some of which are included in his posthumous collection *Towards Transcendence and Creation*. Several pieces of his writings also appeared in *Daehakshinmun*, the newspap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worked for thirty two years. The writings and interview articles in *Daehakshinmun* enable to know how he was as an educator. His preferred books in the Museum indicate that his intellectual quest exceeded ages and places.

He belongs to the generation of Chinese characters. His posthumous works include several Chinese characters that are not often used these days.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Hangeul generation to read them. His writings use few rhetorical expressions, but are as implicative and concise as Chinese characters. "Expressions Simple, Content Rich"<sup>3)</sup>, this is a goal he aimed at when creating works, but is found in his writings that are thought fragments in volume, but rich in content.

"不刻" (Non-Carving) represents his spirit of art. When his calligraphic works were disclos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in 2009, it was revealed for the first time that his signature "不刻道人" (Non-Carving Taoist Hermit) is also used among the works. At that time, it was also revealed for the first time that he had written several pieces of his future atelier name "不刻齋 (Bulgakjae)" in 書體 (the simplified square style of writing Chinese characters) to engrave a framed picture. People often regard "the beauty of non-carving" as an incomprehensible aesthetics of paradox.

His posthumous selection *Towards Transcendence and Creation* was published next year after his death in 1982. Thereafter, there were four retrospective exhibitions: *Kim Chong-yung, An Eternal Light in the Korean World of Sculpture* at Hoam Gallery in 1989; *Kim Chong-yung: A Pioneer of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in commemoration of the 90th anniversary of his birth at Deoksu Palace Gallery,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2005; *Beauty of Non-Carving, Sculptor Kim Chong-yung and His Age* in commemo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his birth, co-organized by Kim Chong Yung Museum,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 Museum and Gyeongnam Art Museum in 2015; *Kim Chong-yung, a Brush Sculptor*, the first sequence of Exhibition *Art Virtuosos of 21st Century* co-organized by Kim Chong Yung Museum and Calligraphy Museum, Seoul Arts Center in 2017. A total of thirteen papers were also presented at the exhibitions in 2005, 2015 and 2017.

Then, to what extent has "non-carving" been discussed?

## 2. "Beauty of Non-Carving": To What Extent Has It Been Discussed

Kim Chong-yung is said to be also called "a pioneer in Korean abstract sculpture", "a scholar-sculptor", or "the eldest brother of sculptors" (刻伯). He deserves to have these nicknames, if we could remember he majored in sculpture at Tokyo Art School and worked for thirty two years from 1948 to 1980 at Department of Sculpture,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ever, a glance at his works makes it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it is reasonable to define him as a sculptor.<sup>4)</sup>

His first private exhibition was prepared by his juniors in commemoration of his 60th birthday. Given this, it would have been almost impossible to take a general view of his world as an artist during his lifetime. It is all the more so, if we remember that he was rated as "an unprolific artist" by Lee Gyeong-seong, a former director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who wrote the preface of the art catalogue at that time.<sup>5)</sup>

A mammoth retrospective exhibition was held as an invitational one at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Deoksu Palace in May 1980, when he retired from Seoul National

4) A total of 228 pieces of sculpture, including lost ones, have proved to be his. Art museums currently have approximately 3,000 drawings, plus oil, ink-and-wash paintings and wash drawings of his works. According to the bereaved family, he discarded nearly so many drawings himself for the reason of poor state of storage during his lifetime. Art museums have about 2000 pieces of his calligraphic works as well. Nonetheless, defining him simply as a sculptor seems to originate from the department-oriented system at art colleges.

5) His wife Lee Hyo-yeong said, "He held his exhibition late unlike these days. The first exhibition was that held at the 60th anniversary of his birth. Before that, there was a double exhibition with Woljeon. He asserte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exhibit works and that working hard is enough. Other professors tell that people do not know who he is, because he does not exhibit his works...". "Unforgettable - He was My Husband, but a Little Different from Others", *Water in Deep Fountain* Dec. 1992, 169.

6) Jeong Byeong-gwan, "A Pioneer of Abstract Sculpture Seeking the Beauty of Non-Carving", *Exhibition Kim Chong-yung, An Eternal Light in Korean Sculpture Circles*, Hoam Gallery, 1989.

7) Kim Chong-yung, "Author's Preface", *Kim Chong-yung's Collection of Works*, Seoul: Doseochulpan Munyewon, 1980.

8) Kim Jeong-hee, "Kim Chong-yung's Reception of Western Sculpture: Combination between Analysis and Intuition", *Studies into Modern Art 2006*, 73-74,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06.

University at the regular retirement age. The event was the first invitational exhibition for sculptors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organized after its opening. "Beauty of Non-Carving" was disclos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by his posthumous collection *Towards Transcendence and Creation* that was published in 1983 at the first anniversary of his death. Thereafter, the essay became so representative of his view of art that it was selected as the title of the 10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his death in 2015.

"Beauty of Non-Carving" is so short as to exceed four pieces of 500 character manuscript paper a little. Speaking of a sculptor's non-carving beauty, the essay sounds to be a paradox like a Zen monk's topic. What do scholars think of the essay?

The first mammoth retrospective exhibition was held after his death at Hoam Gallery in July 1989. Professor Jeong Byung-gwan commented on the essay in connection with "the ready-made aesthetics" of dada in his preface of the art catalogue in which the essay was published under the title "A Pioneer of Abstract Sculpture Seeking the Beauty of Non-Carving":

"Kim Chong-yung referred to ready-made aesthetics as "beauty of non-carving". The ready-made aesthetics of contemporary sculpture or the minimal art showed the extreme examples of a principle of minimizing the amount of work or using the forms of natural things to the utmost in terms of economic feasibility of work. Oriental art tradition is characterized by a non-theoretical tendency that a work does not begin with law or grammar, but derives from reality. In this sense, his sculptures were created by adapting the spirit of the times to oriental tradition."<sup>6)</sup>

According to Jeong, "Beauty of Non-Carving" is, in a narrower sense, "a Korean adaptation" of Western ready-made or minimal aesthetics. Being an antipode of artificial modeling, "non-carving" intrinsically corresponds to Korean art tradition. He said, "I dislike complicated and fine techniques, because I think any specific skilled technique is not indispensable for my artistic activity."<sup>7)</sup> The term of "adaptation" is noteworthy. Adapted Western songs were once popular, since they were considered to be more refined than Korean ones. They were characterized in that melody was the same as original, while lyrics had nothing to do with original. Adaptation is markedly different from translation in that translation highlights the meanings of the original to the maximum. Judging from the context, it appears to be more correct to say that he made Western art "his own" rather than "adapted" it.

In 2002, Kim Chong Yung Museum was opened at the 20th anniversary of his death. In 2005, an exhibition "Kim Chong-yung: a Pioneer of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was held along with an academic conference at the Deoksu Palace Gallery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t that time, Kim Hyeon-suk compared Kim's sculptures with Chusa's calligraphic works for the first time in "Creating New on the Basis of Old in Kim Chong-yung's Art, with a Focus on Chusa's Influence". This paper was influenced by Kim's essay "Wandang and Cezanne". Ma Sun-ja analyzed Kim's drawing for the first time in "Kim Chong-yung's Concept of Art". Kim Jung-hee came to an conclusion:

"... Kim Chong-yung identified Brancusi with Moore. This attitude was attributed to his arbitrary interpretation of modeling ways to approach natural principles analytically and intuitively. This 'misunderstanding' in the history of art also made it possible to combine the two ways in his works ... After all, his sculptures are more lyrical than Brancusi's ones and more ascetic than Arp's ones. These are Kim's own features."<sup>8)</sup>

It appears that Kim Chong-yung's "Beauty of Non-Carving" led to Kim Jung-hee's remark that he "identified Brancusi with Moore". According to her, he combined analysis with intuition by misunderstanding the goals of the both artists arbitrarily, which makes his works marked as lyrical and ascetic.

"A perspective is often said to create an object." This emphasizes how important an observer is. In other words, one arbitrarily selects what to observe. In "Beauty of Non-Carving", he did not try to comment on the methods of the both artists, but looked into the examples of Western art that corresponds to "Beauty of Non-Carving" in his eyes. Therefore, "misunderstanding in the history of art" is not an appropriate evaluation.

As mentioned above, art historians attempted to explain the word "non-carving" in accor-

dance with the trend of contemporary Western art rather than to reflect on the content of "Beauty of Non-Carving", or did not seek its meaning at all after the essay had been disclosed to the public in 1983. Such an attempt was not new for two reasons. First, all the scholars on his works majored in the history of Western art. This made it difficult for them to understand traditional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Second, "the newness complex"<sup>9)</sup> has been a driving force for the globalization-oriented Korean art circles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1983, "Ecstasy of Play" and "Wandang and Cezanne", which enabled to recognize his expertise on calligraphy, was included in *Towards Transcendence and Creation* in 1983. However, his calligraphic works were not shared with the world even after his death.

His 50 calligraphic works and 18 black-and-white paintings were disclosed to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at the exhibition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of Sculptor Kim Chong-yung*<sup>10)</sup> held in Kim Chong Yung Museum in commemoration of the publication of *Kim Chong-yung's Calligraphy and Black-and-White A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lligraphy and Black-and-White Art) in 2009. Indeed, he devoted himself to calligraphy, but there was no calligraphy exhibition in his lifetime. This made it possible for only his family members and a few acquaintances to know such a fact. For this reason, the show served as a momentum to recognize a necessity of renewing the position of Kim Chong-yung as "a pioneer of Korean abstract sculpture" in the Korean art history of the 20th century.

The show made Choi Jong-tae, the Honorary Director of Kim Chong Yung Museum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norary Director), recognize the true character of Kim Chong-yung early. Choi published a book *Reminiscences: My Teacher Kim Chong Yung* in 1999. This book contains an essay "Useong and Wandang", which is included again in *Reminiscences about an Artist (reprint of Calligraphy and Black-and-White Art)* after ten years. The essay has the anecdotes on the appraisal of Chusa's works and his visit to Chusa's old house, which enables to know Kim's level of calligraphy and Chusa's influence on Kim. Choi commented on Kim's calligraphy in the preface of *Calligraphy and Black-and-White Art*:

"It seems that his calligraphic works represent Kim Chong-yung more than sculptures. They appear to have enabled him to enjoy freedom and work with pleasure. They show what the ecstasy of play is. When he drew near to perfection in his later years, his brushwork melted into his sculptures. The saying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s are all identical" has become obsolete these days. Therefore, it is rare that he put such a classical art theory into practice. He raised the level of contemporary art by introducing his knowledge of humanities into art. ... He was far away from the world. Judging from his calligraphic works, he is like a Taoist hermit. He referred to himself as "刻人" (Carving Man), "刻道人" (Carving Taoist Hermit), and then "不刻道人" (Non-Carving Taoist Hermit), and also left 'Beauty of Non-Carving'. The age of non-carving is that of art."<sup>12)</sup>

Choi Jong-tae's opinion on Kim's calligraphic works enabled to recognize what art historians ignored in the study of Kim Chong-yung: we should look into all of his sculptures, drawings, calligraphic works and posthumous manuscripts to fully grasp Kim Chong-yung as an artist.

In 2015, there was a mammoth retrospective exhibition co-organized by Kim Chong Yung Museum,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 Museum and Gyeongnam Art Museum at the 100th anniversary of his death. The exhibition's title was "Beauty of Non-Carving: Sculptor Kim Chong-yung and His Age". Judging from the title, "beauty of non-carving" has now established itself as his own aesthetics.

The art catalogue comprised 87 sculptures, 23 drawings, and 8 calligraphic works. With the subtitle "Sculptor Kim Chong-yung and His Age", the show focused on "Sculptor Kim Chong-yung" by exhibiting an overwhelmingly number of sculptures. Three papers were presented at the conference. His sculptures were addressed by Kim Jin-ah's "Towards 'Transcendence': Kim Chong-yung's Early Abstract Works and Western Art (1952-1960)" and Choi Tae-man's "Kim Chong-yung and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National Art Exhibitions from Emancip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o 1957".

Kim Jin-ah analyzed his initial abstract sculptures from 1952 to 1960. She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his works from the 1950s have no specific style. She saw such a feature as "a

9) For "newness complex", cf. Kim Hyeon, "Korean Men of Letters: Yukdang and Chunwon", *Asia 1,2* (Mar.1969), pp.258-265, 1969.

10) 35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were exhibited from August 21 to October 8, 2009.

11) *Works of Kim Chong-yung, a Carving Taoist Hermit* published at Yeolhwadang contains 68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selected under the counsel of Professor Song Ha-gyeong.

12) Choi Jong-tae, "Preface - Beauty of Incompletion", *Calligraphy and Black-and-White Art*, Seoul: Yeolhwadang, 2009.

13) Kim Jin-ah, "Towards 'Transcendence': Kim Chong-yung's Initial Abstract Works and Western Art (1952-1960)", *Beauty of Non-Carving, Sculptor Kim Chong-yung and His Age*, Kim Chong Yung Museum, 2015, 275-276.

14) *Ibid*, 296-297.

15) Kim Chong-yung, "Painting and Sculpture", *Towards Transcendence and Creation*, Seoul: Yeolhwadang, 2005, 107-108.

16) "My work is so trifle it has little to boast of. This prize is merely a stroke of luck. I am simply a student who devotes himself to sculpture. However, I have much passion to break through the world level. Indeed, there is no border in art, but I am ready to make more effort, as each artist has his own fatherland and my father fatherland is in such a miserable state."

style of inactivity (無爲)", not the non-existence of style or non-meaning. In this case, inactivity derived not from Taoism, but from Jean-Luc Nancy's concept of "the Inoperative Community". Subsequently, she explained the style of inactivity:

"This means 'a style as non-style' that has no homogeneous identity, is open to other styles or 'differences' and moves forward anew without losing itself. Consequently, the style of inactivity implies a relation or form that is asymmetric and heterogeneous. This would mean a style that does not impose any homogeneity specific to style or thought, while receiving Western styles, and is open in harmony with occupation or aesthetic sense."<sup>13)</sup>

She arrived at a conclusion:

"Kim Jong-yung embodied core forms, structures, rhythms and feelings of vitality using materials. His works created this way were no imitation, reflection or part of natural forms, but counterparts equal to nature. For him, art was, in essence, 'both a play and a road of search after truth', and further a road to transcendence of surpassing all of styles, regions and ages."<sup>14)</sup>

Her conclusion reminds us of his desire written in November 1957:

"I would not like to stick to myself obstinately. I would not like to be bound by the times, either. My wish is to create the works with universality and eternity."<sup>15)</sup>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is a thought fragment he wrote when burying himself in the study of Western abstract art. He attempted to imitate the works of Western abstract art to understand Western abstract art after he confessed his goals<sup>16)</sup> at a *Dahaksinmun* interview (May 3, 1953) in commemoration of winning a prize at *Monument for Unknown Political Prisoners* held in London. At the same time, he studied various artists, recording on notebooks in what historic context Western abstract art evolved. In a word, he went through "a period of experiment". The period lasted for ten years. The method was to write Chinese characters according to a book of model handwriting, which he learned from an early age.

*Kim Chong-yung Carves with Brush* was opened in December 2017 as the first sequence of the exhibition *Masters of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in the 20th Century* organized, together with Kim Chong Yung Museum, by Calligraphy Museum within Seoul Arts Center that had been reopened after the remodeling of more than two years. The show was the first mammoth one to investigate how Kim's sculpture art is related to calligraphy. Considering that Korean art underwent "the turning period from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to art" in the past 20th century, the show focused on demonstrating that Kim played a role of bridge between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and art properly as an artist and educator. The show exhibited Chusa's books, calligraphic and poetic works inherited from his ancestors, and calligraphic works, paintings, sculptures and posthumous manuscripts from Hwimun High School to his death in a chronological order.

Lee Dong-guk, Chief Curator at Calligraphy Museum, named reasons for reevaluating Kim:

"... why do we repeat debate over Kim Chong-yung now with a focus on history and tradition? In conclusion, he wrote a page of world sculpture history newly. Strictly speaking, he expanded the horizon of sculpture infinitely. Cezanne and Kandinsky reduced any thing into cylinders, cones, points, lines and sides in essence. They created abstract art more than 100 years ago, but people have abstracted my intention infinitely with a "stroke" from time immemorial. This is the very calligraphy, which is a lump, crystal or protoplasm of meaning description (寫意) to accomplish straight or curved strokes and beautiful rhythms with a stroke. In short, it is the carving of non-carving in Kim Chong-yung that is a three-dimensional materialization of calligraphy."<sup>17)</sup>

According to Lee Dong-guk, Kim expanded the horizon of sculpture by livening up Western abstract sculpture with brush-and-Chinese-ink language called "meaning description" through "the beauty of non-carving". In other words, he marked a pivotal moment in the world history of sculpture by combining Western language of sculpture with East Asian language of brush and Chinese ink. What is noteworthy is that he "interpreted non-carving as meaning description".

An academic conference was held on the world of art along with the exhibition. The conference differed from previous ones in that speakers did not major in the Western history of art alone. His world of art was addressed from various points of view by sociologist Kim Dong-il, literary critic Kim U-chang, calligrapher Kim Jong-won, philosopher Jeong Se-geun, art historian Hong Seon-pyeo, curator Lee Dong-guk, etc.

While all scholars presented significant papers, attention was arrested by Kim U-chang's "Space, Prose and Sculpture: Korean Spaces in Kim Chong-yung's sculptures", which connected the form of Kim Chong-yung's *Bird* (1953) with the content of Providence (天道)<sup>18)</sup>, *Chuang-tzu* he preferred to write in his calligraphic works. According to Kim U-chang, birds in Brancusi and Kim Chong-yung "stabilize themselves according to gravity". This explanation is made possible by the fact that Kim Chong-yung finalized the head part of the bird "in a circular form". This shape derives from the cosmic view inherent in "覆載天地 (Heaven Covers All Things and Earth Carries All Things)" he preferred to cite from Chuang-tzu.<sup>19)</sup> The preceding studies addressed the relations of influence in form by focusing on the similarity in bird shape between Brancusi and Kim Chong-yung. On the contrary, Kim U-chang more specifically explained in what perspective Kim Chong-yung tried to approach Brancusi's bird and what he tried to experiment.

Kim Dong-il opened a possibility of reflecting on the meaning of non-carving in his sociological paper "Interpretation of Kim Chong-yung's 'Non-Carving' in Terms of Symbolic Struggle". As seen in the title, he borrowed the concept of "symbolic struggle" from Pierre Bourdieu whose "theory of field" had a great influence on art sociology. According to Kim Dong-il, Kim Chong-yung proposed a very paradoxical stance of non-carving in establishing the relations between his art and society. Especially, sculpture lost its authority and legitimacy as art till his death after the emancip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Given the times, non-carving is "a double fulfillment of social resistance to artistic values and redefinition of sculpture based on nature and play spirit".<sup>20)</sup>

The conference also reaped an unexpected fruit. After the conference, Kim Yong-su sent Kim Chong Yung Museum an essay "Character and Reevaluation of Kim Chong-yung's Art"<sup>21)</sup> on the concept of non-carving and the correlation between Kim Chong-yung's calligraphic works and sculptures, which had been fully discussed at the conference. In Kim Chong Yung Museum Newsletter No.17, I planned a feature "Beauty of Non-Carving, How Could We See?" and published the writings of Kim Yong-su and Kim Jong-won. Kim Yong-su's argument could be summarized. Kim Yong-su's essay is summarized as follows:

There is a definit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langua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e East is negative towards linguistic definition. A good example is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in Chapter 1 of *道德經 (Tao Te Ching)*. On the contrary, the West values language, as seen 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It is Wittgenstein who is at the extreme of the traditional Western view of language. We can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non-carving, if we consider Kim Chong-yung's non-carving regardless of the conflicting view of langua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Familiar with the Western method of learning, contemporary scholars should be on the alert.

"Non-Carving" originates in Chapter 刻意 (Meaning Carving) of 莊子 (*Chuang-tzu*): "...若夫 不刻意而高 ...". According to the original, non-carving means "a state of getting high naturally without raising meaning". Therefore, carving (刻) means not carving a shape, but training a formless world of conscience. Kim Chong-yung focuses "the beauty of non-carving" on "valuing a meaning". The "inner necessity" that Kandinsky called abstract motive does not greatly differ from "意" (meaning). After all, Eastern and Western arts can get in touch with each other through "寫意" (meaning description) and "abstraction". Conscious of himself as a sculptor, Kim Chong-yung maybe selected "non-carving" instead of "meaning description".

Then, what is "non-carving" he sought? There is a work "自然中 有成法" (there is positive law in nature) among his calligraphic ones. This is a special reason why he observed nature as a sculptor. Nonetheless, art is, in fact, an artificial act and not nature itself. This requires a sense of transcendence. An effort is needed to minimize an artist's intention and leave the nature of a thing fully revealed. In conclusion, non-carving is focused on the "attitude" of performing art, not on the "act" of non-carving.

18) "覆載天地 刻彫象形 而不為巧 此之為天樂." He is confirmed to have at least written eight pieces of work from Chapter Providence, Chuang-tzu.

19) Kim U-chang, "Space, Epic and Sculpture: Korean Spaces in Kim Chong-yung's Sculptures", *Ibid.*, 371-372.

20) Kim Dong-il, "An Interpretation of Kim Chong-yung's 'Non-Carving' in Terms of Symbolic Struggle", *Ibid.*, 336.

21) Kim Yong-su, "Character and Reevaluation of Kim Chong-yung's Art", *Kim Chong Yung Museum Newsletter No.17*, 2018, 5-10.

22) Kim Jong-won, "World of Carving and Non-Carving in Kim Chong-yung", *Kim Chong Yung Museum Newsletter*, 2018, 11-13.

In an essay "World of Carving and Non-Carving in Kim Chong-yung"<sup>22)</sup>, a calligrapher Kim Jong-won argued that the meaning of non-carving could be found by the observation of the literary names his calligraphic works bear as his signatures. At the initial stage, he used 刻人 and 刻道人, which turned into 刻老道人 and then 不刻道人 around the 60th birthday. The pen names changed from 刻 (carving) to 不刻 (non-carving). This is a directly opposed change of ideas.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noteworthy that "人" (person) changed to "道人" (ascetic, guru, or Taoist hermit). This is a change of position from a normal person to an ascetic. This is documented by his work 根道核藝 written in 書 (the simplified square style of writing Chinese characters). For him, learning and art are in equivalent relation to each other.

As is well known, his calligraphic works reveal that his reading concentrates on Confucianism and Taoism. This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刻 (carving) and "不刻" (non-carving) as "有為" (activity) and "無為" (inactivity), respectively. In Chapter "刻意" of *Chuang-tzu*, "刻 (carving) and "不刻" (non-carving) could be also seen ultimately as Confucianism and Taoism, respectively. He used a signature "不刻道人" around the 60th birthday. At last, "不刻" appeared in front. In other words, he positively began to aim at the beauty of non-carving by putting emphasis on naturalness and meaning as an ascetic. Non-carving is not activity, but attitude and learning and art is in equal relation to each other. Therefore, aiming at non-carving could be also seen as a criticism against the then art circles or the then society in general.

As mentioned above, his world of art has been discussed on the basis of non-carving since his posthumous manuscript "Beauty of Non-Carving" was released to the world.

In the beginning period, he was called "刻伯" (the eldest brother of sculptors). Accordingly, focus was paid on his job as a sculptor, namely an activity of "non-carving" at the initial stage of study. Non-Carving was regarded as a minimization of activity, which was explained in connection with ready-made art. Thereafter, the focus moved to the similarity in shape between his abstract sculpture and Western abstract sculpture. This was triggered by controversy over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contemporary art, which was found by a few critics in a group of Informel works around 1958. Not a few art historians did not find any inner necessity that had driven the then young artists into Informel movement in Korea. According to them, Informel is an example of the "newness complex" that appeared in the then young artists. The atmosphere in the circles of art history is also considered to have an influence on the research of Kim Chong-yung in any way.

In 2009, his calligraphic works were disclosed to the public, which became an opportunity of taking a new view of his world of art. It was a fresh shock that he, a pioneer of Korean abstract sculpture, dedicated himself to calligraphy during his lifetime. Not restricted to any region or time, his world of art required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A good example is the exhibition *Masters of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in the 20th Century: Kim Chong-yung Carves with Brush* held at Calligraphy Museum in 2017. At last, the show enabled to set foot on a study to position him in the Korean art history in the 20th century. It is not sufficient in many ways to set his position as "a pioneer of Korean abstract sculpture" in the last century.

As pointed out by Kim Yong-su, it should be always noted that it is impossible to find the true value or meaning of "non-carving" in Western perspective alone. He was well-versed in the essence of traditional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 3. A Second Reading of Beauty of Non-Carving

Kim Chong-yung wrote "Beauty of Non-Carving". when he was at the age of 50. This estimation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Rose Dairy 1964"<sup>23)</sup> is printed on the cover of the notebook in which the essay is written. He wrote a significant sentence on the first day of January when he became 50 years old in Korean age:

"If my life of creation has been a process of test, I have to synthesize all trials into my own style."

This is his determination on the first day when he was 50 years old. His imminent task was to synthesize the results of test. Following the diary on the first day of January, he arranged major

23) Most of the texts from the diary were published in his posthumous collection *Towards Transcendence and Creation*. He made an auto-carved image (自刻像) for the first time in 1964. The diary on the first day of January and the image make it easy to know that he deeply reflected on himself as an artist, educator, and head of household.

topics, beginning with “溫故知新”(Review the Old and Learn the New). Of the essays, attention is drawn by “Purity and Synthesis”, “Life and Art”, “Who Enhances the Level of Art”, “Creation and Reflection”, “Art and Science”, “Beauty of Non-Carving”, “Art, Life and Love”, and “Ecstasy of Play”.

“Purity and Synthesis” makes clear what purpose drove him to create the works of experiment for ten years after Korean War and how he reached the conclusion of “the possibility of abstraction”. “Life and Art” and “Who Enhances the Level of Life” reflect on the life and social role of an artist. “Creation and Reflection” criticizes the then practices in art circles. This essay allows us to guess why he extremely restrained from exhibition in spite of being even called “an unprolific artist”.<sup>24)</sup>

“Art and Science” urges Korean artists to supplement the Western logical ways of thinking represented by science to develop Korean art. “Beauty of Non-Carving”, “Ten Chapters of Art, Life and Love” and “Ecstasy of Play” express Kim Chong-yung’s view of art. In “Ecstasy of Play”, he emphasizes that an artist should have breadth of mind, since he spends his life for useless effort. “Ten Chapters of Art, Life and Love” was summarized into six chapters, with the title changed into “Life, Art and Love”, in “Author’s Preface” of his collection of sculptures that he published in commemoration of the invitational exhibition a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1980.<sup>25)</sup> The conclusion was that “the goal of art is insight”. This enables to recognize that he pondered on one topic for over ten years, which moves us profoundly.

As mentioned above, “Art, Life and Love” and “Ecstasy of Play” are essays on art in a broad sense. On the contrary, “Beauty of Non-Carving” is a concrete essay on art with a focus on sculpture. Nonetheless, the three essays are interlinked to each other. They are summarized in “Author’s Preface at the end of the collection of sculptures published in commemoration of the invitational exhibition a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1980.

As mentioned above, he presents three short and connotative topics in “Beauty of Non-Carving”. First, The East’s aesthetics valuing “meaning” is in equal relation with the West’s “abstract spirit”. The both show a possibility that an universal art will appear in the future. He said in “Eastern and Western Arts in Terms of Ideology”, an article in *Daehakshinmun* (Jun. 9, 1958): “Nothing but specialty based on universality will play a role of enhancing the values of the world history of culture in the future. Mankind will have one art of higher level, if Eastern and Western arts seek future with such self-awareness.”

Second, painting is an activity to meet human desire. Every human fears death most, because death is an oblivion of a being. A picture is a means not to be forgotten. A portrait of the dead is the very representative example. Having survived criticisms for a long time, a work is a classic beyond time and space. The moment it becomes a classic, the work obtains eternity. As mentioned above, he said in November 1955, “I would like to create works that transcend time and space.” He also referred to infinity and eternity in “Life, Art and Love”.

Lastly, the clue of a work is to be found in trifles in everyday life. This is why an artist should always look at all things with unfamiliar and new feelings. This always requires them to observe things around them from unique angles. In addition, art is not performed for any public interest. This alone allows an artist to enjoy a true freedom in true “ecstasy of play”.

“Beauty of Non-Carving” needs an understanding of Chinese *suseki* (水石) aesthetics before everything else.<sup>26)</sup> *Suseki* are small rocks naturally shaped in valleys over the vast reaches of time. They are nothing but stones for ordinary people, but can be irreplaceable works of art for collectors. They should be observed from various angles. It is indispensable to restrict any artificial processing to such a minimum that it is decided how to arrange them on the pedestal. This process makes a stone born as an independent work of art that embraces its own nature. After all, it is naturalness that is the most important in *suseki*. It is a collector’s discerning eye to judge a stone’s value and select the stone as a work of art.

As mentioned in “Purity and Synthesis”, he strove to observe nature with the goal of exploring forms and purity for ten years. This effort is seen in his works. First, let’s appreciate a drawing he made on January 8, 1958. He wrote a passage in a blank of the drawing of a tree with bare branches:

24) Lee Gyeong-seong, former National Center of Contemporary Art, wrote the preface of the art catalogue of the first exhibition held at Kim Chong-yung’s 60th birthday. Lee included his essay on Kim’s *Family* (1965), which had been included in *Korean Art Collection Vol. 15 (Modern Art)* (Seoul: Donghwachulpansa), again in the preface: “This unprolific artist develops his aesthetic images with plaster, stone, tree and iron. This rare work of marble has simple expression and maximum content. It realizes fresh sense and dignified aesthetics of stone by integrating father, mother and a child into one stone.” This essay is a source of “unprolific artist”.

25) The relations between life, art and love could be explained in contemporary wording: “- Life is limited, so it is important to seek the value of infinity – How could an infinite human infinite values? There is no way but art. They say that life is short and art is long, but are all the works of art infinite? They will not be so. Restricted to time and oriented to religion, art is merely a partial one. - Life is a result of love. Love between man and woman, friendship between friends, loyalty between others, all are, in essence, love. - Hence, the infinite value of life is love, and art lies in processing love in its own way. I will process love with sculpture and calligraphy. - Nevertheless, art must not remain a work ultimately. A work requires insight into life and love, and people see through selves and the world with the work”, Jeong Se-geun, “A Way to Sculpture, A Way to Calligraphy”, *Masters of Paintings and Calligraphic Weeks in the 20th Century I, Kim Chong-yung Carves with Brush*, Calligraphy Museum of Seoul Arts Center, 2017, 478.

26) His great-grandfather is said to have been well versed in potting plants and have influenced a few descendants into becoming pot-plant

cultivation professionals. Therefore, he will have witnessed his great-grandfather take care of potted plants. Potting plants is to *suseki* what thread is to needle.

27) In “Artist and Dream”, the dream is not that which one dreams in one’s sleep. According to him, “it is a fantasy, love, sense of beauty, feeling of vitality, world of instant intuition, subconsciousness, impression, or reminiscence – such an extremely ambiguous and vague action of mind”.

28) He wrote “Artist and Dream” as the title and then deleted it, if we examine the manuscript in his own handwriting of “Artist’s Dream” included in *Towards Transcendence and Creation*. He wrote down the cited clause regardless of the essay’s content in the right blank of the ninth page of the essay that corresponds to 13 pages on 200 square writing paper. The essay was omitted in *Towards Transcendence and Creation*. The essay is estimated to date back to the middle 1950s at the latest, since “Department of Fine Arts, College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printed at the left side of each page of the manuscript.

29) Kim Chong-yung, “Works and Photos”, *Ibid.*, 103–107. This essay is estimated to have been written a few years later than “Beauty of Non-Carving”.

30) Kim Chong-yung, “Author’s Preface”, *Kim Chong-yung’s Collection of Works*, Seoul: Munyewon, 1980, 184.

31) Kim Chong-yung, “What Is Called Tradition II”, *Ibid.*, 121–123.

32) Kim Chong-yung, “Eastern and Western Arts in Terms of Ideology”, *Daehakshinmun*, Jun. 9, 1958.

33) In 1966년, a sculptor Yun Seok-won recorded his lecture on art anatomy as a student.

“Trees remind us of the distribution of human blood vessels. The three dimensional structure of human body can be understood by the close observation of a tree whose branches are stretched in freedom. The both are common in many respects in terms of form and composition”.

In an essay “Artist and Dream”, he said, “it is good to seek the truth of art in the laws of nature, but it is better to find the laws of nature in thinking (dream).<sup>27)</sup> This is “because art is nothing but personality that appears through the laws of nature”.<sup>28)</sup>

His attitude is shown by his calligraphic works. One is “判天地之美 析萬物之理”(Judge the beauty of the universe, analyze the logics of all things) (“World”, Chuang-tzu). He used “刻道人” as his signature in the work. The other is “自然中有成法”(There is positive law in nature). He sought to model the principle of moulding after nature and further to establish the ways of life through art.

“Beauty of Non-Carving” has two major keywords: “Nature” and “meaning”. Nature was translated into 自然, the word we are currently familiar with. However, 自然 has the original meaning of “無爲”(the state of being so by itself without artificiality). If one observes the things that exist so by itself and realizes their logic, one is to realize the ways of life at the same time. For this reason, the Chinese developed a unique literary aesthetics called “觀物取象”(Obtain a form by observing a thing) and “以物比德”(Compare virtue to water). If an object is considered to be suitable for a symbol of specific virtue after close observation, it is used as a symbol of specific virtue in plastic arts. Its representative example is “四君子”(Four Gracious Plants (plum, orchid, chrysanthemum and bamboo). As is well known, “胸中成竹” is valued, when a bamboo is drawn. This means that drawing is to describe meaning (“寫意”) instead of imitating a thing as it is. At this point, there is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s art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His insight is that the Eastern and Western arts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s they see “meaning”(意) and “abstraction” as a common denominator with the advent of the 20th century. He believed that “meaning” is in equal relation with abstraction. According to him, each “abstraction” is part, as “meaning” is diverse according to artist.

For him, nature is a teacher that sets an example for the principle of molding. Cre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a work exists by itself and has its own vitality:

“...Frankly speaking, I want my work not to be recorded and explained by anything. Sometimes I delete touches, sometimes I care much about texture. By doing so, I wanted to delete all ‘carving’ traces and to have a work that exists naturally or inevitably as an object. My wish is that my work is not a description of nature, but has a sense of vitality as a work. ...”<sup>29)</sup>

The essay explains why his sculptures have no title and “the meaning of non-carving”. From this point of view, he regarded “the works of Brancusi and Moore as those which exist naturally or inevitably. This thought derived from the atmosphere of Tokyo Art School. As the atmosphere focused on realistic reproduction, he was not interested in class tasks. He was dissatisfied with such reproduction. For him, art is “to freely express the impressions experienced in everyday life”.<sup>30)</sup> The collected paintings of Western sculptors made him realize the possibility of sculpture as art.<sup>31)</sup> Tasks seemed to be solved, as he felt interest in abstract art after the exploration and wandering of long years. He focused on Western abstract art throughout the forties after he had submitted Bird to the second National Art Exhibition in 1953. This is confirmed by a notebook in Kim Chong Yung Museum that is titled *Abstract Art* by Kim Chong-yung. In 1958, he argued that Korean art should seek “specialty based on universality” in the 20th century, after visiting the exchange exhibition with Minnesota University, the first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after emancip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sup>32)</sup> In class, he emphasized that “we should understand others before anything else to develop and express ourselves, and should make ourselves fertile, make our thought rich and understand others ‘in equal relation’”.<sup>33)</sup> He wrote “Beauty of Non-Carving” around the age of 50 after such process.

The above-mentioned essay “Production and Reflection” makes it possible to infer what awareness of time he had when he wrote “Beauty of Non-Carving”. According to his acquaintances, there was no special closeness between him and other artists. He simply shuttled between home and school. Indeed, this is due to his character, but the following enables to infer another reason:

"I avoid discussing truth and principle in this society that is inundated with ignorance and cunning. There are few friends with whom I speak on those matters. It appears vacant big words prevent work and make one lonely. Rather, it would be better to be absorbed in work in self-reflection and meditation. In general, production and reflection suffice to train an artist. It is only production that fosters the virtues of humbleness, courage and love".<sup>34)</sup>

He wrote the essay just before "Beauty of Non-Carving". The essay makes us guess that he had no acquaintance to talk frankly with on life and art. A small number of sculptors made a lot of money thanks to the construction boom of memorial towers after Korean War and statues in the 1960s. The cart was put before the horse. He emphasized that a work should be purely produced by an artist, as art easily tends to be corrupted by the intervention of power.<sup>35)</sup> This is why he refused to produce the statues of patriots that would be built gradually from 1967 on. In the meanwhile, young artists devoted themselves to Informel paintings that were newest at that time. In a word, he felt a sense of absolute loneliness in a situation of isolation.

In view of this situ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ssay ends with monologue: "Are we not enjoying real happiness in trivial temporary feeling or physiological harmony rather than in large wealth or absolute power?". Similar content is seen in "Life and Art". At the close of the essay, there is a passage from *Caigentan*: "得趣不在多 盆池券石間 煙霞具足 會景不在遠 蓬窓竹屋下 風月自"<sup>36)</sup> In 1966, he used this passage in his calligraphic work signed as "刻道人". This is deemed to be his determination to survive the age.

At any rate, he used "不刻道人" as his signature around the 60th birthday in 1974. Those days, he is estimated to have written "不刻齋", which he kept in mind as his atelier name, in ornamental seal characters. There is a time difference of ten years or so between the production of "Beauty of Non-Carving" and the signature of "不刻道人".

It took him another ten years to recognize that 寫意 and abstraction are in equal relation with each other in the Western and Eastern arts of the 20th century through "Beauty of Non-Carving" and to declare that he is a 不刻道人 (non-carving Taoist hermit). The signature of 不刻道人 could be viewed from two angles. On the one hand, he was sure that he had reached his own world of art as an artist. He released his own sculptures and drawings, with motives, i.e. human body, mountain, plants, including tree, and Samseon Bridge landscape, with each other combined, after the signature. His works of sculpture got more concise. He also reflected on "difference between even and flat" for a long time from 1958 on, until he concentrated on collages from 1979 on.<sup>37)</sup> If he had not die of chronic disease, "the beauty of non-carving" would have appeared as more deepened sculptures on the basis of collages.

On the other, the signature of 不刻道人 reveals his opinion on the then social conditions, as mentioned by Kim Dong-il and Kim Jong-won. This inference is made possible by his awareness of time made clear in "Production and Reflection" and the fact that he wrote his calligraphic works on the model of Tang's master calligrapher Yan Zhenqing (顏真卿)'s 爭座位稿 (*Zheng zuo wei gao*). He won the first place with his work in Yan Zhenqing style at the third All-Korea Students' Exhibition held by *Dongailbo*, when he was in the second grade of Hwimun High School. It is of special significance that he wrote his calligraphic works on the model of Yan Zhenqing's writing, when he was close to 60. He wrote a poem "行百里者反九十"<sup>38)</sup> (戰國策 *Zhan Guo Ce*), which was cited by Yan Zhenqing in 爭座位稿 several times. At that time, he still used "刻道人" as his signature. 行百里者反九十 derived from an excerpt that a retainer quoted from 詩經 (*the Book of Odes*), advising King Wu of Qin to refrain from arrogance at the age of Chinese civil wars. This makes it possible to infer that he wrote the poem again and again to warn against the then social conditions. For example, there wer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Third Term Election in 1969 and the October Revitalizing Reforms in 1972 and an ensuing series of political upheavals.

From the days when he studied in Japan, he emphasized that art should be absolutely free from power, but that truth, good and beauty should be thoroughly discussed on the basis of realities. According to him, it is a ridiculous prejudice that an abstract artist hides his head in the sand, because he also faces realities squarely. In addition, he asserted that a true artist should lay the foundation of beauty in all forms of life by helping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n contemporary sense of beauty and enhance the sense of beauty.<sup>39)</sup> Engrossed in abstract art, he differs from the Western aestheticists who advocate art for art. He saw through social con-

34) Kim Chong-yung, "Production and Reflection", *Ibid.*, 52.

35) Kim Chong-yung, "Author and Public", *Ibid.*, 46-49.

36) "Mood is not obtained from many things. Smoke and fog exists even in a small pond and a tiny stone. A good scenery is not far and a hut teems with clear wind and bright moonlight." This essay is not included in *Towards Transcendence and Creation*.

37) "Connected with each other organically, flat surfaces form a good solid. A plane is two-dimensional in that it refers to one surface alone." This is a memo dated January 1, 1958. For collage, cf. "The Eldest Brother of Sculptors Draws", Kim Chong-yung's Exhibition of Drawings", Kim Chong Yung Museum's Special Exhibition *The Eldest Brother of Sculptors Draws*, 2018, 32-34.

38) A person who intends to travel a distance of 40 km believes that when he covers a distance of 36 km, he has reached half a distance.

39) Museum Class Number E-058 "ABSTRACT ART", 13-14. This writing is considered to have been drawn up in the late 1950s, judging from the circumstances and his disciples' reminiscences.

40) Kim Chong-yung, "On Creation", *Ibid.*, 137.

41) Kim Chong-yung, "Wandang and Cezanne", *Ibid.*, 134.

42) "I proposed this to Mr. Kim Chong-y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ever, Kim told me he could not produce such realistic works. But I know he received such education in Japan. So, I persuaded him to join the project that time, but he refused flatly. At that moment, I realized that he would not accept the projects from the government." Im Yeong-bang, 2011, Interview.

43) Choi Jong-tae, "The More, the Better", *An Artist's Reminiscences*, Seoul: Yeolhwadang, 2009, 16.

44) "Prof. Kim Chong-yung Opens Invitational Exhibition", *Daehaksinmun*, Apr.14, 1980.

45) "Kim Chong-yung's wood carving is merely a self-satisfaction that makes naught of spectators, although I do not know his ability fully with this work alone." Kim Cheong-pung, "Entries on National Art Exhibition", *Joseonilbo*, Dec.3, 1953.

ditions, as seen in his conclusion that "the goal of art is insight".

In a word, he tried to make the contemporary Western art his own by analyzing and imitating it thoroughly and producing the works of experiment for ten years from 1953 when he was close to 40. Choi Jong-ate referred to the period as that of study. He set up a concrete goal through "the beauty of non-carving" at the age of 50 and began to turn "the beauty of non-carving" into works positively from at the age of 60 or so. He did not hurry up. His effort was accompanied by writing, reading, calligraphy and thinking. This attitude originates in his life-long calligraphy. Chusa was a guiding star to him.

#### 4. Why Read *Beauty of Non-Carving* Again?

As mentioned above, "Beauty of Non-Carving" is one of very important essays to understand his world of works and reconsider his position in the Korean art circles of the last century. However, he wrote the essay half a century ago. In the meantime, South Korea ranked sixth in the world export in 2017 after drastic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There has been a sea change in all conditions. This is also true of the art ecosystem in South Korea.

Above all,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s rose explosively. As far as I know, five international Bi-en-na-les are held in South Korea since Gwangju Biennale in 1995. Numerous young artist applicants have experienced the art circles in Europe and America since the liberalization of studying abroad in the 1980s. Especially, the world's top-level internet infra makes it possible to check the information from overseas art circles in almost real time. The Korean art circles keep in step with the world without time difference.

Despite such a drastic globalization, we are obliged to ask ourselves whether the Korean art circles are entitled to produce corresponding discourses. South Korea remains a consumer of discourses in spite of the attraction of numerous exhibitions and mammoth international Biennials. This reveals that Korean artists are not competent enough to propose any theory universal to mankind on the basis of our specialty. It is an eternal truth that we should seek self-development by supplementing our defects by mutual comparison. Promoting a region's specialty based on universality is an ultimate method to position Korean art in the global art circles.

"The most Korean is the most global". This is still a favorite slogan, which seems to be right, but may be false. Any work that expresses Korean specialty based on universality can be accepted by the world. However, it is not sure that the most Korean specialty reaches the most global universality. After all, Korea will be a discourse producer, when extracting universality by constant mutual comparison.

When he wrote "Beauty of Non-Carving" half a century ago, Korean young artists took the lead in receiving abstract expressionism called Informel. Not drawn into the vortex, he applied himself to calligraphy and found a common denominator "意" (meaning) by comparing "寫意" (meaning description) from brush and Chinese ink with the abstraction of the Western contemporary art. His insight is a good example to the current Korean art circles that long for being a discourse producer. As he noted, "artists constantly strive after imitation, if they lack criticism and reflection, the spiritual assets of artists".<sup>40)</sup>

He emphasizes that work materials are not far away, but can be found easily in everyday life. After all, an artist should attend to everyday life carefully. In one word, an artist should have a sharp eye. According to him, "The art that has been achieved by sincere effort and pure spirit is a universal truth that can be shared by mankind".

Now is the age of globalized capitalism. Money is a value measure of everything. The same is true of works. As mentioned above, when he wrote "Beauty of Non-Carving", sculptors could make a fortune by producing the statues of patriots. Asked to join the project, he refused the proposal on the pretext of "the incapacity to produce realistic works". Producing works for public interests, an artist cannot enjoy the true pleasure of creation. He was alert to the risk. At the close of "Beauty of Non-Carving", he said, "Are we not enjoying real happiness in trivial temporary feeling or physiological harmony rather than in large wealth or absolute power?" Nonetheless, he did not ask his juniors to follow his style of life. He advised them to live according to their conditions.<sup>43)</sup>

He emphasized "criticism and reflection" as the most necessary virtue for artists. It appears



that criticism against institution and structure gets duller and duller in the age of globalized capitalism. He stressed that juniors should have "courage" in addition to truth, good and beauty in the interview with *Daehaksinmun* after his retirement.<sup>44)</sup> In 1953 when submitting a piece *Bird* to the second Natioal Art Exhibition, he got harsh reviews,<sup>45)</sup> but he applied himself to experiment and study for ten years. He was watched by his nearby juniors.<sup>46)</sup> "Beauty of Non-Carving" is a result from such patience. He used "不刻道人" as his signature in another ten years.

In light of the whole process, he is the only artist that made every possible effort to establish Korean art in the world with an insight into the times in the Korean art history of the 20th century. He was as sincere and sincere as his literary name 又誠 (Useong). As a result, he marked a page of the world history of sculpture anew by expanding the horizon of sculpture to nature like a great calligrapher Chusa who had added a new page to the history of calligraphy in East Asia.

Thirty six years have passed since his death, but his insight as an artist is still valid and will be so in the future as well.

46) "... He had no separate atelier at that time. So, he produced works at a corner of a classroom like big warehouse. He always read books, for example those on Jean Arp (1887-1966) and Marie Laurencin (1883-1956). I often saw him study very honestly ..." Choi Man-rin, *Korean Art Archive Source Book 5. Trends of Sculpture Circles after Emancip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I, Five Stories of Five Sculptors-Oral Record*, Leeum, Samsung Museum of Art, 2006, 69.

### 김중영 金鍾瑛 (1915-1982)

1915	6월 26일 경남 창원군 소답리 111번지에서 출생
1932	취문고보 2학년 재학 중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제3회전조선남녀학생작품전람회> 습자 부분에 <원정비>를 출품, 장원을 차지
1936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소조부에 입학하여 1941년 졸업 후 귀국하여 194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로 부임하기까지 창원에 칩거
1953	런던에서 개최된 『무명정치수를 위한 기념비』 국제조각 콩쿠르에서 입상
1959	문화재보존위원을 1961년까지 연임 당시 중앙공보관에서 월전 장우성과 2인전 개최
1960	서울문화상과 녹조소성훈장 받음
1963	온 국민의 성금을 모금하여 지금의 탑골공원에 삼일독립선언탑 건립
1965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이응노, 권옥연, 이세득, 정창섭, 김창렬, 박서보 등과 함께 한국대표로 출품. 마닐라 동남아국제전 출품
1968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 역임 1972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역임 유네스코초청으로 1969년까지 파리, 로마의 미술을 시찰, 연구
1974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1975	신세계미술관에서 회갑기념전 개최
1976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
1978	대한민국 예술원 상 수상
1980	서울대학교를 정년퇴임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 초대로 대규모 회고전 개최
1982	12월 15일 68세의 일기로 영면

### Chongyung Kim (1915-1982)

1915	Born in 111 Sodap-ri, Changwon-gun, Gyeongsangnam-do, Korea on June 26, 1915
1932	First place in calligraphy at the Third All-Korea Students' Works Exhibition organized by Dongailbo, while in the second grade of Hwimun High School
1936	Department of Sculpture, Tokyo Art School
1948	Professor at Department of Sculpture, College of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53	Prize winner at Monument for Unknown Political Prisoners, International Sculpture Concours held in London
1959	Double Exhibition with Jang U-seong at Central Information Center
1959-61	Member of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Committee
1960	Seoul Cultural Prize and National Medal
1963	Construction of 3.1 Independence Declaration Tower at Tapgol Park
1965	Entry to Sao Paulo Biennale together with Lee Eung-no, Gwon Ok-yeon, Lee Se-deuk, Jeong Chang-seop, Kim Chang-yeol, Park Seo-bo etc; Manila Southeast Asia International Exhibition
1968	Chief Director at Korea Design Packing Center
1968-72	Dean of College of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8-69	Inspection in Paris and Rome at the invitation of UNESCO
1974	Order of Civil Merit, Camellia Medal
1975	Exhibition Marking the 60th Anniversary of His Birth at Shinsegae Art Museum
1976	Selected as ROK Art Academy Member
1978	ROK Art Academy Prize
1980	Regular retirement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 zmammoth respective exhibition by invitation of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Dec. 15,
1982	Dead



자각상B 작품71-5  
나무  
12 x 15 x 25cm  
1971



작품80-5  
나무  
25 x 8 x 46cm  
1980



작품65-2  
나무  
36 x 16 x 64cm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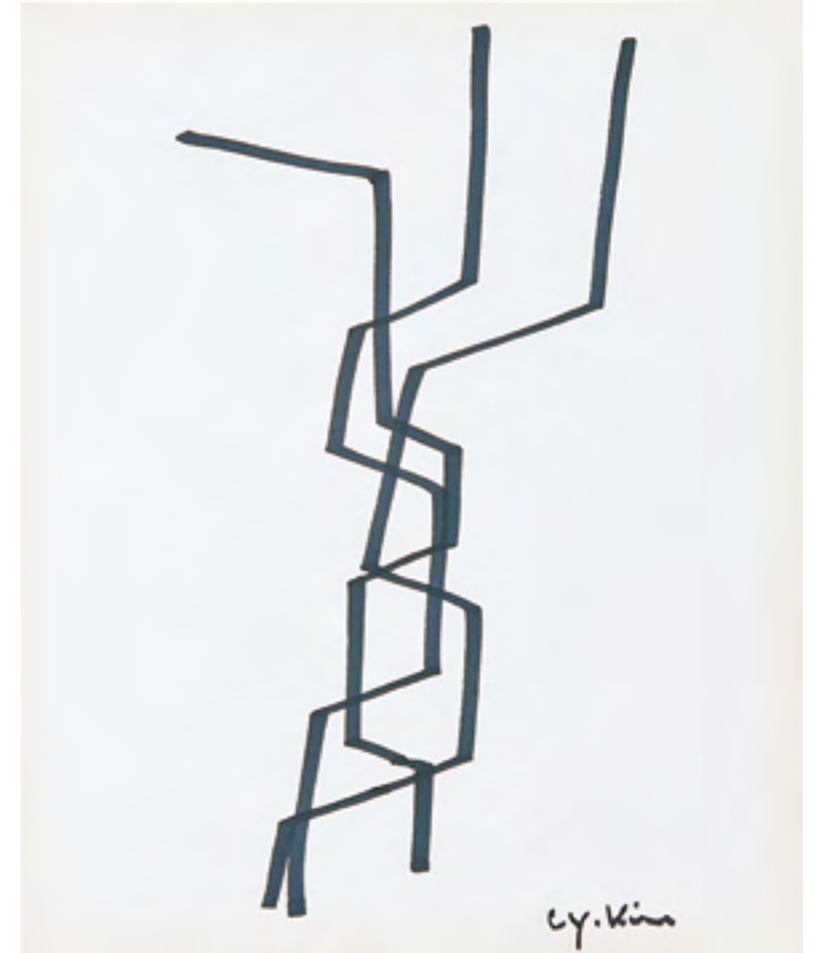
작품71-1  
나무  
25 x 18 x 30cm  
1971



작품80-6  
나무  
65 x 45 x 43cm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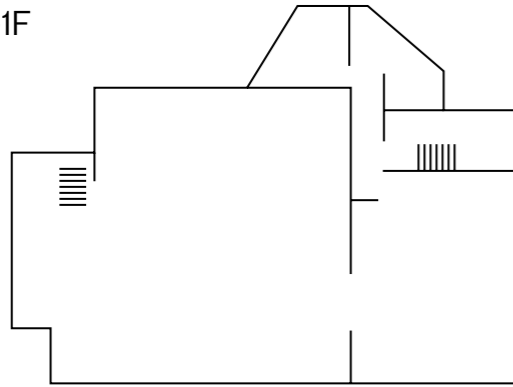


자화상  
종이에 먹  
23 x 34cm  
1975



드로잉  
종이에 매직  
30 x 37cm  
1973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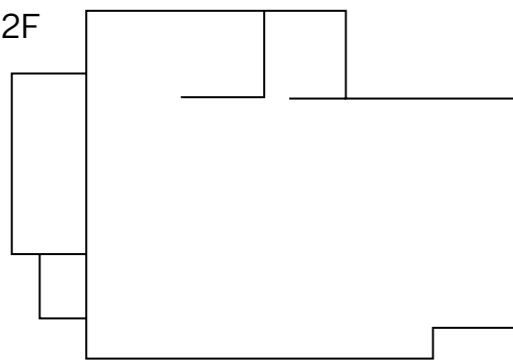
1-1F



**제1전시관 1층** Exhibition Hall 1, 1F

문신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f  
Moon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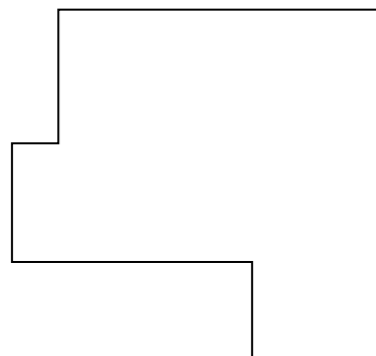
1-2F



**제1전시관 2층** Exhibition Hall 1, 2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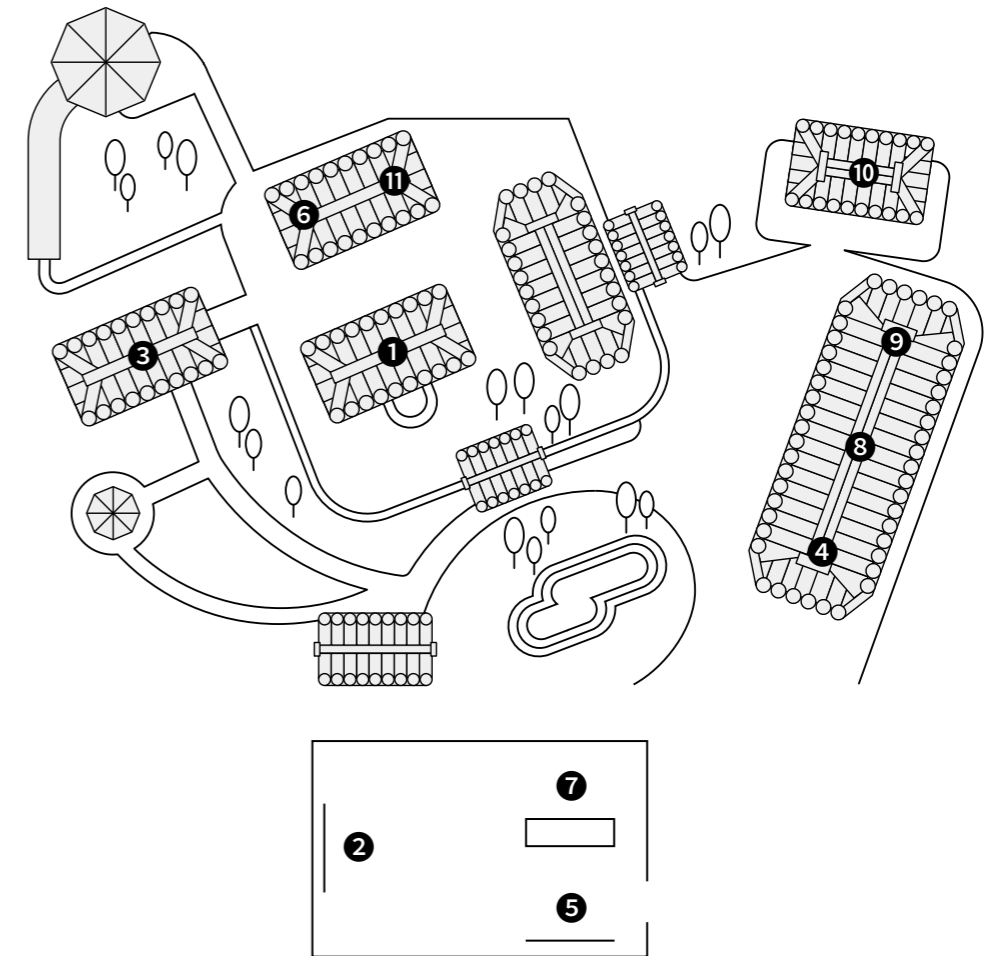
김태은 Taeun Kim  
양쿠라 Kura Yang  
한송준 Songjoon Han

2-1F



**제2전시관 2층** Exhibition Hall 2, 1F

김포&실비아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of  
Po Kim & Sylvia Wald



**참여작가** Artists

- |            |                 |            |                    |
|------------|-----------------|------------|--------------------|
| ① 강애란      | Airan Kang      | ⑦ 왕핑       | Wong Ping          |
| ② 알젤리카 메시티 | Angelica Mesiti | ⑧ 유안 케루    | Yuan Keru          |
| ③ 아슬리 순구   | Asli Sungu      | ⑨ 유리코 사사오카 | Yuriko Sasaoka     |
| ④ 카를레스 콘고스 | Carles Congost  | ⑩ 이정형      | Chunghyung Lee     |
| ⑤ 리아오 치유   | Liao Chi-Yu     | ⑪ 마르코 슈펠바인 | Marko Schiefelbein |
| ⑥ 마 추샤     | Ma Qiusha       |            |                    |

## 문신 특별전: 생명의 형상-Symmetries

임수미  
큐레이터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의 'Anjan Chatterjee' 교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What is beauty?)'라는 질문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의 요인으로 '대칭성(Symmetry)'을 주목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선과 색, 모양의 조합이 우리를 감흥시키고 즐거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지금까지 인간의 논리와 추측을 통해서만 다루어져 온 주제였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사이 과학자들은 인류의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한 의문을 진화심리학과 인지 뇌 과학의 도구를 사용해 다루기 시작했다.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실험 결과에 의하면, 특별히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를 아름답다고 인식하게 되는 요인으로 '대칭성'을 말하고 있다.

원과 선이 중첩되고 반복되는 3차원 형태와 리듬을 갖춘 대칭성으로 표현된 문신의 작품 앞에 설 때마다 현재의 시 공간과는 아주 먼, 아득한 지점에 와 있다는 묘한 간극의 감흥과 작품을 통한 내밀한 소통의 즐거움이 있다. 문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 'Symmetry'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물의 구체적인 형상 자체에서 보이는 대칭성이 문신의 조각이 지닌 주요 특징과 가치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는 힘과 원리로서의 '본질적인 형상(Image)'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Symmetry'는 자연의 존재하는 모든 형태에서 나타나는 대칭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속에 있는 '생명성'에 대한 깊은 경외와 올림이며, 또 다른 '예술가'라는 이름의 창조자로서 자신의 창조자에 대한 깊은 통찰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다.

문신이 국제 조각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는 1970년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포르 바카레(Port-Bacares)에서 열린 국제조각 심포지움 '사장 미술관(Musee des sables)'에 초대되어 <태양의 인간, Man of the Sun>이라는 거대한 조형물을 선보이면서였다. 이작품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 제작된 25m의 스테인리스 조형물<올림픽,1988>과 연결되어져 55개의 반구형 볼륨으로 구성된 탑형의 작품은 반복적 패턴과 파상적 리듬 그리고 금속적 표면이 주는 반사적 효과에 의한 환상적 다이내믹의 세계를 보여주게 된다. 프랑스 평론가, 피에르 레스타니(Piere Restany)는 이 작품이 올림픽 공원 내의 조각 작품 중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된 요인으로 작품이 지닌 모던함을 말하고 있다. 문신 사후 12년이 되던 2006년에는 바덴바덴시가 '문신조각전(Moon SHin in Baden Baden)'을 기획하게 되었고, 이 전시에서 문신의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4점과 브론즈 6점 등 1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이 전시를 통해 문신의 조각 작품들이 독일 현지의 음악가들에게 특별한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 그를 추모하는 곡들이 창작되고 한정되는 일들이 줄을 잇게 되었다. 독일 SWR 방송국 수석 전속 작곡가인 '보리스 요페(Bois Yoffe)'는 문신의 조각 작품에 감동을 받아 추모 실내악 '달의 하나됨과 외로움'을 작곡해 헌정했으며, 이듬해인 2007년 안드레아스 케어스팅(Andreas Kersting)은 문신의 작품 <화(和)III>를 주제로 삼아 대규모의 관현악곡<Eleonithit>를 작곡한 것이다. 보리스 요페는 이곡을 만들 결심을 했을 때 문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의 작품에서 발산하는 강렬한 힘에 매료되어 이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현악곡의 창작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덴바덴에서 문신 전시회가 열린 이후 나는 산책할 때마다 그의 작품들을 경이로움으로 관찰하였다. 그러나 예술가의 이름과 국적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지 않았다. 문신이 아닌 문신의 작품과의 강렬한 만남은 내 속에 미학적이고 존재론적인 감흥을 일으켜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작품을 통한 작가와의 내적인 대화의 연속으로 그를 추모하는 이 곡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문신의 조각 작품이 미술분야 뿐 아니라 음악가들에게도 국경을 초월해서 예술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며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사건으로서 우리로 '예술이 무엇인가?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예처럼 작업하고 신처럼 창조한다'는 그의 말처럼 문신은 회화, 판화, 드로잉 등의 다양한 장르의 범주를 넘나들며 열정적으로 그의 작품세계를 구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가이다. 문신의 작품 앞에 설 때마다 느끼게 되는 감흥과 즐거움의 시작은 '그의 꿈'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의 작품 속에 깃들어있는 그의 꿈의 실체는 그의 작품이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와 동시에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의 꿈이리라. 또한 그의 작품이 그 진정성을 담은 시각적 발현으로서 국경을 초월한 모든 인류와 함께 소통하는 그것일 것이다.

이번 2018창원조각비엔날레 특별전 '생명의 형상-Symmetries'展을 통해 이전의 보아왔던 문신의 조각 작품이 아닌, 또 다른 마음의 시각으로 그의 꿈을 만나고 내밀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벗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불각의 균형 THE BALANCE OF NON-SCULPTING

## MOONSHIN: Shapes of life–Symmetries

**Lim Soo-mi**  
Curator

Anjan Chatterjee, a professor of neurology at the Perelman School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says that we need to look at in order to understand how our brain decides what we determine to be beautiful, and it's all down to 'symmetry.' What is beauty? What is the reason a combination of qualities, such as shape, color, or form pleases the aesthetic senses, especially the sight. Those questions were dealt only with theories or assumptions. Over the last few decades, however, scientists began to use tools of evolutionary psychology and brain science to find out reasons and grounds for determining beauty. The basis to determine beauty may differ depending on individual perspectives. However, many experimental results find that symmetry is the reason to recognize living organisms and humans in particular as beautiful.

Moon's works of rhythmic symmetry in repetitive three-dimensional shapes with overlapping circles and lines make people feel a peculiar emotion that he or she is in a place far away from the present time and space, bringing a pleasure of having a confidential dialogue. One of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Moon's work is 'symmetry.' However, symmetry cannot be considered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his sculptures as it is seen from detailed shapes of natural objects by themselves. Rather, his intent is to capture the 'fundamental image' as the power and principle that sustains the life. Moon does not want to express 'symmetry' that is found on almost all shapes in the nature. It is a deep respect and echo of vitality in him and a confession of profound insight into his creator under the name of his other self, 'artist.'

He earned an international reputation for the first time in 1970 by being invited to exhibit a large-scale sculpture titled <Man of the Sun> at The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held at Musee des sables in Port-Bacaes, a city in southern France bordering the Mediterranean Sea. This sculpture was connected to a 25m high stainless monument called <Olympics, 1988> that Moon created to commemorate Seoul 1988 Summer Olympics. Composed of 55 hemispheres, this pagoda like artwork displays fantastic dynamism based on repetitive patterns, rhythmic waves, and reflection effect of metallic surfaces. French art critic Piere Restany said that Moon's work was the most impressive among the sculptures installed in Olympic Park and pointed out its modernism characteristics as the ground for such review. In 2006, 12 years after Moon's death, Baden Baden city showed his works in an exhibition titled 'Moon Shin in Baden Baden' and 4 large stainless sculptures and 6 bronze states were displayed. This exhibition served as an opportunity to bring a creative inspiration to German musicians, resulting in creating a series of songs dedicated to him. For instance, Boris Yoffe, a master composer of Germany's Southwest Broadcasting SWR, was deeply moved by Moon's work and composed a piece of chamber music titled the 'Solitude and oneness of the Moon.' He dedicated the piece to Moon. In 2007, Andreas Kesting created a large-scale orchestral music titled <Eleonithit> inspired by Moon's work <Harmony(和)III>. Boris Yoffe once told that he did not know much about Moon when he first decided to compose the music but he was mesmerized by the compelling power that radiated from Moon's work. With regard to the reason why he composed the song, he said, "After the Moon Shin in Baden Baden exhibition, I marveled at his works whenever I saw them while taking a walk. However, I was not curious about his name or nationality. The intense encounter with his works, not him, made me feel aesthetic and existential emotions and think them over. Consecutive inner conversations with him through his works made me compose the song in tribute to him. Likewise, it is a stirring

event that Moon Shin's works bring artistic inspiration and burst of creativity not only in art, but also in music, transcending borders. It is full of suggestions on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is art and what is beauty?'

Moon Shin is a representative artist of Korea who created his art world moving in and out of different genres including painting, engraving, drawing, and others with passion like his words, "Work like a slave and create like a god." The inspiration and pleasure begin whenever I stand in front of Moon's work and I would like to call it as 'his dream.' The substance of his dream, residing in his work, is the respect for the nature and life as well as a dream longing for an eternal life. It is a visual manifestation of genuineness that transcends barriers and is communicated with all mankind.

In the special exhibition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titled 'Shapes of life – Symmetries,' I hope that audiences can have a chance to meet his dreams and like seeing good friends to share the inner pleasure by heart and with a different point of view, instead of simply observing his works as they used to.



**문신 文信 (1923-1995)**

- 1923 1월 16일 일본 큐슈 사가켄 다케오 현 에서 출생
- 1938-45 일본에서 유학생. 동경 일본미술학교 서양화과 졸업
- 1948 제1회 개인전, 동화화랑(현 신세계백화점), 서울. 1944년-48년 작품 100점 전시
- 1968 파리에 정착하여 추상조각 본격 시작
- 1970 국제조각 심포지엄 참가  
'사장미술관(Muse des Sables)'  
쁘르 바카레스(Port Bacars) 야외미술관 주최  
'페스티벌 조형예술제' 참가, 몽타르지스, 프랑스  
'예술과 마티에르'전, 트로이, 프랑스
- 1979 포름 에 비 그룹전, 파리  
국제조각전-Le Vaudreuil Ville Nouvelle, 프랑스
- 1980 영구 귀국 및 마산에 문신미술관 건립 착수,  
국내 최초로 조각공원 조성  
개인전, 수로화랑, 국제화랑, 부산
- 1985 85 현대작가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 1988 서울올림픽 국제 야외조각 초대전  
서울올림픽의 일원으로 개최된 예술 올림픽아드에서  
25m 높이의 스테인레스 스틸 대형 조각인  
<올림픽 1988> 제작
- 1994 조선일보사 문화방송 공동주최 '문신예술 50년'전, 서울  
문신미술관 개관, 마산, '문신미술 50년' 개관전
- 1995 경남대학교 명예 문학박사 학위  
문신 원형작품전 구상 중 5월 24일 지병으로 타계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 추서

**Moon Shin (1923-1995)**

- 1923 Born in Dakeo, Sakaken Kyushu, Japan on 16th January
- 1938-45 Graduated in the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s of Japan Arts School in Tokyo.
- 1948 The 1st Solo exhibition at Donghwa Gallery, Seoul : including 100 works of 1944-48.
- 1968 Settled in Paris. Started working on abstract sculpture
- 1970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at muse des Sables, Le Port-Barcars, France(Manufactured the work of totem, 13m long wooden sculpture) Participated in 'festival des Art Plastiques', Montargis, France  
'Arts matieres', Troyes, France
- 1979 Exhibition of the group 'Forme et Vie', Paris, France  
International Sculpture Exhibition - Le Vaudreuil Ville Nouvelle, France
- 1980 Returned to Korea permanently and started to set up the Moonshin Museum and Organized construction of the sculpture park in Masan, Korea  
Exhibition at Suro Gallery, Kukje Gallery, Busan, Korea
- 1985 Solo exhibition for modern artis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1988 Manufactured the 25m high large-scale stainless sculpture  
<Olympic 1988>at the Olympic Park, Seoul, Korea  
Retrospective exhibition, Seoul(Co-organized by Chosun-Ilbo and Munwha Broadcasting Company)
- 1994 Opened the Moon Shin Museum in Masan, Korea  
Earned the honorary Ph. D. degree of literature at Kyungnam University.  
Passed away in May 24 while planning the exhibition of his own original plaster works.  
Awarded the Geum-Gwan Order of Culture Merit



**올림픽1988**  
Stainless steel  
55 x 22 x 26cm  
1988

불각의 균형 THE BALANCE OF NON-SCULPTING



Untitled  
아카시아  
92 x 42 x 17cm  
1968



환희  
청동  
75 x 113 x 26cm  
1989



**Untitled**  
Bronze  
73 x 34 x 74cm  
1988



**Untitled**  
Bronze  
75 x 95 x 38cm  
1987



나르는 새  
Bronze  
89 x 105 x 23cm  
1989



파리1990  
Bronze  
74 x 46 x 22cm  
1990

# 김포 & 실비아 특별전: Solace in Nature

Odelette Cho  
큐레이터

김포(김보현, Po Kim)와 실비아왈드(Sylvia Wald)는 1965년 맨해튼 시내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처음 만나 반세기를 함께하면서 자연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각자의 예술생활을 끊임없이 정련시켜 나갔다. 김포 화백은 한국전쟁 후 정치적 박해를 피해 1955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환교수로 떠났다. 필라델피아 출신 화가인 실비아 왈드는 군의관이었던 첫 번째 남편을 따라 미 주둔지를 다니며 불황기 이후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김 화백은 뉴욕에서 활동하며 동서양의 전통을 다채로우면서도 하나로 아우르는 작품들을 통해 경계에 도전하는 미 추상표현주의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잡게 된다. 한편, 왈드 화백은 사회적 리얼리즘에서 추상표현주의로 옮겨가며 실크 스크리닝 기법을 통한 선구적인 행보로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발표하게 된다. 두 부부화백은 수년에 걸친 어둠과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1950년대와 그 이후까지 뉴욕 예술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국적인 새들과 화초를 수십년간 집에서 키우고 아름다운 동서양의 조화를 통해 이들의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함께 하면서 더욱 커져 나가게 된다.

맨해튼의 옥상정원에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Westchester County)교외에 있는 저택에 이르기까지 이 부부화백은 자연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며 예술철학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들은 교외저택 호숫가에 앉아 아름다운 정원과 물가를 한가하게 노니는 새들과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다. 젊은 시절의 혼돈을 겪은 이들에게 자연은 위안을 주는 명상의 공간이었으며, 작품을 통해 세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만들었다.

20세기 후반 예술 운동이 급변하는 동안 김 화백과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인 왈드는 자연에서 얻은 역동적인 에너지와 영감을 바탕으로 작품세계를 변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갔다. 왈드는 잔가지, 돌, 낙엽, 애완조깃털, 버려진 생선 가시 등의 발견된 오브제(found object)를 이용해 조각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뉴욕 길변에서 발견한 파편에서부터 웨스트체스터 집 마당 나무들 사이에서 찾아낸 물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녀의 작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1960년대부터 계속된 아상블라주(assemblage) 기법으로 만든 그녀의 조각품들은 자연에서 나온 유기재(organic materials)와 인간이 만든 물질을 혼용하여 매력적이고 기쁨을 선사하는 강렬한 작품들로 변신(metamorphose)시켰다.

김화백의 추상주의 작품들은 한국에서 습득한 서예기법과 뉴욕에서 경험한 추상주의에 이르는 한국의 유산과 미국 이민배경이 조화된 구상들이 반향을 이루고 있다. 김화백의 작품들은 전쟁으로 피폐한 과거의 고통과 혼돈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휴식처이자 자연계에서 발견한 안식처에 대한 열망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의 작품에서 동물과 식물, 그리고 꽃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갈구하는 안정으로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령, 새는 아름다움과 비상의 자유를 상징하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티브가 되었다. 김 화백의 전기 작품들은 그가 이전에 겪었던 고난을 잊볼 수 있게 하지만, 후반기 작품들은 과거로부터 해방을 암시하는 듯한 생기 넘치는 밝은 톤이 주를 이루고 있다.

Solace in Nature는 김 화백의 후반기 추상작품과 석고와 철선을 이용한 실비아왈드 화백의 조각작품 시리즈를 전시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들의 예술적 영감이자 마음의 휴식처인 자연에 대한 두 부부화백의 헌신이 엿보인다. 이들은 삶과 작품활동을 통해 꿈꿔왔던 이상향에 도달했으며, 관람객들에게 그 세계를 공유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 PO KIM & SYLVIA WALD: Solace in Nature

277

Odelette Cho  
Curator

Po Kim and Sylvia Wald met at a party in Downtown Manhattan in 1965 and, throughout their fifty-year marriage, continually refined their individual approaches to art through their love for nature. In 1955 Kim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escaping political persecution in post-war Korea. Wald, a painter from Philadelphia, experienced the calamities of the post-Depression era and World War II, during which she traveled throughout the US on military assignments with her first husband, an army physician. In New York, Kim became a formative figure of the American Abstract Expressionist movement, pushing the boundaries of painting through his colorful integration of Eastern and Western traditions. Wald's practice, on the other hand, transitioned from American Social Realism to Abstract Expressionism, culminating in her pioneering work in silk-screening. Having emerged from years of trauma and darkness, both Kim and Wald would make crucial contributions to the New York art scene in the 1950s and beyond. Their artistic candor would thrive together, singing in harmony like the exotic birds they kept in their homes for decades.

From their rooftop garden in Manhattan, to their country house in Westchester County, Sylvia Wald and Po Kim philosophically underpinned their art with their shared love for nature. The couple often sat by the lakeside at their country home, admiring their beautiful gardens and the birds that leisurely swam on the water. Following the chaotic experiences of their early lives, nature provided a solace and a meditative space for the artists to interpret their love for the world through the media of their practice.

Throughout the rapidly changing art movements of the latter 20th century, Wald and Kim's desire to evolve their craft was influenced by the vibrant energy and inspiration they received from nature. In her sculptures, Wald employed found objects in the form of twigs, stones, fallen leaves, feathers from their pet birds, and leftover fish bones. The debris found on a New York City curbside, as well as that of the forested backyard of their Westchester home, equally took on new life in Wald's work. Wald's sculptural assemblages from the 1960s onward present a hybrid of organic and manmade materials that metamorphose into powerful works of fascination and delight.

Kim's abstractions heavily drew from figurative echoes of his Korean heritage and immigrant background – from his formal training in Korean calligraphy to his exposure to abstraction in New York. His art is inseparable from his yearning for the safe haven he found in the natural world, an oasis from the torture and turmoil of his war-ridden past. Throughout his evolving artistic style, Kim's representations of animals, plants, and flowers assumed symbolic positions in his search for stability amidst suffering. The bird became a recurring motif symbolizing the beauty and freedom of flight. While his earlier work suggests his previous hardships, his later work projects a brighter tone, alluding to an exuberant emancipation from the past.

Solace in Nature presents Po Kim's late abstract paintings and Sylvia Wald's plaster and wire sculptural series. The works on view reflect the artists' dedication to nature – to a world that both inspired and sheltered them. In their lives and artistic practices, they achieved their utopian dreams and invite the viewer to individually join into this world.

## 김포 (김보현)

1937	일본 동경으로 유학
1946	12월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1955)
1948	김보현 개인전 (미국 공보원, 광주)
1955	미국으로 감
1962	개인전 (콘블리 갤러리, Kornblee Gallery, 뉴욕)
1968	실비아 왈드와 뉴욕에서 12월에 처음 만남
1975	개인전 (엘레인 벤슨 갤러리 Elaine Benson Gallery, 뉴욕)
1978	<오늘의 회화와 조각 Painting and Sculpture Today> (인디애나 폴리스 미술관 Indiana Polis Museum of Art, 인디애나)
1981	<시각잔치 A Feast for the Eyes>참여, (헥셔 미술관 Heckscher Museum of Art, 롱아일랜드, 뉴욕)
1982	단체전 (브룩 해븐 내셔널 래보러터리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뉴욕)
1995	원로작가 초대전 <재미 40년의 회고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00	2월 조선대학교 명예문학박사 수여
2005	부인 실비아 왈드와 함께 뉴욕에 비영리 미술관, 실비아 왈드 앤 포 김 아트 갤러리 "The Sylvia Wald and Po Kim Art Gallery"을 설립
2007	회고전<고통과 환희의 변주: 김보현의 화업 60년전>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덕수궁, 서울)
2013	김보현 전 (경남도립미술관)

## Po Kim

1937	Goes to Tokyo, Japan to study
1946	Joins faculty of Chosun University's new fine art department in December(teaches untill 1955)
1948	Holds Po Kim Solo Exhibition (Gwangju USIS)
1955	Moves to the U.S.
1962	Holds solo exhibition at the Kornblee Gallery in New York
1968	Meets Sylvia Wald, December
1975	Solo Exhibition, Elaine Benson Gallery, NY
1978	Participates in "Painting and Sculpture Today" show, Indianapolis Museum of Art, IN
1981	"A Feast for the Eyes", Heckscher Museum, NY
1982	Group exhibition,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NY
1995	Invitational Veteran Artist Retrospective Solo Exhibition: Po Kim,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2000	Awarded honorary Doctorate in Letters by Chosun University in February
2005	Found a museum with his wife, the Sylvia Wald and Po Kim Art Gallery in New York, permanently Exhibition Kim and Wald's works
2007	Retrospective exhibition, "With Agonies With Joys: 60 Years of Po Kim's Art"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Deoksugung, Seoul, Korea
2013	Po Kim Exhibition (Gyeongnam Artmuseum)

## 실비아 왈드

1940	<조각전> 뉴욕 휘트니 미국 미술관
1957	<미국의 현대 그래픽 아트전> 로마 국립 현대미술관
1961	<16-20세기까지 유색 판화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1965	<국제미술전> 덴마크 코펜하겐 미국 미술관
1975	<Works on paper> 뉴욕 브룩클린 박물관
1976	<미국 콜라주 40년> 뉴욕 미술 순회재단 Buecker & Harpsichords
1977-78	뉴욕 현대미술관, 펜트하우스 미술관
1995	<김보현, 실비아 왈드전> 대전 한림 미술관 한국 순회전
1945	켄터키, 프랑크푸르트, 켄터키 주립대학
1979	독일 뮌헨 Knoll International 전
1981	<구상과 조각>전 뉴욕 애론 버만 미술관
1993	뉴욕 Hirschl & Adler Gallery
1994	코네티컷, 뉴브리튼, 뉴 브리튼 어메리칸 미술관
2002	조선대학교 미술관

## Sylvia Wald

1940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Sculpture)
1957	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 Rome, "Contemporary Graphic Art Form United State"
1961	Metropolitan Museum, New York, "Colour in Prints XVI Century-XX Century"
1965	American Art Gallery, Copenhagen, Denmark, "International Art"
1975	Brooklyn Museum, New York, "Works on Paper"
1976	Buecker & Harpsichords, New York, "40 Years of American College"
1977-78	Penthouse Gallery,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95	"Po Kim, Sylvia Wald Exhibition", Travelling show in Korea, Hanlim Art Museum, Daejeon
1945	Kentucky State College, Frankfurt, Kentucky
1979	Knoll International, Munich, Germany
1981	Aaron Berman Gallery, New York, "Constructions & Sculpture"
1993	Hirschl & Adler Gallery, New York
1994	"Abstract Expressionist Works on Paper", New Britain Museum of American Art, New Britain, CT
2002	Chosun University Museum of Art, Korea



**New Life**  
Tape and Acrylic on Canvas  
183 x 488cm  
2013



**Untitled**  
PoKim  
tape and acrylic on  
canvas  
183 x 244cm  
2013





**Together and apart**  
PoKim  
oil on canvas  
152 x 183cm  
1969-1970



**WALD\_SCP\_053**  
Sylvia Wald  
Chicken wire, metal wire, coron twine  
142.24 x 38.1cm



**Royal Headdress**  
String, paint, feathers, canvas,  
chicken wire  
132.08 x 73.66 x 63.5cm  
1970



**Untitled**  
Plaster, string, wire, paint, wood  
127 x 76.2 x 53.34cm  
2001

## 영상 미디어 특별전: 젊음의 심연心淵-순응과 탈주 사이

이정아

대안공간 루프 객원 큐레이터

젊음을 표상하는 청년 혹은 청춘은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호명되었다. 새로운 국가건설, 민주화 운동 등 기성 체제의 부조리를 거부하고 세상을 진일보시키는 실천적 주체에서 가혹한 경쟁구도 속 생존 투쟁에 내몰려 이전 청년들이 구가했던 정치적 열정, 역동성, 저항, 대의, 무한한 가능성 대신 냉소와 우울, 무기력과 더 밀착된 사회적 타자로 전락해 버린 현재의 청춘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청년의 위상과 의미는 격차를 보여 왔다. 당대의 사회문화적 조건과의 필연적 관계성을 감안하더라도 청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수렴되는 규격화된 표상들은 청년으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덕목처럼 신화화되어 억압과 폭력으로 작용하거나 암울한 프레임으로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불편한 꼬리표가 되기도 하였다. 안전한 보호막을 벗어 던지고 각자 제 운명을 스스로 짊어지며 새로운 삶의 단계로 접어들려는 청년은 이상화되든 타자화되든 사회문화적 풍경을 유의미하게 점유하는 문제적 주체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외부로부터 덧씌워져 남용된 규정이나 도덕적 판단을 유보한 채, 청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들의 실존적 정황을 포착할 수 있을까? <젊음의 심연 순응과 탈주 사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진폭이 큰 보편적 감정의 구조를 탐색한다는 것이 파편적 이해를 재확인하는 것밖에는 될 수 없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의 영상 미술이 들려주는, 청춘의 자아 내부로부터 발현된 사적이고 주관적인 감정과 정서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한다. 이는 국내에서 최근 몇 년간 이미 광풍처럼 떠들썩하게 휩쓸고 일시적으로 소강한 듯 보이는 청년 담론을 다시 소환하여 동시대 청년들의 현실과 실존적 현안을 기만한 위선적 낙관론을 제시하거나 어설픈 위로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미 냉소와 자조로 점철되어 있는 이들의 정서에 비관론적 이야기를 보탬 의도는 더욱이 없다. 다만 청춘의 다층적이고 불분명한 내면적 지형을 통과하면서 그 실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다가가려는 시도이며 말, 행위, 표정 혹은 상상의 장치로 드러나는 이들의 심리적 징후와 실존적 정황들이 공감의 인간학으로서 어떻게 영상 미학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과도기적 경계에 서 있는 청년은 심리적 열병을 가장 지독하게 치르는 주체이다. 열정과 좌절, 두려움과 기대, 희망과 불안, 풍요와 결핍, 욕망과 공허, 환희와 우울이 혼재하는 정신적 혼란과 방황,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태롭게 실존적 균형을 모색한다. 이들은 제도권이 성숙/정상이라고 언명한 세계로의 진입을 지향하거나 기성화된 욕망의 거부를 타진하는 노정에서 '내가 아닌 나와'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나'의 분열을 맞거나 동시에 추구하는 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일반적인 성장의 논리로 보자면, 기성 체제로의 안착은 대타자가 주입한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성숙한 주체(어른)로 승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그러한 안착의 실패나 거부는 성숙의 결여 혹은 부정으로 간주되면서 미성숙과 불완전의 확증으로 귀결된다. 주목할 점은 성숙해서 기성 체제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 질서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성숙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성숙/정상과 미성숙/비정상을 구별하는 성장의 논리라는 것이 개인의 형질 변화와의 상관성이 배제된 상징 질서의 작위적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숙은 반드시 시간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도달했(다고 믿었)다가도 언제든 미끄러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미완의 것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한 주체 안에서 성숙과 미성숙이 완전히 분리된 채 어느 한 측면만이 특화될 수 없듯이 이 둘은 제도 편의적 구분일 뿐, 애초에 완전하게 구별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인간 본연의 한 속성이었으리라.

성숙을 요구하는 체제로부터의 인정 욕구와 지배적인 쓰임새에 기투(企投)하지 않고 온전한 자신을 보전하려는 욕망 사이에서 실존적 갈등을 겪는 청년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거나 어른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의 논리에 저항하며 어른의 세계를 거부함으로써 온전한 자신을 지켰다는 만족감과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는 일탈적 즐거움을 영위하기도 하지만 자신은 어른(성숙)의 세계 바깥쪽에 있을 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과 박탈감에 빠지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순응할 때는 물론이고 저항하는 경우에도 성장의 논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어쩌면 젊음이 짊어진 이러한 딜레마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인간 존재의 불가피성일 것이다.

<젊음의 심연 순응과 탈주 사이>가 주목하는 미완의 유예된 젊음이 세상과의 타협과 길항을 횡단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이행기적 심적 반항과 변이의 내밀한 궤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숙의 절대적 가치를 한번쯤 의심해 보고 '성숙'과 '미성숙'의 구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미성숙'이 과연 '성숙'의 대척점에 있는지, 곰브로비치(Witold Gombrowicz)가 언급하였듯이 '미성숙'·열등, 불충분, 가치 미달, 철없음이 인간 본연의 모습에 더 가까운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러한 질문들이 기성 사회에 대한 구체적 저항이나 도전을 촉발시키거나 어떤 거창한 대안적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장이라는 것이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자, 일종의 혼란과 방황의 해결방식이라는 인식을 돌아보게 하고 성숙/정상/표준의 범주를 재점검하게 하며 나 스스로 억압을 용인했던 일상 속 지배적 언어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상상의 단초는 될 수 있지 않을까?

## VIDEO ART: The Landscape of the Heart of Youth –Between Conformity and Deviation

**Jung-Ah Lee**

guest curator, Alternative Space LOOP  
Translated by Nayoung Cho

Young people who represent youth have been defined by various labels throughout different periods in history. The status and meaning of young people have varied significantly based on the historical conditions of the time from active entities who rejected the irrationalities of the establishment, helping the world take a major step forward as leaders of nation-building and democratic movements, to the more current status of youth which degraded to being the social 'other' trapped in sarcasm, depression and lethargy instead of the political passion, dynamism, resistance, sense of purpose and the infinite possibilities that young people used to possess after being forced to survive in fierce competition. Even when considering the inevitable influence of the sociocultural conditions of the times, the society's standardized definition of young people, given regardless of their will, became the myth and virtue that all young people were pressured to pursue. Often times, it became a tool of oppression and violence or a dark shadow cast over their present and future. Whether idealized or otherized, however, young people who are bound to throw off their safe, protective layer to meet their fate and venture into the new stage of life, will always remain a meaningful yet problematic subject matter that shapes the sociocultural landscape of any given period.

Then, putting off the misguided stereotypes or moral judgments of the outside aside, is it possible to truly capture the existential conditions of youth on how they exist? Even though exploring the structure of emotions that have a broad amplitude to find clues to these questions might mean reconfirming fragmented understanding, *The Landscape of the Heart of Youth\_Between Conformity and Deviation* aims to listen to the sincere stories about private and subjective sentiments and emotions from the inside of young people's self through video arts of different nationalities and cultures. This is not to once again summon the youth discourse, the subject of a heated debate in the past recent years that now seems to have faded away temporarily, not to suggest any hypocritical optimistic view that deceives the young people's contemporary reality and pending issues or not to give insincere comfort. But that doesn't mean that it is intended to add pessimistic narratives to their sentiments, which is already dotted with sarcasm and self-deprecation. This is only an attempt to respond to the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true nature of youth by passing through its multilayered and uncertain inner side, examining how to realize the psychological symptoms and existential situations that are shown through word, action, expression or imaginary devices into video aesthetics as the anthropology of sympathy.

Young people who are standing at the boundary of a transition period are a subject who is enduring a psychological fever. With mental confusion and wandering mixed up between passion and frustration, fear and expectation, hope and uncertainty, abundance and shortage, desire and emptiness, joy and depression, they precariously seek existential balance. They also contradict themselves by aiming to enter into a world that has been declared mature or normal by the established order, or get split up between 'me who I am not' and 'me as who I am' while rejecting ready-made desires. Looking at general logics of growth, acceptance into the established order of the society will mean getting approved as a mature subject (adult) by complying with the order infused by the big Other. On the other hand, failure to be accepted or being rejected from the established order will be considered as a lack of maturity or denying it, so that it is ultimately understood as immaturity and incompleteness. What is important to note is that we are not accepted into the established order for being mature, but we are considered mature when

we conform to the order. In the end, the logics of growth, in differentiating between mature/normal and immature/abnormal, is nothing more than a contrived concept of the symbolic order that has no relation to the individual's changes in any aspect. Maturity is not proportional to time but a relative notion. It can be met (or believed to have been met) but might be something incomplete that you can never reach because it is a slippery concept that is never fixed in its meaning. Moreover, maturity and immaturity of a subject cannot be separate from one another completely nor can they be emphasized in one aspect over the other. The dichotomy only exists for the convenience of the system, and by human nature, they cannot essentially be separated from one another and don't need to be.

Young people experience existential conflicts between the desire to receive recognition from the established order where maturity is demanded and the desire to maintain one's self identity without compromise. They either feel shame and guilt from not being complete yet or feel fear and terror about the unknown world of the adults. On the other hand, they resist against the logics of growth and reject the adult world to enjoy deviant joy of having established his/her own world and being satisfied with protecting himself/herself. However, they only stand on the outside of the adult (mature) world and they fall into a feeling of helplessness and deprivation that they cannot change the world. Ironically, either they comply with or resist against, they are not completely free from the logics of growth. Perhaps, this dilemma of youth is an inevitability of human existence that applies to all people.

This exhibition suggests tracing the transitional, emotional response and modification that the incomplete youth experiences during compromises and struggles with the world. At the same time, i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what the separation between 'maturity' and 'immaturity' means as well as whether 'immaturity' and 'maturity' are truly conflicting as we know, leading us to doubt the absolute value of maturity that we have known. As Witold Gombrowicz explained, we should ask ourselves whether immaturity (inferiority, deficiency, lack of value, and childishness) is in fact traits much closer to our human nature. Even if these questions may not be directly confronting or challenging the established society, or propose any grand alternative to the status quo, they question our preconceived understanding that growth is a natural process of life and the only way of resolving the confusion and wandering of youth. It also may lead us to recheck the scope of maturity, normality and standard and act as the beginning of a new imagination that may enable us to maintain a certain distance from the dominant language of our everyday life trapped in self-oppression.

Angelica  
Mesiti

<황홀 (소리 없는 찬가)>은 '빅 데이 아웃(Big Day Out)' 락 페스티벌에서 열광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고화질로 클로즈업한 슬로우 모션 영상 작업이다. 강렬하고 떠들썩한 음악과 환호성 등 모든 사운드를 차단하고 느린 화면으로 순간적인 움직임이나 표정 변화에 집중한 영상 어법은 흥분에 휩싸여 뿔어져 나오는 젊음의 활기와 역동성을 정적이고 서정적인 장면으로 역전시키면서 미세한 감정의 떨림까지 포착하게 한다. 소리 없는 환호성으로 채워진 무중력 상태의 고요한 축제는 이들만의 심오한 의식이 치러지는 장으로 숭고함과 장엄미마저 느껴진다. 마치 세속적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종교적 심취나 황홀경을 보는 듯한 이들 청년의 영성 깃든 몸짓은 자신들만의 진지를 구축하고 권위적이고 타산적인 주류 사회의 구속력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무언의 매니페스토이다.

문화적 교감과 유대로 결성된 이들 공동체의 언어는 합리적 문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공유하는, 감정이 초과하여 들끓는 것, 자신의 존재의 함성을 외치는 것, 자신도 모르게 어떤 희열과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생산적인 무언가로 전환될 수도 없고 계산된 선택이나 경제적 보상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니며 도덕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적 우월감을 의식한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시선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저 이러한 탐닉과 몰두는 시간이 중지된 공간에서 그 대상과의 순수한 만남이 목적인 진정성의 체험인 것이다.

*Rapture (Silent Anthem)* is a slow-motion, high-definition video capturing close-up images of the young crowd going wild at the "Big Day Out" rock music festival. By filming in slow motion and blocking out the loud noise of the music and the crowd cheering, the work focuses on the momentary gestures and expressions of the people, translating their youth and dynamic energy into a still and poetic portraiture that captures even the very subtle changes of their emotions. The mute screams of the silent festival portray a ritual of their own, even evoking a feeling of grandeur and the sublime. The passionate, almost spiritual movement of the young crowd evokes a scene of religious rapture or ecstasy, leaving no room for other worldly concerns. In fact, the scene represents a kind of manifesto, cementing their own grounds and declaring resistance against any control or restraint from the authoritarian and money-driven mainstream society.

The common language of the young crowd, based on their cultural unity and solidarity, cannot be explained with any logical grammar. The overflowing, burning emotions, the joy and rapture, and the freedom to assert oneself in his or her voice out loud — is something they all share without any regard or respect to the pressures of social productivity, financial gain, or even ethical values or ideological superiority. Their rapture is purely for themselves, with no regard for the gaze of others. In the silent vacuum of the screen where time is suspended, their self-indulgent ecstasy reflects the experience of a true, genuine encounter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their desire.

courtesy the artist and Anna Schwartz Gallery



황홀(소리 없는 찬가)  
**Rapture(Silent Anthem)**  
single channel HD video, color,  
silent, edition of 5 2APs, 10' 10"  
2009



황홀(소리 없는 찬가)  
**Rapture(Silent Anthem)**  
 single channel HD video, color,  
 silent, edition of 5 2APs, 10' 10"  
 2009

Asli Sungu

<아버지처럼 / 어머니처럼>은 작가 본인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옷 입기'의 조언을 각각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이것저것 걸쳐 보며 최선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내용의 두 채널 영상 작업이다. 성인이 되어 자신의 옷 타리가 되어 준 부모로부터 물리적, 정신적 자립을 욕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와 관습 혹은 그들의 기대와 바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묘한 심리적 긴장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아버지가 추천하는 커리어 우먼의 복장이나 어머니가 바라는 소녀 감성의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부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신뢰와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분명 본인 스스로 원했던 스타일이 아니었음에도 그것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거나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한 미흡함과 욕구불만이 모순적으로 수렴되는 주인공의 모습은 청년 주체의 복잡 미묘하고 불안정한 실존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청년들은 시간이 지나면 도달할 수 있는 위치가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단일함의 대가로 죄절과 죄책감을 안고 있다거나 한편으로는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목적(司牧的) 권력의 케어로 존재론적 안전감을 느낀다. 낙오될 일 없는 길만을 안내하는 이 생명권력의 규범은 이들에게 죄절과 탈락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안락함을 내어준다. 자신의 삶을 빚어내는 자기 결정의 결핍은 '살찐 소파'와 같은 이 비참한 낙원에서 얼마나 채워 줄 수 있을까?

*Just Like the Father / Just Like the Mother* is a two-channel video which shows the artist herself seeking everyday "wardrobe advice" from her father and mother individually, then trying on different styles of fashion according to them. In the process, the artist's dynamic with her parents reveals the subtle tension between her desire to become financially and emotionally independent from the comfort zone of her parents, and her frustrations of being unable to completely detach herself from the parent's hopes and expectations for her. Whether it is the professional attire suggested by her father, or the feminine, girlish style favored by her mother, the artist feels trust and security in the parents' decision but at the same time remains ambivalent and frustrated because neither is her own choice. The complexity and instability of her feelings shown through out the work in directly reflects the existential conditions of the young generation.

Young people often complacently believe that they will one day grow up to be mature and independent adults, but on the other hand, continue to crave the security and comfort of living in the care of pastoral power. The safe guidance of bio-power offsets their fear of failure and offers them relief and comfort. But what would ultimately make up for such lack of self-control and self-guidance in this tragic paradise of "fat couches"?



아버지처럼 / 어머니처럼  
Just Like the Father /  
Just Like the Mother  
2 channel video, color,  
sound  
14'00" / 12'00"  
2006

Carles Congost

<확고한 신비로움>은 록 뮤지컬 형식을 차용하여 “신비로움”을 둘러싼 젊음의 실존의 문제를 다룬다. 중심인물인 축구 유망주가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영감을 받고 예술 계로 진로를 바꾸려 하자 그의 실존적 변화를 이끈 신비로움에 대한 주변의 다양한 반응을 경쾌하게 풀어낸다. 이 신비로움은 어른들의 감시와 처벌의 자장이 미치는 곳에서 젊은이들의 내면에 소요와 분쟁을 일으켜 ‘신중함’과 ‘무모함’, ‘절제’와 ‘치기’ 사이에서 고전해야 하는 투쟁의 역사를 겪게 한다. 조직 스포츠인 축구로 표상되는 기성 사회는 시스템과 룰을 이해하고 잘 따르는 주체를 정식 구성원(선수)으로서 인정한다. 보편적 공동체 질서(축구팀) 안에서 자기 몫의 역할을 다해 어엿한 사회적 구성원(선수)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자식의 아티스트로의 선택이 마뜩찮다.

청년의 내면에는 기성 사회의 범속한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주변의 걱정스러운 시선, 그로인한 자책감과 두려움의 틈을 비집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체성이 아닌 온전한 나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열 또한 은밀하게 자리한다. 이들에게 상실된 자아를 찾아 줄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실제 없는 신기루가 될지 알 수 없는 이 신비로움은 확립적 성숙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인식 불가능하고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속성에 대한 명명일 것이다. 로넬(Avital Ronell)의 ‘사유’와 ‘어리석음’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시사하듯, 이 신비로움은 기성 사회가 제시하는 성숙의 모델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틈이자, 새로운 가능성이 채워질 수 있는 어떤 여백 같은 것이 아닐까?

*Un Mystique Determinado* is presented in the form of a rock musical examining the existential questions of youth surrounding the “mystical.” The protagonist, who is a rising soccer star, suddenly becomes inspired and decides to change his career path into art. The work playfully portrays the various reactions of the protagonist’s friends and family to the “mystical” that led to his decision, as it begins to create a history of conflict between “self-control” and “carelessness”, “caution” and “recklessness” in the minds of youth who exist under the watch and control of adults. The game of soccer, an organized sport symbolizing the mainstream society, acknowledges only those who understand and follow the system and the rules as its member (player). The protagonist’s parents, who had hoped their son would become such outstanding member (player) of the society by carrying out his role within the community order (the team), are not pleased with his decision to become an artist.

In the minds of the young generation, there exists the guilt and fear of failure to conform to the mainstream society and its expectations. But at the same time, there also exists the joy and desire to find one’s true self that cannot be defined by the social order. Whether it proves to be a true guide to finding one’s lost identity or just an imaginary mirage, this “mystical” nevertheless symbolizes a certain attribute that cannot be defined or identified by the society that demands conformity to its standards of maturity. As Avital Ronell’s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ought” and “stupidity” implies, could this “mystical” be something of a void to be filled with new possibilities, a chink telling us that the standard of maturity defined by our society cannot be perfect after all?



courtesy the artist and HAMACA

확고한 신비로움  
**Un Mystique Determinado**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17'00",  
2003



## Chunghyung Lee

청년 예술가들은 오롯이 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는 이상과 괴리되는 현실을 타개하려는, 공동된 실존적 고민을 떠안고 있다. 이정형도 생계를 위해 작품 설치 및 전시공간 구축 작업을 하지만 바로 그 생업 현장에서 역설적으로 본인의 '예술' 작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개인적 삶으로서의 주제와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예술의 내/외부적 시선-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다양한 예술적 층위를 탐색하며 확장 가능한 새로운 맥락들을 타진한다.

이정형의 작업에는 매끈한 자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완성된 전시 후면에서 그것이 성립하도록 조력하지만 늘 타자적 위치에 있는 '노동'이 중심에 놓여 있다. <겹쳐지는 지점> 시리즈는 전시장이라는 노동 현장에서 전시가 성립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창작 활동과는 별개의 노력과 시간을 기록한 사진 작업이다. 전시가 제도로서 위력을 발휘하기 전, 예술작품의 고고한 위상을 틀 지워주기 전의 기록들을 분류 및 재구성한 것을 무심한 듯 작품으로 내놓은 결과물은 임노동과 예술노동, 노동자와 예술가 사이의 견고한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에서 둘 사이의 분리와 위계화를 당연시하는 절대적 믿음을, 기성의 미술 현장을 지배하는 냉엄한 문법과 시스템의 유일성을 의심하고 재고하게 하는 질문들로 전이된다.

이번 전시의 <겹쳐지는 지점>은 기존의 시리즈에 노동 현장과는 전혀 다른 시공간의 이질적 텍스처를 이식시켜 생겨나는 충돌과 어긋남의 지점에서 또 다른 문맥을 탐구한다. 일상에서 채집한 이미지가 노동 현장이 점유하고 있는 시공간에 접합될 때 뒤흔어진 맥락들이 부대끼고 연결되고 흡수되면서 새로운 시공간과 내러티브가 무한대로 생성된다. 노동과 예술 사이의 흐릿해진 경계는 컴퓨터 합성과 이미지 조작이라는 상상적 장치에 의해 그 구분 자체가 더욱 무색해진다. 이 유희적 작업 주변을 맴도는 정체는 무엇일까? 다분히 작위적이고 잠정적인 환영에 불과한 예술이라 규정짓는 조건과 이데올로기의 맹점 그 자체일지 모른다.

Young artists often share the existential concern of having to deal with the reality where they cannot fully commit to their artistic practice from trying to make ends meet. Lee, like others, works for other artists, institutions and curators, helping them with space design and installations to make his living. Ironically, it is at those places of work where Lee finds the basis of his artistic practice and its context. It is also in this crossing area of insider and outsider perspectives of the art world— as an individual subject and his identity as an artist – that he explores various artistic dimensions.

The center of Lee's work is the "labor" that exists as the "other," hidden behind the spotlight and the glossy façade of art exhibitions. The *Study of Crossing Area* series is a collection of photographs documenting the space for an exhibition as a site of labor. The images document the accomplishments of time and labor over the process of an exhibition that is entirely independent from the creative process. The outcome of Lee's work, which captures the moments before an exhibition becomes an institution, and before an artwork is crowned with its cultural authority, bleeds into more serious questions – the questions that reconsider and reexamine the absolute beliefs in the art system, the strict vocabulary dominating the art world that unquestionably upholds the hierarchy and division between wage labor and artistic labor (mental and physical labor of the creative process), installation site and exhibition site, as well as the laborer and the artist.

In *Surface Wave*, the artist takes a different approach from his earlier works in the *Study of Crossing Area* series by implanting unfamiliar textures of space-time different from a labor site, examining the new contexts it creates as it collides with the surroundings. As the images of the everyday enter into the site of labor, the seemingly unrelated contexts begin to collide and absorb into one another, producing an infinite number of narratives in the new space-time. The blurred boundaries between labor and art become even more unclear through the use of image editing and manipulation. What is hidden in the identity of this playful work? Perhaps that is just the blind point of conditions and ideology that turn out to be contrived and provisional illusion, for defining art.

겹쳐지는 지점  
Surface Wave  
digital image  
2018



Liao Chi-Yu

<강>은 영상 촬영을 위해 마련된 세트장에서 젊은 남녀 주인공의 몇몇 일화들을 보여주는 연극적인 상황을 서정적인 영상으로 담고 있다. 세트장의 배경으로 쓰인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림 풍경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욕망이 투영된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은 현실을 차단해 주는 장치이다. 이 비현실적인 가상공간 안에서 남녀 주인공이 연애와 결혼, 행복한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가상과 현실이 시종일관 교차하고 그에 대한 둘 사이의 은유적 대화와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등장인물들은 인공적 세트장이라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 실제인양 행동하고 관객들은 그들의 그러한 태도가 허구이지만 실제라고 가정하고 보는 파타피지컬한(pataphysical) 상황이 벌어진다. 연애-결혼-육아는 정상적인 성인이 밟아야 하는 필수적 생애과정이라는 기성 사회가 틀 지워준 표준이다.

세트장은 청년 스스로 이 표준을 향후 실존적 토대라고 믿게 하기 위한 장치와 같다. 자기 밖에서 타인들의 생각과 요구로 생성된 환경에서 자신의 모습,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상한다. 세상이 구축한 환상이 자기가 선택한 세상의 모습도, 존재 방식도 아님을 간파하는 것은 늘 성공적이지만은 않다. 여기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에 다다른다는 가정 자체가 환상임을, 계속 어딘가 흐르지만 실제로는 아무 곳으로도 흐르지 않는 세트장의 강이 말해준다. 남자가 사다리를 타고 벽면 그림 배경 위로 올라가는 후반부 장면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 낭만적인 드라마가 실은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음을, 애초에 실패를 전제한 허구로 쌓아올린 모래성 같은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River* presents a story of a young couple in a theatrical setting staged inside a film set. The "postcard" landscape shown in the background of the set is painted based on the images of famous European tourist attractions, as portrayed in the popular backdrops used for family photo portraits back in the day when the artist was growing up. The beautiful landscape is a place detached from reality, a screen that separates us from our not-so-beautiful reality. It exists as an ideal place where our desires are projected. Within this ideal setting where the imaginary and the real constantly intersect with one another, the young couple is shown dating, getting married and starting a family, having narration and a metaphorical dialogue about imagination and reality. The characters continue to act as if the imaginary set is their real life, while the viewers continue to watch them knowing they are fictional but assuming they are real, creating a "pataphysical" situation.

Dating, marriage and raising a family is considered the standard course of adulthood defined by the mainstream society. In this aspect, the film set is a kind of device constructed to enforce this belief for the young couple. Within it, they envision their future and confirm their identity built around the demands and ideas of other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anyone to realize that the illusions constructed by the society is not always the same as the reality or the way of life one wishes to choose for himself. The seemingly natural course of adulthood defined by the society is just as imagined as the river that flows nowhere on the backdrop of the set. The final moments of the film, when the male protagonist climbs a ladder to the edge of the painting, reveal that this romantic drama is headed nowhere, and is nothing more than an illusion built on sand.



강  
River  
2 channel video, color,  
sound, 20'30"  
2017



강  
River  
2 channel video, color,  
sound, 20'30"  
2017

## Ma Qiusha

마 퀴샤가 태어난 1980년대 초반은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한창 시행되던 시기였다. 마 퀴샤와 같은 '한 자녀 정책'의 첫 세대는 부모로부터 집중된 혜택과 관심을 받아 왔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혹독했다. <무지개>는 2010년을 전후로 제작한 여타 작품과 유사한 맥락의 영상작업으로서 부모세대의 과도한 기대와 관심으로 인해 상당한 심적 부담과 억압적 상황을 경험하며 자라온 중국 청년들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 작업은 일견 아름답고 순수하며 평화로운 광경으로 보이나 영상의 흐름을 계속 쫓다보면 차갑고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과 무참히 으스러지고 터지는 토마토가 주는 시청각적 긴장감으로 흰색과 붉은색의 강렬한 대비만큼이나 상충되는 감정의 역설을 자아낸다. 2007년 작 <From No.4 Pingyuanli to No.4 Tianqiaobeili>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입 안을 붉게 물들인 면도날과 유사한 맥락에서 극적이고 파괴적이다.

이 아름다운 잔혹 동화는 보기 좋은 유리잔에 선혈 같은 과즙이 담기고 남은 찌꺼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부모세대의 왜곡된 사랑과 관심, 세속적 욕망으로 더욱 공고해진 비인간적 시스템은 이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성공)에 대한 희망을 볼모로 현재의 고통을 견뎌낼 것을 강권한다. 세상이 찬양하는 '더 좋은 삶', '성공적인 삶'은 그 잔혹한 미래에 대한 투자 때문에 이들을 텅 빈 현재에서 심리적 출구를 찾을 수 없게 만든다. 어쩌면 어른들에게 아무리 가혹하게 몰아 세워도 거부하지 못하고 순순히 그 세계로 진입해야 하는 젊음의 소외감과 서글픔은 그저 폐기될 감정의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다. 텅 빈 현재, 텅 빈 주체에 쏟아 부은 달콤 비릿한 과즙은 누구를 위한 음료란 말인가?

The early 1980s, when Ma Qiusha was born, marked the height of China's "one-child policy." The first generation of children born under the "one-child policy," including Ma herself, was showered with the love and attention of their parents, as well as many social benefits, but all which came at a brutal cost. In the same context of Ma's other works produced around 2010, *Rainbow* symbolically reflects on the psychological pressures and restrictive conditions that China's young generation faces due to their parents' excessive expectations and interest in their child. At first glance, the work appears to be beautiful, innocent and peaceful imagery, but as the video continues on, a cold, sharp blade of an ice skate starts smashing the tomatoes mercilessly, evoking a clash of conflicting emotions much like the sharp visual contrast of the red and white colors. The scene is also reminiscent of another shocking and dramatic scene from Ma's 2007 work, *From No.4 Pingyuanli to No.4 Tianqiaobeili*, in which a blade cuts into a person's mouth, soaking it with blood.

Ma's vicious fairy tale is about residues, left behind after the bloody juice of the fruit has been squeezed out into the glass. The inhumane system of the society – built on the parents' skewed affection and love for their children, on top of material greed – forces China's young generation to endure the harsh reality of the present for the hopes of a better future (success). While investing in their future of "a better life" and a "successful life," they are psychologically trapped in the empty present without an escape. As young people have no other choice but to continue on in the world without the power to resist their parents, the emptiness and misery of their youth become nothing more than a residue of emotions to be disposed of. Who is to drink this sweet and bloody juice from the fruits poured into the void in their reality and their self?



Courtesy the artist and Beijing Commune

무지개  
**Rainbow**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3'34"  
2013

Marko Schiefelbein

<나는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는 한 젊은 여자가 소파에 앉아 관객을 향해 차분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독백하는 장면을 시종일관 담고 있다. 영상 속 인물은 확신에 찬 어조로 설득력 있게 자신의 꿈과 이상, 생각과 신념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어느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문구를 연상시키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작품은 광고 캠페인, 기업의 브랜딩, 홍보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자극적인 언어 혹은 과장된 설득조의 일방적인 슬로건과 무차별적 문구를 추출하여 한 청년의 사유의 표현이자 내면의 진솔한 이야기인양 그럴 듯하게 조합한 것이다. 그러나 독백은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내용 혹은 서로 상충하는 관점과 가치들의 모순된 나열, 그리고 전후 맥락을 유추할 수 없는 피상적 문구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그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남긴다. 결국 실제 없는 텅 빈 레토릭들만 독백의 무대에서 부유할 뿐이다.

성숙한 어른을 요구하는 대타자는 자본주의라는 또 다른 얼굴로 나타나 매스미디어와 결합한 광고를 가담시켜 청년들의 자의식과 정체성의 모델을 틀 짓기도 한다. 이 작업은 바로 이러한 광고가 이식한 환영적 믿음-허위의식에 포섭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언어로 제시된 비전을 욕망하는 청년의 소외된 상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후반부에 심어 놓은 복선 즉, 독백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겨나고 조작된 허구임이 서서히 드러나는 지점에서 대타자의 실패를 어렵게 이 예고하는 듯하다. 결국 이 주체는 상징 질서가 완전무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언어로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뒷이야기가 궁금해진다.



나는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I can. You can.  
single channel video, 4K HD,  
color, stereo, 7'25"  
2012

courtesy the artist and videoframeberlin

*I Can. You Can.* shows a young woman sitting on a sofa and reciting a monologue towards the viewer in a calm but articulate tone throughout the entire duration of the work. The woman in the video confidently unfolds a story about her dreams and ideals, thoughts and beliefs. Evoking the marketing slogans of athletic brands, the work deliberately appropriates the strategic and incendiary language used in corporate marketing campaigns and branding to construct persuasive slogans and indiscriminate phrases to make the story seem like the young woman is expressing an honest account of her thoughts and feelings. However, as the video continues on, her monologue gradually collapses into abstract clichés and contradictory remarks without context, pouring out inconsistent and incoherent words that make the viewers question her sincerity. In the end, only empty rhetoric is left floating on the stage.

The big Other, which demands one to become a mature adult, often hides under the façade of mass media, manipulating advertisements to forcefully define the self-consciousness and self-identity of young people. This work is precisely about such false consciousness and illusion planted by mass media advertising in the minds of the youth today, who express their vision and desire in the words of others and not from their own will. On the other hand, as the monologue gradually collapses onto itself towards the end of the work, the sincerity and genuineness of her words come into question and arouse suspicion of fabrication while subtly foreshadowing the failure of the Other. Will the subject ever realize the fallacy of the symbolic order and come to tell her story in her own words? One has to wonder how the epilogue will unfold.

Yuan Keru

<달과 6펜스>는 서머셋 몸(William Somerset Maugham)이 고크(Paul Gauguin)의 삶에서 영감을 얻어 집필한 동명의 소설 제목을 차용한 작품이다. 소설 속 주인공 스트릭랜드(Charles Strickland)가 예술적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떠났던 꿈의 섬, 타이티는 우주 공간에 이식되어 원시 자연에서 SF적 풍경으로 탈바꿈하였다. 5명의 청년들은 동경(憧憬)의 행성인 달을 향해 가는 우주선 안에서 지구의 표준화된 언어를 버리고 대신 춤 혹은 몸짓으로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한다. 그러나 불확실함과 모호함으로 인한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이들의 표정과 몸짓 또한 기대에 차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그리 가렵지만은 않아 보인다.

같은 우주 공간 안에서 달도 지구도 모두 등글지만 각각 끌어당기는 중력의 차이만큼이나 이들에게 다른 의미로 작용한다. 고착된 질서 속에 안착하여 지배적 가치를 추구하며 시스템에 순응해야 하는 지구에서 탈주하여 상상적 유토피아가 건설된 달을 향해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은 지구 중력이라는 보편적 힘에서 벗어나 관성적 지각을 훌트리는 무중력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이들의 선택이 공명하는 지점은 어쩌면 모두가 진리라고 믿었던 힘이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지구에서나 작용할 뿐이라는 것, 다른 방식, 다른 감성으로도 행복과 하중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것이다.

*Moon and Sixpence* takes its title from Maugham's iconic novel of the same title which was inspired by the story of artist Gauguin's life. The pristine natural landscape on the dream island of Tahiti, where the novel's protagonist Charles Strickland went to realize his artistic ideals, is transformed into science-fiction inspired outer space in Yuan's work. On the spaceship headed to the planet of their dreams – the moon – the five characters in the work abandon their common language from earth and begin to communicate through physical movements and dance. But unfortunately, their efforts are not entirely successful, as the movements can be unclear and ambiguous to understand. Embarking on the journey to the unknown, their facial expressions and movements are filled with hope and fear at the same time.

Though the moon and the earth are both round and may appear similar in space, their differences prove to be far more than the characters expected, just as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gravity on the two planets. To escape earth, where one is expected to conform to its rigid orders and dominant values, and to adventure into the moon, the land of imaginary utopia, is no different from escaping the field of gravity and throwing oneself into the vacuum with no gravity. Perhaps what arouse sympathy from their adventure might be that the things that we believe to be the absolute truth only applies on earth, which is only a speck of dust in the vast universe, and that one can find happiness and fulfillment in many different ways and sensibilities.



달과 6펜스  
Moon and Sixpence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15'51"  
2016

**Yuriko Sasaoka**

사사오카는 로우테크와 하이테크를 넘나드는 재기 넘치는 매체 융합으로 초현실적 시각 효과를 내며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세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인형극을 차용한 <이카루스의 신부>는 CG 작업으로 과장된 표정의 인형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여 오페레타 형식으로 서사를 이끌어 가는 영상작업이다. 그리스 신화 이카루스와 다이달로스의 이야기를 변형, 각색하고 1920년대 코지 후키야(Koji Fukiya)의 서정시, "신부 인형(花嫁人形)"이라는 이질적인 서사를 조합하여 익숙하면서도 낯선 상황극을 주도한다.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 가까이 너무 높이 날다가 추락한 이카루스는 젊음의 분방한 열정과 자유에의 갈망에 따른 패기 있는 도전과 환희, 자기 통제의 실패에 따른 무모함과 두려움이 중첩된 상징적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 다이달로스에 의해 환생한 이카루스는 대타자 아버지의 삶의 방식에 순응하여 신부 인형, 요리코(Yoriko)와 혼인을 하게 되지만 결국 신부 일행과 함께 다이달로스를 절대자(신 또는 괴물)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살해에 가담한다.

작가 본인이 직접 연기한 신부 인형은 냉철한 판단력과 절제, 완벽한 균형감과 서늘한 숙련으로 무장한 다이달로스를 부정하고 설사 치기 어렵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이카루스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듯 보인다. 신부가 부르는 노래 가사 "call my name"이 암시하듯, 그의 호명으로 성사되는 결혼은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존재론적 여정을 떠나기 위해 그와 맺은 새로운 계약이 아닐까? 신부 인형은 주체의 새로운 좌표를 향해, 자기 한계를 넘어설지 자기 파괴적이 될지 모르는 호기로운 비행을 주문한다. Fly!

Traversing the boundaries of high tech and low tech, Sasaoka constructs her unique oeuvre by brilliantly integrating various media to create surreal visual effects. Inspired by puppet theater, *Icarus's Bride* presents characters with exaggerated facial features rendered in computer graphics narrating their stories in the form of an operetta. The work appropriates the story of Icarus and Daedalus from the Greek mythology and integrates the storyline with Japanese poet Koji Fukiya's 1920s poem *Bride Doll (Hanayome Ningyo)*, creating a familiar yet strange narrative.

Icarus, who ignored his father Daedalus's warning not to fly too close to the sun and ultimately fell to his death, is a character who symbolizes both the unrestrained passion and freedom of youth, and the recklessness and fear of losing self-control at the same time. In Sasaoka's work, Icarus is reincarnated by his father Daedalus and marries the bride doll Yoriko in obedience to his father's way of life. In the end, however, Icarus conspires with his bride to murder Daedalus in order to present him as a sacrificial offering to the absolute (god or monster).

The bride doll, played by the artist herself, denies Daedalus who is armed with his shrewd judgment, self-control, and perfect balance of self-discipline, and instead tries to reaffirm her identity through Icarus, who may be immature and reckless but nevertheless continues to seek new paths into the unknown. As implied in the lyrics "call my name" from the bride's song, perhaps her marriage, which is sealed by calling her name, could be understood as an agreement between her and Icarus to embark on an ontological journey together that is filled with both hope and fear. The bride doll now prepares to fly towards the new coordinate of the subject, even if she is unsure whether this journey will lead to a new, higher horizon or down the path of self-destruction. Fly!

**이카루스의 신부**  
**Icarus's Bride**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7' 42"  
2016



## Wong Ping

자기만의 공간인 방을 둘러싼 유폐와 소통의 위상학을 잘 드러내는 <감성적인 코>는 가까스로 유지했던 모든 사회적 관계의 무용함을 깨닫고 자발적 소외의 공간 안으로 스스로를 가둔 채 자신의 일부(코)와의 소통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몰두하며 지내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다. 코가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에 반응하여 자꾸 자라남으로써 대면하게 될 본인의 비정상성과 그로 인해 겪게 될 난처함과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가피하게 남이 아닌 본인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기만하는 블랙코미디를 보여준다. 그러나 가식과 허구의 삶은 이내 고독한 본연의 정체성에 자리를 내주게 되고 남자의 코는 공간 밖으로 떠나면서 바깥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홍콩 특유의 좁디좁은 방은 출구 없는 청춘의 삶의 민낯을 보여주거나 그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주요 무대가 된다. 소통의 욕망만큼 강렬한 고독의 아늑함은 관계적 삶의 지향을 권하는 상징 질서의 도덕률을 유보시킨다. 자기 존재감을 보존하는 공간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고독과 체념이 때로는 세상과 타인에 대한 소통의 욕망을 절제하는 대신, 자아를 둘러싼 상상적 지리학을 통해 자기에 대한 존재 미학을 재발견하고 스스로 자기를 형성하는 자율적 주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Set in a small, secluded room, *An Emo Nose* tells a story of a young man who becomes completely absorbed in talking to himself (the nose), eventually cutting off all social relationships and voluntarily confining himself to a place of isolation. With the nose growing longer in response to his negative thoughts and feelings, the young man struggles to cope with the fear and discomfort by manipulating his own emotions as the story unfolds in a kind of black comedy. His life of lies and pretense ultimately makes way for his own solitary identity, which then makes the nose leave him and go out into the world.

The small, confined rooms of Hong Kong portrayed in the film becomes the stage on which the bare reality of urban life and delicate psyche of young people who live there come into the spotlight. The comfort of self-alienation, which is equally powerful as the desire to communicate with others, disturbs the ethics of social order built on human relationships. In some ways, however, wouldn't it be possible to understand the solitude and self-isolation within one's space as not simply going against the desire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and others, but more importantly, as an attempt to search the possibility of a completely autonomous subject through self-examination and rediscovery of oneself?



courtesy the artist and Edouard Malingue Gallery

감성적인 코  
**An Emo Nose**  
animated film, color,  
sound, 4'23"  
2015



학술 대회 / 아티스트 워크숍  
사전행사 / 작가와의 대화

ACADEMIC CONFERENCE /  
ACADEMIC SEMINAR / WORKSHOP WITH ARTIST  
PRE-PROGRAMS / ARTISTS TALK ON SATURDAY

##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학술 대회 - 한국현대미술과 공공미술

창원조각비엔날레는 한국큐레이터협회와 공동으로 <한국현대미술과 공공미술>이라는 주제로 학술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된 한국 공공미술은 양적 팽창으로 성공했으나 현대미술과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성공적이었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그것은 공공미술이 자본과 행정의 논리 속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학술콘퍼런스는 한국의 공공미술을 현대미술의 문법과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창원조각비엔날레의 핵심 가치를 조명하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기조 강연은 '한국현대미술과 공공미술'이라는 주제로 양원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이 맡는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개의 분과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1분과(권력, 기억, 미술)는 정필주 미술평론가가 '공공미술 개념과 담론의 흐름'으로 발제를 하고 김재환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사가 좌장을 맡는다. 2분과(공공미술의 진화)는 이경복 공공미술 연구자가 '아카이브로 본 한국 공공미술의 변화'로 발제를 하고 기혜경 북서울미술관 본부장이 좌장을 맡는다. 3분과(21세기 공공미술의 전환)은 김준기 제주도립미술관장이 '새로운 공공미술 논의와 그 이후'로 발제를 하고 김동규 나라한알 부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분과별 지정토론은 황무현 마산대학교 교수, 성춘석 경남민족미술협회의 회장, 이수진 경성대학교 교수 등 한국큐레이터 협회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최범 대자인평론가가 사회를 맡고 강수정 국립현대미술관 팀장, 김윤환 작가, 박찬국 작가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 2018창원조각비엔날레 학술 콘퍼런스-한국현대미술과 공공미술

-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향의 창원조각비엔날레 핵심가치 학술적 조명
- 공공미술 개념의 태동과 전개, 변화 과정을 개념사적 논의

일시	2018.09.05. 13:00-18:00
장소	창원대학교 대강당 및 주변 소형 강의실 3개
주최	창원시
주관	한국큐레이터협회, 창원문화재단

### 1부. 개회 (13:00-13:40)

사회	이영준(김해문화재단 팀장, 한국큐레이터협회 부회장)
개회사	윤범모(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13:00-13:05
축사	박천남(한국큐레이터협회 회장) 13:05-13:10
기조강연	양원모(미술평론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한국현대미술과 공공미술 13:10-13:40

### 2부. 분과토론 (13:40-15:40)

분과별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각 분과의 좌장은 이 내용을 정리 하여 종합토론에서 발제함

#### 1분과: 권력, 기억, 미술

좌장	김재환(경남도립미술관 큐레이터)
발제	정필주(예술사회학), 공공미술 개념과 담론의 흐름
지정토론	이수진 외 5인

#### 2분과: 공공미술의 진화

좌장	기혜경(북서울미술관 본부장)
발제	이경복(공공미술 연구자), 아카이브로 본 한국 공공미술의 변화
지정토론	황무현(마산대학교)외 5인

#### 3분과: 21세기 공공미술의 전환

좌장	김동규(미학자)
발제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새로운 공공미술 논의와 그 이후
지정토론	성춘석(경남민족미술협회회장)외 5인

### 3부. 종합토론(15:50-17:50)

사회	최범(대자인평론가)
발제	김재환, 기혜경, 김동규
토론	강수정(국립현대미술관 팀장) 김윤환(작가), 박찬국(작가)

## Academic Conference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 Korean Modern Art and Public Art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n Art Museum Curators Association (KAMCA),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s holding an academic conference under the theme of "Korean Modern Art and Public Art." Since the 2000s, Korean public art has spread rapidly to achieve quantitative expansion, but it is difficult to say if it was successful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art and public interest. This is probably because public art is conducted with capital and administration logic. Therefore, this academic conference will restructure Korean public art to mainly focus on the concept of grammar and public interest towards modern art. By doing so, we strive to shed light on Changwon Sculpture Biennale's core value that supports public art projects and seeks ways to develop them further.

The keynote talk will be done by Yang Won-mo, Director of Gyeonggi-do Children's Art Museum, under the theme of "Korean Modern Art and Public Art". Based on this, there will be thre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by session. Session 1 (Power, Memory, Art) will have Jeong Pil-ju, art critic, give a presentation on the "Trends of Public Art Concepts and Discussions", with Kim Jae-hwan, Curator of Gyeongnam Art Museum, as the chairperson. Session 2 (Evolution of Public Art) will provide a presentation by Lee Kyung-bok, researcher of public art, on "Changes in Korean Public Art by Looking at Archives", with Ki Hye-kyung, Chief of Seoul Museum of Art, as the chairperson. Session 3 (Transformation of Public Art in the 21st Century) will provide a presentation by Kim Jun-ki, Director of Jeju Museum of Art, on "Discussions on New Public Art and After That Time", with Kim Dong-gyu, Vice President of Narakhanal, as the chairperson. The designated discussions by session will have members of the Korean Art Museum Curators Association in attendance, including Hwang Mu-hyeon (Professor of Masan University), Sung Chun-seok (President of Gyeongnam National Art Association), and Lee Soo-jin (Professor of Kyungsung University). Lastly, the overall discussion will be hosted by Choi Beom, critic, with Kang Soo-jung (Team manager of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im Yoon-hwan (artist), and Park Chan-kook (artist) in attendance as panelists.

## Academic Conference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 Korean Modern Art and Public Art

- Shedding academic light on the core value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that supports public art projects
-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public art at the beginning,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stages

Period	September 5, 2018, 13:00-18:00
Venue:	Main auditorium and 3 small lecture rooms at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Hosted by	Changwon City
Organized by	Korea Curator's Association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 Part I. Opening Ceremony (13:00-13:40)

Host	Lee Young-joon (Team manager of Gimhae Cultural Foundation, Vice President of Korea Curator's Association)
Opening speech	Yoon Beom-mo (Director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13:00-13:05
Congratulatory	Park Cheon-nam (President of Korea Curator's Association) 13:05-13:10
Keynote speech	Yang Won-mo (Art critic, Director of Gyeonggi Children's Art Museum), Korean Modern Art and Public Art 13:10-13:40

### Part II. Session Discussion (13:40-15:40)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ill be held by session, and the chair of each session will arrange the contents to present at the overall discussion.

**2018창원조각비엔날레 학술대회**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에서는 2018년 10월 4일 <불각(不刻)의 균형: 한국근현대조각에서 '조형'과 '추상'의 의미>를 주제로 특별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18창원조각비엔날레'와 공동개최하는 본 학술대회는 김종영(1915-1982)과 문신(1923-1995)의 조각예술에 집중하여 한국근현대조각의 예술의욕을 '조형'과 '추상'의 관점에서 헤아려 보려는 시도다.

일시 2018.10.04.(목) 14:00-18:00  
장소 성산아트홀 2층  
주최 창원시  
주관 창원문화재단,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1부. 불각(不刻)의 균형:  
한국근현대조각에서 '조형'과 '추상'의 의미**

사회 김소연(이화여대)  
발표자 김이순(홍익대학교)  
-한국근현대 추상조각의 전개와 쟁점  
장원(동아대학교)  
-김복진'형성미술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홍지석(단국대학교)  
-김종영 조각에서의 '자연'의 의미  
박효진(문신미술관)  
-문신의 초기조각-화가에서 조각가로  
이재걸(중앙대학교)  
-문신 조각과 프랙탈 시메트리-조형에서 생명으로

**2부. 종합토론**

좌장 최태만(국민대학교)  
토론 권행가(덕성여자대학교)  
김정선(동아대학교)  
최종철(미아자키국제대학교)  
이애선(홍익대학교)

**Academic conference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On October 4, 2018, the Association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is holding a special academic symposium under the theme of "The Balance of Non-Sculpting: Meaning of 'Sculpture' and 'Abstraction' in Korean Modern Sculpture. This academic conference will be hosted jointly with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is an attempt of artistic desire to figure out the perspective of 'Sculpture' and 'Abstraction' in Korean modern sculpture, by focusing on the sculptures of Kim Jong-Young (1915-1982).

Period October 4, 2018 (Thursday) 14:00-18:00  
Venue 2/F Seongsan Art Hall  
Hosted by Changwon City  
Organized by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Association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Part I. The Balance of Non-Sculpting: Meaning of 'Sculpture and 'Abstraction' in Korean Modern Sculpture**

Host Kim So-yeon (Ewha Womans University)  
Presenter Kim Yi-sun (Hongik University)  
-Development and Issues of Korean Modern Free-Form Sculpture  
Jang Won (Donga University)  
-Critical Review of Kim Bok-jin's Formative Art Theory  
Hong Ji-seok (Dankuk University)  
-Meaning of 'Nature' in Kim Jong-Young's Sculptures  
Park Hyo-jin (Moonshin Museum)  
-Moonshin's Early Sculptures-From Artists to Sculptors  
Lee Jae-gul (Chung Ang University)  
-Moonshin Sculpture and Fractal Symmetry-From Sculpture to Life>

**Part II. Overall Discussion**

Chairperson Choi Tae-man (Kookmin University)  
Discussion Kwon Haeng-ga (Duksung Women's University)  
Kim Jung-seon (Donga University)  
Choi Jong-cheol (Miyazaki International College)  
Lee Ai-seon (Hongik University)

### 박도현 작가의 < 생활 속 작품 속으로 >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영역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삶에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생각하게 하여 체험하고,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실생활에 활용되도록 한다. 참가자 스스로가 표현내용을 선정하고, 표현 매체를 탐색하고, 결정하여 제작하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고민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한다.

장소	성산아트홀 2층 휴게실
기간	2018 비엔날레 기간 중 주말(토, 일)
시간	10:00-13:00(토, 일 각회)
대상	초등학생(4,5,6학년) 16명 내외 (사전 신청)
비용	무료

### Artist Pak Do-hyun's Artwork in Life

Art visually expresses feelings and thoughts. It communicates with other people through visual images. Understanding it as an art realm can lead to understanding oneself and the world and experiencing it by thinking about what relation it has with one's experience in life, while also emphasizing the process of designing by oneself and utilizing it in real life. The participant selects the details of expression on his/her own and explores expression materials to participate actively in deciding and producing the whole process so that there will be an optimal outcome.

Venue	Second floor lounge of Seongsan Art Hall
Period	Weekend (Saturday, Sunday) during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Time	10:00-13:00 (on Saturday and Sunday each)
Target	about 16 elementary students (grades 4,5 and 6) (application in advance)
Fee	free of charge



### 이유라 작가의 < 나만의 슈링크스 >

슈링크스는 영국 Wizard Limited 사에서 생산하는 특수한 종이 형태의 공예소재로 열을 가하게 되면 크기가 1/7로 작아지고 두께는 7배로 늘어나며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바뀌게 되는 신기한 종이다. 다양한 색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반투명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슈링크스에는 여러 가지 채색도구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해서 다양한 느낌을 구현해 낼 수 있으며, 재료 보관 및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아서 아이들과 체험하거나 취미활동, 공예 작품으로도 폭넓게 사용된다. 유럽에서는 이미 미술, 과학 및 학교 수업이나 특별활동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프라방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공예로 이미 매니아 층이 두터운 취미 공예분야이다. 오븐과 핫툴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슈링크스는 종이 위에 칠하는 채색도구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 있는 느낌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장소	용지공원 (포정사)
기간	2018 비엔날레 기간 중
시간	10:00-1800 (단체는 사전신청)
대상	누구나
비용	무료

### Artist Lee Yu-ra's My Shrinkles

As a crafts material in the form of special paper produced by Wizard Limited in U.K., shrinkles is a miraculous paper that gets 1/7 smaller in size and seven times bigger in width to turn into hard plastic if heat is applied. There are many colors, but generally translucent one is used the most. In the case of shrinkles, it is possible to draw pictures using various coloring tools to evoke different feelings. Also, it is easy to store and utilize materials, making it very popular in providing experiences to children, hobbies and craft works. In Europe, it is already being used in art, science and school classes 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Japan, it is a popular hobby craft for manias of crafting plastics called Prabang. If you have an oven and heat tools, shrinkles have the merit of easily being completed at anywhere and anytime. Since there is almost no restriction on coloring tools used on shrinkles paper, it has a huge advantage of being able to express your own personality.

Venue	Yongji Park (Pojeongsa)
Period	during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period
Time	10:00-1800 (application in advance for group visitors)
Target	anyone
Fee	free of charge



정진경작가의 ART CLASS in 용지공원(포정사)

시민 모두가 예술을 쉽게 만나 그 가치를 공유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조각비엔날레에 참가하는 강애란, 이정교, 정고암, 장두영 작가의 작업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작가의 의도와 개념을 재미있게 놀며 배워보는 시간을 만들어, 다소 어렵게만 느낀 예술이 한 층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장소	용지공원 (포정사)
기간	2018 비엔날레 기간 중
시간	10:00-1800 (단체는 사전신청)
대상	누구나
비용	무료

Artist Chong Jin-kyung's ART CLASS in Yongji Park (Pojeongsa)

In order to ensure all citizens can appreciate art more easily so that they can lead a happy life by sharing its value, a variety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grams are supported and operated by age, region and class. These programs were planned based on works of artists who attended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including Kang Ai-ran, Lee Jung-gyo, Jeong Goam, and Jang Doo-young. The intention and concept of artists are taught while having fun, which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feel more comfortable with art that might have before seemed difficult.

Venue	Yongji Park (Pojeongsa)
Period	during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period
Time	10:00-1800 (application in advance for group visitors)
Target	anyone
Fee	free of charge



이반 퍼포먼스

무용수 심성보의 '아리랑'과 북소리를 시작으로 정기정의 현대 무용 '꿈꾸는 꽃 바람' 박단아와 정유진의 입춤

감독	이반
출연자	이반
Banez	박단아, 정유진
춤패랑	정기정, 심성보

Performance

"Starting with dancer Sungbo Shim's performance of "Ariang" to the sound of drums, followed by contemporary dancer Gijeong Jeong's "Dreaming Flower, Bharal" and Danah Park and Yoojin Jeong's Eyp-Chum dance.

Director	Leevan
Cast	Leevan
Banez	Park Dan Ah, Chung You Jin
Chumpaerang	Jung Ki Jung, Sim Soung Bo



### 섹션 1 <커뮤니아트 프로젝트>

총괄책임자: 김홍진 교수, 김원화 교수, 최승준 작가

What's your color? : 김동영, 장두영

본 프로젝트는 참여 희망자에게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한 가지 컬러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며 붓 1개와 물감 1개만을 제공하며 참여자는 '자신을 대변하는'이란 전제를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는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

핀홀 카메라 아카이브: 김미래, 김예린, 장건울

사전행사 기간 동안 창원을 대표하는 '용지공원'을 관객들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전시한다.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리로 직접 제작한 핀홀 카메라를 참여자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 순간의 빛을 모아 상을 맺히게 한 작업은 시간이 갖는 물리적 무게감을 촬영자가 느끼게끔 한다.

포장사 프로젝트 맵핑(미디어 파사드): 김원화, 박진영, 이혜민, 임수민, 성홍주, 천유민, 최연정, 한도경, 한민정

용지문화공원의 포장사를 오브제로 하여 프로젝션 맵핑, 인터랙티브 아트를 구현한다. 전시 주제는 "사랑"으로 <감정을 해석하다>, <사랑의 형태>, <현대와 옛 것의 조화>, <한국문학의 열>의 소주제로 진행되며 2개는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 2개는 인터랙티브 기술을 사용한 관객참여형식으로 진행한다.

### Section #1 <Communiart Project>

Hongjin Kim, Wonhwa Kim, Seungjun Choi

What's your color?: Dongyeong Kim, Dooyeong Jang

Choose one colour, and the participant can explain everything by the colour on the wall.

Pinhole camera archive: Mirae Kim, Yerin Kim, Geonyul Jang

Participants will film using a pinhole camera, which is made using the principle of camera obscura, while also filling out and submitting a survey that had been prepared in advance, including filming time, title and explanation.

Pojeongsa projection mapping (media facade): Jinyoung Park, Hyemin Lee, Soomin Im, Hongju Sung, Yoomin Cheon, Yeonjung Choi, Dogyeong Han, Minjeong Han

The theme of the exhibition is "love", with sub-themes of <Interpreting Feelings>, <Form of Love>, <Harmony Between Modern and Old Things>, and <Spirit of Korean Culture>. It is provided in the form of visitor participation with two showing images and two using interactive technology.

### 섹션 2 <예술놀이 프로젝트>

총괄책임자: 이주영, 오미솔 작가

예술마당(아트부스)

창원청년작가의 다양한 예술활동 콘텐츠를 활용하여 삶과 밀접한 예술의 양상을 전달하고 시민들의 문화감성 체험기회 제공하는 체험부스를 진행한다.

1. 평화씨앗: 사용한 플라스틱 음료컵을 활용한 화분 만들기
2. 창원의 조각: 비엔날레로 영구설치된 창원 조각품의 드로잉 색칠로 통해 새롭게 조각하기
3. 조각팔찌: 다양한 비즈, 악세사리 등을 활용한 팔찌 만들기
4. 우산 만들기: 투명우산에 직접 그림 그리거나 다양한 시트지를 오려 붙이는 우산 만들기

장소	용지공원(포정사)
기간	2018. 6. 16(토)~27(수) 6. 22(금)~24(일) *미디어 파사드
시간	10:00~18:00, 19:30~21:00 *미디어 파사드
대상	누구나
비용	무료

### Section #2 <Art Play Project>

Juyoung Lee, Misol Oh

Art Garden (Art booth)

An experience booth that utilizes diverse art activity contents of Changwon's young artists to deliver artworks closely connected with our daily lives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experience cultural sensibility.

1. Peace seed: Making flowerpot by a used plastic
2. Sculpture of Changwon: Colouring on sculptures.
3. Sculpture bracelets: Making bracelet
4. Making umbrella: Paingting and put stickers on umbrella

Venue	Yongji Park (Pojeongsa)
Period	June 16, 2018 (Sat.)-June 27, 2018 (Wed.) June 22 (Fri.)-24 (Sun.) *Media facade
Time	10:00-18:00 19:30-21:00 *Media facade
Target	Everyone
Cost	Free of charge



### 도시예술산책

본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정체성 및 공공 미술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주인 의식 함양 마련에 계기가 되고자 한다.

행사명	도시예술산책
기간	2017. 12. 13(수) ~ 12. 15(금), 3일간 3회
진행	황무현 교수, 문화기획자 2명(김나리, 김미정)
코스	추산조각공원-문신미술관-마산조각공원- 돌섬 조각공원-장복산 조각공원-용지호수공원
참여인원	90명(회당 30명 제한)

\*사전예약 진행

### Art walk around the city

Through this participation program, we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identity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communicate with the public art, and develop a sense of ownership.

Title	Art walk around the city
Date	13rd(Wed) ~15th(Fri) December, 2017 (once for 3days)
Professor	Moohyun Hwang, Planner Nari Kim, Mijeong Kim
Course	Chusan Sculpture Park-Moonshin Art Museum-Masan Sculpture Park-Dotsom Sculpture Park-Jangboksan Sculpture Park-Yongji Lake Park

Number of participants: 90people (limited 30people per a day)

\*Please make advanced reservation

### 2018 창원 조각비엔날레- 대학부분(국립창원대학교 예술대학) 플랫폼

2018년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지금까지의 초대, 참여 작가들만의 영역을 넘어 보다 다양한 참여계층을 포용함으로써 숨겨진 지역의 작가발굴과 더불어 앞으로 적극적인 예비 작가들에게도 기회를 열어놓음으로, 진정한 행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창원대학 예술대학은 경남의 유일한 예술 대학으로 40년 이상의 역사와 함께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해왔으며, 현재 교육시스템과 더불어 작업환경의 개발과 개선을 통하여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폭넓은 문화 활동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동시대 예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난 3년 동안 대학의 “도시문화링크”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올해 창원조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와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사전 비엔날레로 “전·초·전”을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또한 그 결과로서의 공연과, 전시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의 가치로 다큐멘트를 통하여 세세하게 기록함으로써 1단계 진해연구 과정을 여기 제시하고, 앞으로 2단계 마산, 3단계 창원중양의 계획을 통하여 창원시 전체에 대한 문화적 접근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학생들에게 그들의 전공 역량을 현실 사회에 적용시킴으로서 실제 문화예술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경험을 제공

경남과 창원도심의 유휴공간이나 도심공동화 현상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사회(창원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문화콘텐츠(전시, 공연, 공공디자인 융합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미래의 융합문화예술 방향성을 구체화

이처럼 준비하는 대학의 역할을 통하여, 미래의 창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작가로, 문화산업의 주도자로 성장해가는 인재들에게 2018 창원 조각비엔날레 참여의 기회는 소중한 “플랫폼”이 되리라 확신하며 창원시 비엔날레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시명	플랫폼
일정	2018 9.4-9.20
장소	국립창원대학교 조현욱아트홀
참여교수	김홍진, 이문호, 이병훈
참여작가	강창호, 김동영, 김영호, 김희웅, 문병철, 박도현, 박환웅, 백초희, 변공규, 변지우, 이민지, 정소명, 정유나, 정욱, 정치성, 조의진, 최리 탁두영, 탁영우, 황수진

###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 Part of university (College of Arts, National Changwon University)

#### PLATFORM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exceeds the fields of all artists who attended and participated until now to include a variety of classes, allowing us to find new prospective artists in hidden regions, while also open up new opportunities for young artists. This clearly shows the true identity of the event, Of cours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Arts is the only one of its kind in Gyeongnam that produced lots of artists until now with more than 40 years of history. Through various working environments that developed and improved over the years along with the education system, we were placed in the center of a variety of cultural activities. While implementing the city culture link project at university for the past three years to find the meaning of art of the same age, we also signed MOU with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this year to successfully host the Pre-Exhibition before the Biennale. As valuable materials for studies in the future, all of the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will be recorded in detail through documents, so that the studies of Jinhae in Stage 1 will be provided here. We aim to take a cultural access to Changwon City as a whole through Stage 2 in Masan and Stage 3 in Changwon Joongang. These studies contributed in the following possibilities:

Provided opportunities to actually plan cultural arts project by applying the professional capabilities of university students to reality

Developed locally linked programs that provide new culture and arts by choosing underused spaces or downtown hollowing out areas in Gyeongnam and Changwon

Specified the future direction of converged culture and arts by studying effects on local community and developed cultural contents (contents that fused exhibitions, performances and public designs) through close connection with local community (Changwon City)

As an artist who will contribute to the future of Changwon through the university's role of being prepared, I believe that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will act as a valuable platform for talented people who will become the leaders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I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everyone at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Title	PLATFORM
Date	4th - 20th September, 2018
Place	Johyunuk Arthall in National Changwon University
Professor	Hongjin Kim, Monnho Lee, Byungho Lee
Artists	Changho Kang, Dongyoung Kim, Yongho Kim, Hweung Kim, Byeong churl Moon, Dohyun Park, Hwanwoong Park, Chohee Baek, Gonggyu Byeon, Jioo Byeon, Minji Lee, Somyeong Jeong, Yuna Jeong, Uk Jung, Chiseong Jeong, Eugene Jeo, Ly Choi, Dooyeong Tak, Soojin Hwang

### 개요

15명의 국내 주요 참여 작가와 작품을 통해 '불각(不刻)의 균형'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는 시간으로, 조각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창원 조각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담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시	2018. 09. 15(토)-10. 13(토)
장소	성산아트홀 2층 휴게실
주최	창원시
주관	창원문화재단
주제	불각(不刻)의 균형
사회	윤범모
참여작가	강애란, 김준권, 김태은, 박춘호(김종영), 서용선, 이이남, 이정교, 안종연, 윤영석, 임영선, 임옥상, 임채욱, 정고암, 정광화, 홍선웅

9월 15일 (토) 14:00-16:40	윤영석, 이정교, 정광화
9월 22일 (토) 14:00-16:40	임영선, 이이남, 박영선
9월 29일 (토) 14:00-16:40	강애란, 홍선웅, 임옥상
10월 6일 (토) 14:00-16:40	임채욱, 안종연, 김태은
10월 13일 (토) 14:00-16:40	서용선, 정고암, 박춘호 (김종영미술관 학예실장)

### Overview

Under the theme of "The Balance of Non-Sculpting", 15 Korean artists attended with their works to reinterpret from diverse perspectives and directly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We look forward to discussions about the fundamental question about sculpture and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Period	September 15, 2018 (Saturday) - October 13, 2018 (Saturday)
Venue	Second floor lounge of Seongsan Art Hall
Hosted by	Changwon City
Organized by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Theme	The Balance of Non-Sculpting
Host	Yoon Beom-mo
Participating artists:	15 artists including Kang Ai-ran, Kim Joon-kwon, Kim Tae-un, Paek Chun-ho (Kim Chong-young), Suh Yong-sun, Lee Yina-m, Lee Jung-gyo, Ahn Jong-yuen, Yoon Young-seok, Lim Young-seon, Lim Ok-sang, Lim Chae-wook, Jeong Go-am, Chung Kwang-hwa, Hong Sun-woong

September 15 (Saturday) 14:00-16:40	Yoon Young-seok, Lee Jung-gyo, Chung Kwang-hwa
September 22 (Saturday) 14:00-16:40	Lim Youngsun, Lee Leenam, Park Youngsun
September 29 (Saturday) 14:00-16:40	Kang Ai-ran, Hong Sun-woong, Lim Ok-sang
October 6 (Saturday) 14:00-16:40	Lim Chae-wook, Moha Ahn, Kim Tae-un
October 13 (Saturday) 14:00-16:40	Suh Yong-sun, Jung Goam, Park Choonho

비엔날레는 이탈리아어로 '2년마다'라는 뜻으로 주로 동시대 현대미술(Contemporary Art)을 선보이는 국제미술전을 일컫는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의 수와 이름은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대부분의 비엔날레는 2년마다 동시대적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탈장르적 성격의 작품들로 구성되며 특정 장르를 내세우지 않는다. 하지만 캐나다의 밴쿠버 비엔날레와 독일 뮌스터 프로젝트와 같은 몇몇 비엔날레는 '조각'이라는 특정 장르를 가지고 지금까지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별히 창원은 김종영과 문신이라는 세계적인 조각가들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겠다. 현대조각의 두 거장 김종영과 문신뿐만 아니라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 등 한국 현대조각사의 중요한 조각가들의 요람인 창원은 2010년 문신조각심포지엄을 모태로 2012년 제1회 창원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게 되었다.

2012년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조각이라는 장르에 충실한 국내외 중견작가들 20명이 제작한 작품을 마산 합포구 소재 돌섬에 설치함으로써 창원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첫회 비엔날레 행사가 되었다. 2014년 2회 창원조각비엔날레에서는 아시아 11개국의 작가 41여명(팀)이 1회 때와는 또 다른 확장된 세대와 영역으로 조각의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게 되었고 2016년 3회 비엔날레에서는 총 15개국 118명/팀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현대조각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초청하여 '세계 현대조각의 오늘'을 창원에 집대성 하였다.

이제 4회를 맞이하는 2018창원조각비엔날레는 9월 4일(화)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4일(일)까지 41일간 창원시 주최, 창원문화재단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창원시 용지문화공원, 성산아트홀,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창원의 집 등에서 개최된다.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주제는 김종영의 문인정신이 함축하고 있는 '불각(不刻)의 미학'과 문신 작업의 균제, 조화, '균형'의 세계를 결합한 <불각의 균형(The Balance of Non-Sculpting)>이다. 이번 행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 용지공원 내 포정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영구설치작품들로 이루어진 '유어예(游於藝) 마당'은 관람객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놀이조각공원이다. 기왕의 조각공원은 관객으로 하여금 거리를 두게 하여, 봉안물처럼 숭배하도록 강요해 왔다. 하지만 여기서의 '유어예 동산'은 조각 작품과 함께 놀기 즉 참여형의 예술작품 마당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작가들은 새로운 개념과 형식으로 예술세계를 재구축하는 시도를 보인다. '예술작품과 함께 놀기', 이는 이번 비엔날레의 성격을 제고하는 프로젝트로 시민참여형 예술행위로 주목을 끌 것이다.

Biennale is an Italian word that means 'every two years', its use mostly refers to an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that showcases contemporary art of the same period. There are too many biennales being hel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even begin to name. Most biennales are held every two years under a unique theme of the same period to showcase artwork that is not limited by genres, or emphasizing a specific genre. However, Vancouver Biennale in Canada and Munster Sculpture Project in Germany are one of the few biennales that are being held for the specific genre of sculpture. Since Changwon is the hometown of world-famous sculptors like Kim Jong-young and Moon Shin, we can seek a sense of identity for Changwon Sculpture Biennale.

Besides the two masters of modern sculpture, Kim Jong-young and Moon Shin, Changwon is the birthplace of some of Korea's most important modern sculptors, including Park Jong-bae, Park Seok-won, and Kim Young-won. Originally known as Moon 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in 2010, the 1st Changwon Sculpture Biennale was held in 2012.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director Seo Sung-rok at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2, artwork of 20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of medium standing who were devoted to the genre of sculpture were set up at Dotseom Island, which is located in Hapcho-gu, Masan. This was the first biennale event that clearly showed the identity of Changwon. At the 2nd Changwon Sculpture Biennale, held in 2014, there were about 41 people (teams) from 11 Asian countries who participated, allowing diverse discussions to take place over sculptures that expanded generation and field. At the 3rd Changwon Sculpture Biennale held in 2016, a total of 118 people (teams) from 15 countries from all around the world were invited to represent modern sculpture and they all gathered in Changwon under the theme of 'Today's Modern Sculptures of the World'.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which celebrates its 4th year, will be held for 41 days, with the opening ceremony on September 4 (Tuesday) and ending on October 14 (Sunday). It will be hosted by Changwon City, organized by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and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held in different locations in Changwon, including Yongji Culture Park, Sungsan Art Hall, Changwon Munsin Museum of Art, and The House of Changwon. The theme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is 'The Balance of Non-Sculpting', which integrates 'The Aesthetics of Non-Sculpting' implied by Kim Jong-young's literati spirit and Moon Shin's world of symmetry, harmony and balance. As the representative project of this event, 'Yueoye Madang', which consists of permanently install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work mainly in Pojeongsa of Yongji Park, will be a sculpture park that communicates closely with the visitors. In the past sculpture parks kept visitors at a distance and made them worship sculptures like enshrined objects. However, 'Yueoye Dongsan' can refer to being a yard of art works that allow participation from visitors so that they can play with sculptures. To achieve this, artists made new attempts of reestablishing the art world with new concepts and formats. 'Playing with Artworks' is expected to be a project that will enhance the character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as an art form of citizen participation to attract attention.



## 2010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주제	'자연과 생명의 시메트리-에시메트리'
기간	2010.9.8-10.29
장소	추산공원 일대
기획총괄	김영호
제작지원 팀장	이병호
참여작가	피터버크, 로버트 모리스, 세키네 노부오, 데니스 오펜하임, 박종배, 박석원, 가와마타 타다시, 장-뤽 빌무스, 왕루옌, 쉬빙 (국내외 작가 10人)
주최	창원시
주관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 2010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Theme	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
Data	September 8, 2010-October 29
Venue	Chusan Park area
Curating Commissioner	Kim Young-ho
Production support team chief	Lee Byeong-ho
Participants	Peter Burke, Robert Morris, Sekine Nobuo, Dennis Oppenheim, Park Chong-bae, Park Suk-won, Kawamata Tadash, Jean-Luc, Vilmouth, Wang Luyan, Xu Bing
Host Supervision	Changwon City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executive committee

## 2010

## 2012 제1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주제	'꿈꾸는 섬'
기간	2012.10.26-11.25
장소	돌섬
예술감독	서성록
수석큐레이터	이대형
큐레이터	손다위, 권혜정, 허은빈, 함선미
참여작가	김병호, 김상균, 김영섭, 김주현, 김태수, 김항록, 노준, 서정국, 신치현, 안규철, 안병철, 정명교, 정현, 최태훈, 황영애, 제임스 홉킨스, 제임스 앵거스, 미셸 드 브로인, 카즈야 모리타, 데이비드 브룩스 (국내외 작가 20人)
주최	창원시
주관	2012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

##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2

Theme	Dreaming Island
Data	October 26th-November 25th 2012
Venue	Dotseom Island
Artistic Director Chief Curator	Seo Seong-Rok Lee Dae-Hyung
Curators	Son Da-Wi, Kwon Hye-Jung, Huh Eun-Bin, Ham Sun-Mi
Participants	Kim Byoung-Ho, Kim Sang-Gyun, Kim Young-Sup, Kim Joo-Hyun, Kim Tae-Sue, Kim Hwang-Rok, Noh Jun, Seo Jeong-Kug, Shin Chi-Hyun, Ahn Gyu-Chul, Ahn Byung-Chul, Jeong Myeong-Kyo, Chung Hyun, Choi Tae-Hoon, Hwang Young-Ae, James Hopkins(UK), James Angus(Australia), Michel de Broin (Canada), Kazuya Morita(Japan), David Brooks(US)
Host Supervision	Changwon City 2012 Changwon Sculpture Biennale committee

## 2012

## 2014 제2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주제	달그림자 月影
기간	2014.9.25-11.9
장소	돌섬, 마산중앙부두,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마산 원도심
예술감독	최태만
큐레이터	김지연
참여작가	강영민, 권민호, 김월식 + 무늬만 커뮤니티, 김형수, 나산콜렉티브, 뉴신신사진관, 헤리 도노, 도르지데렘 다바, 스펙콘 디살데폰드, 사라랍바, 리 짬양, 박경주, 박승모, 배달래, 샤르밀라 사만트, 아폴로코퍼레이션, 안테나, 함라 압바스, 옥정호, 아심 와키프, 왕중, 이원호, 이은우, 이장희, 인수지엔, 송동, 송얼루이, 임옥상, 송효상, 정만영, 정혜련, 조전환, 썬 르영, 차이 지송, 천경우, 천대광, 첸 칭 야오, 최한기, 쉬리아스 카를레, KKHH(강지윤+장근희), 안지나 코타마추, 키타가와 타카요시, 한원석, 허태원
주최	창원시
주관	2014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

##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Theme	The Shade of the Moon
Data	September 25th-November 9th 2014
Venue	Dotseom Island, Mai Dock of Masan Harbor, Moonshin Art Museum, Masan Old Town
Artistic Director Curator	Choi Tae Man Kim Jiyeon
Participants	Kang Youngmean, Minho Kwon, Kim Wolsik+ Seems Like Community, Kim Hyung Su, NewShinShin Sajinkwan, Heri Dono, Dorjderem Davaa, Suppakorn Disatapundhu, Sara Rahbar, Li Zhanyang, Park Kyongju, Park Seungmo, Bae Dallae, Sharmila Samant, APOLLO CORP., Antenna, Hamra Abbas, Oak Jung Ho, Asim Waqif, Wang Zhong, Lee Wonho, Lee Eunu, Lee Jung hee, Yin Xiuzhen, Song Dong, Song Errui, Lim Oksang, Seung Hyo-Sang, Jung Man-young, Jung Hye-ryun, Cho Jeon Hwan, Tran Luong, Cai Zhisong, Kyungwoo Chun, Chen Daigoang, Chen Ching Yao, Cui Xianj, Shreyas Karle, Anjana Kothamachu, Kitagawa Takayoshi, Han Wonsuk, Heo Taewon
Host Supervision	Changwon City 2014 Changwon Sculpture Biennale committee

## 2014

## 2016 제 3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주제	억조창생(億造創生)
기간	2016. 9. 22-10. 23
장소	용지호수공원, 성산아트홀,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예술감독	윤진섭
큐레이터	김수정
참여작가	총 15개국 118명/팀
주최	창원시
주관	2016창원조각비엔날레 위원회

##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6

Theme	Eok-Jo-Chang-Saeng (Numerous-Create-Generate-Life)
Period	2016.9.22-10.23
Venue	Yongji Lake Park, Sungsan Art Hall, Moonshin Museum of Art
Artistic Director Curator	Yoon Jin Sup Su Kim
Participants	118 Artists from 15 countries
Host Supervision	Changwon City 2016 Changwon Sculpture Biennale committee

## 2016

2008년 2월 26일, 문화공동체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출범한 창원문화재단은, 2010년 창원, 마산, 진해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된 이래로 시와 때를 달리하며 각 자의 매력과 모습으로 태어나 운영되던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문화의 주체인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화합하면서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특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창원문화재단의 이념의 중심엔 사람이 있습니다. 산과 들에 나무 열매와 풀씨가 떨어져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무성히 자라 도시에 문화의 향기를 드리듯 문화의 중심은 사람이며 문화의 향은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향내입니다.

예향의 도시, 문창의 고장인 창원은 민족의 노래 '고향의 봄'과 '가고파'를 탄생시킨 문향이며 현대조각의 선구자와 세계적인 조각가, 춤의 선각자들을 탄생시킨 뿌리 깊은 전통과 예술혼이 깃든 위대한 문화도시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창원문화재단은 전통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제, 창원문화재단은 문화를 선도하며 창원은 문화도시로 거듭나길 소원하면서 풍부한 문화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과 지역문화예술을 고양하는 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청소년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함양하는 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여건을 마련하는 일들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On February 26, 2008, the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was launched with ambitious dreams to build a cultural community. Since Changwon, Masan and Jinhae were integrated under the goal of becoming one city in 2010, Seongsan Art Hall, March 15 Art Center and Jinhae Cultural Center, that used to show off their attractions and appearance on their own, became one. Also, the foundation communicates, shares and harmonize with the citizens who are the subjects of culture, while striving to become a specialized cultural city filled with culture, freedom and creativity.

The philosophy of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is people-centered. Similar to how tree fruits and seed of grass in the mountains and fields fall down to shoot out buds and put down roots. These roots will grow wildly to bring the scent of culture to the city. The scent of culture is people-centered and the most beautiful scent that people can give out.

As the city of arts and home of culture, Changwon is a cultural city with a deep-rooted tradition and passionate soul for art where the folk songs 'Spring in My Home Town' and 'Going' were born, as well as home to the pioneers of modern sculpture, world-famous sculptors, and pioneers of dance. Based on these traditions, the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has been carrying out cultural policies that helped Changwon grow into a global cultural city.

Today, the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takes the lead in culture to help Changwon become a global cultural city through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establishing a network of abundant cultural resources, enhancing local cultural art,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the underprivileged to enjoy culture, fostering the creativity and sensitivity of young people, and creating an environment for the creative activities of artists.

# 작가 리스트

## Artist Lists

**Airan Kang**  
2017 Deoksugung Outdoor Project: Light Sound Landscap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A Truth, Promise for Peac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Seoul

2016 A Room of Her Own, Arco Art Center, Seoul New Romance: Art and Post Human: 2016 Korean-Australian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Australian Art Museum of Contemporary Art, Sydney, Australia  
2015 The Luminous Poem, Bryce Wolkowitz Gallery, New York  
2014 Book's Worry, Light's Comfort, Gallery Simon, Seoul

**Angelica Mesiti**  
2018 Relay League, Art Sonje Centre, Seoul  
2017 Mother Tongue: Aarhus 2017, European Capital of Culture commissioned project. Aarhus  
2016 Chantiers d'Europe: Utopie 500, Palais de Tokyo, Paris  
2015 The Colour of Saying, Anna Schwartz Gallery, Sydney  
2014 You Imagine What You Desire, 19th Biennale of Sydney, Sydney

**Asli SUNGU**  
2015 Weiss-Aspekte einer Farbe in Moderne und Gegenwart, Museum im Kulturspeicher Würzburg, Würzburg  
2014 Kunst in der Stadt, Gesellschaft für Kunst und Gestaltung, Bonn  
2013 Berlin Status 2, Künstlerhaus Bethanien, Berlin  
Four Sermons to the Dead, Pi Artworks, Istanbul  
2012 Move On Asia,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2011 3 Years Museum FLUXUS+ / 3 Years follow fluxus with Ben Petterson, Fluxus, Musuem Potsdam, Berlin

**Bae JongHeon**  
2018 疊疊山中 Cheop Cheop San Jung\_ Alone deep in the mountains, Paradise ZIP, Seoul  
2017 Family Report,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2016 Naissance, Daegu Art Museum, Daegu  
As the Moon waxes and wane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15 Korea Tomorrow, Sungkok Art Museum, Seoul

**Bongchae Son**  
2011 Diaspora,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Bamboo Grove and Wind, Daedam Museum, Damyang  
2010 The Sound of Water, Wind, Gallery Beacon, Seoul(12th solo exhibition)

NEO-SENSE-From Illusion to 3D,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DIGI-FESTA,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Gwangju

**Bonju Gu**  
2017 The 15th Anniversary Memorial Exhibition <Daddy's Home>, Arario Museum Dongmun Motel II, Jeju  
2013 The 10th Anniversary Memorial Exhibition <The Person Who Saved the World, Gu Bon-ju>, Sungkok Art Museum, Seoul  
2003 The 1st Anniversary Memorial Exhibition <Becomes a Star>, SAVINA Museum, Insa Art Center, Deokwon Gallery  
2002 <The Face of the Age: Father>, Hangaram Art Museum in Seoul Arts Center, Seoul, Gwangju Shinsegae Gallery, Gwangju  
1999 <Existence and Consciousness>, SAVINA Gallery, Wonseo Gallery, Seoul

**Carles Congost**  
2017 Present immediat, Centre Cultural Sa Nostra, Palma de Mallorca  
2016 Manifesta 11, Zurich  
2015 Not your own desire / The last days of disco, Espai Tactel, València  
2014 Languages and Aesthetics of Spanish Video Art: Ten Years of Critical Practices, Songwon Art Center, Seoul  
2012 Crossing East-West Narrative by The End of Video Art (2000-2011), Antiguo Edificio Tabacalera, Madrid

**Chaehyun Oh**  
2018 Odaesan Woljeongsa-Happy Buddha  
2017 Outdoor sculpture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2016 Seoul Arirang Festival Outdoor Sculpture Exhibition, Seoul Plaza Naraksil Gallery, Seoul  
2014 Keumsan Gallery, Seoul

**Chaewook Lim**  
2018 Insubong, Zaha Museum, Seoul  
Insubong, Geumboseong Art Center, Seoul  
2017 Drawing after Dreaming 新夢遊圖, Zaha Museum, Seoul  
2016 Interview Seoraksan, Ara Art Center, Seoul, Landscape, Danwon Art Museum, Ansan

**Changhwan Kim**  
2017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culpture Project S, Seoul Buk Seoul Museum of Art, Outdoor Sulpture Exhibition, Seoul  
2016 Christmas galleries at lee theatre, Hong Kong  
2015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Steel Art Festival Seoul Olympic Museum of Art, Mind of Emptiness, Seoul

**Chang Song**  
2018 66Years-Lyricism of the Korean Peninsula's Division, Gwang Museum of Art, Gwangju, Korea  
2017 Flower-Shade, Hakgojae Gallery, Seoul, Korea  
Contemporary Issue - Division, SONG Chang: Forgotten Scape, Seongnam Arts Center, Seongnam, Korea  
2011 Landscape The Day After, Insa Art Center, Seoul; Namu Artist's Space, Seoul, Korea  
2010 Silence, Namu Artist's Space, Seoul, Korea

**Chulhee Yi**  
2016 10th solo exhibition(Imperial Palace Hotel)  
2014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2014 in Seoul (Hangaram Art Museum in Seoul Arts Center)  
2013 Invitation exhibition, Yangpyeong Art Museum(D-dementia2013,10)  
2012 9th solo exhibition(Hangaram Art Museum in Seoul Arts Center)  
In commemoration of opening Cheonan Arts Center(2012 Cheonan Art Museum in Cheonan Arts Center)

**Chunghyung Lee**  
2018 The Dictionary of Evil,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Gangneung  
Hidden Grid, Out-sight, Seoul  
2017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Sound Effects Seoul, Arko Art Center, Seoul  
2016 Korea Tomorrow, Sungkok Museum of Art, Seoul  
The Site Before Your Eyes, SongEun ArtCube, Seoul  
2015 Fine Works, Willing and Dealing, Seoul  
Diversity of Ddemocracy and Artistic Imagination for the Public in Asia, ACC, Gwangju  
2014 Amado Annual "on-going", Amado art space, Seoul

**Chungyoon Kim**  
2016 Gallery Arte, NYC  
2004 Minif, Seoul Art Center, Seoul, Korea  
2002 Minif, Seoul Art Center, Seoul, Korea  
2001 Tenri Gallery, NYC  
1997 Gallery Ami, Seoul, Korea

**Cui Xiuwen**  
2014 Reincarnation, Shanghai Gallery of Art, Shanghai, China  
The Love of Soul, Today Art Museum, Beijing, China  
Digital Triangle: Media Art Today

in Korea China Japan,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Korea  
2013 I U -You and Me, Suzhou Art Museum, Suzhou, China  
2012 Restart: Cui Xiuwen and Miao Xiaochun Dual-Video Exhibition, Eli Klein Fine Art Gallery, New York, USA

**Dooyoung Jang**  
2018 Preliminary exhibition of Changwon Biennale, Yongji Cultural Park, Changwon, Korea  
INTERCHANGE Korea-China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Jo Hyun Wook Art Hall, Changwon University, Changwon, Korea  
2017 Art Rainbow 2017,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Jeju Biennale, Jeju Art Museum Plaza, Jeju, Korea  
We Play, 3.15 Art Center, Changwon, Korea

**Gangseok Lee**  
First Prize at the 5th Gyeongnam Fine Art Exhibition  
Bronze Prize at the 1st and 3rd Gyeongnam Fine Art Exhibitions  
Accepted for the 3rd, 5th, 10th and 19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Invited to the 38th Gyeongnam Fine Art Exhibition  
Four sculptures exhibition/ Changwon Moonshin Museum of Art

**Goam Jung**  
2018 Korean Cultural Center Shanghai, China  
2016 Korean Cultural Center Brussels, Belgium  
2013-14 Representative artist in Istanbul Art Fair(invitee of AnB Gallery)  
2015 New Year Event by the Korea Government (the Blue House) stage work Yangpyeong-gun art museum  
2014 The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 Hangu Proclamation day stage design

**Heungsoon Lim**  
2018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Korea  
2017 2 or 3 Tiger, HKW(Haus der Kulturen der Welt), Berlin, Germany  
MMCA Hyundai Motor Series 2017: IM Heung-soon  
2016 Taipei Biennale, Taipei fine arts Museum, Taipei, Taiwan  
2015 Reincarnation, MoMA PS1, New York, US

**Hwankwon Yi**  
2017 Encounter, Gallery Yeh, Seoul  
2016 Yi Hwan Kwon's Solo Exhibition SIGHT LINES, CMay Gallery & West Hollywood Park, LA  
2015-Out Door Solo Exhibition 'My Migrant Neighbors, Seoul City Hall Plaza, Seoul  
2015 Out Door Solo Exhibition 'The Village' Naksan space, Seoul  
The Wolf And the Tiger, Scultura Italiana e Coreana, Museo della Permanente, Milano

**Ingon Back**  
2013 Twenty Artists of Contemporary Art, Daesan Art Museum, Changwon  
2013 Tongyeong Art Fair, Culture & ArtsCenter, Tongyeong  
2006 Daegu Youth Biennale, Culture & Arts Center, Daegu  
2005 Busan Sculpture Festival, Culture & Arts Center, Busan  
2005 Asian Art Festival, Sejong Art Center, Seoul

**Jaihyoung Hwang**  
2017-18 Invitational Exhibition-One Hundred Thousand Hairs, Gana Art Center, Seoul  
2017 The 1st Park Soo-Keun Art Award Winner's Exhibition, Park Soo-Keun Museum of Art, Yanggu, Korea ; DDP Gallery Mun, Seoul  
2013 Invitational Exhibition-The Wrinkles of Life, the Weight of Sweat,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2013 Invitational Exhibition-The Wrinkles of Life, the Weight of Sweat, Jeonbuk Museum of Art, Wanju  
2010-11 Invitational Exhibition-Dirt to Grasp and Land to Lie on, Gana Art Center, New York, USA

**Joonkwon Kim**  
2017 From Torch to Candlelight, Jeju Museum of Art, Jeju, Korea  
2015 Print Collection - Reflecting the Times, Buk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4 Kim, JOON-KWON 1985-2014 Woodblock Prints Exhibition Seoul, Korea  
2013 Kim, JOON-KWON Woodblock Prints Solo Exhibition Palais de SEOUL seoul, Korea  
2012 Kim, JOON-KWON Woodblock Prints Solo Exhibition, INSA Gana art-center Seoul, Korea

**Joowon Lee**  
2018 From Jeondeungsa (Indipress Gallery, Seoul)  
Mentor-Mentee (Hanwon Museum, Seoul)  
2017 The 16th Solo Exhibition (Insa Art Space, Seoul)  
Korean Painting - Throw out the Basic (Fill Gallery, Seoul)  
Mentor-Mentee (Hanwon Museum, Seoul)

**Junggyo Lee**  
2017 Absolute Correspondances, Gallery O  
Solo invitation exhibition Visual DiaGRAM, Gallery-O  
2016 PyeongChang Olympics, Media art, selected artist, MCST(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Future + Art 美, Gallery Toast  
2012 Equivalent, HoMA

**Junghee Sohn**  
2018 One & All, Mac-Art Museum, Gyeonggi-do, Korea  
Les autresLangues-Exposition special de la Coree de la Biennale de Dakar, Dakar, Senegal  
Resonant, SpaceD9, Seoul, Korea

2017 The Sound of Nature, JIAF, Hadong and Seoul Arts Center  
2016 Hybridizing Earth, Discussing Multitude, Busan Biennale Project 2, Busan, Korea

**Kijong Zin**  
2017 The 17th Songeun Art Awards Exhibition, Seoul,Korea  
CRACKS in the Concret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s. Seoul,Korea  
The Five moons : Return of the Nameless and Unknown Pyung Chang Biennale, Gangneung, Korea  
2015 <Atheism Report> Gallery HYUNDAI, Seoul,Korea  
2014 THE FUTURE IS NOW MAXXI National Museum of XXI Century Arts, Rome,Italy

**Krzysztof Edward Szymanowicz**  
2016 Smol Form Graphics, Museum Karkonoskie w Jeleniej Górze, Poland 2016  
2015 Exhibition"ENGRAMY", Gallery 144 grafiki, Academy of Fine Arts in Łódź  
2014 Exhibition "Souvenirs" in Castello Chiarmontano Piazza Umberto, Racalmuto, Scyllia  
2012 Exhibition "Linocuts", The Museum of Modern Art, Saitama, Japan  
2011 Gallery Maniere Noire in Berlin

**Kura Yang**  
2018 Ecological art-plastic organisms,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 Korea  
2017 The solar Panel art Series, DEENA Zukunftsforum, Kassel, Germany  
Forgotten messenger, Space Union, Seoul, Korea  
APT-Itan, Peace Culture Bunker, Seoul, Korea  
2014 Walking on the street, the human, toast gallery, Seoul, Korea

**Kwanghwa Chung**  
2018 Pieces made by water, Art space Plaque, Seoul  
6th Tomorrow sculpture award, Museum of Sichuan fine arts institute, Chongqing, China  
2017 The shadow of a fog, Pont des arts gallery, Seoul  
2016 Uncertainty, connection and coexistence, Suwon ipark museum of art, Suwon  
2015 The passage of time, cian art museum, Youngchun

**Kyoungsun Jun**  
2018 Lighthouse, ARTWA, Seoul, Korea  
CAN ART GO TOO FAR, Hua Cui Art Center, Shanghai, China  
2017 multi, One East Asia, Singapore  
2015 Reillumination, space in art, New York, USA  
2014 The 17th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Icheon, Seolbong Park, Icheon, Korea

**Leenam Lee**  
2018 Inter-Korean summit exhibition, Korea Media Art Exhibition for NAM JUNE PAIK&LEENAM LEE, KAIST, Korea  
2017 Homage or Options space, Russia Cyberfest, St. Petersburg, Russia  
2016 BILL VIOLA, LEE LEE NAM, Sint-Jacobskerk, Gent, België  
2015 Personal Structures—Crossing Borders, Palazzo Mora, Venice

**Liao Chi-Yu**  
2017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2017 Treasure Hill Light Festival, Treasure Hill, Taipei  
2016 KUSO Project, Donna Beam Fine Art Gallery,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2015 Sanssouci Park - LIAO Chi-Yu Solo Exhibition, am space, Hong Kong MimiLucy - BACK TO LIFE, Chini Gallery, Taipei, Taiwan  
2013 Illuminations, Taiwanese Media Art Exhibition,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Singapore, Singapore  
2012 Tokyo Frontline, 3331 Arts Chiyoda, Tokyo  
Miss Farewell—LIAO Chi-Yu Solo Exhibition, VT ARTSALON, Taipei

**MA Qiusha**  
2016 Ma Qiusha: Wonderland, Beijing Commune, Beijing  
2015 On Curbstone Jewels and Cobblestones, Daimler Contemporary, Berlin  
Global Control and Censorship, ZKM, Karlsruhe  
2014 A Time for Dreams—Moscow International Biennale for Young Art, The Museum of Moscow, Moscow  
2013 Move on Asia, Video Art in Asia 2002 to 2012, ZKM, Karlsruhe  
2011 Curated by Song Dong-Ma Qiusha: Address,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 Beijing

**Marko Schiefelbein**  
2016 Transart Triennale 2016, Berlin  
2015 61th Internationale Kurzfilmtage Oberhausen, Oberhausen  
2014 Colombo Art Biennale 2014, Colombo  
2013 Seoul New Media Art Festival 2013, Seoul  
2012 Rencontres Internationales Paris/Berlin/Madrid, Palais de Tokyo, Paris

**Miao Xiaochun**  
2018 Art in Motion. 100 Masterpieces with and through Media. An Operative Canon, ZKM, Karlsruhe, Germany  
Open Source-First Shenzhen Biennale, Luohu Art Museum, Shenzhen, China  
2016 Metamorphosis, Klein Sun Gallery, New York, USA  
Echo, Galerie Paris-Beijing, Paris, France  
2015 Miao Xiaochun 2015, Art Museum of Nanjing University of the Arts, Nanjing, China

**Minjung Kim**  
2018 The Memory of Process, White Cube, London, UK  
Gwangju Biennale, Gwangju, Korea

2017 Cendre& Lumière: Œuvres de Minjung Kim, Musée des Arts asiatiques, Conseil Départemental 06, Nice, France  
Oneness, Hermès Foundation, Singapore  
2015 The Light, The Shade, The Depth, Luxembourg & Dayan, Palazzo Caboto, Venezia, Italy (curated by Jean-Christophe Ammann)

**Mircia Dumitrescu**  
2017 Prize of the Culture Ministry of Romania for his whole artistic activity  
Prize of the Jurors - Romanian Artists Union,  
2015 Aegyssus - Honorary Diploma, Tulcea County, Romania  
2012 "Omnia Opera" Award, "Nichita Stănescu" International Poetry Festival, XVIth Edition, Prahova County Council.  
2011 Award for excellence for 2010, for the quality of his graphic design and contribution to the facsimile of the Eminescu manuscripts, National Foundation for Science and Art

**Moha Ahn**  
2015 Busan Museum of Art, Busan, South Korea  
2013 Emirates Palace Gallery, Abu Dhabi, UAE  
2010 Hakgojae, Gallery, Seoul, South Korea  
2007 Bundo Gallery, Daegu, South Korea  
2006 Kongkan Gallery, Busan, South Korea

**Oksang Lim**  
2017 The Wind Rises, CMAY Gallery, LA Korea Tomorrow : Narrative Landscape, Sungkok Art Museum, Seoul  
The Portrait of Youth, National Museum of Korea Contemporary History, Seoul  
2016 Eye and Mind of Korean Contemporary Art II : Reinstatement of Realism, Gannainsa Art Center, Seoul  
2015 PLASTIC MYTH,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Paul chaleff**  
2017 108 CONTEMPORARY, Living with Art-The Newman Collection\_Curated by Holbrook Lawson, Tulsa, Oklahoma  
2016 DIANA FELBER GALLERY, Inaugural Exhibition, West Stockbridge, MA  
RE INSTITUTE, Chaleff Tablets and Sculpture, Boston Corners, NY  
2015 ARMORY ART CENTER, Ceramic Mind Field-Contemporary Clay and Ceramics\_Curated by Peter Callas, West Palm Beach, FL  
2013 KATONAH MUSEUM, Duolith and Three Tablets, Katonah, NY

**Seonwung Hong**  
2018 East Asian Peace and Human Rights Exhibition to commemorate 70th anniversary of Jeju uprising- From Silence to Shouting, Jeju 4.3 Peace Memorial Hall  
2014-17 The 3-6th Ulsan International Woodcut Print Art Festival,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16 Coastline where art blooms, Jaharu Museum  
2015 Eight Views and Nine-Bend Streams of Gyeonggi,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2013 3rd Incheon Peace Art Project <INTERVIEW: 525,600 Hours of Baengnyeong-do>, Incheon Art Platform

**Seungku Han**  
2018 Gyeonggi 1000 Years Meet the Media, Gyeonggi Provincial Museum, Gyeonggi  
Watt Supporters, Art Space Watt, Seoul  
Pyeongchang:Peace Over Window, Low temperature warehouse, Pyeongchang  
2017 Weird Machines, Suwon Art Center, Suwon  
2016 The Secret Garden, Seoul Museum, Seoul

**Seungsoo Baek**  
2018 URIPanning Exhibition, Galerie-Librairie IMPRESSIONS, Paris  
7e REGARDS CRIOSSES, Space La Ville Des Arts, Paris  
2017 Exposition Futuring Night, Space Cinko, Paris  
Festival Korea Live, Salt Warehouse, Honfleur, France  
2016 LE DESSIN A DESSIN, Korean Culture Center in France, Paris  
2014 NOS PLUS BELLES ANNEES, Korean Culture Center, Paris, France  
4e REGARDS CRIOSSES, Atelier Gustave, Paris  
2013 EXPOSITION DU TREMTIEME ANNIVERSAIRE DE L'AJAC: Exhibition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French Young Artists Association, Galerie cité des Arts, Paris

**Songjoon Han**  
2018 Empty into, art space 128, Daejeon  
'New Dimension' duo exhibition, Kara's Gallery, Seoul  
2016 ShillaGwang, Gyeongju Expo  
2008 Facet of my mind, Art Space H  
2008 Facet of my mind II, Gallery Topohaus, Seoul

**Sook Jin Jo**  
2018 Shanghai Black, Black & White Project Space, Brooklyn, New York  
Rebirth, Asian Art Works, Beijing, China  
2016 Earth and Sky: Captured Movement, Charles B. Wang Center, Stony Brook University, New York  
2015 Sook Jin Jo; Transformations, Bannister gallery, Rhode Island  
2015 College, Providence  
2012 Paper Collages, Raum für Kunst und Literatur, Basel, Switzerland

**Soonkyung Oh**  
Kyung-in Museum of Fine Art  
Gana Art Gallery  
Insa Art Center  
Hyundai H Gallery  
Seoul Museum Invitation Exhibition

**Taebum Ha**  
2018 NOwar, Hello Museum, Seoul  
2017 Ambivalence-DaeripeuiGongjon, Art Space Watt, Seoul  
Meta-scape, Wooya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ju  
2016 White-Ha Tae-Bum solo exhibition, LEEAHN Gallery, Seoul  
Daegu Photo Biennale, Daegu Arts Center, Daegu

**Taeun Kim**  
2018 Year of Zayed Invitational Exhibition, Abu Dhabi, UAE.  
2017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Moving Forward, Albany Barn Art Center, New York  
2016 'Moon of Salt and light', CRS Center, New York, U.S.A  
2011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Australia Diplomatic Ties, Korea Foundation, Seoul  
'Kimchi-Sensation', TAP Gallery, Sydney, Australia

**Wim Delvoye**  
2018 Wim Delvoye, Hyundai Gallery, Seoul  
Wim Delvoye, Tatintian Gallery, Moscow  
2017 Wim Delvoye, Musée Tinguely, Basel  
Wim Delvoye, Galerie Perrotin, New York  
2016 Wim Delvoye, Tehr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Iran

**Wolfgang Stiller**  
Tändstickmuseum, Janköpping, Sweden  
MarkHachem gallery, Beirut, Lebanon  
YeniCami, former archeological museum (Dimitria festival Greece), Thessaloniki, Greece  
Art Issue Projects, Taipei, Taiwan  
Voss Kunsttag - Banksmidja, Voss, Norway

**Wonbae Oh**  
2017 OCI Museum of Art, Seoul, Korea  
CRACKS in the Concret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Korea Tomorrow 2017,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2016 Land of Happiness,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5 Untitle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Wong Ping**  
2018 Move on Asia 2018, Art Space Loop, Seoul  
One Hand Clapping, Solomom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XO State Dark: Aristophanes, Arts Centre Melbourne, Melbourne  
2017 All-Licensed Fool: Animations by Allison Schulnik and Wong Ping, Madison  
Museum of Contemporary Art, Madison  
2015 Jungle of Desire, Things that can happen, Hong Kong  
2014 Foo Tak Quartet: Artists Work Showcase, Art and Culture Outreach, Hong Kong

**Woolga Choi**  
2018 Gallery Art Mora Group Show(New Jersey)  
2017 I NTERNATIONAL ART FAIR 2017 KOREA "Art Mora" (Busan)  
2016 "PRESENT" Art Mora (New-York) Exhibition Gallery Mora (New-York) Exhibition Spaces of Publication gallery seohwa(seoul)

**Yongsun Suh**  
2018 Suh Yongsun: City and History of The Landscape, MK Gallery, Vienna, USA  
We the People, Ozaneaux Art Space, New York  
From Vietnam to Berlin, Asia Culture Center, Gwangju  
2017 37 rue de Montreuil Paris-222 main Street New Jersey, Galerie La Ville A des Arts, Paris  
Drawn by Thought-Suh Yongsun,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Youngee Yoon**  
2017 The Korean Folk Painting Exhibition, Gallery MisulSegye  
Held the Socheon Yoon Young-Hee Solo Exhibition, Haenggung-dong Gallery of Suwon  
Special exhibition to celebrate the opening of Osaka Gallery, Japan  
The Korea-Italy Milan Exhibition, Milan  
2016 Won the Top Prize at the Modern Minhwa Contest for the 2nd Daegal Cultural Festival, Insa Gana Art Center

**Youngho Kim**  
2017 Private Exhibition, Changwon University Cho Hyun Wook Gallery, Changwon  
Soo Sculpture Society, Sungsan Art Hall, Changwon  
Gyeongnam Art Exhibition, Gyeongnam Art Museum  
Gyeongnam Art Fair, CECO  
Changwon Exhibition Convention Center, Changwon  
International Art Fair, Conventional Hall, Guangzhou, China

**Youngeok Yoon**  
2016 Exposed Concrete, JCC museum Seoul  
2015 Woosung Kimjongyoung 100th anniversary, Kimjongyoung Museum Seoul, Changwon municipal museum, Changwon, Korea  
2014 'KSANA' Allen Priebe gallery, Wisconsin  
2013 Datong international sculpture biennial, Datong

**Yongsun Lim**  
2018 SNU Villa D'art Festival 2018, Hangaram Museum of Art in Seoul Arts Center  
10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University of Seoul, University of Seoul  
Gyunyool,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Gwacheon 2005 Stux Gallery, New York, USA  
2017 The University of Wyoming Art Museum, Wyoming, USA  
2002 Ilmin Museum of Art, Seoul  
2000

**Yongsun Park**  
Award-winner at the Yokohama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Japan  
Gyeongnam Art Exhibition, (2 Special Selections, Excellence Prize, First Priz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accepted 5 times)  
Special Selection at Joongang Art Exhibition

**Yuan Keru**  
2018 Pooling Pixelated Dream, Tank Shanghai, Shanghai  
2017 Los Angeles Chinese Film Festival 2017, Los Angeles  
2016 The Symposium, UCCA, Beijing  
Winter Discovery 2015, A Thousand Plateaus Art Space, Chengdu  
2015 I SEE International Video Art Festival, The Momentum Gallery, Berlin  
2014 Restless Heart Syndrome, 1 Space, Hangzhou

**Yura Lee**  
2018 Changwon Asian Art Festival, Seongsan Art Hall, Changwon  
2018 Holiday, Cloud Art Hall, Changwon  
2017 Open Jeongsu Art Village, Gallery Art World, Seoul, Moon Hee Jung Art Hall, Jinju  
2017 Live Life Exhibition, Namhaebaregil Small Art Museum, Namhae  
2016 Seventh Changwon young Artists Invitation Exhibition, 3.15art Center, Changwon

**Yuriko Sasaoka**  
2018 Art Scramble, Ume-kita SHIP hall/Grand Front Osaka, Osaka  
2017 Japedonia, N's Art Gallery, Osaka  
The 13th Gunma Biennale for Young Artist, the Museum of Modern Art, Gunma  
2016 Icarus's Bride, Gallery Jin Projects, Tokyo  
Setouchi Triennale 2016, Shodoshima, Kagawa  
2015 The 18th Japan Media Arts Festival, the National Art Center, Tokyo  
2014 Anima, Doujidai Gallery of Art, Kyoto

**Zongde An**  
2018 DIX, Galerie Patricia Dorfmann, Paris, France  
For Pyeongchang Olympic games, Hongik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17 Zongde AN, Youngnam Park, Gallery Pearl Lam, HongKong  
2016 The Real, Gana Art Center, Seoul, Korea  
2014 Gana Insa Art Center, Seoul, Korea

##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불각의 균형

2018년 9월 4일 -  
10월 14일 (41일간)

웅지공원(포정사), 성산아트홀,  
문신미술관, 창원의집,  
창원역사민속관

주최  
창원시

주관  
창원문화재단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현대 B&G스틸

협력  
김종영미술관, 대안공간 루프,  
국립창원대학교, 뉴욕 김포재단,  
마산시립문신미술관, 조선대학교 미술관,  
한국현대미술사학회, 한국큐레이터협회,  
(주)비채, (주)아이에스피 테크,  
(주)디엠에프 디자인 스튜디오,  
디자인 감

###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허선도
위원	김경희, 김이순, 김홍진, 문인수, 이상현, 박점영, 김경희, 윤진섭, 정현, 정종호, 천원식, 최대식, 최태만, 황무현
명예위원	김상문, 김영원, 박석원

### 전시기획

총감독	윤범모
큐레이터	임수미
코디네이터	남효진, 권영이
특별전 큐레이터	박춘호, 임수미, 이정아, Odelete Cho

###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단

단장	곽성훈
전시팀 차장	김여광
전시팀 대리	조수경
지방행정주사	이동근

###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단

강운성, 구수진, 권나윤, 권민지, 권영대,  
김다은, 김다희, 김성주, 김수현, 김은성,  
김정삼, 김준희, 김중원, 김채영, 김태영,  
김태희, 목예진, 박다혜, 박삼철, 박성하,  
박세연, 박은정, 박임순, 박주영, 박지민,  
백채림, 서영교, 서채리, 손소빈, 송순남,  
안소연, 안소현, 윤지수, 이경민, 이선하,  
이수빈, 이슬비, 이승연, 이승준, 이유경,  
이정민, 이종수, 이주은, 이지원, 이형동,  
이혜림, 장장목, 정소희, 정진우, 정혜린,  
조수하, 조연희, 조해윤, 조해숙, 조효승,  
지강원, 지유동, 차금선, 최민주, 최정빈,  
최지윤, 홍미옥

### 학술 대회1

코디네이터 기획 참여	권영이 김재환 강수정, 기혜경, 김동규, 김준기, 김윤환, 박찬국, 박찬남, 성춘석, 정필주, 양원모, 이경복, 이수진, 이영준, 성춘석, 최범, 황무현
-------------------	--

### 학술 대회2

코디네이터 기획 참여	남효진 홍지석 권행가, 김정선, 김소연, 김이순, 박효진, 이애선, 장원, 최철철, 최태만
-------------------	--

### 토요담론

진행 참여작가 및 기획자	윤범모, 임수미 강애란, 김태은, 서용선, 윤영석, 이아남, 이정교, 임영선, 임옥상, 임채욱, 안종연, 정고암, 정광화, 박춘호, 홍선웅
---------------------	--

### 아티스트 워크숍

참여작가	박도현, 이유라, 정진경
------	---------------

### 사전행사

전초전 감독 참여작가	최승준, 김홍진, 김원화 김동영, 김미래, 김예린, 노인우, 박진영, 성홍주, 오미술, 이주영, 이혜민, 임수민, 장건울, 장두영, 천유민, 최연정, 한도경, 한민정
----------------	--

### 도시예술산책

참여교수 문화기획자	황무현 김나리, 김미정
---------------	-----------------

### 플랫폼\_대학연계 프로그램 (국립창원대학교 예술대학)

참여교수 참여작가	김홍진, 이문호, 이병훈 강창호, 김동영, 김영호, 김희웅, 문병철, 박도현,
--------------	---

박환웅, 백초희, 변공규,  
변지우, 이민지, 정소명,  
정유나, 정욱, 정치성,  
조의진, 최리, 탁두영,  
탁영우, 황수진

### 개막식

이반퍼포먼스+서운암 천연염색반  
이반  
정기정, 심성보(총패랑)  
박단아, 정유진(Banez)  
서운암천연염색반

### 전시

수석큐레이터 전시지원팀장 코디네이터	임수미 이병호 정욱, 권영이, 남효진
---------------------------	----------------------------

### 홍보

김용건, 조수경, 이동근, 김태준  
김여광, 손지영, 지미영

### 도슨트지원

임수미큐레이터  
김찬용해설사  
조수경, 김용건

### 자원봉사

조혜숙, 강병일, 김문정, 정선우, 최영근,  
이유경, 이미소, 유지은, 이민진, 황솔지,  
고미경, 구자현, 권영대, 김미진, 김성곤,  
목예진, 박서영, 백준은, 송정민, 오정우,  
최민서, 추명옥, 최향선

### 작품운송

솔로몬아트, 아트플러스

### 전시장 인터리어 이젠

### 영상제작 유프레임

### 영상제작 및 홍보지원

조연심 / 브랜드뮤우(BRAND MU) 대표  
김주리 / Chef Director  
하정연 / Contents Director  
최유정 / Brand Concept Designer  
심하은 / Intern  
김진향 / SNS 라이브 방송 진행 MC  
이준호 / 사진작가  
조대완 / 영상작가

### 도움주신 분들

마산시립 문신미술관 최성숙 명예관장,  
김종영 미술관 학예실장 박춘호,  
김종영 유족 김익태,  
백남준아트센터 서진석센터장,  
마산시립 문신미술관 학예연구원 박효진,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원 김재환,  
한국큐레이터협회 회장 박찬남,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조은정,  
루마니아 국립 부카레스트 예술대학  
교수 오르반 안나, 마이클 브라이언 필즈,  
제피어스(주) 박기홍, 채호진, 이계수,  
한빛나, 김나영, 김아란

### 사진

강민제

### 옥외 홍보물 및 아트상품 인쇄

고은인쇄사, 동성산업,  
동아백마광고산업, 윤앤수문화사,  
남성출판, 마이스 퍼플

### 발행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 발행처 (재)창원문화재단

### 발행일 2018. 9. 4.

편집  
편집진행

임수미  
권영이, 남효진

번역  
그린서비스  
이충섭

영어감수  
마이클 브라이언 필즈

디자인  
청춘 Chung-Choon.kr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The Balance of Non-Sculpting**

4th of September, 2018 – 14th of October (41days)

Yongji park(Pojeongsa), Sungsan Arthall, Moonshin art museum, House of Changwon, Changwon History&Folklore Museum

**Organizer**  
City of Changwon

**Supervision**  
Changwon Culture Foundation  
Changwon Sculpture Biennale Committee

**Suppor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yundai B&G Steel

**Cooperation**  
KIM Chongyung Museum, Gallery Loop, National Changwon university, Kimpo foundation in NY, MOONSHIN MUSEU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rt Museum in Chosun univercity, KAHOMA(Korea Association for History Of Modern Art), (KorCA)Korea Curator's Association, Biche Corp., ISP TECH, DNF DESIGN STUDIO, DESIGN GAM

**Promotion Committee**

Vice Chairman Seondo Heo  
Member Yisoon Kim, Hongjin Kim, Insoo Moon, Sangheon Lee, Jeomyoung Pack, Gyeonghee Kim, Jinsup Yoon, Hyeon Jeong, Jonghyo Jeong, Wonsik Cheon, Daesig Choi, Taeman Choi, Muhyeon Hwang  
Honor number Sangmun Kim, Youngwon Kim, Sukwon Pack

**Exhibition Department**

Director Bummo Youn  
Chief Curator Soomi Lim  
Coordinator Hyojin Nam, Youngyi Kweon  
Guest Curator Chunho Pack, Jungah Lee, Odelete Cho

**Changwon Sculpture Biennale Committee**

Head of the committee Sunghun Kwak  
Senior head Yeogwang Kim  
Asst manager Sookyong Jo  
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r Donggeun Lee

**Docent & Staff**

Kang Yoonseong, Gu Sujin, Kwon Nayoon, Kwon Minji, Kwon Youngdae, Kim Daeun, Kim Dahee, Kim Seongju, Kim Soohyun, Kim Eunseong, Kim Jeongsam, Kim Junhee, Kim Joongwon, Kim Chaeyoung, Kim Taeyoung, Kim Taehee, Mok Yejin, Bak Dahye, Park Samcheol, Park Sungha, Park Seyeon, Park Eunjeong, Pak Yimsoon, Park Juyoung, Park Jimin, Baek Chaerim, Seo Younggyo, Seo Chaeri, Son Sobin, Song Soonnam, An Soyeon, Ahn Sohyeon, Yoon Jisu, Lee Gyeongmin, Lee Sunha, Lee Subin, Lee Seulbi, Lee Seungyon, Lee Seungjun, Lee Yugyeong, Lee Jeongmin, Lee Jongsu, Lee Jueun, Lee Jiwon, Lee Hyeong Dong, Lee Hyerim, Jang Jangmok, Jeong So hee, Jeong Jinwoo, Jung Hyerin, Jo Suha, Jo Yeonhee, Jo Haeyoun, Jo Hyesook, Jo Hyosong, Ji Kangwon, Ji Yu dong, Cha Kumsun, Choi Minju, Choi Jeongbhin, Choi Jiyhun, Hong Miod

**Academic Conference1**

Coordinator Youngyi Kweon  
Promoter Jaehwan Kim  
Participant Soojeong Kang, Hyegyong Ki, Donggyu Kim, jungi Kim, Younhwan Kim, Changguk Pack, Cheonnam Pack, Chunsoeck Seong, Pilju Jeong, Wonmo Yang, Gyeongbuk Lee, Sujin Lee, youngjun Lee, Chunsoeck Sung, Beom Choi, Muhyeon Hwang

**Academic Conference2**

Coordinator Hyojin Nam  
Promoter Jiseock Hong  
Participant Haengga Gwon, Jeongsun Kim, Soyeon Kim, Yisoon Kim, Hyojin Pack, Aesun Lee, Won Jang, Jongcheol Choi, Taeman Choi

**Artist Talk**

Promoter Bummo Youn, Soomi Lim

Artists Airan Kang, Taeun Kim, Yongsun Seo, Yeoungsoeck Youn, Leenam Lee, Jeonggyo Lee, Yeongsun Lim, Oksank Lim, Chaek Lim, Jongyeon An, Goam Jeong, Gwanghwa Jeong, Chunho Pack, Sungung Pack, Sunung Hong

**Artist Workshop**

Artists Dohyun Pak, Yura Lee, Jinkyung Chong

**Pre-Program**

Director Seungjun Choi, Hongjin Kim, Wonhwa kim

Artists Dongyeong Kim, Dooyeong Jang, Juyoung Lee, Misol Oh, Mirae Kim, Yerim Kim, Geonyul Jang, Jinyoung Park, Hyemin Lee, Soomin Im, Hongju Sung, Yoomin Cheon, Yeongjung Choi, Dogyeong Han, Minjeong Han

**Art walk around the city**

Professor Moohyun Hwang  
Planner Nari Kim, Mijeong Kim

**Platform-Part of University**

(College of Arts, National Changwon University)

Professor Hongjin Kim, Monho Lee, Byungho Lee

Artists Changho Kang, Dongyoung Kim, Youngho Kim, Hweung Kim, Byeongchurl

Moon, Dohyun Park, Hwanwoong Park, Chojee Baek, Gonggyu Byeon, Jioo Byeon, Minji Lee, Somyeong Jeong, Yuna Jeong, Uk Jung, chiseong Jeong, Eugene Joo, Ly Choi, Dooyeong Tack, Soojin Hwang

**Opening Ceremony**

Leevan Performance+Seounam natural dyeing team  
Leevan  
Jung Ki Jung, Sim Soung Bo  
Park Dan Ah, Chung You Jin(Banez)  
Seounam natural dyeing team

**Exhibition Support**

Chief Curator Soomi Lim  
Exhibition Supporting Team Leader Byeongho Lee  
Coordinators Youngyi Kweon, Hyojin Nam, Uk Jung

**PR Support**

Yonggeon Kim, Sookyong Jo, Donggeun Lee, Taejun Kim, Yeogwang Kim, Jiyoung Son, Miyoung Ji

**Docents**

Yonggeon Kim, Sookyong Jo, Chanyong Kim, Soomi Lim

**Volunteers**

Hyesook Jo, Byungil Kang, Munjeong Kim, Seonwoo Jeong, Younggeun Choi, Yookyung Lee, Miso Lee, Jieun Yoo, Minjin Lee, Solgi Hwang, Mikyung Ko, Jahyeon Gu, Youngdae Kwon, Mijin Kim, Seonggon Kim, Yejin Mok, Seoyoung Park, Juneun Baek, Jeongmin Song, Jeongwoo Oh, Minseo Choi, Myungok Chu, Hyangseon Choi

**Transportation**

Solomon Art, Art plus

**Construction**

EZEN Marketing&Design

**Image Production**

U Frame co., Ltd

**Video production and PR support**

Cho Yeon Sim / CEO  
Kim Juri / Chief Director  
Ha Jeong Yeon / Contents Director  
Choi Yu Jeong / Bramd Contents Designer  
Sim Ha Eun / Intern  
Kim Jin Hyang / MC  
Lee Jun Ho / Photographer  
Cho Dae Wan / Video Director

**Special Thanks to**

Honorary Director Sungsook Choi, Changwon Moonshin Museum of Art / The Chief Curator Choonho Park, KIM CHONG YUNG MUSEUM / Iktae Kim, A family of Kim Chongyung/ Jinsuk Suh, Director of NAM JUNE PAIK ART CENTER / Curator Hyojin Park, Changwon Moonshin Museum of Art / Curator Jaehwan Kim, Gyeongnam Art Museum / President Tcheonnahm Park, Korea Curator's Association / President Eunjung Cho, Association of Korean Modern&Contemporary Art History / Orban Anna-Maria, Lector univ. dr.,PhD Lecturer Universitatea Nationala de Arte Bucuresti / Michael Brian Fields / Dante Ki Heung Park, CEO of ZEPIUS / Ho Jin Chae / Kye Soo Lee / Bit Na Han / Na Young Kim / Aran Kim

**Photograph**

Minje Kang

**Promotional materials and Art supplies**

GOEUN PRESS, DONGSUNG INDUSTRY, Dong-Ah Baekma Advertising Industry, YOUN & SU, NAMSUNG Publishing, Mice & People

**Publisher**

CEO,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Published by**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Publication Date**

2018. 9. 4.

**Editor**

Soomi Lim

**Translation**

Green Service  
Dr. Lee Choong Sup

**English Proofreading**

Michael Brian Fields

**Catalog Design**

Chung-Choon.kr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자에게 있으며, 저작자와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8창원조각비엔날레

All text and images/photographs published in  
this book are subject to the copyright of each  
copyright holder.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permission of the  
author and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Promoting Committe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  
All rights reserved.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8